

제56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23년 2월 3일(금)

장소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 224(제1 발표장), 219호(제2 발표장)

주제 : 국어연구와 의미론의 성과

주최 : 한말연구학회 · 한국연구재단 한국어 정밀감성분석 공동연구팀

개회식		제1 발표장 (224호)	사회: 정수현(호서대)
10:10	등록 및 접수		
10:30	개회사		김용경(경동대)
10:30 ~ 10:40			
제1부	문법론 분과 / 제1 발표장 (224호)	담화·화용론 분과 / 제2 발표장 (219호)	
	사회: 윤재연(호서대)	사회: 도재학(경기대)	
10:40 ~ 11:10	지식의 구조 관점에서 전공 글쓰기 교육 방안- 사범대학 국어사 음운론을 중심으로 - 발표: 김남미(홍익대) 토론: 최대희(제주대)	구어 자료에 나타난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와 사용 양상 발표: 송인성(상명대) 토론: 이성우(한림대)	
11:10 ~ 11:40	품사 통용의 유형별 탈범주화 양상 연구 발표: 허원영(제주대) 토론: 박현선(건국대)	비판적 언어학과 담화분석 발표: 김병건(건국대) 토론: 정수현(호서대)	
점심 : 11:40~13:00			
제2부	특강 / 제1 발표장 (224호)		사회: 김용경(경동대)
13:00 ~ 13:50	의미라고 불리는 것들 사이의 상관관계 검토		박철우(안양대)
휴식 : 13:50~14:00			
제3부	주제발표 / 제1 발표장 (224호)		사회: 김양진 (경희대)
14:00 ~ 14:30	음성학 연구와 의미론의 성과 발표: 신우봉(제주대)	토론: 하영우(전주대)	
14:30 ~ 15:00	형태론 연구와 의미론의 성과 발표: 정한데로(가천대)	토론: 오규환(동덕여대)	
15:00 ~ 15:30	통사론 연구에서 의미론의 역할 발표: 김민국(경상국립대)	토론: 정연주(홍익대)	
15:30 ~ 16:00	국어사에서 의미론의 위상 발표: 김현주(공주교대)	토론: 허인영(인하대)	
휴식 : 16:00~16:10			
제4부	글쓰기 분과 / 제1 발표장 (224호)	음성·음운론 분과 / 제2 발표장 (219호)	
	사회: 정대현(협성대)	사회: 박동근(대진대)	
16:10 ~ 16:40	대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에서 나타난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 양상 발표: 안신혜·최영미(경동대) 토론: 방영심(상명대)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변화 양상 발표: 한명숙(안양대) 토론: 김연희(대진대)	
16:40 ~ 17:10	외국인 대학생의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쓰기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양태영(성균관대) 토론: 박혜란(건국대)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 음성 언어의 실현 연구 발표: 박지은·신지영(고려대) 토론: 정희재(고려대)	
폐회			사회: 정수현(호서대)

차 례

【제1 분과 문법론】

김남미(홍익대)	지식의 구조 관점에서 전공 글쓰기 교육 방안-사범대학 국어사 음운론을 중심으로-	3
최대희(제주대)	토론	13
허원영(제주대)	품사 통용의 유형별 탈범주화 양상 연구	15
박현선(건국대)	토론	25

【제2 분과 담화·화용론】

송인성(상명대)	구어 자료에 나타난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와 사용 양상	29
이성우(한림대)	토론	49
김병건(건국대)	비판적 언어학과 담화분석	51
정수현(호서대)	토론	60

【특 강】

박철우(안양대)	의미라고 불리는 것들 사이의 상관관계 검토	63
----------	-------------------------	----

【제3 분과 주제발표】

신우봉(제주대)	음성학 연구와 의미론의 성과	81
하영우(전주대)	토론	95
정한대로(가천대)	형태론 연구와 의미론의 성과	97
오규환(동덕여대)	토론	119
김민국(경상국립대)	통사론 연구에서의 의미론의 역할	121
정연주(홍익대)	토론	136
김현주(공주교대)	국어사에서 의미론의 위상	138
허인영(인하대)	토론	156

【제4 분과 글쓰기】

안신혜·최영미(경동대)	대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에서 나타난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 양상	159
방영심(상명대)	토론	176
양태영(성균관대)	외국인 대학생의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쓰기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178
박혜란(건국대)	토론	196

【제5 분과 음성학·음운론】

한명숙(안양대)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변화 양상	199
김연희(대진대)	토론	220
박지은·신지영(고려대)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 음성 언어의 실현 연구	222
정희재(고려대)	토론	240

[제1 분과]

문법론

지식의 구조 관점에서 전공 글쓰기 교육 방안

- 사범대학 국어사 음운론을 중심으로 -

김남미(홍익대)

< 차례 >

1. 서론
 2. 지식의 구조
 3. 국어사 음운론 지식의 구조
 4. 국어사 지식의 구조와 전공 글쓰기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사범대 학습자들이 국어사 음운사를 지식의 구조 관점에서 내재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고 전공 글쓰기가 그 내재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지식의 구조’란 특정 학문연구자의 연구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 원리 및 핵심 아이디어의 관계망이다. 교육학자들은 특정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그 특정학문의 본질인 지식의 구조를 내재화하는 과정이며 그 지식의 구조를 준거로 사물이나 대상의 의미 있는 발견을 이끌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어사 지식의 구조이며, 특히 음운론적 관점에서의 지식의 구조 내재화 과정에 관심을 둔다. 이 논문에서 국어사 음운론의 구조에 초점화를 두는 이유는 현행 교육과정의 국어사 관련 부분에서 사용지식 중심, 의미기능 중심의 기본 틀이 지식의 구조 관점에서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고려할 지점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이 논문의 최초 문제 제기는 사범대 학습자들의 중간고사에 나타나는 특정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아래 예시 글은 “전기 중세국어 자음체계를 고대 국어와의 차이에 주목하여 논의하라”는 문제에 대한 학생 답변¹⁾의 첫머리이다.

(1) 고대국어의 자음체계에 대한 학습자 글

1) 이 논문에서 전공글쓰기의 하나로 분석된 글은 중간, 기말고사의 답안으로 제시된 학습자 글이다. 본격적 분석대상은 2022년 1학기에 산출된 것으로 학습자 글의 [2022_1_국3]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각괄호 뒤의 2022는 해당 연도를 1은 학습자별 부여 번호를 ‘국3’은 국어교육학과 3학년을 의미한다. 해당 수업은 국어교육학과, 교육학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학과 3학년의 경우는 ‘교3’로 표시하였다.

(ㄱ) 전기 중세국어에는 고대국어와 다르게 ① 된소리 발음이 존재하였다. 고대국어에서 ② 중국 전탁음은 된소리에 가까웠지만 평음으로 표기된 것에서 ① 고대국어에는 된소리가 없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022_1_국3]

(ㄴ) 전기 중세국어에는 고대 국어와 달리 된소리가 존재했다. 고대 국어 자음 체계에서, ② 한자의 전탁이 동음의 평음으로 반영됨을 미루어 보았을 때 ① 고대 국어시기에는 된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022_10_국3]

(ㄷ) ③ 중국어의 된소리는 동음에서 평음으로 받아들인다. ④ 이는 전기 중세국어에는 된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① 고대국어에서도 된소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2022_2_교4]

언어의 본질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1)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술 내용의 정오(正誤)²⁾만이 아니다. 표면적 오류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1ㄷ) ③, ④의 사실 관계 오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에서 ①에는 음성과 음운, 음운체계와 음운 목록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점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학자들이든 해당 학과의 학습자들이든 간에 문법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자 중요 원리들이 되어야 한다. 국어사 음운론이 음운론이라는 학문답게 내재화되었다면 ‘된소리’나 ‘된소리 발음’이라는 기술이 음성과 음운, 기저와 표면의 차원으로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고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정교한 개념어의 사용법을 익혀야 했다.

국어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인 사범대 학생들은 세 가지 특성의 학습자 위상을 가진다. 첫째, 학문적 담화공동체의 규율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지식의 구조를 내재화하는 전공인, 둘째, 지식의 구조를 내재화 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능동적으로 수용, 변형, 창출하는 역동적 주체로서의 학습자, 셋째, 교육 문법적 관점에서 교실 현장에서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주체로서의 교사가 그것이다. 사범대학의 학습자들에게 국어 지식 구조의 내재화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들 학습자 특성에 준하였을 때 (1)에 반영된 문제를 양산한 교육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기저의 구조로서 오히려 발견하기 어려운 학문적 본질³⁾을 발견하는 활동의 중요성 및 방법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1)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식의 구조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다수의 학습자가 이러한 기술 방식에 익숙해 있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그리고 지식의 구조를 내재화하는 과정 및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공글쓰기의 도구적 기능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식의 구조 관점에서 국어 문법, 더 구체적으로 국어사라는 학문에 접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규명할 것이다. 둘째, 사범대학교 학습자들이 국어사 지식 구조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어사 지식의 구조에 입각한 교육 방안이 현재 교육과정 안의 국어사 교육의 내의 ‘변화, 역사성’과 ‘현대국어와의 연관성’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정오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1ㄱ)과 (1㉔)는 ‘된소리 계열이 존재하였다면 동음에 된소리로 반영되어야 할 고대 전탁음 계열의 한자음이 평음으로 반영된 것에서’로 (1ㄷ)의 ③은 ‘고대 중국어의 전탁음’으로 (1ㄷ)의 ④는 ‘고대 국어에 된소리 계열이 존재하지 않았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 The curriculum of a subject should be determined by the most fundamental understanding that can be achieved of the underlying principles that give structure to that subject(Brunner 1960:31, 밑줄은 인용자가 표시함).

2. 지식의 구조

교육 문법적 관점에서 국어과 교육에서 ‘지식’을 주요 문제로 다룬 연구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논의로 대별할 수 있다. 국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 규범과 적용, 국어에 대한 태도를 국어지식으로 본 김광해(1997)르 필두로 민현식(2002), 주세형(2005, 2006), 김은성(2006), 이관규(2006) 등은 국어의 구조와 사용에 관한 지식, 문법 능력으로서의 지식 능력, 사용 능력, 태도 능력, 지식과 활동의 긴밀성을 강조해 왔다.

이 논문의 주요 개념인 ‘지식의 구조(structure of knowledge)’의 선구자로 알려지는 Bruner(1960)는 ‘지식의 구조’를 각 학문의 기본개념, 일반적 원리, 핵심적 아이디어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Bruner(1960:23-25)는 지식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전체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구조화된 패턴이 세부적 위상을 규명하며,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이⁴⁾를 용이하게 한다며 그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Anderson(1981)에서는 지식 구조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여러 가정들을 엮는 데 필요한 연합된 네트워크라고 보며, Squiers & Adler(1995)에서는 ‘지식의 구조’는 특정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직접 경험이나 학습으로 얻어진 분류, 규칙 기제들, 기술 절차 등이 종합된 사실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지식 구조는 지식들이 기억 내에 조직되고 구조화됨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⁵⁾

지식의 구조에 대한 교육철학적 접근을 보여준 국내 연구로는 박재문(1998), 이흥우(1989), 강현석(2004, 2009) 등을 들 수 있다. 박재문(1998:27-43)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구조주의와 관련하여 살피면서 구조의 속성을 ① 이면에서 조정하는 규칙이나 원리, ②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나는 불변의 원형, ③ 구성 요소들은 전체 구조에 비추어 의미를 지님, ④ 현상을 보는 개념적 도구라고 정리한 바 있다. 강현석(2009)에서는 구조의 본질은 해석학적 사고, 경험의 인식론, 구성주의적 사고로 재해석되면서 드러난다고 보면서 지식은 경험의 규칙성에 의미와 구조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지식의 구조는 어떤 현상에 질서를 부여해주는 개념적 틀로 이해하였다.

지식의 구조에 대한 교육 문법적 관점의 연구로는 남가영(2007), 박종미(2015), 고경재(2018) 등을 들 수 있다. 남가영(2007:368)에서는 ‘지식의 구조’가 해당 학문 분야 학자들의 중핵적 학문 활동 구조로서 핵심적 개념과 아이디어, 방법론 등을 포함한 것이며, 문법 연구자의 문법 연구 경험은, 문법 교과에서 지식의 구조를 체계화하고자 할 때 주요한 참조 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종미(2015:45)⁶⁾는 ‘지식의 구조’란 교과의 근본적인 개념, 원리, 이론

4) 강현석(2012:130)에서는 Bruner(1960)의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은 “지식의 구조가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 내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이용할 때 학습자로 하여금 주어진 사실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게”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5) ‘지식 구조(knowledge structure)’라는 용어는 최근 심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교차점에 놓인 인지과학의 핵심 개념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능형 기계(AI)에 의해 작동될 구조의 경계 개념으로 구상되었다(Schank & Abelson, 1977). 교육에서 지식 구조는 도메인의 개념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된다(Jonassen & Wang, 1993). 지식의 구조(structure of knowledge)와 ‘지식 구조(knowledge structure)’라는 개념이 차별성에 기인하여 명확히 구분되어 쓰인다고보다는 학문 영역별 용어 사용의 차이나 연구자의 개별 용어 사용 특성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개념을 지시하는 것으로 본다.

6) 박종미(2015:50)에서는 개별 지식은 구조라는 하나의 전체를 통해 존재가 가능해지며, 학습 내용의 전이를 가능성을 높이며, 지식과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틀로서

(big idea)를 중심으로 세부 교육 내용들이 조직되어 있는 교육 내용 체계라고 정의한 바 있다. 고경재(2018)에서는 국어 지식을 ‘국어 구조에 관한 지식’과 ‘국어 사용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하고 구조에 관한 지식 자체에도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 내용의 조직이나 교육 방법에서 ‘지식의 구조’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많지만 정작 ‘지식의 구조’가 지시하는 외연이나 개념 정의는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기존 연구들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개념의 공통 지점은 ‘해당 학문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에 동원되는 기본 개념, 원리, 핵심적 아이디어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개념 원리 아이디어들이 위계를 가진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연구 결과로서의 지식만이 아니라 연구 과정상의 사고나 방법을 포함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지식의 구조, 한국어 문법의 지식의 구조 역시 한국어 연구자들이 연구의 핵심으로 삼는 기본 개념, 원리 핵심적 아이디어들의 관계망이며, 이 관계망이 교육되어야 할 지식의 구조가 된다.

3. 국어사 음운론 지식의 구조

3.1. 국어 음운론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가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망이며, 사물이나 현상 저변의 원리나 법칙을 볼 수 있는 수단이자 기저를 이루는 일반 원리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식의 구조를 논의하는 학자들에게 어느 정도 공유된 원칙이다. 하지만, 특정 학문을 대상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히면 그 외연이나 범주, 활용 방식 등에 접근할 때는 복잡성이 생긴다. 국어(문법)의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흔히 국어 문법의 구조라고 말할 때, 그 구조는 한국어를 구성하는 언어요소들 간의 관계가 이루는 국어의 내적 체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설명한 교육부(2015)에는 <언어와매체>에 ‘국어의 구조’라는 용어가 4번 사용되었는데 ‘음운, 단어, 문장, 담화’를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국어자료’의 대응항으로 제시되어 있다.⁷⁾ 이러한 용법은 남가영(2007)에서 언급한 지식의 구조의 일면인 형식, 구조주의적 성과로서의 구조나 박종미(2015)⁸⁾에서 규범, 맥락, 사고, 사회 문화와 대응항을 이루는 지식의 구조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의 구조’가 이러한 언어 내적 구조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어과 문법 교육에서 탐구의 영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식의 구조의 내재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탐구학습을 통해 지식의 변형과 생성을 이끌어내려는 데 있다. 강현석

‘지식의 구조’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7) 교육부(2015)의 ‘국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은 음운, 단어, 문장, 담화와 같은 국어의 구조와 시대, 사회,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탐구하고 이를 학습자의 국어생활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국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나 다양한 국어 갈래에 대한 이해보다는 실제 국어 자료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데에 활용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8) 문법 교육을 통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5가지 국어의 특성(박종미, 2015:61)

- ㄱ. 국어의 규범 - 국어는 준수해야 할 규범성을 가진다.
- ㄴ. 국어의 구조 - 국어는 계열적이며 통합적인 구조이다.
- ㄷ. 국어와 맥락 - 국어는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를 생성해 나가는 선택 체계이다.
- ㄹ. 국어와 사고 - 국어는 우리의 보편적·경험적 인지를 반영한다.
- ㅁ. 국어와 사회·문화 - 국어는 우리의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한다.

(2009:16)에서 보였듯이 구조는 완결된 개념이 아니며 탐구활동의 역동성은 구조의 지속적인 변화, 수정, 진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이 된다. 남가영(2007:368)이 '지식의 구조'를 형식주의 구조주의적 성과로서의 언어 단위별, 층위별 언어의 분절, 계열관계 통합관계에 의한 범주화 및 기술⁹⁾에 더하여 의미 기능적인 지식의 구조와 통합한 언어 화자의 언어적 선택 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한 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음운론 지식의 구조 역시 지식의 언어의 내적 구조에 해당하는 객관적 틀의 측면과 언어 화자의 탐구 활동을 통해 변형과 생성을 허용해내는 외적 구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최근 교육 문법적 관점의 연구 동향에서 학습자들이 '지식의 구조'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식 내재화'를 위한 발견의 과정을 강조하는 것¹¹⁾은 내적 구조와 외적 구조 간의 통합을 견인하려는 능동적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식의 구조'에 대한 관점을 한국어 음운론의 구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음운론 지식의 내적 구조는 '음운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 원리들의 관계이며, 음운체계와 음운현상 간의 관계, 음운현상, 음운현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규칙이나 기본 원리들의 위계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음운론이라는 학문의 핵심 개념과 원리들로 음운론의 내적 구조를 그대로 기술한다면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 구조는 외적 탐구와의 관계에 주목할 때 지나치게 복잡하다. 지식의 구조는 내적 구조를 사고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표면 언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적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기본 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상위범주화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보인 개념들간에도 위계가 존재하며 그 위계를 읽어낼 수 있는 과정이나 방법 또한 음운론이라는 학문의 지식의 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음운론은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의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 학문을 본질적이게 만드는 것은 음운체계와 음운현상 간의 관계망이며 이 관계망이 음운론 지식의 핵심 구조다.

국어음운론의 지식의 구조를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이라는 핵심 범주 간의 관계망으로 간결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 학문을 배우는 학습자들이 이 관계망을 탐구활동의 핵심 도구로 삼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토대로 이 관계망이 탐구활동의 핵심 도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해 보자.

(2) 2015 개정 교육과정 <언어와매체> 음운론 관련 성취기준

[언매02-05] ①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②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③탐구한다.

(2)에서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의 구조의 측면은 음운론자들의 연구 방법이다. 음운론자들은 실제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음운체계나 변동을 연구한다. 표면적으로 음운론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문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9) 남가영(2007)에서는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적 성과들을 재구성, 재의미화하면서 '지식의 구조'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는데 구조주의가 문법 범주의 확정, 실현 형식의 체계화한 성과와 의미, 기능주의적 성과를 통합한 '기능적으로 구조화된 언어학'의 지식의 구조를 즉 경험 구조는 의미를 중심으로 그 실현 형식을 범주화하고 의미에 입각해 형태를 선택하는 언어 화자의 언어적 선택 과정 그 자체라고 규정할 바 있다.

10) 이는 강현석(2009:11)에서 지식의 구조를 인식 주체와 독립적인 객관적 실재라기보다 인식주체에 의해 발견되고 구성되어 새롭게 진화하는 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맥락과도 닿아 있다.

11) 국어과 문법 교육에서 탐구활동의 중요성 및 교육원리에 대해 논의한 연구로는 주세형(2005, 2008), 남가영(2008), 제민경(2015), 이관희(2015), 조진수 외(2017), 오현아(2017), 최소영(201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렇지 않다. 여기서 ①의 실제 국어 생활에서 만나는 자료는 음운론자들이 주요 자료로 삼는 자료가 아니다. 교육 문법적 접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음운론자들이 다루는 음성적 정밀 전사자료로부터 음운 설정의 수순을 거쳐 음운체계와 변동을 탐구한다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①의 기술 안에는 이미 음운체계가 전제되어 있다.

문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음운체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말은 교육 문법적 관점에 한정된 일은 아니다. 음운현상의 원리나 기제는 음운체계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음운현상을 관통하는 기저형과 표면형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2)의 ‘실제 국어생활’이라는 문면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음운으로 인식된 표면형이다. 국어에서 음운으로 인식되지 않은 ‘유성음’이나 ‘권설음’이나 ‘구개음 ㄴ’과 같은 소리들은 아예 인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당연하다. 이러한 소리들을 교육과정 안의 문법에서 쟁점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실제 국어생활에서 만나는 언어가 이미 ‘음운체계’에 기반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학습자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음운을 인식한다는 점은 음운론이 본질적으로 갖는 학문적 정체성이다. 문면에는 실제자료로부터 음운체계나 변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음운체계나 변동이 반영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탐구과정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미 여기서 서론에서 제기하였던 문제를 풀어 보기로 하자. 편의상 (1)‘로 다시 옮겨 보기로 한다.

(1)‘ 고대국어의 자음체계에 대한 학습자 글

(ㄱ) 전기 중세국어에는 고대국어와 다르게 ① 된소리 발음이 존재하였다. 고대국어에서 ② 중국 전탁음은 된소리에 가까웠지만 평음으로 표기된 것에서 ① 고대국어에는 된소리가 없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022_1_국3]

(ㄴ) 전기 중세국어에는 고대 국어와 달리 된소리가 존재했다. 고대 국어 자음 체계에서, ② 한자의 전탁이 동음의 평음으로 반영됨을 미루어 보았을 때 ① 고대 국어시기에는 된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022_10_국3]

(1)에서 ①로 표시된 기술이 학습자들의 글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는 것은 음운론의 본질을 꿰뚫는 음성과 음운의 관계, 실제와 인식의 관계에 대한 지점이 교육과정상의 조직에서 또는 생략되었기에 생기는 일일 수 있다. 음운론의 지식의 구조가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의 관계망이라고 정의하면서 ‘관계망’을 강조하는 것은 음운론 지식들이나 연구 방법 안에 관여하는 관계를 제대로 읽는 것까지를 탐구 활동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관계망에 대한 인식이 학습자들의 탐구 활동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보다 학문에 근접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3.2. 국어사 음운론 지식의 구조

국어학자가 연구하는 ‘국어사’의 연구 내용이나 방법과 학습자가 학습하는 내용이나 방법 사이의 거리가 심하게 벌어진다면, 그 학습자는 ‘국어사’가 아닌 것을 배운 것이고 교사는 국어사를 잘못 가르친 것이 된다. 사범대학교 학습자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범대 학습자가 배우는 국어사 연구 내용이나 방법과 학습자가 수용한 것 둘 모두 국어사 지식의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¹²⁾ 국어사 음운론의 지식의 구조 역시 마찬가지다. 지식의 구조가 대상 학

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원리들의 관계망이고 학자들의 학술적 활동 과정이나 그 결과를 지배하는 거시적 틀이라면 학습자들이 국어사를 배우는 것 역시 그 지식의 구조에 준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일단 국어사 음운론의 지식의 구조도 음운론의 하위분야이므로 이 역시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의 관계망이라는 지식의 구조에 주목해야 함은 분명하다.

문제는 공시적 음운론에는 실제 음성에 대한 인식틀인 음운체계가 모여 화자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통시적 음운론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¹³⁾ 이러한 어려움은 교육 문법 영역에서 지식의 구조적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국어사 관련 성취기준에서 이러한 난점이 반영되어 있다.¹⁴⁾

(3)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국어사 관련 성취기준¹⁵⁾

(가) 성취기준 - [10국04-01]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안다.

(나) 해설 - 이 성취기준은 ①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②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되, ③ 한글 창제 후의 중세 국어 자료와 현대 국어 자료를 비교하며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주도록 한다.

(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자료를 사용하며, 시기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로 한정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훈민정음 언해본처럼 널리 알려진 자료를 활용하되, ④ 현대국어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1)에 통시적 차원과 공시적 차원의 관점이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자. ①은 통시적 차원의 변화이며, ②는 공시적 차원의 중세국어, 현대국어이다. ③은 ②의 공시적 구조에 대한 비교를 통해 역사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말은 그대로 ④에 반영되었다.

국어사 지식의 구조에 입각하였을 때 (1)에는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어려움이 관여한다. 이

12) 이 내용은 박천환(2011:5)에서 보인 ‘물리학 연구’와 ‘물리학 교육’ 간의 관계를 ‘국어사’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박천환(2011)에서는 Bruner(1971)의 학문 위계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영역과 교육 현장 간의 괴리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물리학자가 공부하는 물리학과 초등학교 학생이 공부하는 물리학 사이에 간극을 예로 든 바 있다. 이들이 공부하는 물리학은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은 모두 물리학의 ‘지식의 구조’를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3) 이런 문제는 단지 음운론만이 아니라 형태론, 통사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지식의 구조’적 측면에서 학문을 학문답게 만드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여 화자의 언어의 직관이 언어 자료 탐구 과정의 실증성이나 과학성의 준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자의 방법론은 학습자들의 탐구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관점이나 도구가 될 수 있다.

14) 최소영(2019:160-161)은 (1)의 성취기준에 대하여 변화하는 실체로서의 국어사의 범위를 ‘현대국어’까지 포괄한 점과 ‘역사성’ 강조한 점에 주목하면서 그 간의 국어사 교육이 시대 구분에 갇혀 본질적 지점인 ‘언어 변화’라는 본질적 지점을 놓칠 수 있었던 지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15) 언어와매체에 반영된 국어사 관련 성취기준은 고대국어와 근대국어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었을 뿐 (1)이 보이는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아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에서 보인 국어사 관련 성취기준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성취기준 - [언매02-12]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 성취기준 해설 - 이 성취기준은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에 대한 이해 수준을 심화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차차 표기 자료로 남아 있는 고대 국어, 한글 창제 이후의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 중에서 내용이나 표현이 쉬운 자료를 활용하되, 상세한 국어사 지식의 학습보다는 개략적인 변화를 살피는 데에 중점을 둔다.

•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는 학습 내용을 지도할 때에는 국어사적 지식을 외우기보다는 국어 변화의 개략적인 모습을 살피는 데에 초점을 둔다.

어려움은 국어사를 국어사답게 교육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무엇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반영하는 데서 발생한다. 앞서 본 국어사 음운론 지식의 구조에 입각해 보면 변화하는 것은 이 학문의 핵심 개념의 관계망인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이다. 학습자가 그 구조를 발견하기 위하여 탐구를 수행할 때, 현대국어의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은 국어사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내재화된 언어 능력이라는 준거가 존재하지만, 현대국어 이전의 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①과 ③에 놓인 ‘국어 자료’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관여한다. 국어사의 자료는 ‘문헌 자료’¹⁶⁾의 표기다. 아무리 널리 알려진 자료라 할지라도 문헌 자료의 표기는 음운론의 음운체계나 음운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복잡한 음운사의 지식 구조의 특성을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필요한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의 관계망이라는 음운론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고 배우는 (혹은 발견하는) 일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국어 음운론의 구조를 논의할 때 학습자들이 실제 인식하는 것은 ‘말소리’ 자체가 아닌 음운체계가 관할하는 음소라는 점을 학습자와 공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3)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연구자들은 문헌자료에 반영된 음성이나 음운을 추적하고 그 시대의 음운체계를 구성한다. 그것이 국어사 연구자들의 기본적 방법론이며, 문자로부터 합리적 실증적으로 추정된 음운체계를 기반으로 언어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관계망이 된다. 연구자들이 당연히 전제하는 이러한 음운체계의 설정이 국어사 음운론을 음운사답게 하는 틀이다.

국어 음운사 지식의 구조가 음운체계(또 음운현상)의 변화라는 학문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학습자의 내재화는 현재 진행 중인 음운체계 상의 변화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음운사 연구자에게는 너무도 진행 중인 변화에 대한 지식의 구조의 특성을 배우게 됨으로써 음운체계 역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구조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현실에서 혼란을 겪는 ‘ㄱ:ㄱ’, ‘ㄴ:ㄴ’, ‘ㅈ, ㅉ, ㅊ’를 둘러싼 말소리와 표기 등의 혼란이 오히려 언어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할 수 있게 된다.¹⁷⁾

여기서 음운체계의 관계망 변화라는 음운사 지식의 구조 중심의 사고가 중요하다는 점은 학습자 사고의 개방성을 이끌어내는 데도 중요하다. 먼저, 앞서 보았던 고대국어에 ‘된소리 계열’이 존재하였는가의 여부는 된소리 계열이 존재 유무보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이 관여한다. 현대국어 자음체계의 가장 대표적 특질로 여겨지는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관념은 다른 언어의 음운체계와 우리 언어의 음운체계의 비교라는 거시적 관점이 들었다. 이러한 관점은 ‘우연한 공백’이라는 구조주의의 일반화된 용어와도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인간의 구강구조가 허용하는 한 우리 음운체계의 빈칸들은 체계 변화의 방향성들 중 하나가 된다.¹⁸⁾

언어사적 성과인 ‘유성마찰음 계열’의 발견이나 ‘ㄱ’, 하향 이중모음들의 단모음화 역시 다

16) 여기서 말하는 국어 자료에는 문헌 자료, 방언 자료, 가능하다면 계통론적 증거들, 내적 재구의 결과도 포함될 것이다. (1)은 10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법적 관점에 의한 접근이므로 이들에 대한 명시적 구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국어과 관련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이들 내용은 학술적 방법론으로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7) 언어 규범의 강요는 중요하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태도이다. 그러나, 그 규범적으로 어긋나는 언어형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낮잡아 보는 장치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규범적으로 어긋나는 언어형식이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갖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 그것인 진행 중인 변화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음운체계의 변화 원리에 대한 당연한 수용이 규범언어에 경직되어 있는 사고를 개방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18) 물론 음운체계의 관계망 내의 음운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가 그 변화의 방향에 관여하므로 모든 빈칸에 동등한 가능성이 놓이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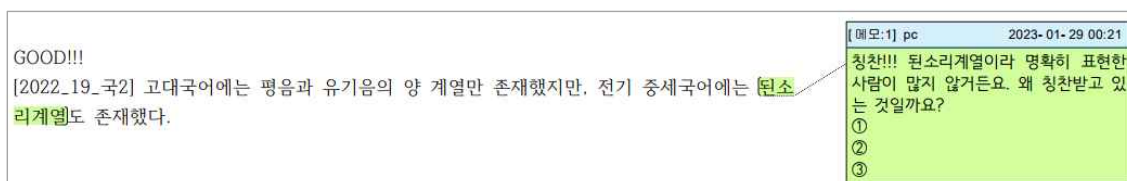
큰 언어의 음운체계나 시기가 다른 음운체계들 간의 비교라는 큰틀에서 음운체계에서 발견되는 ‘우연한 빈칸’과 ‘채워진 칸들’에 대한 탐구의 결과물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현대의 공시적 음운론 지식의 구조에서든 통시적 음운론 지식의 구조에서든 일관되게 음운체계, 음운현상들의 관계망을 주요 요인이 되며, 이 틀이 음운론적 발견을 위한 중요한 사고의 준거가 된다는 점이 학습자들에게 내재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주세형(2005:338-339)은 국어사 교육 내용의 가치가 ‘현재’에서 탐색되어야 하고 ‘과거 언어를 학습할 가치’는 학습자의 학습 결과가 현재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탐색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어 음운론의 지식의 구조의 본질을 구성하는 방식 그대로 국어 음운사의 지식의 구조가 해석된다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과거의 언어의 변화를 배우는 일과 현대의 언어를 배우는 일에 관통하는 거시적 틀이 일관된다는 측면에서 ‘현재적 유용성’을 가지며, 체계의 비교는 과거의 음운체계와 현재의 음운체계의 연속성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4. 국어사 지식 구조 관점에서 전공 글쓰기 교육

앞서 논의한 국어 음운론이나 국어사 음운론의 지식의 구조를 관통하는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의 관계망은 본질적이기에 오히려 내재화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우리가 (1), (2), (3)의 자료를 통해 발견한 것은 언어를 관통하는 이러한 본질적 구조가 갖는 내재화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범대학생들은 이렇게 어려운 지식의 구조를 내재화하는 학습자인 동시에 이를 교수학적으로 변화시켜 교육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를 전달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사범대 학생들이 음운사적 지식의 구조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다.

지식의 구조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의 관계망에 대한 자신의 현재 사고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현재 사고를 대상화하여 보다 본질적 학문의 특성을 발견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서 글쓰기가 유용한 학습의 도구라는 관점이 도움을 준다. 전공글쓰기는 학습자가 특정 학문의 지식의 구조를 내재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다.



[그림1] 학습자 전공글쓰기에 대한 피드백 예시1

[그림1]은 학습자의 글에서 피드백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교수는 학습자가 음운체계라는 음운사 지식의 구조의 본질에 입각한 서술에 대해 칭찬하고 칭찬받고 있는 이유를 서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1]의 학습자는 ①, ②, ③의 빈칸에 대해 사고하면서 음운체계에 기반한 사고와 이를 메타언어로 기술한 점 등을 확인하고 학문적 본질을 보다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2022_11_국3] [전기 중세국어의 자음체계의 특징으로 된소리계열이 등장한 것, 음절말 자음의 내파화가 나타난 것, 어두자음군이 형성되지 않은 것, 'ㄷ'과 'ㄴ'이 등장한 것이다.] 여기서 고대국어와의 차이는 된소리의 등장, 음절말자음의 내파화, 유성마찰음의 유무 정도가 있을 것이다. [고대국어에는 된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중국 중고음 전탁이 동음의 된소리가 아닌 평음에 반영 된 것이다. 만약 된소리가 고대에 존재했다면 전탁이 된소리에 반영됐을 것이다. 둘째, 한자차용어표기에도 된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절말 자음의 내파화는 고대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근거로 'ㅅ, ㅈ, ㅊ'가 모두 음절의 끝에서 따로 소리가 났다. 전기 중세국어에 가서 음절말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ㅎ'로 고정했고 'ㅅ, ㅈ'은 중화돼 구분없이 한 단어로 표기했지만, 'ㅅ, ㅈ' 구분돼 사용됐다는 것이 특징이며 'ㄷ'과 'ㅎ'도 발음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유성마찰음인] 고대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인데 전기중세국어에 가서는 'ㄷ'이 계림유사에 등장하고 'ㄴ'도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발음됐다는 증거가 남아있다.

[메모:1] master	2023-01-29 01:06
이 부분에서 칭찬할 점을 2가지 이상 발견해 보세요.	
①	
②	
③	
이 부분에서 이질적인 것을 2가지 이상 발견해 보세요.	
①	
②	
이질적인 것들의 상위개념을 적어주세요.	
①	
②	
[메모:2] master	2023-01-29 01:07
[메모1]에서 칭찬받은 내용을 고려해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해 보세요.	
=>	
[메모:3] master	2023-01-29 01:09
[메모2]와 같은 활동을 수행해 보세요.	
=>	

[그림2] 학습자 전공글쓰기에 대한 피드백 예시2

[그림2] 역시 지식의 구조화를 정교화시키기 위한 자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수의 피드백으로 “전기 중세 국어 자음 체계를 고대 국어와의 차이에 주목하여 논의하라”는 문제에 대한 학습자 답변 전체의 피드백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글을 대상 화함으로써 ‘자음체계’와 ‘음운현상’이라는 상위 구조로 언어 항목들을 상위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교수가 ‘자음체계와 음운현상의 관계망’이라는 지식의 구조라는 틀에서 제시한 피드백을 순환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전공에 대해 글을 쓰는 일은 자신이 어떤 해석들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자, 더 나은 사고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교수가 전공글쓰기를 피드백한다는 것의 의미는 학습자들이 서술한 내용의 정오를 판단하려 한다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이전 글의 대상을 통해 자기 인식의 틀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전공 글쓰기를 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며, 학문의 본질에 입각하여 더 높은 사고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학습자들의 지식의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정교화해 가는 과정이자 지식의 구조를 내재화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5. 결론(생략)

■ 참고문헌 (생략)

■ 토 론

“지식의 구조 관점에서 전공 글쓰기 교육 방안- 사범대학 국어사 음운론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최대희(제주대)

이 연구는 국어 음운사 교육을 지식의 구조 관점에서 내재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고, 전공 글쓰기를 통해 내재화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음운론과 관련된 지식의 구조가 덜 내재화 되어 개념과 원리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를 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토론자도 수업 중 발표나, 시험 답안 작성에서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국어사 교육이 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글을 읽었는데, 선생님의 본질적인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1) 지식의 구조

- 강현석(2009)를 인용하여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은 완결된 개념이 아니며, 탐구활동의 역동성이 구조의 계속적인 변화, 수정, 진화를 이끄는 동인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음운론 지식의 구조 역시 지식의 언어의 내적 구조에 해당하는 객관적 틀의 측면과 언어 화자의 탐구활동을 통해 변형과 생성을 허용해내는 외적 구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식의 구조’ 개념인데, ‘지식의 구조’라는 글자와 의미만을 고려한다면 ‘지식의 완결된 형태’라고 인식되고, ‘내재화’라는 단어가 결합하면서, 역동성의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에 대해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국어음운론 지식의 구조는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의 관계망이고, 국어사음운론의 지식의 구조는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의 관계망의 변화다라고 논의하면서, 공시적 음운론은 실제 음성에 대한 인식틀인 음운 체계가 모여 화자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통시적 음운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어사음운론의 지식의 구조는 학습자 스스로 지식 구조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어사 연구자의 지식의 구조를 교수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논의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식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탐구하기보다는 암기식으로 내재화하기 때문에, 실제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듯합니다. 혹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지식 구조의 내재화 도구(방법)

- 선생님께서는 지식 구조의 내재화 도구로서, 전공 글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의에서 국어 음운론이나 국어사 음운론의 지식의 구조를 관통하는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의 관계망은 본질적이기에 오히려 내재화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글쓰기의 사례는 본질적인 개념, 원리 등의 지식 구조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수정하여 정확한 지식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내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이 방법이 수업 시간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완을 하는지?’, ‘이 방법 이외에 지식 구조를 내재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입니다.
- 선생님께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음운론 성취기준을 제시하면서,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음운 체계의 전제, 실제 자료가 의미하는 것 등이 교육 과정상의 조직에서 생략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글에서 보이는 지식의 구조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국어사 수업에서는 플립러닝에서 사전학습이나, PBL(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교수자들은 학습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범대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타 단과 대학 학생들보다 우수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능력도 우수할 것이라라는 생각이 학습자들의 지식 구조의 내재화에 덜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논문을 읽을 기회를 주신 김남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품사 통용의 유형별 탈범주화 양상 연구

허원영(제주대)

< 차 례 >

1. 머리말
2. 품사 통용과 탈범주화
3. 품사 통용의 유형별 탈범주화 양상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이 연구는 품사 통용에서 확인되는 탈범주화의 양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품사 통용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이다.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통시적 변화에 놓인 단어의 탈범주화 때문이다.¹⁾ 이때 통시적 변화는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통칭하는 것이다. 문법화는 덜 문법적인 것이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며, 역문법화는 그 반대 방향의 변화이다. 또한 탈범주화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주의 이동이다.

탈범주화가 통시적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주의 이동이라면, 이동 전후의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법화는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의 변화이므로, 이때의 탈범주화는 덜 문법적인 범주에서 더 문법적인 범주로의 이동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문법화에서의 탈범주화는 더 문법적인 범주에서 덜 문법적인 범주로의 이동이다. 즉 문법화든 역문법화든 탈범주화될 때 범주 사이에 위계가 생긴다. 나아가 품사 통용이 통시적 변화 과정에 놓인 단어의 탈범주화에 의한 것이라면, 한 단어에 통용되는 품사들 사이의 위계도 따질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에 따라 품사 통용에서 확인되는 탈범주화의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한 단어에 통용되는 품사들 사이의 위계를 따지려 한다.

1) 허원영(2022: 153)에서는 품사 통용의 원인을 문법화에 놓인 단어의 탈범주화로 본다. 다만 여기서는 역문법화의 가능성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말하는 통시적 변화란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다.

2. 품사 통용과 탈범주화

품사 통용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이다.²⁾ 현재 사전 기술에서는 품사 통용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단어들을 품사 통용어로 처리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총 17개의 품사 통용 유형이 확인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되는 품사 통용의 유형

- ①명사-부사
- ②명사-관형사
- ③명사-감탄사
- ④명사-조사
- ⑤동사-형용사
- ⑥대명사-부사
- ⑦대명사-관형사
- ⑧대명사-감탄사
- ⑨수사-명사
- ⑩수사-관형사
- ⑪부사-감탄사
- ⑫부사-조사
- ⑬관형사-감탄사
- ⑭명사-부사-관형사
- ⑮명사-부사-감탄사
- ⑯수사-관형사-명사
- ⑰수사-부사-관형사-명사

품사 통용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품사 분류상의 문제를 그 원인으로 삼는다. 다만 품사 분류를 품사 통용의 원인으로 볼 경우 품사 통용어가 아닌 단어들을 설명할 수 없다. 품사 통용어는 전체 단어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품사 통용의 원인을 통시적 변화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다.³⁾ 당연하게도 하나의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통용되는 것은 그 단어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허원영(2022)에서는 품사 통용의 원인을 “문법화에 놓인 단어의 탈범주화”로 해석한다. 동시에 문법화로 모든 품사 통용의 사례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품사 통용의 특이한 몇 사례들에서는 역문법화가 확인된다고 언급한다. 즉 문법화 혹은 역문법화되는 과정에 놓인 단어가 탈범주화할 때 품사 통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품사 통용을 통시적 변화로 설명하려면, 한 단어에 통용되는 품사들 사이의 문법적인 위계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허원영

2) 품사 통용은 영문법에서 전환(conversion)으로, 최현배(1937)에서 품사 전성으로, 송철의(1992)에서 영 파생으로 설명된다. 다만 국어학에서는 품사 통용이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품사 통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남기심·고영근(2019: 185), 고영근·구본관(2018: 54), 구본관(2010: 193)에서도 통시적 변화를 품사 통용의 한 가지 원인으로 제시한다. 다만 이는 ‘명조류’, ‘조부류’ 등의 유형만을 제한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 허원영(2022: 145)에서는 품사 통용의 대부분이 통시적 변화로써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2022: 150-151)에서는 국어 품사에 대한 문법성의 정도를 다음의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

(2) 국어 품사에 대한 문법성의 정도 구분 기준

- ①의미적으로 내용어에 가까운 것은 어휘적 범주, 기능어에 가까운 것은 문법적 범주로 본다.
- ②형태·통사적으로 제약을 덜 받는 것은 어휘적 범주, 제약을 더 받는 것은 문법적 범주로 본다.

이때 형태·통사적 제약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세부 기준을 추가로 둔다.

(3) 형태·통사적 제약에 대한 세부 기준

- ①피수식의 여부: 다른 품사로부터 수식을 받는 것이 자유로울수록 어휘적 범주, 다른 품사로부터 수식을 받지 못하는 것일수록 문법적 범주에 가깝다.
- ②문법소의 결합 여부: 문법소가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일수록 어휘적 범주, 문법소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수록 문법적 범주에 가깝다.
- ③문장에서의 위치: 문장에서의 위치가 자유로울수록 어휘적 범주, 문장에서의 위치가 제한적일수록 문법적 범주에 가깝다.

위의 기준을 따르면 명사는 의미적으로 내용어이며, 형태·통사적으로 가장 자유롭다. 대명사와 수사는 의미적으로 내용어에 가까우며, 문법소의 결합이나 문장에서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관형사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부사는 의미적으로 내용어와 기능어의 중간쯤이며, 문장에서는 자유롭게 위치하지만, 피수식과 문법소의 결합은 제한적이다. 관형사는 의미적으로 내용어와 기능어의 중간쯤이며, 피수식과 문법소의 결합 그리고 문장에서의 위치 모두 제한적이다. 조사는 의미적으로 기능어이며, 형태·통사적으로 가장 제약을 받는 품사이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국어 품사에 대한 문법성의 정도를 다음의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1> 문법성의 정도에 따른 품사 구분⁴⁾

문법성의 정도	1	2	3	4	5
품사	명사	대명사/수사	부사	관형사	조사

<표 1>에서 동사와 형용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위의 구분이 온전히 품사 통용의 이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가변어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불변어이다. 품사 통용은 ‘한 단어’를 조건으로 하는데, ‘한 단어’란 동일한 형태를 전제한다. 따라서 가변어와 불변어 사이에는 품사 통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동사와 형용사는 서로 통용하기도 한다. 다만 둘 중 어느 것이 더 문법적인지를 따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동사와 형용사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명사와 같이 1단계에 놓일 듯하다.

또한 여기에는 감탄사도 포함되지 않는다. 감탄사가 배제되는 이유는 감탄사의 특수성 때문이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위치한다. <표 1>에서 제시된 문법성의 정도는 품사들 사이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분한 것인데, 감탄사는 이러한 상대적 비

4) 표시된 숫자가 높을수록 더 문법적인 품사이다. 다만 이때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다. 예컨대 관형사가 4단계에 놓였다고 하여 이를 문법적인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관형사가 4단계에 놓인 이유는 부사보다는 문법적이지만, 조사보다는 어휘적이기 때문이다.

교가 불가능하다.⁵⁾

그 결과 동사, 형용사, 감탄사를 제외한 국어의 품사는 <표 1>과 같이 구분된다. 이처럼 국어 품사를 문법성의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통시적 변화의 경로가 상정된다.

(4) 국어 품사의 통시적 변화 경로

- ①문법화: 명사 > 대명사/수사 > 부사 > 관형사 > 조사
- ②역문법화: 조사 > 관형사 > 부사 > 대명사/수사 > 명사

이렇듯 문법화는 문법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명사에서부터 문법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조사로의 변화 경로를 갖게 되고, 역문법화는 그 반대 방향의 경로를 갖게 된다. 이때 탈범주화 역시 동일한 경로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품사 통용이 나타나게 된다.

3. 품사 통용의 유형별 탈범주화 양상

품사 통용이 통시적 변화에 놓인 단어의 탈범주화 때문이라면, 한 단어에 통용되는 품사들 사이의 문법적인 위계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 탈범주화는 통시적 변화 과정에서의 범주 이동이며, 이때의 이동은 (4)의 경로를 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품사 통용의 모든 사례를 통시적 변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 ‘동사-형용사’처럼 동일한 문법성의 정도를 보이는 경우 변화의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며, 감탄사 통용처럼 문법성의 정도를 따질 수 없는 경우 또한 변화의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동사-형용사’ 통용과 감탄사 통용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의 탈범주화 양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품사 통용의 유형은 『표준국어대사전』의 것을 기준으로 하며, ‘동사-형용사’ 통용과 감탄사 통용을 제외한 다음의 11가지 유형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5) ‘동사-형용사’ 통용과 감탄사 통용을 제외한 품사 통용의 유형

- ①명사-부사
- ②명사-관형사
- ③명사-조사
- ④대명사-부사
- ⑤대명사-관형사
- ⑥수사-명사
- ⑦수사-관형사
- ⑧부사-조사
- ⑨명사-부사-관형사
- ⑩명사-수사-관형사
- ⑪명사-수사-부사-관형사

5) 허원영(2022: 152-153)에서는 감탄사에 대한 문법성의 정도도 제시한다. 다만 감탄사를 다른 품사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감탄사에 대한 문법성의 정도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우선 두 품사가 통용되는 유형부터 살펴기로 한다. (5)에서 확인되는 두 품사 통용의 유형은 ‘명사-부사’, ‘명사-관형사’, ‘명사-조사’, ‘대명사-부사’, ‘대명사-관형사’, ‘수사-명사’, ‘수사-관형사’, ‘부사-조사’로 총 8개이다. 두 품사 통용은 두 개의 품사 사이에 하나의 변화 방향만 설정된다. 즉 이 경우 문법화되거나 혹은 역문법화되는 가능성만 존재한다.

문법화론에서 문법화는 보편적이지만, 역문법화는 예외적이다. Bybee et al(1994: 12-13)의 단일방향성 가설에 따르면 문법화는 단일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때의 방향은 항상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 향한다. 즉 덜 문법적인 것과 더 문법적인 것의 구분만 가능하다면, 단일방향성 가설에 의해 변화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이를 위배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를 역문법화라는 예외적인 경우로 두게 된다. 결국 품사 통용도 역문법화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만 추려내면, 나머지는 모두 문법화로 설명할 수 있다.

두 품사 통용 중 역문법화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사-조사’ 통용어 ‘보다’⁶⁾, ‘대명사-부사’ 통용어 ‘언제’, ‘명사-수사’ 통용어 ‘하나’의 세 가지이다.⁷⁾ 우선 ‘보다’는 문헌에서의 등장 시기를 고려할 때 그 기본 품사를 조사로 봐야 한다.

- (6) 가. 그 사랑흔 정을 의론컨대 7장 긴히니 사뎡이 벗보다 더하고 친흠이 겨레보다 더하야 못
 춤내 다른 사랑으로써 가히 풀 길이 업느니라 (성경직희, 23a)
 나. 아참에 일즉 이러나서 히 dots 景致를 보는 것보담 더爽快한 일은 업소오리이다 (신정심상
 소학, 4b)

이처럼 ‘보다’는 18~19세기 문헌에서 조사로 쓰인다. 안주호(2001: 103)에서는 ‘보다’가 20세기에 와서 ‘보다 많은’처럼 부사로 쓰였으며, 이는 조사 ‘보다’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한다. 즉 ‘보다’에서 확인되는 ‘부사-조사’ 통용은 역문법화에 의한 것이고, ‘조사 > 부사’의 탈범주화를 거친 것이다.

‘언제’는 어원을 따질 때 그 기본 품사를 부사로 봐야 한다. ‘언제’는 15세기부터 ‘어느 저그’의 형태로 나타난다.

- (7) 어느 저그 숲잔을 다시 자버려뇨 (두시-초 23:6b)

여기서 ‘어느 저그’는 ‘어느 + -적 + -의’의 구성이다. ‘-의’는 부사격조사이므로 ‘언제’의 기본 품사는 부사이다. 즉 ‘언제’에서 확인되는 ‘대명사-부사’ 통용은 역문법화에 의한 것이고, ‘부사 > 대명사’의 탈범주화를 거친 것이다.

‘하나’는 연속되는 단어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기본 품사를 수사로 봐야 한다. ‘하나’는 15세기부터 ‘하날’의 형태로 나타난다.

- (8) —은 하날이라 (훈언, 13b)

이때의 ‘하날’은 분명 수사이다. 물론 고대국어 시기에 ‘—’은 명사로도 사용되었으니, 선불

6) ‘보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품사 통용어가 아닌 동음이의어로 처리된다. 다만 이는 허원영(2021: 233-23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관된 처리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동음이의어로 처리된 두 단어가 의미적으로 변별되지 않으니, 편찬 지침에 따라 품사 통용어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7) ‘대명사-부사’, ‘명사-수사’ 통용어로는 각각 ‘언제’, ‘하나’가 유일하다.

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본 품사를 수사로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가 연속되는 양수사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하나’는 ‘둘, 셋, 넷, …’ 등과 연속적인 양수사의 관계를 갖는다. 이때 ‘둘, 셋, 넷, …’ 등은 모두 수사로만 쓰인다. 이들의 연속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기본 품사 역시 수사로 봐야 한다. 즉 ‘하나’에서 확인되는 ‘명사-수사’ 통용은 역문법화에 의한 것이고, ‘수사 > 명사’의 탈범주화를 거친 것이다.

이처럼 두 품사 통용 중 ‘부사-조사’ 통용어 ‘보다’, ‘대명사-부사’ 통용어 ‘언제’, ‘명사-수사’ 통용어 ‘하나’는 역문법화된 것이고, 나머지 ‘명사-부사’, ‘명사-관형사’, ‘명사-조사’, ‘대명사-관형사’, ‘수사-관형사’ 통용어는 모두 문법화된 것이다.⁸⁾ 또한 ‘부사-조사’ 통용어에는 ‘보다’와 함께 ‘같이’, ‘마저’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문법화의 사례이다.⁹⁾ 즉 ‘부사-조사’ 통용어에는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사례가 공존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두 품사 통용의 유형별 탈범주화 양상

	탈범주화 양상
문법화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사-부사(명사 > 부사) •명사-관형사(명사 > 관형사) •명사-조사(명사 > 조사) •대명사-관형사(대명사 > 관형사) •수사-관형사(수사 > 관형사)
역문법화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명사-부사(부사 > 대명사) •명사-수사(수사 > 명사)
문법화와 역문법화가 모두 확인되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사-조사 ①문법화(부사 > 조사) ②역문법화(조사 > 부사)

다음으로 세 품사가 통용되는 유형을 살펴겠다. (5)에서 확인되는 세 품사 통용의 유형은 ‘명사-부사-관형사’, ‘명사-수사-관형사’로 2개이다. 우선 ‘명사-부사-관형사’ 통용어에는 ‘비교적’이 유일하다. ‘비교적’은 ‘-적(的)’ 파생어인데, ‘가급적’과 ‘비교적’을 제외한 모든 ‘-적(的)’ 파생어는 ‘명사-관형사’ 통용어이다. ‘-적(的)’ 파생어의 경우 그 기본 품사를 명사로 봐야 한다. 만약 파생 접미사 ‘-적(的)’이 관형사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가급적’처럼 ‘명사-부사’로 쓰이는 예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현대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는 관형사를 형성하는 접미사가 없다. 따라서 이때의 ‘-적(的)’은 명사 파생 접미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비교적’의 품사는 기본적으로 명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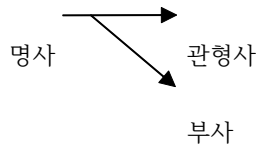
‘비교적’의 기본 품사를 명사로 본다면, 부사와 관형사는 문법화를 통해 탈범주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탈범주화는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명사 > 부사 > 관형사’의 경우, 다른 하나는 ‘명사 > 부사/관형사’로 분화된 경우이다. 이때의 분화는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여러 형태의 문법소가 나누어지는 현상이다.¹⁰⁾ 이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8) 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은 허원영(2022: 154-165)이 참고된다.
 9) ‘부사-조사’ 통용어 ‘같이’, ‘마저’의 문법화는 박지영(2017: 109-114), 허원영(2022: 162-163)이 참고된다.
 10) 분화에 대한 내용은 이성하(2016: 190-193)이 참고된다.



<그림 1> 분화의 도식화

<그림 1>과 같이 분화는 넓은 의미의 분화와 좁은 의미의 분화로 나뉜다.¹¹⁾ 품사 통용은 변화된 내용어가 그대로 남아 층위화¹²⁾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즉 ‘비교적’의 분화는 좁은 의미의 분화로 설명된다. 만약 ‘비교적’이 ‘명사 > 부사/관형사’로 분화된 것이라면, 이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비교적’의 분화

‘비교적’에 대한 탈범주화의 두 가지 가능성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분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교적’이 ‘명사 > 부사 > 관형사’로 탈범주화되었다면, 부사가 관형사로 문법화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부사-관형사’ 통용만 나타나는 사례는 없다. 또한 품사의 수식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결국 ‘비교적’은 ‘명사 > 부사/관형사’의 탈범주화를 거친 것이다.

한편 ‘명사-수사-관형사’ 통용어에는 ‘첫째 ~ 열째’가 있다. 이는 모두 ‘첫 ~ 열’에 차례나 등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째’가 파생한 것이다. 이때 ‘첫째 ~ 열째’의 기본 품사는 수사일 듯하다. ‘첫 ~ 열’에서 ‘첫’은 관형사, ‘둘 ~ 넷’은 수사, ‘다섯 ~ 열’은 ‘수사-관형사’로 쓰인다. 즉 어근이 명사인 경우는 없으니, 기본 품사를 명사로 보긴 어렵다. 또한 ‘-째’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량,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와 수사 뒤에 붙는 것으로 기술된다. 따라서 이때의 ‘-째’는 ‘첫’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모두 수사에 붙었다고 봐야 한다. 더불어 ‘수사-관형사’ 통용은 모두 문법화로 설명되므로, 이 역시 수사에서 관형사로 문법화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첫째 ~ 열째’의 기본 품사를 수사로 본다면, 관형사는 문법화를 통해 수사에서 탈범주화된 것이고, 명사는 역문법화를 통해 수사에서 탈범주화된 것이다. 이때 수사에서 관형사로의 문법화와 수사에서 명사로의 역문법화 중 어느 것이 우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두 방향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넓은 의미의 분화는 하나의 어원에서 여러 문법소가 갈라져 나오는 모든 현상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의 분화는 한 단어가 문법소가 되면서 그 원래 단어는 그냥 내용어(어휘어)로 남아 있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문법소는 새로운 의미를 얻으며 변해가는 현상이다.(이성하 2016: 190)

12) 층위화란 옛 층위와 새 층위가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이성하, 2016: 186)

<표 3> 세 품사 통용의 유형별 탈범주화 양상

	탈범주화 양상
문법화의 사례	•명사-부사-관형사(명사 > 부사/관형사)
문법화와 역문법화가 모두 확인되는 사례	•명사-수사-관형사 ①문법화(수사 > 관형사) ②역문법화(수사 > 명사)

마지막으로 네 품사가 통용되는 유형을 살펴겠다. (5)에서 확인되는 네 품사 통용의 유형은 ‘명사-수사-부사-관형사’가 유일하다. ‘명사-수사-부사-관형사’ 통용어로는 ‘천만’, ‘만만’이 있다. ‘하나’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이들도 ‘십만’, ‘백만’, ‘억만’ 등과 연속적인 단어의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연속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천만’, ‘만만’에 대한 기본 품사를 명사나 부사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낮은 수의 ‘십만’, ‘백만’은 ‘수사-관형사’ 통용어이고, 높은 수의 ‘억만’은 관형사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물론 ‘억만’이 관형사로만 쓰인다는 점에서 ‘수사’도 배제될 수 있겠지만, 단어의 연속적인 관계와 조어적인 특징을 볼 때 ‘억만’이 수사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억만’을 관형사로만 분류하므로, 여기서는 수사와 관형사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자 한다.

‘천만’, ‘만만’의 기본 품사를 수사로 볼 경우 ‘수사 > 부사/관형사’와 ‘수사 > 명사’로 나뉘어 탈범주화된 것이며, 관형사를 기본 품사로 볼 경우 ‘관형사 > 부사/수사’와 ‘관형사 > 명사’의 탈범주화가 예상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네 품사 통용의 유형별 탈범주화 양상

	탈범주화 양상
‘명사-수사-부사-관형사’에서 수사를 기본 품사로 볼 경우	①문법화(수사 > 부사/관형사) ②역문법화(수사 > 명사)
‘명사-수사-부사-관형사’에서 관형사를 기본 품사로 볼 경우	①문법화(관형사 > 부사/수사) ②역문법화(관형사 > 명사)

4. 맺음말

지금까지 품사 통용어에서 확인되는 탈범주화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품사 통용에서는 ‘명사-부사’, ‘명사-관형사’, ‘명사-조사’, ‘대명사-관형사’, ‘수사-관형사’의 5개가 문법화로, ‘대명사-부사’, ‘명사-수사’의 2개가 역문법화로 설명된다. 전자의 유형은 각각 ‘명사 > 부사’, ‘명사 > 관형사’, ‘명사 > 조사’, ‘대명사 > 관형사’, ‘수사 > 관형사’로 탈범주화된 것이며, 후자의 유형은 각각 ‘부사 > 대명사’, ‘수사 > 명사’로 탈범주화된 것이다. 한편 ‘부사-조사’의 경우 품사 통용어에 따라 문법화로 설명되기도, 역문법화로 설명되기도 한다. 예컨대 ‘같이’, ‘마저’는 ‘부사 > 조사’로 탈범주화된 것이지만, ‘보다’는 ‘조사 > 부사’로

탈범주화된 것이다.

세 품사 통용 중 ‘명사-부사-관형사’는 문법화로 설명된다. 이때의 탈범주화는 ‘명사 > 부사/관형사’로 나타나는데, 명사에서 부사와 관형사로 분화된 듯하다. ‘명사-수사-관형사’ 통용의 경우 수사가 기본 품사로 보이며, 관형사로의 문법화와 명사로의 역문법화가 모두 확인된다. 이때의 탈범주화는 ‘수사 > 관형사’와 ‘수사 > 명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네 품사 통용에는 ‘명사-수사-부사-관형사’ 통용이 유일하다. 이 경우 수사를 기본 품사로 볼 수도 있고, 관형사를 기본 품사로 볼 수도 있다. 수사를 기본 품사로 본다면, ‘수사 > 부사/관형사’와 ‘수사 > 명사’로 나누어 탈범주화된 듯하다. 관형사를 기본 품사로 본다면, ‘관형사 > 부사/수사’와 ‘관형사 > 명사’의 탈범주화 양상이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고영근(2020),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구본관(201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2010),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형태론, 179~199쪽.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남기심·고영근 외(2019),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 박지영(2017), 「문법화에 의한 품사 통용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안주호(2001), 「한국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 『담화와 인지』 8-2, 담화·인지언어학회, 93~112쪽.
- 안주호(2002), 「한국어에서의 역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언어학』 10-4, 대한언어학회, 23~40쪽.
- 이금희(2017), 「한국어에 나타나는 문법화와 어휘화 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81, 국어학회, 91~114쪽.
- 이성하(2016),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지양(2003), 「문법화의 이론과 국어의 문법화」, 『한국학』 26-3, 한국학중앙연구원, 211~239쪽.
- 최현배(199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한정한·한희정(2013), 「국어사전에서의 품사 통용 정보 기술 방안」, 『한국어어미학』 40, 한국어어미학회, 441~468쪽.
- 한희정(2013), 「국어 품사 통용의 사전 기술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 응(1983), 『우리 옛말본』, 샘 문화사.
- 허원영(2021), 「품사 통용어의 사전 기술에 관한 일관성 고찰 -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 62, 한말연구학회, 215~239쪽.
- 허원영(2022), 「통시적 관점에서의 품사 통용 연구 - 문법화 현상을 중심으로 -」, 『영주어문』 50, 영주어문학회, 137~172쪽.
- 홍기문(1927), 「조선문전요령」, 『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1부 제15책』, 탑출판사.
- 홍기문(1946), 「조선문법연구」, 『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1부 제15책』, 탑출판사.
- Bybee, Joan L, William Pagliuca & Revere D. Perkins(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nry Sweet(2014), *A new English grammar : logical and historic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ul J. Hopper & Elizabeth Closs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토 론

“품사 통용의 유형별 탈범주화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박현선(건국대)

이 연구에서는 품사 통용에서 확인되는 탈범주화의 양상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한 단어에 통용되는 품사들 간의 위계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두 품사 통용, 세 품사 통용, 네 품사 통용의 유형별 탈범주화 양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표자께서는 품사 통용이란 ‘한 단어에 둘 이상의 품사가 포함되는 현상’이라고 기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단어’란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보다’를 다음과 같이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보다²「부사」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

보다³「조사」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연세한국어사전』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도 ‘보다’를 품사 통용어로 보지 않고 별개의 단어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처리는 ‘보다’의 품사 통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적으로 변별되지 않는다고 해도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되었다면 ‘한 단어’가 아닌 ‘두 단어’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품사 통용의 정의에 어긋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네 품사 통용(명사-수사-부사-관형사)의 유형에서 ‘천만’, ‘만만’의 기본 품사를 관형사로 볼 경우 ‘관형사 > 부사/수사’는 문법화된 것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문법성의 정도에 따라 품사를 <표 1>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품사의 통시적 변화 경로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습니다.

<표 1> 문법성의 정도에 따른 품사 구분

문법성의 정도	1	2	3	4	5
품사	명사	대명사/수사	부사	관형사	조사

①문법화: 명사 > 대명사/수사 > 부사 > 관형사 > 조사

②역문법화: 조사 > 관형사 > 부사 > 대명사/수사 > 명사

발표자의 품사 구분과 통시적 변화 경로에 따르면 ‘관형사 > 부사/수사’는 문법화가 아니라 역문법화를 통해 탈범주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2 분과]

담화·화용론

구어 자료에 나타난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와 사용 양상

송인성(상명대)

< 차례 >

1. 서론
2. 호출어의 개념과 범주
3.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와 특징
4. 현대국어 호출어의 사용양상 비교
5. 결론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구어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호출어의 종류와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현대국어에서 시기별로 사용되는 호출어의 종류를 조사하고, 호출어가 호출 상대, 화청자의 친밀도 및 힘의 위계, 담화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양상을 밝히 고자 한다.

호출어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을 의미한다. 호출어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호출어가 사용되는 발화 상황이나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야’, ‘이봐요’, ‘저기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국어에서 호출어로 사용되는 여러 표현들은 문법적, 화용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현대국어에서 사용 양상의 변화가 관찰된다. 20세기 초에 주로 사용하였던 호출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능이나 사용이 소멸되거나 변화하기도 하고,¹⁾ 20세기 말이 되어 호출 기능을 하는 새로운 언어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²⁾

이와 같은 이유로 호출어는 호칭어, 지칭어와 함께 국어 부름말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는데, 지금까지 국어 부름말 연구는 주로 호칭어와 지칭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국어에서 호칭어와 지칭어가 화청자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사용 양상을 밝히는 것이 주된 연구 과제였다. 반면에 호출어는 호칭어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 호칭어의 하위 유형의 하나로 부분적으로 언급된 경우가 많고, 호출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호출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³⁾

1) 송인성, 「20세기 구어 자료에 나타나는 ‘여보’류의 사용 양상 변화」, 『우리어문』 제56호, 우리어문학회, 2016, 203-233면; 송인성, 「현대국어 호출어 ‘이+보-’류의 발달과 사용 양상의 변화」, 『민족문화연구』 제89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539-561면.

2) 20세기 말에 등장하는 호출어는 ‘저기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어 부름말 가운데 호칭어와 지칭어를 중점을 둔 앞선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 현대국어에서 실현되는 호출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호출어의 개념과 범주를 정립하고 현대국어에서 호출어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들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한다. 현대국어에서 실현되는 호출어의 종류와 사용 양상을 화청자의 관계, 친밀도, 힘의 위계, 담화 상황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지금까지 국어 부름말 연구는 주로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진 연구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호출어의 사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구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2. 호출어의 개념과 범주

호출어의 개념과 범주는 호칭어 및 지칭어, 부름말의 개념과 유형을 설정하면서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호출어를 호칭어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거나,⁴⁾ 이와 달리 호출어를 호칭어와 구별되는 다른 범주의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⁵⁾ 또한 부름말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호칭어, 호출어를 부름말 체계 안에서 분석하기도 하였다.⁶⁾

먼저, 호출어를 호칭어의 한 유형으로 분석한 연구는 대체로 호출어가 낯선 사람에게 주의 환기의 기능을 하는 말로 파악하였다. 박정운에서는 ‘여보세요’, ‘여보(시)게’ 등의 말을 기타 호칭어로 구분하고, 이 말들은 다른 호칭어와 달리 청자의 관심을 화자 쪽으로 돌리는 데 주된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이선화에서는 호출어를 간접 호칭어로 보고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등을 주의 끌기형, ‘저기요’, ‘여기요’를 처소 지칭형 호칭어라고 하였다. 전해영에서는 ‘여보세요’, ‘여보’ 등을 감탄사형 호칭어라고 하며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와 부부 사이에 부르는 호칭어로 제시하였다. 이윤진에서는 호출어를 낯선 관계 호칭어라고 하면서, 대화자 간에 마땅한 호칭이 없는 경우나 호칭은 있지만 아직 호칭을

3) 호출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남 방언 부름말 ‘어이’, ‘바라’, ‘야야’, ‘아요’, ‘보소’의 실현 양상을 분석한 강우원, ‘여보-’류의 사용 양상의 변화를 분석한 송인성, ‘이보-’류의 발달과 실현 양상을 분석한 송인성, 호출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특성을 밝힌 송수영·김양진 등이 있다. 강우원, 「경남 방언의 부름말 실현 양상과 문화적 특성」, 『언어과학』 제15-2호, 한국언어과학회, 2008, 1-19면; 송인성, 앞의 글, 2016; 송인성, 앞의 글, 2020; 송수영·김양진, 「한국어에서의 호출어 개념 연구」, 『국어학』 제104호, 국어학회, 2022, 87-117면 등.

4) 박정운, 「한국어 호칭 체계」, 『사회언어학』 제5(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997; 이선화, 「공공 상황에서의 한국어 호칭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전해영, 「한국어 호칭어의 교육 내용과 과제」, 『연구와 교육』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5, 121-135면; 이윤진,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제17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287-306면; 강소산·전은주,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제9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363-389면; 조용준, 「한국어 호칭 표현의 범위와 그 특성」, 『한말연구』 제50호, 한말연구학회, 2018, 169-201면 등.

5) Fasold, R.,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1990 (황적륜 외 역,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1994); 왕한석 외, 『한국 사회와 호칭어』, 역락, 2015; 손춘섭,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33호, 한국어 의미학회, 2010, 95-129면; 송수영·김양진, 「한국어에서의 호출어 개념 연구」, 『국어학』 제104호, 국어학회, 2022, 87-117면 등.

6) 김태엽, 「국어 부름말의 문법」, 『우리말글』 제29호, 우리말글학회, 2003, 107-127면; 황병순, 「국어 부름말의 유형 연구」, 『어문학』 제137호, 한국어문학회, 2017, 227-254면.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고 보았다. 강소산·전은주에서는 호출어를 청자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화자가 청자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주의 환기형 호칭어라고 하였다. 조용준에서는 호출어를 호칭 표현의 한 종류로 보는 입장이지만, 호칭 표현 자체가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의 환기형 호칭 표현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⁷⁾

호출어와 호칭어를 다른 범주의 것으로 파악한 연구로, Fasold에서 호칭어는 이미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끌고 난 뒤에 사용하는 말이고, 호출어는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왕한석 외에서도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을 호칭어, 청자인 상대방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말을 호출어라고 하며, 호칭어는 이미 상대방의 주목을 끈 상태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라고 하며 이 둘을 구분하였다. 손춘섭에서는 ‘여보세요, 여기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등과 같은 말은 화자가 어떤 사람의 시선을 끌거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를 직접 부르는 말인 호칭어와 다르고 이를 호칭어의 한 가지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송수영·김양진에서는 호칭어와 호출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호격어(넓은 의미의 호칭어)로 설정하고, 호출어와 호칭어의 차이를 문두 위치, 어조 및 휴지의 길이, 반복 가능성, 소형문 구성의 실현 차이로 관찰하였다.⁸⁾

부름말 안에 호칭어와 호출어를 다룬 황병순에서는 부름말의 유형을 8개로 제시하면서 가장 상위의 범주로 지칭어형 부름말과 비지칭어형(지칭어 생략형) 부름말을 구분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비지칭어형 부름말이 호출어로 볼 수 있는데, ‘이봐’, ‘여보게’, ‘여보세요’ 등은 강한 의지가 있는 요청형 부름말과 ‘어이, 여기요, 저기요’ 등은 강한 의지가 없는 주의 끌기형 부름말로 구분하였다.⁹⁾

앞선 연구에서 호출어의 범주와 관련하여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호출어와 호칭어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호출어와 호칭어는 모두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호출어가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로 보았지만, 호칭어와 호출어는 낯선 사람과 아는 사람에게 모두 사용될 수 있고 호출어뿐만 아니라 호칭어에서도 주의 환기의 기능이 있다.¹⁰⁾ (A)는 화자와 청자가 처음 보는 낯선 관계에서 ‘선생님’, ‘손님’, ‘학생’의 호칭 표현이 사용된 사례이다.

- (A) ㄱ. 순봉: (경찰서) 저 우리 애가 뭘 모르고 이런 거 같은데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14_TV드라마, 가족>
 ㄴ. 웨이터: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2011_TV드라마, 보스>
 ㄷ. 남성: **학생**. 이리 나와 봐요. <1990_만화, 영심>

이 연구에서는 호칭어와 호출어를 다른 범주의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선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출어는 화자가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고

7) 박정운, 앞의 글, 520면; 이선화, 앞의 글, 19-20면; 전해영, 앞의 글, 126면; 이윤진, 앞의 글, 294면; 강소산·전은주, 앞의 글, 369-370면; 조용준, 앞의 글, 181면.

8) Fasold, 앞의 글, 4면; 왕한석, 앞의 글 18면; 손춘섭, 앞의 글, 100면; 송수영·김양진, 앞의 글.

9) 황병순, 앞의 글, 242-246면.

10) 김태엽, 앞의 글 19면; 조용준, 앞의 글, 181면.

호칭어는 주의를 끌고 난 뒤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호출어와 호칭어 모두 상대를 부르는 말이고 주의 환기의 기능이 있지만, 호출어는 호칭어보다 주의 환기의 기능을 더 주된 기능으로 실현된다. (B)와 같이 호출어는 호칭어와 함께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호출어는 호칭어보다 주의 환기의 기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B) ㄱ. 야 서울아 팬찮아? <2014_TV드라마, 가족>

ㄴ. 이봐 색시. 일어나. 이런 제길. 일어나래도. <1961_영화, 서울>

ㄷ. 여보 주인공. 이제 이거 배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든 좋지? <1968_라디오드라마, 향토>

ㄹ. 어이 꼬마야. 공 좀 던져줄래? <1998_만화, 하니2>

둘째, 호출어와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범위의 차이가 존재한다.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라는 두 개인을 전제로 하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말이다.¹¹⁾ 예를 들어, 기혼 40대 남성 직업이 교사인 김철수에게 친구들은 ‘철수야’, 동료 교사들은 ‘김 선생님(님)’, 자식은 ‘아빠’라는 호칭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김철수의 아내에게는 이와 같은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호칭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잘 드러낸다. 반면에 호출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호칭어보다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된다. 김철수의 친구들은 김철수에게 ‘야’라는 호출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김철수의 아내의 친구들도 김철수의 아내에게 ‘야’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둘에게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도 ‘저기요’라는 호출어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호출어가 특정 대상을 직접 부르는 말 앞에서 사용되어 주의 환기 기능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과 화청자의 관계가 호칭어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호출어와 호칭어를 다른 범주의 것으로 본다. 또한 이와 같은 특징을 토대로 자료에서 호출어를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3.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와 특징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자료와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현대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출어의 종류와 그 특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고려대 구어 말뭉치 20세기 전후기 자료와 21세기 TV드라마 말뭉치이다. 이 말뭉치는 1930년부터 2010년까지 당시 시대와 남녀노소의 일상적인 구어가 잘 드러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이 자료의 크기는 전체 58만 3천여 어절이다. 그중 20세기 고려대 구어 말뭉치는 31만 5천여 어절(전기: 6만 5천, 후기: 25만)이고, 21세기 TV 드라마 말뭉치는 26만 8천여 어절이다. 작품의 제목, 제작 연도 등의 정보는 송인성의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¹³⁾

11) 구현정, 「대중매체로 본 광복 70년 부부 호칭 변화」, 『한국어 의미학』 제51호, 한국어의미학회, 2016, 87면.

12) 드라마 말뭉치는 드라마 대본이 아닌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발화를 전사한 것이다.

13) 송인성, 2020, 앞의 글, 559면.

이 연구에서는 현대국어 호출어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30년대부터 2010년까지 시기를 구분해 연도별로 호출어가 실현되는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호출어는 호출 상대,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호출어가 실현될 수 있다.¹⁴⁾ 이와 같은 이유로 호출어가 사용될 때 호출어가 사용되는 상대와 화자의 관계, 화청자의 친밀도 및 힘의 위계를 살펴보았다. 화청자의 친밀도의 기준은 Eggins의 사용역(register)을 참고하여 접촉 빈도, 정서적 몰입도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¹⁵⁾ 가족, 친구, 연인 등의 접촉 빈도 및 정서적 몰입도가 높은 관계를 친밀도가 높은 관계로 파악하였다. 처음 만난 사람, 직원과 고객 등 접촉 빈도와 정서적 몰입도가 낮은 관계를 친밀도가 낮은 관계로 보았다. 화청자의 힘의 위계는 화청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높임법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부모-자식과 같이 연령이 상대보다 높거나 직장 상사-부하 직원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상대보다 높은 경우 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반대의 경우는 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화자는 요청, 제안, 질문, 걱정, 칭찬 등의 담화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 화자가 호출어를 사용하여 발화를 진행하는 것은 담화 전략과 관련하여 화자가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발화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C)와 같이 호출어가 사용되는 담화 상황을 파악하였다.

- (C) 가. [요청] **여보** 좀 기다려줘요. <1936_영화, 미몽>
 나. [제안] **여보게** 한잔 먹고 노세. <1939_영화, 어화>
 다. [질문] **야** 영길이가 누구냐? <1961_영화, 서울>
 리. [걱정] **야** 조심해. <1988_영화, 칠수>
 미. [칭찬] **야** 너 정말 대단하다. <1992_영화, 아래>
 비. [진술] **잠깐만** 우리는 사람을 찾으러 왔어. <1972_만화, 이상>
 시. [명령] **어이** 열쇠 딴 것 좀 줘봐. <1970_TV드라마, 반장1>
 오. [종업원 호출] **여보** 맥주 하나 더 주. <1958_영화, 돈>
 지. [방문 호출] **계세요?** 저- 주문하신 강력 진공청소기 가져왔습니다요. <1987_만화, 둘리>
 초. [문제제기] **이봐** 말이 너무 심하잖아! <2006_TV드라마, 멋진>
 쿠. [질책] **이봐** 봉수. 도박이란 그렇게 잃건 따건 화내는 게 아니야. <1958_영화, 돈>
 투. [위협] **이봐** 그만한 일을 했을 땐 각오를 했겠지? <1964_영화, 맨발>

<표 1>은 자료에 나타난 호출어의 종류와 빈도에 관한 정보이다. 현대국어 호출어는 ‘야’, ‘이보-류’, ‘여보-류’, ‘잠깐(만요)’, ‘저기요’, ‘어이’, ‘실례합니다’, ‘계세요’류, ‘이리 오너라’가 전체 1,230회 관찰되었다.

14) 강우원에서는 부름말의 실현 조건으로 말할이와 들을이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강우원, 앞의 글, 4면.

15) Eggins, S.,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London: Printer Publishers, 2004, pp.85-112.

<표 1>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와 빈도

순위	호출어의 종류	빈도(회)
1	야	510
2	이보-류	263
3	여보-류	182
4	잠깐(만요)	111
5	저기요	70
6	어이	56
7	실례합니다	20
8	계세요류	13
9	이리 오너라	5
총합		1,230

3.1. 야

<표 2>는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야’의 출현 빈도이다. 현대국어에서 ‘야’는 화자가 아는 사람을 부르거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부를 때 호출어로 사용된다. ‘야’는 낯선 사람을 부를 때보다 아는 사람을 부를 때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현대국어 초기인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쓰임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2>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야’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2	8	3	33	45	86	91	92	93	453
낯선 사람	0	1	1	8	13	11	8	10	5	57
총합	2	9	4	41	58	97	99	102	98	510

<표 3>은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야’의 출현 빈도이다. ‘야’가 실현될 때 화청자의 친밀도와 힘의 위계를 분석한 결과, 친밀도는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사이에서 435회,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75회로 나타났다.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관계에서 142회, 동등한 힘을 지닌 관계에서 368회 실현되었다.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낮은 관계에서는 ‘야’가 실현되지 않았다.

‘야’는 친구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친구 관계와 같이 화청자가 친밀도가 높고 동등한 힘을 지닌 사이에서 호출어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가족 및 친척 사이에서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부르거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 학교 및 고향 선배가 후배를 부를 때도 ‘야’가 사용된다. 이 경우 대체로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고,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다.

<표 3>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야’의 출현 빈도(회)

관계	친구	가족	직장 상사-부하	연인	선배- 후배	친 척	선생- 제자	이웃	낯선	총합
빈도	297	61	33	22	20	7	7	4	59	510

(D₁)은 입대하는 친구를 위한 술자리에서 친구 간에 서로를 부를 때, (D_L)은 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야’가 실현된 사례이다. 또한 (D_C)처럼 직장에서 상사가 나이가 어린 부하 직원을 부르거나, (D_R)처럼

학교 선배가 후배를 부를 때도 ‘야’를 사용한다.

- (D) ㄱ. 친구1: 야 오늘 수진이의 입대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건배하자.
 친구2: 그래 좋아.
 친구3: 잘 갔다 와라.
 친구2: 야 수진아 근데 너 애인은 있냐?
 친구3: 그럼 있구 말구. 간호학과 4학년이야. <1987_TV드라마, 사랑>
 ㄴ. 아버지: 야 정희야 자느냐? <1936_영화, 미몽>
 ㄷ. 사장: 야.
 사장: 맥주 좀 사와. 안주도 좀 사 오고.
 직원: 네. <1972_영화, 영자>
 ㄹ. 상원: 저번에 형이 얘기한 거 학원 강사 말이야. 내가 큰맘 먹고 생각해봤는데.
 선배: 야 너 시인협회에서도 제명당했대매? 그런 메리트도 없고. 지금은 딱히 자리도 없는데
 어찌냐? <2007_TV드라마, 강남>

호출 목적에 따른 ‘야’의 출현 빈도는 <표 4>와 같다. ‘야’는 여러 담화 상황 중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문제 제기나 질책, 명령 등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실현된다.

<표 4> 담화 상황에 따른 ‘야’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문제 제기	질책	명령	진술	질문	제안	요청	걱정	위협	칭찬	총합
출현 빈도	182	77	61	55	52	35	20	17	11	11	510

3.2. 이보-류

<표 5>는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이보-’류의 출현 빈도이다. ‘이보-’류는 화자가 아는 사람을 부를 때, 낯선 사람을 부를 때, 불특정 사람을 부를 때 호출어로 실현되었다. 호출 상대가 불특정인 사람은 화자가 다른 사람의 집,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그 안에 있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부를 때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호출어 ‘이보-류’는 현대국어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

<표 5>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이보-’류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3	4	8	33	25	24	17	18	32	164
낯선 사람	1	4	5	6	17	8	15	27	11	94
불특정 사람	0	0	1	0	3	0	0	0	1	5
총합	4	8	14	39	45	32	32	45	44	263

<표 6>은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이보-’류의 출현 빈도이다. 화청자의 친밀도와 힘의 위계의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이보-’류는 화청자가 친밀한 관계에서 101회,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157회 나타난다.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 92회,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156회,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경우 10회 나타난다.¹⁶⁾

‘이보-류’는 화청자가 가족, 친척, 직장, 이웃 등 여러 사이에서 두루 호출어로 사용된다.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사이와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모두 실현되는데,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쓰임이 더 높다. 힘의 위계는 화청자가 동등한 힘의 위계를 지닌 경우와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힘의 위계를 지닌 경우에 사용된다.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낮은 경우는 드물게 호출어로 ‘이보-’류가 나타난다.

<표 6>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이보-’류의 출현 빈도(회)

관계	이웃	가족 친척	직장 상사-부하	연인	친구	직장 동료	선생- 제자	낯선	불특정	총합
빈도	40	38	35	23	15	12	1	94	5	263

‘이보-’류는 ‘이(를) 보-’ 구성에서 청자대우법 어미의 결합에 따라 변화형인 ‘이것/거 보시오’, ‘이것/거 보오’, ‘이것/거 봐’, ‘이것/거 봐요’, ‘이것/거 보세요’와 축약형인 ‘이보시오’, ‘이보’, ‘이보게’, ‘이봐’, ‘이봐요’, ‘이보세요’ 등의 여러 형태로 실현된다. 이 다양한 형태 중에서 대부분은 ‘이봐’(111회), ‘이봐요’(84회)의 형태가 사용된다.¹⁷⁾

(Eㄱ)은 친구 사이에서 화자가 청자를 부를 때, (Eㄴ)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 ‘이봐’를 사용하였다. (Eㄷ)은 화자와 청자가 낯선 관계에서 ‘이봐요’가 실현된 사례이다.

(E) ㄱ. 다이아나: **이봐** 앤. 나 비극이야.

앤: 뭐?

다이아나: 결국 나 카이트 파이하고 나란히 앉게 됐지 뭐니. 카이트 앤 시종 석필로 끼익 끼익 소릴 내고 있잖아. <1979_만화, 빨강>

ㄴ. 조형사: **이봐** 자넨 경찰이 슈퍼맨이라도 되는 줄 아냐?

강형사: 당연히 슈퍼맨이 되야죠. 범법자를 처벌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게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1993_영화, 투캅>

ㄷ. 경비: **이봐요**. 여기 세우시든 안 돼요. 전용 주차장이라 써 있잖아.

혜원: 아 죄송합니다. 저쪽으루 댈게요. <2014_TV드라마, 밀회>

<표 7>은 담화 상황에 따른 ‘이보-’류의 출현 빈도이다. ‘이보-’류는 다양한 상황에서 호출어로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의 쓰임이 가장 고빈도로 나타난다.

<표 7> 담화 상황에 따른 ‘이보-’류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문제 제기	진술	요청	질책	질문	명령	제안	걱정	종업원 호출	위협	총합
출현 빈도	147	25	24	17	17	11	10	5	4	3	263

16) 화자가 불특정 상대를 호출하는 상황은 화자가 상대를 직접 보고 부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친밀도, 힘의 위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불특정 상대를 호출하는 상황에서 친밀도와 힘의 위계는 계량적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동일)

17) ‘이보-’류의 다양한 형태의 실현 양상은 송인성을 참고. 송인성, 앞의 글, 2020.

3.3. 여보-류

<표 8>은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여보-’류의 출현 빈도이다. ‘여보-’류는 화자가 아는 사람, 낯선 사람, 불특정 사람을 부를 때 호출어로 사용된다. ‘여보-’류는 대체로 1970년대까지 사용이 유지되다가 현재로 올수록 쓰임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8>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여보-’류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51	5	20	18	7	0	0	0	0	101
낯선 사람	20	1	16	18	9	4	0	1	2	71
불특정 사람	0	2	5	2	0	0	1	0	0	10
총합	71	8	41	38	16	4	1	1	2	182

<표 9>는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여보-’류의 출현 빈도이다. 화청자의 친밀도와 힘의 위계를 분석한 결과, ‘여보-’류는 화청자가 친밀한 관계에서 89회,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83회 나타난다.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 43회,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108회,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경우 21회로 나타난다.

‘여보-’류는 친구, 연인, 이웃, 직장 상사-부하 직원 등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여보-’류는 화청자가 친밀한 사이와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모두 호출어로 사용된다. 화청자 간의 힘의 위계도 화자가 높은 경우,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화자가 낮은 경우 모두 실현되는데, 이 가운데 화청자가 동등한 힘의 위계를 지닐 때 가장 고빈도로 나타난다.

<표 9>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여보-’류의 출현 빈도(회)

관계	친구	연인	이웃	직장 상사-부하	가족-친척	낯선	불특정	총합
빈도	42	28	21	8	3	70	10	182

‘여보-’류는 ‘여기(를) 보-’ 구성에서 청자대우법 어미의 결합에 따라 ‘여기 봐요’, ‘여보십시오’, ‘여보시오’, ‘여보’, ‘여보게’, ‘여봐’, ‘여봐요’, ‘여보세요’ 등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¹⁸⁾ 이 형태 중에서 ‘여보’(55회), ‘여보게’(54회), ‘여보세요’(48회)가 주로 사용된다.

(F1)은 화자와 청자가 연인 관계에서 ‘여보’, ‘여보세요’가 사용된 사례이다. 남성은 ‘여보’를 사용하였고 여성은 ‘여보세요’를 사용하였다. (F2)은 친구 사이에서 ‘여보게’가 사용된 사례이다.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친밀하고 힘의 위계가 동등하거나, 가족 및 직장에서 화자가 손윗사람으로 힘의 위계가 큰 경우에는 ‘여보게’가 사용된다. (F3)은 화자가 청자가 낯선 관계에서 ‘여보시오’가 사용된 사례이고, (F4)은 화자가 낯선 장소를 방문하여 그 안에 있는 누군가를 부를 때 ‘여보세요’가 사용된 사례이다.

(F) ㄱ. 한호: **여보** 영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오.

18) ‘여보-’류의 다양한 형태의 실현 양상은 송인성을 참고. 송인성, 앞의 글, 2016.

한호: 당신에게 이때껏 속여 왔던 이놈이 큰 죄인ियो.

영애: 여보세요 참말로 이 영애를 사랑해 주셨다면 인제 와서 그런 말씀은 말아 주세요. <1930_유성기연극>

ㄴ. 석춘: 여보게 억조. 미안하네만 나 돈 이만 환만 좀 돌려주게.
억조: 이만 환이면 한 달에 이자가 삼천 환일세. <1958_영화, 돈>

ㄷ. 남성: 여보쇼 잠깐 기대리십시오.
남성: 당신 이갑이라는 사람이오?
이갑: 네 그렇소이다. <1963_라디오드라마, 여명>

ㄹ. 남성1: 여보세요.
학규: 누구십니까?
남성1: 시경 풍기단속반입니다. 가게 문이 열렸는데 혹시 여기 누가 들어온 사람 없습니까? <1958_영화, 돈>

담화 상황에 따른 ‘여보-’류의 출현 빈도는 <표 10>과 같다. ‘여보-’류는 대체로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두루 실현되는데, 그중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질문 등을 하는 상황이 고빈도로 실현되었다.

<표 10> 담화 상황에 따른 ‘여보-’류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요청	질문	진술	제안	문제 제기	걱정	방문 호출	질책	명령	종업원 호출	위협	총합
출현 빈도	52	28	22	19	15	13	10	9	8	5	1	182

3.4. 잠깐(만요)

<표 11>은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잠깐(만요)’의 출현 빈도이다. ‘잠깐(만요)’는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된다. 1950년대부터 사용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표 11>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잠깐(만요)’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0	0	2	10	1	9	15	21	18	76
낯선 사람	0	0	3	1	2	6	6	11	6	35
총합	0	0	5	11	3	15	21	32	24	111

<표 12>는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잠깐(만요)’의 출현 빈도이다. ‘잠깐(만요)’의 친밀도와 힘의 위계를 분석한 결과, ‘잠깐(만요)’는 화청자가 친한 관계에서 57회,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54회 나타난다.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 17회,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77회,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경우 17회 나타난다.

‘잠깐(만요)’는 화청자가 여러 관계에서 두루 사용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는 양방향적인 사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화청자가 친한 사이와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모두 사용되고, 힘의 위계는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에 고빈도로 사용되는데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도 모두 사용된다.

<표 12>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잠깐(만요)’의 출현 빈도(회)

관계	이웃	연인	직장 상사-부하	가족친척	친구	직장 동료	선생- 제자	낯선	총합
빈도	18	17	14	11	11	4	1	35	111

(G7)은 인터뷰 진행 중에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 필름을 교체하기 위하여 ‘잠깐(만요)’를 사용하여 인터뷰를 중단하였다. (G8)은 화자가 문이 닫히려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이를 타기 위해서 (Gc)는 화자가 버스에서 급하게 내리기 위해서 ‘잠깐(만요)’를 실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잠깐(만요)’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멈추게 하여 화자가 상대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하거나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G8, c)과 같이, 화자가 다급하게 상대방을 부르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G) 7. 감독: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리포터: 네.

감독: 어-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성이 도구화되는 현대 부부간의 성문화를 예- 심층적으로 파헤쳐본 것이죠.

카메라감독: 아 잠깐만요 테이프 좀 같고 하겠습니다. <1988_영화, 개그>

ㄴ. 재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탑승) <2005_TV드라마, 연인>

ㄷ. 성찬: 어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

아 예 미안합니다. (버스 하차) <2006_TV드라마, 멋진>

담화 상황에 따른 ‘잠깐(만요)’의 출현 빈도는 <표 13>과 같다. ‘잠깐(만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가장 고빈도로 실현된다.

<표 13> 담화 상황에 따른 ‘잠깐(만요)’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요청	진술	제안	질문	문제 제기	명령	걱정	총합
출현 빈도	77	12	7	7	4	3	1	111

3.5. 저기요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저기요’의 출현 빈도는 <표 14>와 같다. ‘저기요’는 아는 사람, 낯선 사람, 불특정 사람을 부를 때 호출어로 사용된다. ‘저기요’는 자료에서 1990년대부터 호출어로 사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사용이 증가한다.

<표 14>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저기요’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0	0	0	0	0	0	0	16	10	26
낯선 사람	0	0	0	0	0	0	3	18	20	41
불특정 사람	0	0	0	0	0	0	0	0	3	3
총합	0	0	0	0	0	0	3	34	33	70

‘저기요’가 실현될 때 화청자의 관계는 ‘부하 직원-상사’(2회), ‘이웃’(20회), ‘직장 동료’(3회)이다. ‘저기요’는 화청자가 친한 관계에서 8회,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59회 나타난다. 힘의 위계는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52회,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경우 15회 나타난다.

‘저기요’는 다른 호출어와 달리 화자와 청자가 아는 관계에서보다 처음 만난 낯선 관계에서 사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 화자와 청자가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쓰임이 빈번하고, 화자와 청자의 힘의 위계에서는 서로 동등한 경우와 화자가 청자보다 힘이 낮은 경우에 실현된다. 화자가 청자보다 힘이 높은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는다.

(H₁)은 화자와 청자가 직장 동료 사이에서, (H_L)은 처음 보는 낯선 사이에서 ‘저기요’가 실현된 사례이다. (H_C)은 화자가 화장실에 갇힌 상황에서 ‘저기요’를 통해 불특정한 상대를 부르며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

(H) ㄱ. 수진: 저기요 저랑 몰래 데이트 안 하실래요?

상원: 몰래 데이트요?

수진: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같은 직장 안에서 몰래 데이트하잖아요. 원래 제 소원이 학교 안에서 연애하는 거였거든요. <2007_TV드라마, 강남>

ㄴ. 효진: 저기요 뭇 좀 여쭙볼게요.

영진: 네? 무슨 일이지요? <2014_TV드라마, 가족>

ㄷ. 기태: 누구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제가 화장실에 혼자 갇혔거든요?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사람이 갇혔어요 사람이 저기요. <2014_TV드라마, 연애>

담화 상황에 따른 ‘저기요’의 출현 빈도는 <표 15>와 같다. ‘저기요’는 여러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고빈도로 실현된다.

<표 15> 담화 상황에 따른 ‘저기요’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요청	질문	제안	문제 제기	걱정	진술	총합
출현 빈도	30	22	8	6	2	2	70

3.6. 어이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어이’의 출현 빈도는 <표 16>과 같다. ‘어이’는 아는 사람을 부를 때, 낯선 사람을 부를 때 호출어로 사용된다. ‘어이’는 자료에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호출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자가 청자와 친분이 있는 아는 관계에서 쓰임이 주로 나타난다.

<표 16>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어이’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0	0	0	1	14	6	15	5	8	49
낯선 사람	0	0	0	3	0	1	1	1	1	7
총합	0	0	0	4	14	7	16	6	9	56

<표 17>은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어이’의 출현 빈도이다. ‘어이’의 친밀도와 힘의 위계를 분석한 결과, ‘어이’는 화자와 청자가 친한 관계에서 30회,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26회가 실현된다. 힘의 위계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 40회,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16회로 나타난다.

‘어이’는 아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높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이웃 어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이웃 청년 등을 부를 때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힘의 위계가 동등한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쓰임이 관찰된다.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낮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사이와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두루 사용된다.

<표 17>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어이’의 출현 빈도(회)

관계	직장 상사-부하	이웃	친구	직장 동료	가족·친척	선배-후배	총합
빈도	17	10	9	8	3	2	56

(I₇)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 (I₂)는 직장 동료가 상대방을 부를 때 ‘어이’가 실현된 상황이다. (I₂)에서는 화자가 택시에 탑승하기 위하여 택시를 부르는 상황에서 ‘어이’가 사용되었다.

- (I) ㄱ. 과장: **어이** 그 망치 쫌 갖구 와.
 직원: 예? 부실려구요?
 과장: 글썄 갖구 와 쫌. <1970_TV드라마, 반장1>
 ㄴ. 동료: **어이** 차강재. 너 그 소문이 사실이나?
 강재: 무슨?
 동료: 권 원장님 딸이랑 선뵈다며?
 강재: 누가 그런 소릴 해? <2014_TV드라마, 가족>
 ㄷ. 재구: **어이** 탑승 탑승. 오육구사 **어이** 오육구사 스톱 스톱 스톱.
 여성: 자 어서 타세요. <1963_영화, 또순>

담화 상황에 따른 ‘어이’의 출현 빈도는 <표 18>과 같다. ‘어이’는 대체로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며 사용된다.

<표 18> 담화 상황에 따른 ‘어이’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질문	요청	명령	문제 제기	질책	제안	진술	총합
출현 빈도	12	9	9	8	8	6	4	56

3.7. 실례합니다

<표 19>는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실례합니다’의 출현 빈도이다. ‘실례합니다’는 자료에서 1950년대 부터 쓰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쓰임이 유지되고 있다. ‘실례합니다’는 화자가 주로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호출할 때 사용된다.

<표 19>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실례합니다’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아는 사람	0	0	0	0	0	0	0	0	2	2
낯선 사람	0	0	4	2	2	2	0	2	4	16
불특정 사람	0	0	0	0	0	0	0	2	0	2
총합	0	0	4	2	2	2	0	4	6	20

‘실례합니다’는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18회 모두 실현된다. 힘의 위계는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 10회,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경우 8회 나타난다.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았다.

담화 상황에 따른 ‘실례합니다’의 출현 빈도는 <표 20>과 같다. ‘실례합니다’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외부에서 안에 있는 상대를 부르거나, 내부에서 자신이 방문했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질문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된다.

<표 20> 담화 상황에 따른 ‘실례합니다’의 출현 빈도(회)

담화 상황	요청	질문	방문 호출 (비대면, 외부)	방문 호출 (대면, 내부)	총합
출현 빈도	2	4	2	12	20

(Jㄱ)에서는 화자가 용건이 있는 장소(집)를 방문하여 외부에서 집 안에 있는 누군가를 ‘실례합니다’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다. (Jㄴ)에서는 화자가 용건이 있는 장소(가게)를 바로 들어가 청자를 보며 ‘실례합니다’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본인이 왔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고 대화를 이어 나간다. (Jㄷ)은 화자가 낯선 사람을 부르는 상황에서 ‘실례합니다’가 사용된 사례이다.

(J) ㄱ. 남성: (실외에서) **실례합니다**.

경택: 누구십니까?

남성: 여기가 서건 씨 댁 맞습니까? <2006_TV드라마, 멋진>

ㄴ. 찬우: (실내에서) **실례합니다**.

박주사: 나 말이요?

찬우: 예.

박주사: 왜 그러슈?

찬우: 영감님 혹시 관상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1961_영화, 서울>

ㄷ. 동혁: 저 **실례합니다**. 저 광주에서 오신 김기룡 씨라고 계십니까?

남성: 저 채석장 뒤에 있는데 곧 나오실 겁니다. <1967_영화, 일월>

3.8. ‘계세요’류

<표 21>은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계세요’류의 출현 빈도이다. ‘계세요’류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 화자가 불특정 사람을 부를 때만 호출어로 사용되었다. ‘계세요’류는 청자대우법 어미의 결합에 따라 ‘계세요’, ‘계십니까’, ‘계시오’ 등의 형태로 실현된다.

<표 21>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계세요’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불특정 사람	1	2	3	3	2	1	1	0	0	13

‘계세요’류는 화자가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하여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자신이 이곳에 방문하였다는 것을 알릴 때 사용된다. 그리고 화자가 특정 지역에 누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계세요’류를 호출어로 사용한다. ‘계세요’류가 호출어로 사용되는 담화 상황은 방문 호출 상황이다.

(Kㄱ)은 화자인 형사가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서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계십니까’, ‘계세요’가 사용된 사례이다. (Kㄴ)는 항공대 학생들이 비행기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구경하는 상황인데, 안에 누군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세요’를 사용하였다.

(K) ㄱ. 김형사: 계십니까? 계세요?

여성: 누구요?

김형사: 아 저 여기 김남홍이라구 있죠?

여성: 아휴 내 아들이여. 서울 어디서 오셨슈? 아 선수촌에서 왔어요? <1970_TV드라마, 반장>

ㄴ. 윤철: 우와!

상현: 계세요?

민기: 조종실이 저쪽인가?

윤철: 아- 웬 계기가 이렇게 많아? <1993_TV드라마, 파일럿>

3.9. ‘이리 오너라’

<표 22>는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이리 오너라’의 출현 빈도이다. ‘이리 오너라’는 1930년대에만 실현되었고 화자가 불특정 사람을 부를 때만 실현되었다. ‘이리오너라’가 호출어로 사용되는 담화 상황은 방문 호출 상황이다. (Lㄱ,ㄴ)에서와 같이 화자가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대문 밖에서 집 안에 있는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된다.

<표 22> 호출 상대에 따른 연도별 ‘이리 오너라’의 출현 빈도(회)

호출 상대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불특정 사람	5	0	0	0	0	0	0	0	0	5

(L) ㄱ. 순사: 이리 오너라. 안에 계시오?

여성: 아 나리 어서 들어오세요. <1930_유성기연극>

ㄴ. 월초: 이리 오너라.

남성: 누구십니까? 들어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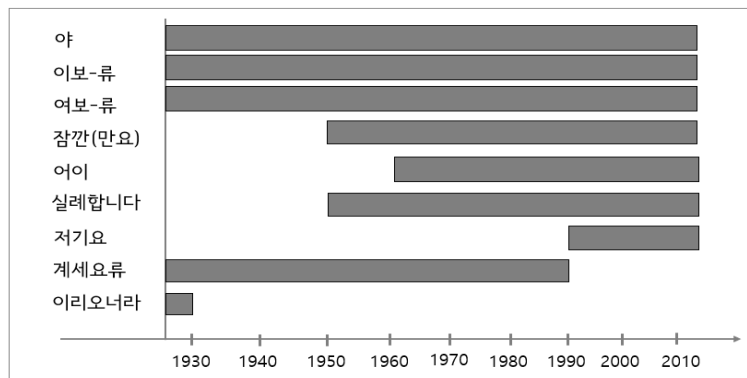
아 서월초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월초: 저 다른 게 아니라 아씨께서. <1930_유성기연극>

4. 현대국어 호출어의 사용 양상 비교

3장에서는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를 파악하고, 시기별로 호출 상대, 화청자의 친밀도 및 힘의 위계, 담화 상황에서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국어 호출어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며 논의한다.

<그림 1>은 현대국어 호출어의 연도별 실현 양상을 정리한 내용이다. 1930년대부터 2010년까지 현대국어 전 시기에서 실현되고 있는 호출어는 ‘야’, ‘이보-’류, ‘여보-’류이다. 이 세 가지 호출어는 현대국어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현대국어 내에서 다른 호출어에 비해 사용 기간이 긴 편이다. 또한 전체 9개의 호출어 중에서 사용 빈도(누적 비율 77.6%)도 높게 실현된다.



<그림 14> 현대국어 호출어의 연도별 실현 양상

‘여보-’류는 현대국어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만 1980년대 이후로 사용이 줄어든다. 즉, ‘여보-’류는 대면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을 부르는 호출 기능이 1980년대를 전후로 축소되고, ‘여보’와 ‘여보세요’라는 형태로 부부 사이라는 특정 관계에서 부부 호칭어로 사용되거나 전화 중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인사말로 사용되어 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¹⁹⁾

‘잠깐(만요)’, ‘어이’, ‘실례합니다’는 1950~1960년대부터 사용이 나타나고 ‘저기요’는 1990년대부터 실현되어 모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호출어이다. 이 중에서 ‘저기요’는 호출어 중에 가장 최근에 와서야 사용을 시작한 말인데, 현재는 낯선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호출어이다.

‘계세요’류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리 오너라’는 1930년대만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사용된 호출어이다. 이 두 호출어는 모두 화자가 주로 남의 집, 사무실 등과 같은 특정 장소에 방문하여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되는 말이다. ‘이리 오너라’의 정확한 사용 시작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신분 제도가 있었던 오래전부터 주로 양반 신분인 방문객이 대문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여 현대국어의 초기까지 그 쓰임이 이어진다. ‘계세요’류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나타나는 데, 2000년대 이후 휴대폰, 인터폰 등의 통신 매체 및 기계의 발달로 인하여 그 쓰임이 이전만큼은 빈번하지 않다. 최근에는 주로 중년, 노년층이 식당, 가게 등의 장소를 방문하였는데 그 장소에 직원이나 담당자가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을 부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9) 송인성, 앞의 글, 2016, 228면.

<표 23> 현대국어 호출어의 호출 대상, 친밀성, 힘의 위계의 실현 양상

호출어	호출 대상	친밀성	힘의 위계
야	아는 사람 ^(주) , 낯선 사람	○ ^(주) , ×	동등 ^(주) , 높음
여보-류	아는 사람 ^(주) , 낯선 사람, 불특정 사람	○, ×	동등 ^(주) , 높음, 낮음
잠깐(만요)	아는 사람 ^(주) , 낯선 사람	○, ×	동등 ^(주) , 낮음, 높음
어이	아는 사람 ^(주) , 낯선 사람	○, ×	높 ^(주) , 동등
이보-류	아는 사람 ^(주) , 낯선 사람	× ^(주) , ○	동등 ^(주) , 높음, 낮음
저기요	낯선 사람 ^(주) , 아는 사람	×	동등 ^(주) , 낮음
실례합니다	낯선 사람 ^(주) , 불특정 사람	×	동등, 낮음
계세요류	불특정 사람	판단 불가	판단 불가
이리 오너라	불특정 사람	판단 불가	판단 불가

(주): 주로 실현되는 것. 힘의 위계에서 '높음'과 '낮음'은 화자 기준, '동등'은 화청자 기준

<표 23>은 현대국어 호출어의 호출 대상, 친밀성, 힘의 위계의 실현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여러 호출어가 호출 대상이 아는 사람일 때 주로 사용된다. 그중에서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호출어는 '야'이다. '야'는 사전에 어른이 아이를 부르거나 같은 또래끼리 서로 부르는 말로 정의된 것처럼, 화자와 청자가 친한 사이에서 힘의 위계가 동등하거나 혹은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높을 때 사용된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나 부부 및 연인 간에 '야'를 사용하는 경우 청자가 기분의 상함, 언짢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화청자가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야'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거의 '야'가 실현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호출 대상이 주로 아는 사람이고, 화자와 청자가 친한 관계와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모두 사용되는 호출어는 '여보-류', '잠깐(만요)', '어이'이다. 이 가운데 '여보-류', '잠깐(만요)'는 힘의 위계가 화청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관계와 낮은 관계에서 모두 사용된다. 하지만 '어이'는 힘의 위계가 화자가 높거나 화청자가 동등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화자가 낮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수의 호출어가 화청자가 동등한 힘의 위계를 지닌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달리, '어이'는 화자가 청자보다 힘이 높은 경우에 주로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호출어는 '이보-류', '저기요', '실례합니다'이다. '이보-류'는 주로 아는 사람에게 사용되지만 '저기요', '실례합니다'는 화자와 청자가 낯선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차이를 보인다. '저기요', '실례합니다'는 힘의 위계도 화자와 청자가 동등하거나 화자가 청자가 낮은 경우에만 사용되고, 화자가 청자보다 힘의 위계가 높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계세요'류와 '이리 오너라'는 호출 대상이 불특정 사람이다. 화자가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하여 그 장소 안에 있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된다.

<표 24> 현대국어 호출어의 주된 담화 상황의 실현 양상

호출어	주된 담화 상황
야	문제 제기, 질책, 명령
이보-류	문제 제기
여보-류	요청, 질문, 종업원 호출
잠깐(만요)	요청
저기요	요청, 질문
어이	질문, 요청
실례합니다	방문 호출(실내 대면, 실외 비대면)
계세요류	방문 호출(실외 비대면)
이리 오너라	방문 호출(실외 비대면)

<표 24>는 호출어가 실현되는 주된 담화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호출어가 실현되는 주된 담화 상황은 문제 제기 등을 하는 상황, 요청 및 질문 등을 하는 상황, 방문 호출을 하는 상황으로 구분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문제 제기 등을 하는 담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호출어는 ‘야’, ‘이보-’류이다. 화자는 청자의 말과 행동 및 발화 상황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호출어를 주로 사용한다. ‘야’는 화청자가 친한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 반해 ‘이보-’류는 화청자가 친하지 않는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주로 요청, 질문 등의 담화를 전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호출어는 ‘여보-’류, ‘잠깐(만요)’, ‘저기요’, ‘어이’이다. 이 중에서 ‘잠깐(만요)’가 호출어로 실현될 때 화자의 다급한 태도가 자주 나타나는데, 화자가 지금 당장 특정 발화나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가 진행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을 ‘잠깐(만요)’를 통해 멈추게 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곧장 드러낸다.

‘여보-’류와 ‘저기요’는 주로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여보-’류는 현대국어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되다가 그 이후로 호출어로 쓰임이 약화된다. ‘여보-’류가 면대면 상황에서 사용이 감소하자 이 역할을 대신하여 1980년대 이후 사용되는 호출어가 ‘저기요’이다. ‘저기요’는 근래에 들어 화자가 상대에게 요청, 질문, 제안 등을 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것이 관찰된다.²⁰⁾

‘여보-’류는 종업원 호출어라는 담화 상황에서도 쓰임이 나타난다. 분석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화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종업원을 부를 때 ‘여기요’라는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 ‘여보-’류가 대면 상황에서의 호출어로 쓰임이 약화되었는데 이 ‘여기요’의 사용을 통해 ‘여보-’류의 쓰임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례합니다’, ‘계세요’류, ‘이리 오너라’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리 오너라’는 사전에 예전에 남의 집에 찾아가 대문 밖에서 그 집 사람을 부를 때 하던 말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와 같이 ‘이리 오너라’는 오래전에 방문 호출을 하기 위해 사용한 말인데 현대국어 초까지 그 쓰임이 나타난다.

현대국어 초기 이후에 ‘이리 오너라’의 쓰임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를 대신하여 ‘계세요’, ‘실례합니다’라

20) 최근 ‘저기요’가 요청, 질문 등의 담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보-’류가 현재로 오면서 요청, 제안 등의 상황에서 쓰임이 감소하고 문제 제기, 경고의 사용이 강화된 것과도 유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인성, 앞의 글, 2020, 552-556면.

는 표현이 등장한다. '계세요'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주로 외부에서 비대면으로 상대를 부르며 자신이 방문한 것을 알릴 때 사용된다. 반면에 '실례합니다'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내부에서 직접 상대를 보고 부를 때도 사용된다. 최근 들어 통신 매체 및 기기의 발달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예고 없이 방문 호출을 하는 상황이 이전보다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방문 호출 상황에서의 '계세요', '실례합니다'와 같은 말의 사용도 줄어들고, 중년이나 노년층에서만 간간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에서 실현되는 호출어의 종류를 살피고, 각 호출어의 시대별 사용 양상을 호출 상대, 화청자의 친밀도 및 힘의 위계, 담화 상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호출어의 종류는 '야', '이보-'류, '여보-'류, '잠깐(만요)', '저기요', '어이', '실례합니다', '계세요'류, '이리 오너라'로 나타났다.

'야', '이보-'류, '여보-'류는 현대국어 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는 호출어이다. '야'와 '이보-'류는 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담화 상황에서 실현되는데, '야'는 화청자가 친하고 힘의 위계가 동등한 관계에게 사용되고, '이보-'류는 주로 '이봐', '이봐요'의 형태로 화청자가 친하지 않고 힘의 위계가 다양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여보-'류는 주로 '여보', '여보게', '여보세요'의 형태로 쓰이며 요청을 하는 담화 상황에 실현되는데 1980년대 이후 쓰임이 약화된다.

'잠깐(만요)'는 화자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제지하고 자신의 발화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저기요'는 1990년대부터 사용이 나타나는데 화자가 낮은 상대에게 주로 요청하기 위해 실현된다. '어이'는 주로 화청자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쓰이고, 청자보다 화자의 힘의 위계가 높은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실례합니다', '계세요'류, '이리 오너라'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대방 혹은 누군가를 호출하는 상황에서 주로 쓰는 말이다. '계세요'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주로 외부에서 그 안에 있는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된다. 반면에 '실례합니다'는 화자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내부에서 상대를 직접 보고 부를 때도 사용된다. '이리 오너라'는 예전에 남의 대문 밖에서 그 집의 사람을 부를 때 실현하던 말인데 현대국어 초까지 그 쓰임이 나타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호출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호출어의 종류와 사용 양상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호출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국어 부름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강소산·전은주,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제9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363-389면.
- 강우원, 「경남 방언의 부름말 실현 양상과 문화적 특성」, 『언어과학』 제15-2호, 한국언어과학회, 2008, 1-19면.
- 구현정, 「대중매체로 본 광복 70년 부부 호칭 변화」, 『한국어 의미학』 제51호, 한국어의미학회, 2016, 85-110면.
- 김태엽, 「국어 부름말의 문법」, 『우리말글』 제29호, 우리말글학회, 2003, 107-127면.
- 박정운, 「한국어 호칭 체계」, 『사회언어학』 제5(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997, 507-527면.
- 손춘섭,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33호, 한국어 의미학회, 2010, 95-129면.
- 송인성, 「20세기 구어 자료에 나타나는 ‘여보’류의 사용 양상 변화」, 『우리어문』 제56호, 우리어문학회, 2016, 203-233면.
- _____, 「현대국어 호출어 ‘이+보-’류의 발달과 사용 양상의 변화」, 『민족문화연구』 제89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539-561면.
- 송수영·김양진, 「한국어에서의 호출어 개념 연구」, 『국어학』 제104호, 국어학회, 2022, 87-117면.
- 왕한석 외, 『한국 사회와 호칭어』, 역락, 2015.
- 이선화, 「공공 상황에서의 한국어 호칭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운진,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제17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287-306면.
- 전혜영, 「한국어 호칭어의 교육 내용과 과제」, 『연구와 교육』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5, 121-135면.
- 조용준, 「한국어 호칭 표현의 범위와 그 특성」, 『한말연구』 제50호, 한말연구학회, 2018, 169-201면.
- 황병순, 「국어 부름말의 유형 연구」, 『어문학』 제137호, 한국어문학회, 2017, 227-254면.
- Eggs, S.,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London: Printer Publishers, 2004.
- Fasold, R.,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asil Blackwell, 1990. (황적륜 외 역,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1994)
- Leech, G., “The distribution and function of vocatives i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conversation”, In H. Hasselgard & S. Oksefjell (Eds.), *Out of Coopora (Studies in honour of Stig Johansson)*, Amsterdam: Rodopi, 107-118, 1999.

■ 토 론

“구어자료에 나타난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와 사용 양상”에 대한 토론문

이성우(한림대)

발표문 잘 보았습니다. 호출어 및 호칭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저에게 큰 공부의 기회였습니다. 무지한 제가 토론을 하는 것이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발표자 선생님께 큰 실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 염려스럽습니다. 선생님의 논의 대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토론자의 임무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몇 가지 사소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일개 연구자의 우문으로 여겨주시고, 너그러이 답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 담화 상황에 관련된 질문

발표문에서는 담화 상황을 요청, 제안, 질문, 걱정, 칭찬, 진술, 명령, 종업원 호출, 방문 호출, 문제제기, 질책, 위협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안과 요청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발표문 5쪽에 제시된 ‘야 조심해’는 왜 걱정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요청과 제안, 명령 모두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2. ‘이보-’와 ‘여보-’의 구분

어원적으로 ‘이보-’와 ‘여보-’는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을 듯합니다. 제가 무지하여 이와 관련된 논의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나누신 분명한 근거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3. 예문 판별에 대한 질문

발표문 9쪽의 (F)의 한호의 대사 ‘여보 영애’에서 여보는 호출어가 아니라 호칭어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4. 기타 호출어에 대한 질문

‘저기요’, 잠깐(만요)와 같은 예들을 봤을 때, 이와 관련성이 있는 ‘여기요’라든가, ‘잠시만요’와 같은 예들은 말뭉치 자료에서 잘 안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5. '계세요'와 '이리오너라'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

통계 결과를 고려했을 때, '계세요'와 '이리 오너라'는 현대 한국어에서 호출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 고민하신 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식견에 의한 질문이니 너그려이 보아주십시오.

더불어 예문의 출처가 보다 명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IL)의 경우 TV드라마 가족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 '가족끼리 왜이래'의 대사인 듯합니다. 제가 주말에 챙겨보던 드라마여서 기억에 남습니다. 다만 드라마 이름들이 약호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부연도 논문으로 승화시킬 때 해주신다면 보다 친절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2007 강남은 강남엄마 따라잡기인 듯한데, 2014 TV드라마 연애는 연애의 발견이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비판적 언어학과 담화분석

김병건(건국대)

< 차 례 >
1.
2.
3.
4.
■ 참고문헌

1.

현재의 담화(a discourse)나 담론(Discourse) 속에 깃들여 있거나 숨겨져 있는 이념들(ideologies)을 드러내고자 하는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이하 CDA)은 텍스트 분석의 새로운 한 흐름으로서 이념의 자연화(naturalization)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담화 전략이 사회 질서를 합법적으로 통제하거나 자연화하는가, 지배의 함의, 수용 및 정당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탐색한다. Althusser의 이데올로기 이론, Bakhtin의 장르 이론, Gramsci, Habermas, Foucault 등의 철학적 전통으로부터 유래하는 CDA는 일반적으로 학제적이며 다양한 데이터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법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은 이론적 배경과 관련해서 ‘비판적 언어학’(Critical Linguistics, Fowler 1991, 1996; Kress 1989; Kress and Hodge 1979), 미시언어학적 접근인 Halliday의 모형과 Foucault로부터 구축된 거시적 분석 방법을 결합한 ‘사회-기호학적 접근법’(socio-semiotic approach, Fairclough 1989, 1992, 1995a, 1995b), 담론의 형성 또는 흐름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반영하는 ‘담화-역사적 접근법’(discourse-historical approach, Reisigl and Wodak 2001; Wodak 1996, 2001), 인지이론을 담론의 층위 분석에 적용한 ‘사회-인지적 접근법’(socio-cognitive approach, van Dijk 1995, 1998, 2002) 등 보통 네 가지의 주류적 CDA로 나눈다(Hart 2010).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성, 목표 및 원칙을 공유한다(Wodak(1996; Titscher et al.(2000; 남상백 역(2015:229-230) 재인용))).

CDA의 일반적 원칙들

- CDA는 사회문제와 관련 있다. 그것은 언어나 언어 사용 자체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과정과 구조의 언어적 성격과 관련 있다. 따라서 CDA는 본질적으로 학제적이다.
- 권력관계는 담론과 관련 있고, CDA는 담론 내의 권력(power in discourse)과 담론 배후의 권력(power behind discourse) 둘 다를 연구한다.

- 사회와 문화는 담론과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사회와 문화는 담론에 의해 형성되며, 동시에 담론을 구성한다. 단 하나의 언어 사용 사례도 권력관계를 포함해 사회와 문화를 재생산하거나 변화시킨다.
- 언어 사용은 이데올로기적일 수 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 그것의 해석, 수용, 사회적 효과를 조사해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담론은 역사적이며 오직 그것의 맥락과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메타이론적 수준에서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접근과 일치하는데, 이것에 따르면 발화의 의미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의 용법에 달려 있다. 담론은 특정한 문화, 이데올로기, 또는 역사에 배태될 뿐만 아니라, 다른 담론에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텍스트와 사회의 연관성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것은 텍스트 이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모델에서 발견된 사회인지적 매개 같은 특정한 매개를 통해 분명해진다.
- 담론 분석은 해석적이고 설명적이다. 비판적 분석은 텍스트와 그것의 사회적 조건과, 이데올로기와 권력관계 사이의 관계와, 체계적 방법론을 의미한다. 해석은 항상 역동적이며, 새로운 맥락과 새로운 정보에 열려 있다.
- 담론은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이다. CDA는 그것의 관심을 분명히 하고, 그것의 발견들을 실천적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과학 학문으로서 이해된다.

여기에서는 이 다양한 접근법 중 비판적 언어학(Critical Linguistics, 이하 CL)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을 출발점에서부터 탐색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CL은 거의 모든 CDA 접근법의 출발점으로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어휘나 구조 등)으로부터 매핑된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미시적 텍스트 분석의 방법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기에 몇몇 CDA 연구결과물에게는 뼈아픈 “문법에 기초하지 않은 담화분석은 전혀 분석이 아니다. 단지 텍스트에 대한 중계방송(a running commentary)에 불과하다.”는 Halliday(1994: xvi)의 지적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이 출발점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

CL은 Roger Fowler와 Bob Hodge, Gunther Kress, Tony Trew의 1979년 저작 *Language and Control*에서 등장했다(Fowler 1995; 1996). 이들은 영국 Norwich의 East Anglia 대학의 Hallidayan 언어학자들로, CL의 출현은 화용론(특히, 언어행위이론(speech act theory))과 Labov의 양적상관관계 사회언어학(quantitative sociolinguistics)에 대해 강한 반발이 출발점으로 이해된다(Wodak, 2011). Fairclough(2001; 김지홍 역(2011: 33-39))에 따르면, 화용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이 그 밑바닥 규칙을 동등하게 통제하고,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적 상호작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갈등 속에 자리 잡고 권력의 불평등으로 갈가리 찢겨 있기에 동등한 참여자들 사이의 협력적 상호작용은 이상향의 그림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사회언어학은 ‘무엇?’이라는 물음(대체 무엇이 변이체에 대한 사실들인가?)에는 강하지만, ‘왜?’와 ‘어떻게?’라는 물음(왜 그 사실들이 그렇게 존재하는가?, 권력의 사회적 관련성에 대한 발전에 비추어 기존의 사회언어학적 질서가 어떻게 도입되어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리고 그런 질서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을 것인가?)

가?)에는 취약하다.

CL에서의 '비판적'이라는 용어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 속에 정의된다. 그들에게 비판은 제약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고, 현실로 가장한 내재적 기형을 제거함으로써 해방(liberation)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의식으로 간주되는 것의 조건을 바꾸거나 심지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담론에서 잘못된 표상과 차별을 드러내기 위해 언어 분석을 사용하여, 이화(defamiliarisation, 일상화한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롭게 인식시킴) 또는 의식 고양(consciousness-raising)하고자 하는 것이다(Fowler 1996).

3.

CL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가정(Fowler et al 1979)을 바탕으로 언어 구조와 사회 구조 사이의 강력하고 만연한 연관성을 가정하고, 담론은 사회적 의미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 가지 가정.

[1] 언어가 세 가지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language has three predominant functions.)

[2] 선택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체계적으로 안내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우발상황과 담화 참여자의 목적에서 도출되는 안내이다.(choices are made from systems, and in a systematically guided manner, the guidance deriving from the social contingencies and the purpos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discourse.)

[3] 의미는 구문 형식과 프로세스로 전달되고 표현된다. 즉, 분석가가 구문에서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the meanings are carried and expressed in the syntactic forms and processes, that is, that the analyst can 'read off' meaning from the syntax.)

세 가지 가정은 Halliday(1994)의 체계기능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 이하 SFG)을 분석 도구로 이용한 결과이다. SFG는 문법을 인간의 경험과 상호적 인간관계의 다면적 성격을 반영하는 구조로 이해하고, 개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대인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으로 이루어진 메타 기능(Meta-function)으로 언어의 무한한 실제 기능(limitless practical functions)은 일반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념적 기능'은 화자가 실제 세계의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구현하는 기능이며, '대인적 기능'은 화자 자신의 논평이나 태도, 평가, 그리고 화자 자신과 청자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이고, '텍스트적 기능'은 정보가 배열되고, 조직되며, 제시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1]의 세 가지 주요한 기능은 이 개념적·대인적·텍스트적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또, SFG는 언어를 상호적인 선택의 집합(interrelated sets of options)으로 이해하는데, "모든 언어 사용이 언어로써 세계를 표상을 중재하는 이념적 패턴이나 담론적 구조를 암호화한다.", "다른 사용법(사회언어적 변이, 어휘적 선택 또는 구문적 환언)은 서로 다른 상황과 목적에서 비롯되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인코딩한다.", "언어의 특정한 형태는 사회적, 개인적

필요와 밀접하게 관련있다.”, “언어는 중립적으로 표현되는 고정된 객관적 현실이 아니다. 세계에 대한 화자의 시각이 매개되는 구조화된 그리드(grid)를 구성한다.” 등의 SFG의 가정을 받아들인 것이 [2]이다(Fowler 1995).

[1]과 [2]를 받아들인다면, [3]에서처럼 분석가는 당연히 언어적 특징을 단서로 사회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언어적 형태와 어떤 특정한 사회적 의미 사이에는 예측가능한 일대일 연관성이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정 언어 형태, 하나의 구조, 하나의 프로세스 등 담론의 구성 요소를 맥락에서 들어내고 고립된 상태에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Fowler et al 1979). CL은 언어 구조로부터 이념적 또는 사회적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자동 해석 절차가 아니며, 사회적 의미는 텍스트가 발생하는 맥락과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에 의존한다고 한다(Fowler 1995).

Fowler et al(1979)에서는 위의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텍스트 분석을 위한 다섯 개의 체크리스트를 보이고 있다; ‘동사성(transitivity)’, ‘양태(modality)’, ‘변형(transformation)’, ‘분류(classification)’, ‘일관성(coherence)’.¹⁾

[1] 사건, 상태,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실체: 동사성의 문법 (Events, states, processes, and their associated entities: the grammar of transitivity)²⁾

‘개념적 기능’은 ‘동사성(transitivity)’이 핵심이다. ‘동사성’은 우리의 경험 속 현상의 이해를 반영하는 체계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수를 때렸다.’라는 문장에서 ‘철수’는 ‘행위자’(Actor)이고, ‘영수’는 ‘목표’(Goal)이며, ‘때리-’는 ‘프로세스’(Process)이다. 이 행위자, 목표, 프로세스 등과 같은 하위범주들은 우리가 실제 세상에 나타난 경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의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서 텍스트 생산자의 이념을 엿볼 수 있다. 가령 ‘철수가 영수를 때렸다’, ‘영수가 철수한테 맞았다’, ‘영수가 맞았다’라는 세 문장을 비교해 본다면 세 번째 문장에서 감추어진 것(배제된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런 의도적인 감춤이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지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사성 분석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프로세스³⁾에 등장하며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2] 화자와 청취자의 대인관계: 양태의 문법 (the interpersonal relations of speaker and hearer: the grammar of modality)

여기에는 호칭과 ‘우리’의 사용, 서법(mood) 등 대인적 기능과 관련 있는 언어 형태의 분석과 관련 있다.

1) 아래의 설명 대부분은 Fowler et al(1979) 중 Roger Fowler와 Gunther Kress가 쓴 10장 Critical linguistics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2) 동사성에 대한 설명은 김병건(2015)에서 그대로 가져와 조금 수정한 것이다.

3) ‘동사성’ 체계의 프로세스는 ‘물질 프로세스(material process), 정신 프로세스(mental process), 관계 프로세스(relational process), 동작 프로세스(behavioral process), 구두 프로세스(verbal process), 존재 프로세스(existential process)’ 등 여섯이다. ‘물질 프로세스’는 외면적인 움직임이나 동작을 표현한다. ‘정신 프로세스’는 내면적 활동을 표현하며, ‘동작 프로세스’는 생리적·심리적 행동을 표현한다. ‘구두 프로세스’는 말하는 행위를 표현하며, ‘존재 프로세스’는 존재의 의미를 표현한다. 마지막, ‘관계 프로세스’는 참여자의 속성이나 소유 등 관계를 표현한다.

먼저 호칭을 보면, 누군가가 발표자를 부를 때 ‘김병건 교수님’, ‘김 선생’, ‘병건이 형/오빠’, ‘병건아’ 또는 ‘야’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호칭에서 우리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누가 힘의 우위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CL에서 호칭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사용으로는 누가 우리 편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가진 입장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van Dijk(1998:267)는 담화에서 이념 번식(ideological reproduction)을 위한 전략으로 보통 ‘정보의 존재와 부재’(the presence or absence of information)를 사용한다고 하며, 이를 ‘이념 사각형’(ideological square)이라 불렀다. 이념 사각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우리에게 대한 긍정적인 정보는 표현/강조하라. 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표현/강조하라. ㄷ.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는 억제/경시하라. ㄹ. 우리에게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억제/경시하라. |
|--|

언어행위이론과 관련하여, 누가 어떤 명령형을 사용하는가는 힘에 대한 표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역할 관계(누가 통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가?) 반영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듯, 힘이 작을수록 언어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회적 표현의 양이 증가한다. 의무, 능력, 가능성, 필요성, 기대 등을 표현하는 양태 동사들(modal verbs)과 확실히, ‘아마도, 분명히’와 같은 양태 부사들(modal adverbs)로 권한 또는 권위를 알아챌 수 있다.(누가 어떤 사실에 대해 단언할 수 있는가? 또는 단언하는가?) Fowler et al(1979)에서는 look, seem과 think, feel, want, wish, try, like, see, understand와 같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 수신자에게 다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명제를 붙일 수 있는 광범위한 동사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seem은 화자가 단순히 해석자일 뿐인 외부 사건에 의해 생성되는 효과를 표현한다. 시제, 특히 ‘현재시제’도 이 시스템 속 하나이다. 현재시제는 특히 확실성, 의문의 여지가 없는, 연속성, 보편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장치이다.

[3] 언어적 자료의 조작: 변형 (the manipulation of linguistic material: transformations)

CL에서는 특히 명사문화(nominalization)와 수동태문화(passivization)에 주목한다. 명사문은 언어 속 활동적인 느낌을 약화시키고, 참가자들(행위자나 대상)을 삭제하는 효과를 일으키며, 양태 및 시제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제공되는 정보를 모호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1978년 3월 말경 발생한 초대형 유조선 아모코 카디스의 난파 보도 도중 - 이 신문이 보도할 당시 난파선은 해체 과정에 있었고, 기름이 유출되었다 - 옮겨버는 ‘초대형 유조선의 움직임에 대한 과감한 제한을 가하려는 프랑스의 움직임이 영국의 개입 후에 중단되었다.’고 보도했다. 명사화한 ‘움직임’과 ‘개입’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이에 대한 신문의 태도를 모호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일부 설명과 판단은 뒤따르지만, 프랑스의 ‘움직임’이 이 특정한 재앙의 결과인지, 아니면 아모코 카디스가 난파되기 전에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In the middle of a report of the wreck of the oil supertanker *Amoco Cadiz*, which happened towards the end of March 1978 – the wrecked ship was in the process of breaking up, and oil spilling, at the time this newspaper went to press – the Observer gives the information 'French moves to slap drastic restrictions on supertanker movements have been dropped after British intervention.' The nominalizations 'moves' and 'intervention' have the effect of obscuring the times at which these actions took place, and the newspaper's attitude to them. Some explanation and judgment follows; however,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 French 'moves' were a consequence of this particular disaster, or had been made before the *Amoco Cadiz* was wrecked.

Fowler et al(1979; 2008)

명사문은 어휘화(lexical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 어휘화는 '엄격한 분리', '기본 접근', '학교 저녁 식사 서비스', '인민 재판', '불법 구금'처럼 프로세스로서의 객체를 하나의 습관화된 항목으로 수정한다.

수동태로 참여자가 삭제됨으로써 그 행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1997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선거자금모금 추문에 대한 "실수들이 저질러졌다"는 말) 수동태는 화자의 우선순위를 강조할 수 있게 해준다. 수동태에서는 영향을 받는 담화참여자를 문장의 주어 위치, 즉 주제(theme) 위치에 둬으로써 정보적으로 중요한 대상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영향을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된다. 아래의 문장은 '소금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뜻으로 쉽게 읽힐 수 있다.

Salt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high blood pressure.

[4] 언어적 순서: 분류의 문법 (linguistic ordering: the grammar of classification)

분류는 단어의 선택("우리 누나는 절약한다/인색하다.")과 재어휘화(relexicalizations, "이 재명 2차 檢 출석...與 "사법 영역" 野 "신독재 폭주""(NEWSIS, 2023.1.30)), 과어휘화(overlexicalization)와 관련된다. 특히 과어휘화는 그 언어를 생성하는 집단의 경험과 가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집착하는 영역을 확인함으로써 그 집단의 이데올로기에서 특이점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첫 UN총회 기초연설 관련 기사 중 "윤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이날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21회)였다. 이어 '유엔'이 20회, '국제사회'가 13회씩 나왔다.")

[5] 일관성, 순서 및 담화의 통일성 (coherence, order and unity of the discourse)

일관성 있는 담론의 구성으로 화자는 자신이 제시하는 자료의 내부 질서에 대한 개념을 구

현하며, 사건들의 상호관계, 각각의 순서(sequence), 중요성, 상호의존성은 전체적으로 담론의 구조에 나타나 있기에 텍스트 구조에 대한 탐색은 중요하다.

4.

CL(넓게는 CDA)를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대표적으로 Widdowson(2004; 김지홍 역(2018))이 그러하다. 그는 우선, CL을 “체계기능문법에서 이론적 토대를 얻는다고 하지만 체계기능언어학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담고 있지 않고, 목적을 위하여 유용해 보이는 것을 편리하게 고르고 뽑아내어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CL에는 수많은 방법론적이고 이론적인 제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Fowler 1996). 분석을 위한 범주와 도구는 이러한 모든 단계와 절차 및 조사 중인 특정 문제에 따라 정의된다(Wodak, 2011). Fowler(1995)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다원주의의 이유를 언어 분석의 어떤 모델도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 전제에서 차이가 나지만 Halliday로부터 양태(modality)를, Chomsky로부터 변형(transformation)을, Searle로부터 발화행위(speech act)를 빌려쓰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현재는 Grice의 함축(implicatures), Sperber&Wilson의 적절성(relevance), 인지심리학의 스키마타(schemata), 인지의미론(특히, Rosch)의 원형(prototype) 뿐 아니라 문학비평으로부터 은유(metaphor)의 개념을 가져와 이용한다.

그는 또, “어떤 텍스트 자질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해 주는 기준이 주어지지 않는다.” “언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도막에 우리 자신이 배당하는 의미가 얼마만큼 옳은 것으로 실증되는지를 알아내거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처리하려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임의의 도막에 의해서 얼마만큼 뒷받침되지 않는지를 알아낼 길이란 전혀 주어질 수 없다.”고 하며 자의적 해석을 경계했다. 신동일(2019)에서처럼 CL은 “담론 연구자들은 텍스트 수집절차, 분석 범주, 해석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특히 언어형식 자질의 범주로부터 자료를 관리하지 않은 채 이미 전제하고 있는 듯한 이데올로기적 동기로부터 인상주의적 일반화를 시도한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Faiclough(2003; 김지홍 역(2012:49))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부 독자들은 이들 동기에 근거한 텍스트 분석을 놓고서 접근법에 대한 ‘객관성’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만일 ‘객관적’이란 말로써 분석 주체의 ‘주관성’에 의해 ‘치우치는’ 상태가 전혀 없이 단순히 텍스트에서 ‘거기에’ 들어 있는 바를 서술하는 분석만 의미한다면,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거기에’ 있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불가피하게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은, 필시 ‘거기에’ 있는 바를 초월하는 특정한 동기들로부터 제기된다.

Widdowson은 “특정한 표현이 그 앞뒤-문맥의 연결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고립된 채 다뤄진다.”며, Van Dijk의 “‘쥐꼬리 주급만으로도 일하기’가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어떤 주급을 받더라도 어떤 일이든 할 것이기 때문에, 영국 백인노동자들과 경쟁을 한다’. 따라서 그런 표상이 유사한 인종차별의 결론을 뒷받침해 준다.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훔쳐 가는 것이다!’”는

분석 결과를 두고 “텍스트 전개상의 증거가 없지만 스스로 고정해 놓은 한 가지 표현으로부터 속뜻을 이끌어 낸다.”며 “해당 기고문에는 이런 추론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듯 보인다. 3장에서 보았듯, CL의 주창자들은 담론의 구성 요소를 맥락에서 들어내고 고립된 상태에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Van Dijk의 분석이 타당성을 얻는 이유는 ‘백인이지만 유색인은 아닌 영국 사람들의 고용을 박탈해 버린다.’는 말은 해당 기고문에는 없을지라도 불법체류자 담론, 넓게 본다면 이민자 담론의 맥락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그의 “낱말, 문법, 결속성(cohesion), 텍스트 구조 등이 발화의 힘, 일관성(coherence),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대한 입력물로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고립된 도막들에 대한 분석은 하나의 전체로서 텍스트 속에서 본질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해서 어떤 것도 말해 주는 것이 없다.”는 지적은 CL이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어휘나 구조 등)으로 매핑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는가, 어떻게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등은 CL의 큰 과제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병건(2015), 「메르스 보도에 대한 신문 사설의 비판적 담화 분석」, 『한말연구』 38, 47-76쪽.
- 신동일(2019), 「언어학적 전환과 페어클러프 담론연구의 적용과 오용」,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춘계, 한국질적탐구학회, 39-53쪽.
- Fairclough, N. (2001). *Language and Power*. 2nd Revised Edition. Pearson. (김지홍 역. (2011). 『언어와 권력』. 경진.)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aylor&Francis Group. (김지홍 역. (2012). 『담화 분석 방법』. 경진.)
- Fowler, R. (1995). "Critical Linguistics". in Kirsten Malmkjaer (ed.). *The Linguistics Encyclopedia*. Routledge. 118-122.
- Fowler, R. (1996). "On Critical Linguistics". in Carmen Rosa Caldas-Coulthard and Malcolm Coulthard (eds.). *Texts and Practices: Readings i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Routledge. 3-14.
- Fowler, R., B. Hodge, G. Kress and T. Trew. (1979). *Language and Control*. Routledge.
- Halliday, M. A. K.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Edward Arnold.
- Halliday, M. A. K. (2004).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3rd Edition. Revised by Christian M. I. M. Matthiessen. Hodder Arnold.
- Hart, C. (2010).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Cognitive Science*. Palgrave Macmillan. (김동환·이미영 역. (2017). 『비판적 담화분석과 인지과학』. 로고스라임.)
- Titscher, S., M. Meyer, R. Wodak and E. Vetter. (2000). *Methods of Text and Discourse Analysis*. SAGE Publications. (남상백 역. (2015). 『텍스트와 담론 분석 방법』. 경진출판.)
- Van Dijk, T. A. (1998). *Ideolog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SAGE Publications Ltd.
- Widdowson, H. G. (2004). *Text, Context, Pretext: Critical Issues in Discourse Analysis*. Blackwell publishing. (김지홍 역. (2018). 『텍스트, 상황 맥락, 숨겨진 의도: 담화분석에서 몇 가지 핵심 논제』. 경진.)
- Wodak, R. (2011). "Critical Linguistics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Jan Zienkowski et al (eds.). *Discursive Pragma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50-70.

▣ 토 론

“비판적 언어학과 담화분석”에 대한 토론문

정수현(호서대)

※ 별 지



특 강

의미라고 불리는 것들 사이의 상관관계 검토

박철우(안양대)

< 차 례 >

1. 다양한 '의미'
 2. 엄밀한 의미에서의 '의미'
 3. 의미의 통합: 문장 의미
 4. 의미의 단계: 문자적 의미, 명시 의미, 암시 의미
 5. 의미의 유형 분류
 6.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7. 마무리
- 참고문헌

1. 다양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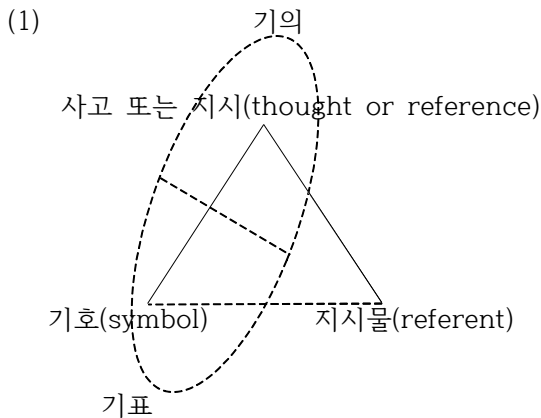
우리는 학문적으로 한국어를 연구할 때 자주 '의미'에 대해 언급한다. 음소를 정의할 때 서로 다른 음소는 '의미'의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라 하여 자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의미를 정의할 때는 지시(reference) 혹은 지시물(referent)을 언어 기호의 의미로 보아야 할지, 그 언어 기호가 가리키는 개념을 의미로 보아야 할지에 따라 '지시(적) 의미'와 '개념(적) 의미'를 언급하며, 사용이 곧 의미라 하여 '사용 의미'를 말하기도 한다. 언어 표현의 단위성에 따라 어휘(적) 의미와 문장 의미를 구분하며, 어휘 의미와 문장 의미가 맥락 독립적인, 언어 기호의 고유성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상황 맥락에 대한 의존성 여부에 따라 화용(적) 의미, 맥락(적) 의미가 별도로 구분된다. 할리데이(1967)는 의미를 크게 관념 형성(적)(ideational) 의미, 대인적(interpersonal) 의미, 텍스트(적)(textual) 의미를 구분했고, 필모어(1968)는 문장의 의미를 논할 때 명제(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로 대별했다. 양태는 언어 형식과 결부되면 서법이라는 문법범주를 이루지만, 그러한 관련성과는 별도로 국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법(적) 의미와 같은 말로 이해된다. 리치(1974, 1981)는 의미를 크게 개념(적) 의미, 연상(적) 의미, 주제적 의미로 나누고, 연상적 의미를 다시 내포(적) 의미, 사회적(/문체적) 의미, 정서적/감정적 의미, 반영적/반사적 의미, 배열적/언어적 의미로 구분했으며, 크루즈(2000)은 보다 단순화시켜 기술적 의미, 표현적 의미, 환기(된/적) 의미를 구분했다. 그라이스(1975)는 화자 의미(speaker's meaning/utterer's meaning)라 할 수 있는 함축 의미(implicature)를 말했고 그를 계승한 스퍼버·윌슨(1986/1995)은 문자적 의미(literal meaning), 명시 의미(explicit meaning; explicature), 암시 의미(implicit meaning; implicature)를 구분했다. 언어 기호의 형식이 동일할 때 그 형식과 결부되는 의미

를 최대한 묶어 보려는 해석론적(semasiological) 시각에서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라는 개념을 통해 의미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경계를 제시하고 다의어라면 그것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현론적(onomasiological) 시각에서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의미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또한 ‘의미’를 규정하자면, 의미와 유사하지만 다소 다른 용어로 ‘의의’, ‘어의’, ‘뜻’, ‘기능’, ‘함축’, ‘정보’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은 국어학에서 말하는 의미, 즉 한국어 표현의 의미란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고 한정되어야 할까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문 이외의 영역에서도 의미를 자주 언급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이 글의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언어 표현을 소쉬르적 의미에서, 하나의 기호로 볼 때 기표(형식)에 대응하는 기의(내용)에 해당하는 의미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그럴 때 사용되는 ‘의미’ 또는 ‘OO(적) 의미’라는 용어가 단순히 주목하는 현상을 인상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그러한 의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언어 의미의 본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엄밀한 의미에서의 ‘의미’

우선 ‘의미’의 명확한 한정을 위해서는 오그던·리처즈(1923)의 의미 삼각형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흔히 위의 삼각형에서 기호의 의미가 ‘사고 또는 지시’라고 보면 개념설이 되고 ‘지시물’이라고 보면 지시설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호에 대해 그것의 의미라는 말을 사용할 때 지시물이 의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호의 의미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미 기호 내에 기표와 기의가 있고 그 기호의 형식적 측면인 기표에 대해 내용적 측면인 기의를 가리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에서 기호의 의미는 점선으로 표시된 원의 위쪽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의미’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서의 ‘무엇’은 기호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개념설과 지시설은 갈린다. 개념설은 기의를 다른 개념으로 다시 정의한 것(‘종차+유개념’ 등)을 가리키는 내재적 관점을 취하는 입장이고 지시설은 (1)의

삼각형의 위쪽 꼭짓점에 적힌 말 중에서 '지시'가 바로 그 기호의 기의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유 명칭인 '영희'의 의미는 영희의 지시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 아니면 반대로 어떤 지시물의 이름이 영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희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영희'라는 기호가 영희라는 지시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영희'의 의미라는 것이다. 고유 명칭은 개념설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시설의 좋은 예가 되지만, '사자'와 같이 보통명칭을 예로 고려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사자'의 의미는 '사자'가 사자인 것들의 집합 또는 그 개체를 두루 가리킬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아니면 사자인 지시물들 또는 그것들의 집합의 이름이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시설은 기호가 어떤 지시물을 가리키는 그 가리킴(지시)이 바로 그 기호의 의미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면 지시설과 개념설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2) ㄱ. '영희' → 

[사람, 여성, 1990년 출생, ㄱ과 ㄴ의 딸, ㄷ고등학교 졸업, ㄹ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ㄴ씨와 결혼, ㅂ의 어머니 ...]

ㄴ. '사자' → 

[포유동물, 고양이과, 성체의 몸길이는 2m 정도, 꼬리는 90cm 정도, 어깨높이는 1m 정도, 대체로 옅은 갈색, 몸통에 비해 머리가 큼, 수컷은 뒷머리와 앞가슴에 갈기가 있음, 암컷이 주로 사냥을 함, 초원에서 4~6마리가 무리 지어 생활, 아프리카와 인도 초원에 분포]

지시설에서 말하는 '의미'는 (2ㄱ, ㄴ)의 화살표라 할 수 있는 반면, 개념설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 존재에 관해 제시된 백과사전적 지식 가운데 그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별하여 특정해 줄 수 있는 선별된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렇게 구별해서 보면 이 둘은 실제로는 전혀 같지 않다. 그리고 존재를 개념적 필요충분조건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우선 '영희'와 같은 고유 명칭은 필요충분조건으로 정의하기가 불가능하다. '영희'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 이유나 여성이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그 이상의 백과사전적 정보, 예컨대 ㄱ과 ㄴ의 딸이라는 것이 전혀 '영희'에 대한 필요조건이 될 수 없음은 더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반면, '사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고양이과'나 '포유동물'만큼은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통상적으로 '사자'의 의미성분(공통적 성분) 중 하나로 이해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자'라는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자'가 이름이 되는 대상의 백과사전적 지식 중 필연적인 부분(모든 사자는 고양이과이고 포유동물이므로)인 것이지 '사자'라는 기호 형식의 필연적인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러한 필연적인 부분은 바로 언어 기호의 의미로 이해되어도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이고 뜻풀이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하다.¹⁾ 인지의미론에서는 더 이상 개념설에서와 같은 기호와

1) 개념적 의미의 다른 말로 'sense'가 거론되고 '의의, 어의, 뜻'과 같은 역어가 쓰인다. 지시적 의미(reference)는 의미를 환언적으로 풀이하는 면이 부족하므로 환언적 의미 표상을 'sense' 등으로 부르는 것이 이미 관행이 되었으나, 프레게가 'On Sense and Reference(독일어로는, Über Sinn und Bedeutung, 1892)'에서 말한 'sense'는 '셋별은 셋별이다'와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와 같은 두 문장에서 '셋별'과 '개밥바라기'의 의미 차이를 가리킨 것이어서 실상은 개념적 의미보다 훨씬 함축에 가까운 의미이다. '셋별'이나 '개밥바라기'는 둘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둘의 의미 차이를 개

결부된 필요충분조건적 의미 자체를 부인하고 백과사전적 의미를 모두 의미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데 그러한 입장은 의미와 해석의 문제를 모두 화용론 쪽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될 수 있다.

개념설에 의한 의미 기술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개념설의 정의가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ㄱ. 저것이 사자다! ⇨ 저것이 사납다.

⇨ 저것이 아프리카나 인도 초원에 살고 있다.

⇨ 저것이 초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 저것이 뒷머리에 갈기가 있다.

ㄴ. 저것은 새다! ⇨ 저것은 날 수 있다.

(새: 몸에 깃털이 있고 다리가 두이며, 하늘을 자유로이 날 수 있는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3ㄱ)의 경우, 고양이과라든지, 포유동물이라고 하는 사자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지만 우변에 제시된 특징들을 사자가 되기에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정도로 한정하는 일이 간단치 않은 것이다. (3ㄴ)은 현재 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정의인데, 모든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날 수 있는 것은 새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지 못한다.

‘의미’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엄밀함이 요구되는 다른 이유 중 하나로, 개념적 의미는 의미의 분화를 엄밀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언어학적 의미론, 즉 어휘의미론의 전통에서는 기표가 동일할 경우 그것이 원천적으로 우연이라고(즉, 동형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하나의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의어가 생성되는 다양한 요인을 거론하지만 단순화시키면 모두 비유(은유, 환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의미와 의미 사이에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러한 단어를 다의어(polysemant)라 하여 ‘어(語)’, 즉 단어로서는 하나인데 그 속에 ‘다의(多義)’, 즉 둘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미 ‘다의어’라는 말 속에는 그 속에 들어 있는 의미가 하나로 동일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들어 있으나,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외관(기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일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러한 처리에서 동형어를 배제할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나치게 해석론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공시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4) 바가지: ① 일종의 그릇, ② 바가지로 푼 만큼의 양, ③ 물건값을 지나치게 비싸게 매김, ④ 심한 잔소리, ⑤ 매우 심함

(4)의 경우, ①~⑤는 모두 의미 형성 과정에서 유연성이 있지만 그 지시물은 전혀 같을 수 없다. ④는 ‘바가지를 굶다’라는 속어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녀)의 바가지’ 등과 같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며, ⑤는 접미사로 처리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념적 의미의 차이로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sense’를 ‘개념적 의미’인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무엇이 많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①~⑤가 각각 다른 문맥상의 분포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이미 공시적으로 의미는 분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의미로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막연한 것이다. 가리키는 지시물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다의어 속에서라도 공시적인 의미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으므로, 언어 기호의 의미는 특정 개체나 집합의 지시물에 대한 지시(가리킴)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의미의 통합: 문장 의미

지시설이 단어 단위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문장 단위로 확대된 것이 참 조건-설이다. 참 조건-설은 문장이 적어도 하나의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명제 단위의 의미 역시 그것을 개념적으로 풀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실(fact)을 참조한다고 본다. 이것은 단어가 지시물을 참조하는 것과 상통한다. 그렇게 되면 명제의 의미는 그 명제가 참, 즉 사실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눈은 희다’라는 명제는 실제로 눈이 흰 때 참이 된다(타르스키, 1944).

이러한 가정이 주어지면, 문장 의미론의 방법론은 하나의 명제 내에서 그 명제를 구성하는 하위 성분들이 명제 전체의 참값에 모순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 체계를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원리가 합성성의 원리(principle of compositionality)이다. 합성성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복합 표현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의 의미와 그것들을 결합하는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를 고쳐서 말하자면, 어떤 언어 기호 단위(‘단어’가 대표적)의 의미와 다른 언어 기호 단위의 의미가 통사적으로 결합되었을 경우 그러한 통사적 결합은 그 두 언어 기호의 통사적 결합물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5) \sigma(x + y) = \sigma(x) + \sigma(y)$$

(σ : 의미 해석 함수, ‘+’는 통사적/의미적 연산)

(Goldberg, 1995: 13)

(5)는 통사 규칙이 좌변과 우변의 참값을 바꾸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문장의 의미를 명제적 의미로 한정할 때 성립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합성성의 원리는 통사 규칙과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범주와 범주 사이의 문제이므로 합성어와 같은 개별 단어의 내부 구조에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의미 범주들 사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미 범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할 것인데 참값이 일관되게 유지될 때 그러한 단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의 의미 범주는 ‘실체’(e), ‘참’(t), ‘속성’(<e,t>), ‘관계’(<e,<e,t>>) 등과 같이 지시적인 차원에서 고려된 것들이라야 한다.

참 조건과 합성성의 원리라는 틀이 위와 같다면 문장의 의미는 참 조건을 판정할 수 있는 명제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고 명제의 범위 이상의 층위는 명제에 작용하지만 명제 단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된다. 그러한 차원을 Fillmore(1968)는 ‘양태(modality)’의 영역으로 보아 (6)과 같은 도식을 제시한 것이다.²⁾

2) 필모어는 ‘modality’라는 용어를 명제적 의미를 넘어서는 모든 기능적 의미를 아우르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는, 높임법, 시제, 양태, 화행 등으로 세분될 때 명제에 대한 화자의

(6) 문장 → 명제 + 양태

그러면 이러한 층위들을 결합한 문장의 확장은 다음과 같이 예시될 수 있다.³⁾

(7) 지구가 동글- -겠- -니?

[<e> + <e,t>] 양태 화행

<t> 양태

명제적 의미 + 양태적 의미

문장 의미

(7)에서 ‘양태’(좁은 의미)와 ‘화행’ 등은 명제적 의미 유형(<t>)에 작용하는 함수자로서 참거짓의 차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를 참거짓의 영역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가능 세계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기제가 필요할 것이지만 말이다.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바라보면, ‘-지만’과 같은 연결어미는 두 층위에 걸쳐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관찰이다.

(8) ㄱ. 김 선생은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ㄴ. 김 선생은 행복하지만 가난하다.

(8ㄱ,ㄴ)은 참 조건으로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전체 문장이 참이라면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지만’은 그러한 연언의 의미와 함께 선행절과 후행절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상반된다는 의미도 아울러 전달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만’의 경우 연언이라는 의미론적 의미와 더불어 가치의 역전이라는 관습적(/고정) 함축을 함께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기능소)들은 이와 같이 참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객관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의미는 관습적 함축의 영역에 속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문장 의미의 구성은 할리데이(1967)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제시된다. 구체적이라 함은, 할리데이는 기본적으로 사용된 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문장이 선행 문장과 같은 문맥을 반영하는 부분을 포괄하고 있고 또한 필모어가 양태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묶은 것 속에는 화행과 같은 청자 지향적인 행위의 층위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태도를 나타내는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능’(function)이라는 용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자면 일종의 함수자(functor)로서 논항(보충어)을 취하여 그것에 일관된 방식으로 다른 역할이나 관계를 부여하는 요소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어떤 ‘형식’에 대해 ‘기능’은 ‘의미’와는 달리 그 형식(기호)의 용도/쓰임새이며 ‘의미’는 내용이다. 따라서 문법소(기능소)의 의미를 묻는다면 의미론적인 면에서 논항이 되는 요소의 의미 유형과 그 기능소가 적용된 결과적 의미 유형 사이의 차이를 유발하는 의미론적 연산 내용이라고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능’은 형태론적 기능, 통사론적 기능, 의미론적 기능, 담화론적 기능 등 다양한 차원이 존재할 수 있겠다.

3) (7)에서 ‘-가’와 같은 주격조사에도 함수자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일테면, <e,e>와 같은 유형을 상정하여 ‘철수’가 ‘철수가’가 되어도 결국 <e>로 해석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격 기능을 함수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가 되는 합성성의 원리 내에서 확장될 수 있지만, 언어 기호의 해석과 결합 규칙이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문장이 실제 맥락 속에서 사용되면 그것은 발화라 불리며, 발화 단계에서의 의미 해석은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11) 가. 영희는 학생이다.

나. 나는 회사원이다.

다. 밖에 비가 내린다.

르. 고양이가 달려온다.

모. 모임에 누가 나왔어요?

아마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말들은 문자적 의미만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장이 일단 사용되면 그것은 이미 문자적 의미의 단계를 넘어 화용론적 의미와 결부될 수밖에 없지만,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문자적 의미만으로는 해석에 필수적인 의미마저도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11가)에서 문자적 의미만으로는 ‘영희’를 알 수 없다. 고유 명칭 가운데는 그 지시 대상이 유명인이어서 그 유명인의 속성이나 그와 관련된 사실이 언중에게 널리 공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지시 대상이 그렇게 그 언어 공동체의 뇌리에 공유된 존재가 아니라면 그 고유 명칭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발화의 해석을 위해 그 존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별도로 요구된다. 그 존재를 확인할 뿐 아니라 그가 학생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11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11나)에는 ‘나’라는 화자 표현이 들어 있으므로 (11나)의 화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 화자가 결정되어도 물론 그가 회사원인지 아닌지는 화자의 존재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역시 그러한 정보도 함께 요구된다. (11다)은 더욱 상황에 민감하다. ‘밖’이라면 어느 장소의 밖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비가 내린다면 발화 시점에 내리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참거짓을 알기 위해서는 발화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시간에 실제로 비가 내리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1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장소와 시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장소, 그 시간에 실제로 고양이인 존재가 뛰어왔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오다’라는 표현은 화시적 표현으로서 화자가 있는 위치로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화자의 위치가 함께 확인되어야 해석될 수 있다. (11모)은 ‘모임이 있었다’는 전제가 포함돼 있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아야 하는 등 배경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누군가 나온 사람을 알지 못하므로 그 문장 속에 포함된 명제의 참 여부를 알려면 그 부분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 채우는 일을 청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즉 빠진 내용이 있는 명제를 논항으로 하고 그 부분을 채울 것을 요구하는 함수자가 그 논항에 작용하고 있다. 만일 화자가 요구하는 모임에 나온 누군가의 범위가 그 모임에 나온 사람 전부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라면 그런 부분은 다시 배경 지식이 작용해야 좁혀질 수 있다.

(11)과 같이 사용된 문장이면서 그 해석을 위해서는 맥락상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채워지고 지시물이 확정된 상태가 명시 의미의 단계이다. 명시 의미가 명시적인 것은 맥락과 관련된 부분이 모두 문장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화자가 그 문장을 말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단계인 암시 의미(함축 의미)는 화자가 명시적으로 발화된 명제 내용과 관계없는 다른 명제를 청자에게 추론하게 만들거나 청자가 화자가 그렇게 의도했다고 간주하는 발화 해

석이다.

(12) A: 내일 학교에서 만나자.

B: 내일은 개교 기념일이야.

+> (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야.) 내일 우리는 학교에서 만날 수 없어.

(12B)에 의해 암시된 발화는 (12B)와 전혀 다른 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암시 의미는 (12B)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그라이스(1975)는 발화의 의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구분을 했다.

(13) 전달되는 것(what is conveyed) = 말해진 것(what is said) + 함축된 것(what is implicated)

(13)에서 ‘말해진 것’은 곧 명시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므로 전달되는 것은 결국 명시 의미와 암시 의미가 될 것이다. 이때 이러한 암시 의미는 언어 기호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발현된 의미가 아니므로 언어 기호의 의미와는 무관하다.⁴⁾

이러한 구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연관성 이론(relevance theory) 진영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명제적 의미를 넘어서는 명제에 대한 태도나 담화 차원의 연결 등을 비롯한 정보 구조적 측면은 고차 명시 의미(higher-ordered/higher-level explicature)라 하여 함축 의미보다는 명시 의미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어 기호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시 의미에 속한다 할 수 있고, 세 단계의 구별이 없는 그라이스의 함축 이론에서는 고정 함축이 그에 상응하는 차원의 의미라 할 수 있겠다.

5. 의미의 유형 분류

리치(1974/1981)와 크루즈(2000)은 언어학적 의미론자의 입장에서 의미의 유형을 각각 7가지와 3가지로 구분했다.

(14) 리치의 7유형	크루즈의 3유형
개념적 의미	기술적 의미
연상적 의미 - 내포적 의미	
문제적/사회적 의미	환기적 의미
감정적 의미	표현적 의미
반영적 의미	
배열적 의미	
주제적 의미	

4) 함축은 대화(상) 함축과 관습적(/고정) 함축으로 구분되는데, 관습적 함축은 언어 기호와 결부되어 있지만 참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의미를 가리킨다.

크루즈(2000)은 리치의 개념적 의미를, 기술적 의미라 하여 지시물의 존재론적 분류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시설과 개념설의 논의에서처럼 언어 기호와 지시물 사이의 관계를 개념으로 환언한다는 것이 본질적이지도 않고 그 범위를 한정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사전적 기술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는 기술적 의미를 내재적인 차원과 상대적인 차원으로 나누고 내재적인 차원으로 질, 강도, 상세성, 모호성, 기본성, 관점에 따라 의미가 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상대적인 차원으로 필연성과 예상성, 충분성, 현저성에 따라 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내재적인 차원의 관점과 같은 요소는 다분히 맥락을 고려한 차원이고, 상대적인 차원의 현저성도 텍스트 전달에서의 초점성과 관련된 정보 구조적 현상이므로 일부 층위가 간섭되지만 대체로 리치의 개념적 의미를 구체화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예상성(예를 들자면, ‘짓는다’는 것은 ‘개’의 예상된 속성이다.)은 리치의 배열적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치의 내포적 의미는 지시물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화자의 경험적 지식이나 믿음에 의한 것으로 그 지시물에 대한 표준적인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성질이다. 예를 들어, 내가 눈물이 많다고 할 때, 누가 나에게 ‘너 여자냐?’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 발화가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졌다면, 나는 그가 여자가 눈물이 많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수용하면서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언어 기호의 의미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국어에는 ‘곰’이 ‘미련하다’, ‘여우’가 ‘교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지시물이 각각 실제 ‘곰’이나 ‘여우’가 아닌 유정물이어야 할 것이므로 맥락이 고려되는 것이며 추론에 의해 함축 의미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리치가 정서적(affective) 의미라 하고 크루즈가 표현적(expressive) 의미라고 부른 의미는 감탄사처럼 언어 기호와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강세에 의해 드러나기도 하는 의미이며, 개념적, 내포적, 문체적 의미에 의해 드러나기도 한다고 하여, 리치는 기생적 범주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쨌든 문장의 명제적 내용, 즉 참 조건과는 무관하다.

(15) ㄱ. Gosh!(이크!)

ㄴ. I am surprised.(놀랐네.)

크루즈(2000)은 이 둘의 의미는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15ㄱ)은 표현적이고 (15ㄴ)은 기술적인데, 이러한 점은 표현적 의미와 기술적 의미의 차이가 의미의 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의미화의 양식에서의 차이임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3절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는 이를 참 조건과 무관한 함축 의미이면서 양태적 의미의 일종으로 판단한다. 함축 의미라면 대화상의 것인지 관습적인 것인지의 구분이 필요하겠는데 이것은 강세와 같은 운율적 자질에 의한 것은 대화상의 것으로, 언어 기호와 결부된 경우에는 관습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반영적 의미는 리치(1974/1981)에서만 언급된 것인데, 실제로는 언어 기호의 의미와 무관한데 동형성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라고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용된 언어 기호의 의미가 아니라, 그 언어 기호의 일부와 동형적이거나 전체와 동형적인 다른 언어 기호의 의미가 연상되어, 화자의 의도와 무관하게(간접적으로 의도될 수는 있을 것임) 청자가 영향받을 수 있는 의미인 것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언어 기호의 의미는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동형성에 의한 의미의 간섭 현상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의미일 수는 없

다. 다만 화자가 의도적으로 활용하거나 청자가 이 의미에 반응할 경우 함축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리치(1974/1981)의 주제적 의미는 3절에서 살펴본 할리데이의 텍스트적 의미와 상통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문장 구조화 방식(정보 구조) 속에서 활용되는 주제, 평언, 전제, 초점 등의 담화/텍스트적 기능과 관련된다.⁵⁾ 이 역시 문장의 명제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종의 관습적 함축 의미를 가지는 단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술관계가 추상적인 문장 단위를 위한 문맥 독립적인 문법 기능과 관련된다면, 정보 구조는 사용된 문장에서 문맥의 흐름을 반영하는 담화 기능과 관련된다. 그러한 단위들의 의미는 정보를 청자의 배경 지식에 산입하는 방식을 지정하는 기능 단위인 것이며, 다른 모든 기능 단위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표시하는 기능소가 일종의 함수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6.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그리고 구문 의미

공시적으로는 동형의 언어 기호들 사이에서라도 분화된 의미는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해되지만, 의미의 분화 방향이 분명할 경우 의미 파생의 방식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통시적인 분화에 대한 관심인지, 공시적인 의미 창출에 대한 관심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한 언어 기호의 의미가 비유적으로 다른 의미를 창출했을 때 그것이 언중의 기억에 남게 되어 재차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면 이미 그것은 그것이 언어 기호와 결부되는 통시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화자가 특정 맥락에서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비유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했다면 그 의미는 사전적 의미에 의해서가 아닌 화용론적 추론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는 함축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동형어(다의어를 아우름)인 것들 사이에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논한다는 것은 모두 통시적인 결과에 대한 것일 뿐이다.

어떻든 통시적 의미 파생 결과에 대해 중심, 주변을 논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전 기술 등에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그 차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경우, 중심 의미인 것은 지시물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의미가 비유적으로 파생된다(예: ‘곰’[동물→미련한 사람]). 중심 의미는 맥락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주변 의미는 특수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문맥의 제약을 심하게 받는다(예: ‘죽다’[유정물의 경우→팽이의 경우]).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일반화한 것이 공시적으로 어떠한 유의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결어미 ‘-어서’는 선행절이 형용사문일 때는 ①‘이유’나 ‘근거’의 의미를 가지며(예: 강이 깊어서 아이가 건너기 어렵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동사문일 때는 기본적으로 ②‘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지만(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 선행절이 후행절의 ③‘수단’이나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경우, ②와 ③의 경우에는 ②의 의미가 더 중심적이고 ③이 주변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①과 ② 사이에서 중심과 주변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5) ‘정보’라는 용어는 ‘의미’라는 용어보다 의미를 더 독립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의미’라는 용어는 앞에서 말했듯이 ‘기호의 의미’ 즉 특정 형식의 의미라는 상대적인 측면을 늘 함의하지만, ‘정보’는 형식은 잊혀도 환언될 수 있는 내용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정보 과학에서는 단순한 ‘자료’(data)와 구별되는, 목적에 맞게 가공된 자료를 뜻한다.

또 다른 생각해 볼 거리는 구문 단위로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가지’의 경우, ‘바가지를 굶다’의 일부로서 존재하다가 지금은 ‘바가지를 굶다’가 구문으로서 ‘잔소리를 심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어서 바로 ‘일종의 그릇’의 의미에서 ‘심한 잔소리’로 파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우리는 사전적 기술을 할 때에도 구문 단위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유사한 예로 ‘환멸(幻滅)’은 그 자체로는 ‘환상이 사라짐’의 의미를 가지지만, ‘환멸을 느끼다’가 되면 ‘다시 접하기 싫을 만큼 싫어지다’의 의미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 ‘환멸’만으로도 ‘환멸을 느끼다’의 의미를 이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환멸스럽다’는 후자의 의미로부터 파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명사도 이와 같을진댄, 인접 범주와 긴밀한 다른 품사의 경우에는 더욱 구문 단위의 언어 기호에 주목해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품사 내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나누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7. 마무리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국어학 내에서도 ‘의미’라고 불리는 것들이 단일한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의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요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의미’란 자체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무엇의 의미’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언어학적 의미가 아닌 어떤 의미라도 그렇다. 언어학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의미는 언어 기호의 의미를 가리키며 소쉬르적 개념으로는 기호의 기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의의 기술은 쉽지 않다.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 기호는 지시물, 즉 세상의 존재를 가리키기 위한 이름이므로, 그 언어 기호의 기의는 그 기호가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물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지시 의미)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존재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나타낸다면 ‘사자’의 의미는 ‘사자를 가리킬 수 있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어반복처럼 들리게 되어, 그 의미 자체를 다시 기술하고자 할 때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시물을 필요하고 충분하게 정의(개념 의미)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의미를 한정하는 것은 완벽하기가 어렵다. 크루즈(2000)는 이를 기술적 의미로 구체화했다.

한편, 언어 기호와 언어 기호의 통합적으로 확장될 때 그 의미가 확장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은 참 조건 의미론에서 나온다. 참 조건 의미론에 따르면 문장은 명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명제는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단위이다. 실체의 의미로부터 명제적 의미로의 확장은 의미 유형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합성성의 원리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리고 명제적 의미를 넘어서는 양태소들은 명제에 작용하는 함수자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명제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의 결합에 의한 문장 의미의 형성이 추상적 차원에서의 문장 의미를 잘 설명해 주지만,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 차원에서의 문장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할리데이는 관념형성적 의미, 대인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를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의미의 구분은 실제 사용된 발화에 대한 현실적인 기제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 된다. 대인적 의미인 화행은 이미 양태적 의미의 일부였고, 텍스트적 의미인 주제 등 정보 구조의 단위들도 통사적으로 자리를 가지며 청자의 배경 지식에 영향을 주는 기

제 속에서 실제 단위에 대한 함수자의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라이스를 계승한 스퍼버·윌슨 등은 문장 의미의 차원을 문자적 의미의 단계, 명시 의미의 단계, 함축 의미의 단계로 나누었는데, 문자적 의미의 단계에서 문장은 사전적 의미의 연쇄일 뿐이며, 실제 맥락과 결부되어 지시물이 명확히 한정되고 중의성이 제거되면 명시 의미의 단계로서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명시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암시 의미(함축 의미)의 단계는 그 문장의 명시 의미가 다른 맥락과 작용하여 다른 명제를 추론하게 한 경우가 된다.

추가적으로, 이상의 의미 체계를 리치와 크루즈의 의미 유형 분류와 대비시켜 보았고, 그렇게 했을 때 개념적 의미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과 함축적 의미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다시 개념적/기술적 의미로 돌아가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그러한 구분보다는 구문 단위의 의미에 대한 고려와 그에 따라 드러나는 성분들의 분포와 제약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정리하였다.

언어기호와 언어기호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로서 ‘의미’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보다 정교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공략해야 할 대상이 명확할 때 보다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참고문헌

- 강범모(2011), 의미론에서 “의미”와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과 번역어, 『언어와 정보』 15-1, 79-92.
- 박재연(2022), 한국어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을 위한 의미의 종류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77, 103-130.
- 박철우(2013), 어휘부와 의미론, 『국어학』 66, 445-485.
- 박철우(2019), 구문과 정보 -국어 문법에서의 정보구조의 위상 검토-, 『국어학』 89, 337-383.
- 박철우(2022ㄱ), 『이름의 언어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철우(2022ㄴ), 문장 의미의 분석 방법과 언어 교육적 함의, 『한국어 의미학』 78, 173-200.
- 윤평현(2020), 『새로 펴낸 국어 의미론』, 역락.
- 이성범(2001),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 Altschuler, D, T. Parsons and R. Schwarzschild(2019), *A Course in Semantics*, Cambridge: The MIT Press
- Cruse, A.(2000), *Meaning i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옮김, 2002, 『언어의 의미: 의미·화용론 개론』, 태학사.)
- Dowty, D.(2006), Compositionality as an Empirical Problem, draft.
- Elbourne, P.(2011), *Meaning: A Slim Guide to Seman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권연진·임동휘, 2020,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론 지침서』, 한국문화사.)
- Fillmore, C. J.(1968), The Case for Case, in E. Bach and R.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1-25, London: Holt, Rinehart and Winston. (Part Two)
- Frege, G.(1892),Über Sinn und Bedeutung, in: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und philosophische Kritik, Band 100, Seite(n), 25-50.
- Goldberg, A. E.(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Goldberg, A. E.(2016), Compositionality, in N. Riemer (ed.), *Semantics Handbook*, 419-430, Routledge.
- Griffiths, P.(2006), *An Introduction to English Semantics and Pragmatics*, The Edinburgh Univ. Press. (박철우 역, 『언어 의미학 개설』, 한국문화사.)
- Grundy, P.(2008), *Doing Pragmatics*, Hodder Education. (박철우 옮김, 『화용론의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 Halliday, M. A. K.(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 2, 199-244.
- Leech, G. N.(1974), *Semantics*, Penguin Books.
- Lyons, J.(1977), *Semantics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 J. S.(1943), *A System of Logic*, London: Longman.
- Ogden, C. K. & I. A. Richards(1923), *The Meaning of Meaning: A Study of the Influence of Language upon Thought and of the Science of Symbolism*. New York: A Harvest Book, Harcourt, Brace & World, Inc.

- Pustejovsky, J.(1995), *Generative Lexicon*, the MIT Press.
- Riemer, N.(2010). *Introducing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rber, D. & D. Wilson (1986/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Blackwell.
- Tarski, A.(1944), The Semantic Conception of Truth and the Foundations of Semantic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
- Wilson, D. and D. Sperber(2004), Relevance Theory, in Horn, L.R. & Ward, G.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607-632.



주제 발표

음성학 연구와 의미론의 성과

신우봉(제주대)

< 차 례 >

1. 서론
 2. 어휘 의미 해석과 운율적 특징에 대한 연구
 3. 문장 의미 해석과 운율적 특징에 대한 연구
 4.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의미론의 연구 중 음성학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연구들을 검토하고 향후 의미론 연구에서 음성학 연구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음성학과 의미론의 접면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알아볼 것이다.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 국어학 내의 하위 분야들은 대체로 독립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거나,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분야들인 음성-음운론, 형태-음운론, 통사-의미론 간의 관계 내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 유형의 구어 자료가 구축되면서 학제 간 융합 연구에서 운율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의미 연구의 측면에서 문어 중심의 연구에서 구어 중심의 연구로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운율(prosody)과 통사나 의미 등 다른 층위와의 상관관계를 다룬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¹⁾ 이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운율이 언어내적인 영역과 언어외적인 영역을 넘나들기 때문이다(김진웅·박상훈, 2013: 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운율적 특징들을 의미론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석하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²⁾ 신지영(2014)에서는 구어 자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운율

1) 안병섭(2007: 234)에 따르면 음성 언어는 구어 자료와 음성 자료를 구분할 수 있다. 구어 자료는 특정 담화 상황이 중시된 언어 자료이며, 음성 자료는 주로 음성학적 연구를 위해 제한된 환경에서 수집된 자료를 뜻한다. 음성 자료는 실험 자료를 의미하는데, 수집된 음성 자료는 대본의 유무에 따라 낭독 발화 자료와 자연 발화 자료로 구분하거나, 수집하는 언어 단위에 따라서 단어 발화 자료와 문장 발화 자료로 구분하기도 한다.

2) 억양단위에서 드러나는 운율적 특성은 종결어미와 더불어 문장의 화행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억양단위의 문법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양단위

적 특징들을 활용한 의미·통사론 연구의 필요성과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였으며, 통사론과 의미론 연구자들이 구어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적다는 점과 운율적 측면에 언어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이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의미론의 연구들에서 음성학적 특징들을 활용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형태론적 단위의 의미와 통사론적 단위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다양한 운율적 특징들을 활용한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단순히 구어 자료를 활용한 연구보다는 실험음성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미에 대해 밝히는 연구들로 대상을 한정하였다.³⁾

의미론 연구에서 음성학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 걸친 문제로 볼 수 있다. 의미론의 하위 분야인 어휘 의미론에서 음성학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들은 대부분 형태론적 차원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문장 의미론(혹은 화용론)에서 음성학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들은 통사론적 차원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이 연구의 2장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의미론 연구 중에서 음성학적 사실을 어휘 의미 해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음성학적 사실을 문장 의미 해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2. 어휘 의미 해석과 운율적 특징에 대한 연구

최근 구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음성 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운율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어휘 항목들의 의미 해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어휘 항목들의 다양한 의미 기능들에 따라 실현되는 운율적 특징들을 확인하여 어휘 의미(기능)와 운율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음성학자 혹은 의미론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어휘 의미 해석과 운율적 특징에 대한 연구들은 낭독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와 대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⁴⁾

낭독 자료를 바탕으로 운율 단위와 어휘 의미 해석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로 김미란(2001), 윤영숙(2022) 등이 있다. 김미란(2001)에서는 연결어미 ‘-고’가 전달하는 두 가지 의미(연결(나열), 순서)와 함축 그리고 운율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어미 ‘-고’가 ‘연결’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경우와 일반 함축이나 특정 함축에 의해 ‘순서’의 의미로만 해석될 경우에 나타나는 음운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1) a. 눈도 오고 비도 왔어요. - 연결
- b. 눈이 오고 비가 왔어요. - 순서

연구 결과, 연결어미 ‘-고’가 ‘연결’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대부분 ‘-고’를 중심으로 액센트

의 운율적 특성이 억양단위의 문법적 특성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김민국·손혜옥 2013: 190-191). 그리고 운율적 특성과 어미들의 의미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2013년 이후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3) 의미론 연구에서 음성학적 특징들을 활용한 연구들은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 성과에 대한 양적인 분석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4) 대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운율적 특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신우봉(2019)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구가 나뉘었으며, ‘순서’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고’를 중심으로 액센트구가 나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액센트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운율구 형성에서 보이는 차이가 ‘연결’과 ‘순서’의 의미를 구분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a. 손 씻고 밥 먹어라.
 b. [손 씻고]AP [밥 먹어라]AP - 순서(일반 함축)
 c. [손 씻고 밥 먹어라]AP - 순서(특정 함축)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2a)의 ‘손 씻고 밥 먹어라.’의 문장이 (2b)와 같이 두 개의 음운구로 형성된다면 ‘손 씻기’와 ‘밥 먹기’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일반 함축의 의미가 나타나며, (2c)처럼 하나의 음운구로 형성된다면 화자가 ‘손 씻기’와 ‘밥 먹기’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외에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특정 함축 의미가 부가됨을 확인하였다. 즉, 운율구 형성의 차이가 일반 함축과 특정 함축을 구별해주는 단서가 됨을 확인하였다.

산출실험과 지각실험을 바탕으로 어휘 의미와 운율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도 있다. 윤영숙(2022)에서는 종결어미 ‘-(으)르걸’의 의미 변별에 확인할 수 있는 성조 형태 및 음높이가 선행 음절의 음높이와의 어떤 상관관계로 작용하는지 살피고, ‘-(으)르걸’의 의미 변별에 작용할 수 있는 운율 요소가 무엇인지 지각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추측’과 ‘후회’의 의미로 발화된 문장의 경계성조 H%와 L%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경계성조의 평균 음높이가 선행 음절보다 높으면 ‘추측’으로, 음의 방향으로 작아질수록 ‘후회’로 지각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경계음절과 선행 음절의 평균 음높이 차가 0Qt에 가까울수록 의미판별에 혼란이 야기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계성조의 형태만으로는 ‘-(으)르걸’에서 나타나는 ‘추측, 후회’의 두 의미를 명확히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경계 음절과 선행 음절의 음높이 차이에 의해 두 의미가 더 명확히 판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어휘 의미 해석과 운율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지각실험을 실시한 것은 물론, 산출과 지각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화체 자료에서 나타나는 어휘 의미와 운율적 특징 간의 상관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어미에 관한 연구들과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다양한 한국어 어미들의 의미 해석과 운율적 특징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로는 조민하(2011, 2014, 2015, 2018), 정명숙·최은지(2013)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해당 어미들의 의미 기능과 경계성조의 상관관계를 관찰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분석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⁵⁾

조민하(2011, 2015)에서는 서울 출신 20대·30대 여성 35명의 대상자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여 각각 연결어미 ‘-는데’, 종결어미 ‘-잖아’의 의미 기능과 억양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5) 억양은 발화 종결에 관여하는 문법적인 정보부터, 맥락에 따른 발화의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화용적인 정보, 그리고 발화를 생산하는 화자의 감정, 태도의 정보까지 담아낸다. 그뿐만 아니라 억양은 발화자의 성별, 출신 지역 등에 대한 정보도 담아낸다(오재혁 2011: 1). 한국어 음성 자료에서 나타나는 억양에 대한 기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영국식 억양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Lee(1990), 이호영(1991, 1996, 1999)에서 제안한 ‘한국어 억양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억양음운론을 기반으로 Jun(1990, 1993, 1996, 1998)에서 제안한 ‘K-ToBI 한국어 운율 전사 규약’이다(오재혁 2014: 397). 어미의 의미와 운율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논문들은 ‘K-ToBI’를 기반으로 억양의 실현을 분석하였다.

‘-는데’의 경우 L%(간접표현), H%(직접적 청자 대응), LH%(간접적 청자 대응), LHL%(강조)가 실현된다고 하였으며,⁶⁾ ‘-잖아’의 경우 연결 구조(담화의 흐름을 이끄는 기능)와 종결 구조(청자나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면서 발화를 완결한 경우)로 나누어 의미 기능을 분석하였는데, 연결 구조로 사용될 때만 억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연결 구조 중에서 ‘전제’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실현되는 ‘-잖아’는 ‘L, HL, LHL, L:’ 등과 같이 다양한 억양과 결합하지만, ‘주제’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실현될 때는 ‘L, LHL’와 결합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명숙·최은지(2013)에서는 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에서 수집한 성인 자유 발화 중에서 남성 3명, 여성 3명이 각각 그룹으로 자유롭게 대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잖아’의 의미 유형과 억양 실현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잖아’의 의미 기능으로 ‘부정, 확인 의문, 확인, 동조 구함, 강조, 못마땅함·비난, 전환, 새 정보 제시, 가정, 깨달음’의 10가지⁷⁾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기능 중에서 분석 대화 자료에서는 ‘부정, 깨달음’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8개의 의미 기능이 실현될 때 나타나는 경계 성조의 실현 양상은 아래 [표 1]과 같다고 하였다.

[표 28] ‘-잖아’의 의미 기능에 따른 경계 성조 실현 양상(정명숙·최은지 2013: 158)

의미	횟수	억양의 실현
확인 의문	1	HL%(1회)
확인	73	L%(36회), LH%(20회), LHL%(1회) HL%(16회)
동조 구함	28	LH%(16회), L%(11회), LHL%(1회)
강조	76	L%(45회), LH%(13회), LHL%(4회) HL%(13회), HLH%(1회)
못마땅함, 비난	15	LH%(12회), LHL%(3회)
전환	3	L%(3회)
새 정보 제시	4	LH%(3회), L%(1회)
가정	2	H%(2회)
합계	202	

조민하(2014)에서는 ‘-거든’의 의미와 운율적 상관관계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세대(10, 20, 30대)에 따른 실현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거든’은 ‘이유,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L%(64%)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H%, LHL%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배경 제시’에는 H%(74%)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LHL(19.5%)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세대에 따른 ‘-거든’의 화용적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10대는 ‘-거든’

6) 간접표현(왜 전교에 화학이 한 분이었는지 궁금해. 체육이 다섯인데(L%) / 직접적 청자 대응(A: 주말에 뭐했어? B: 주말에 알바 했는데(H%) / 간접적 청자 대응(A:언제 얘기했지? B: 들었는데(LH%) / 강조(A: 맨날 찾아오네 남자친구 대단하다 정말 B: 아 무슨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LHL%))
7) 1) 명제를 부정하는 경우(부정) 2) 화자가 믿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받으려 물어보는 경우(확인 의문) 3) 화자와 청자가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확인) 4) 좀 더 강하게 상대방의 동조를 구하는 경우(동조 구함) 5) 자신의 의견을 강조할 수 있는 명제를 제시하는 경우(강조) 6)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깨닫고 있지 못할 때 그것을 못마땅해 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못마땅함, 비난) 7) 새로운 대화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전환) 8)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새 정보 제시) 9)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가정) 10) 혼잣말에서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깨달음)

을 주로 발언권 유지를 위한 ‘배경’의 의미로 후행 담화와의 연결 구조로 사용하며, 평탄 억양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20대와 30대로 갈수록 ‘이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종결 구조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며 굴곡 억양을 통해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30대에서는 공손 표현과 관련된 ‘이유’의 표현이 전체의 절반 이상 사용되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청자 지향의 의도가 ‘-거든’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조민하(2018)에서는 ‘-구나, -네, -지, -거든’을 중심으로 양태 의미와 억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의 내면화 정도에 따라 [새로 읽]은 다양한 성조가 고루 나타나며, [이미 읽]은 ‘L, H’에 편중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자 지식의 가정에 따라 [기지 가정]은 ‘H’를 통해 확실성을 드러내며, [미지 가정]은 설명의 ‘LHL’를 통해 청자의 배려 의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양태 범주와 억양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고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어미의 의미 기능에 따라 특정 경계성조가 연관되어 나타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운율적 특성들 중에서 ‘억양’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담화표지는 화·청자의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음성 언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억양, 길이, 휴지’ 등의 운율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실현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들은 담화표지에 실현되는 운율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이정애 2002: 50), 이를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즉, 대부분의 담화표지 연구들은 음성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화표지의 형태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였다.⁸⁾ 이에 최근 담화표지의 각 의미 기능에 따라 나타나는 운율적 특성을 밝힌 연구들이 차지현(2010), 송인성(2013, 2015, 2017, 2018, 2020, 2022), 송인성·신지영(2014), 도선희(2020) 등에서 이루어졌다.

차지현(2010)에서는 담화표지 ‘뭐’의 운율적 요소를 고려하여 담화 기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화 대화로 이루어진 말뭉치를 분석한 연구로, ‘뭐’가 문장 뒤에서 나타날 경우 선행절의 서술어와 함께 하나의 억양구를 이루며 서술어와 함께 사용되는 어말어미는 모두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어미(-지, -네, -던데)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행절의 서술어 + 뭐]의 구조는 문장 뒤에서 하나의 억양구를 형성하면서 특정한 억양 패턴을 나타내는데, 한국어의 서울말에서 나타나는 9개의 억양 패턴 중 유일하게 HLH(%)와만 결합한다고 하였다. 송인성(2013)은 담화표지 ‘뭐’의 의미 기능과 운율적 특성들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이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에서 구축한 성인자유발화 코퍼스에서의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담화표지 ‘뭐’가 ‘비단정, 부드럽게 하거나 에두름, 시간벌기, 강조, 발어사, 반박, 평가절하, 체념’의 8가지 의미 기능을 가지고 실현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기능에 따라 주로 나타나는 운율적 특성을 아래 [표 2]와 같이 파악하였다.

8) 전영옥(2017)에서는 한국어 담화표지 관련 연구 목록들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문법 요소들의 기능과 운율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것처럼 대화체 자료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의 기능과 운율적 요소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부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 29] 담화표지 ‘뭐’의 기능에 따른 주된 운율적 특성(송인성 2013: 100)

<a: 강세구 혹은 억양구 내부, b: 강세구 경계, C: 억양구 경계
/ abc 순서와 1,2,3은 출현빈도에 따른 실현 순서>

	발화 위치와 운율 단위	음높이 유형	길이(평균ms)	휴지
비단정	가운데 ^{1bac} , 끝 ^{2c} , 처음 ^{3abc}	저조	169	
부드럽게 하거나 에두름	가운데 ^{1bac} , 처음 ^{2c}	저조	159	
시간별기	가운데 ^{1c} , 처음 ^{2c}	저조	308	○ ⁹⁾
강조	가운데 ^{1bac} , 끝 ^{2c}	고조	119	
평가절하	끝 ^{1c} , 처음 ^{2ca} , 가운데 ^{3c}	저조	251	
발어사	처음 ^{bac}	저조	139	
반박(불만)	처음 ^{1bca} , 끝 ^{2c}	고조	178	
체념	끝 ^c	저조	207	

[표 2]를 살펴보면, ‘뭐’가 강조나 반박(불만)의 의미 기능으로 사용될 때는 억양구 경계 성조가 주로 고조(H%)로 실현되며 길이는 119ms, 178ms로 나타나며, 체념의 의미 기능으로 사용될 때는 억양구 경계성조가 저조(L%)로 실현되며 길이는 207ms로 나타나서 강조 혹은 반박(불만)의 의미 기능으로 사용될 때보다 상대적으로 긴 길이로 나타난다. 그리고 ‘뭐’의 주된 의미 기능으로 시간별기로 사용된 경우에는 다른 기능보다 상대적으로 긴 길이인 308ms로 실현되며 선행 혹은 후행하는 발화 사이에 휴지가 동반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뭐’의 운율적 특성이 개별 의미 기능과 상관관계에 놓여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대규모 대화 자료를 바탕으로 ‘뭐’의 의미 기능을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하는 담화표지 연구들과는 달리 각각의 의미 기능에 따른 운율적 특성을 ‘발화 내 위치, 음높이 유형, 운율 경계, 휴지, 길이’로 다각화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송인성(2013)에서는 ‘막’, 송인성·신지영(2014)에서는 ‘좀’, 송인성(2015)에서는 39개의 담화표지를 대상으로 의미 기능과 운율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이어갔다.

송인성(2017)에서는 TV 드라마 영상 및 음성 자료를 바탕으로 담화표지 ‘정말, 진짜’의 의미 기능과 운율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말’, ‘진짜’가 의문문 형식의 단독 발화로 실현되는 경우, ‘정말’, ‘진짜’ 끝음절의 상승 억양에 나타나는 최저 지점과 최고 지점의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말’, ‘진짜’가 담화표지로서 채움말 기능으로 실현될 때가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명사로 실현될 때보다 끝음절 억양의 상승하는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송인성(2018, 2020, 2022), 도선희(2020)에서는 담화표지의 실현 양상을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담화 상황이 실현된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이어갔다. 송인성(2018, 2020, 2022)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상호작용 여부, 대화 상황의 격식/비격식, 전문/비전문’ 등이 전부 고려된 말뭉치를 구축하여 각각 담화표지 ‘네/예’, ‘그래’, ‘어’의 의미 기능과 운율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선희(2020)에서는 기존 담화표지 연구들과 달리 공적·사적 담화 상황과 격식성의 정도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16개의 담화표지¹⁰⁾의 담화

9) ‘시간별기’의 기능을 갖고 나타나는 ‘뭐(143회 출현)’의 선·후행 환경에서 휴지가 매우 빈번하게 실현되었는데 ‘뭐’의 후행 환경에서 주로 실현되었고(101회), 선행 환경에서 5회, 선·후행 모든 환경에서 21회 휴지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다만, 휴지의 길이와 관련된 정보는 논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 도선희(2020)에서는 담화표지 ‘아, 근데, 뭐, 아니, 좀, 어, 진짜, 음, 그냥, 있잖아, 글썽, 저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있지’의 의미 기능과 운율 패턴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기능과 운율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6개의 담화표지들이 담화 유형에 따라 빈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담화 유형별로 주로 나타나는 담화표지가 다르며 음높이 유형도 서로 다르게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3. 문장 의미 해석과 운율적 특징에 대한 연구

문장의 의미는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들의 의미와 그 어휘들이 결합하는 통사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문장 의미 해석과 운율적 특징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자연스럽게 통사론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문장 의미론과 통사론의 접면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운율적 특성이 중심적 요소가 되는 주제 중 하나는 문장의 중의성이다. 특히 부정문에서 보이는 중의성은 통사 구조와 담화 구조 그리고 운율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권재일 외(1997), 신지영(2014)는 통사적 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부정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에 대한 해석을 내린 일련의 연구이다.

권재일 외(1997)에서는 중의성을 보이는 부정 접속문인 ‘-어서’ 접속문과 ‘-으니까’ 접속문을 비교 분석하면서 부정의 중의성이 운율적 특징에 의해서 해소됨을 확인하였다.

(3) 몸이 아파서 오지 않았어요.

(A) [몸이 아파서] [오지 않았어요.]

(B) [몸이 아파서 오지] 않았어요. and

(C) [몸이 아파서 오진] 않았어요.

(4) 몸이 아프니까 오지 않았어요.

(A) [몸이 아프니까] [오지 않았어요.]

권재일 외(1997)에서는 (3A)와 (3B)를 비교하면 가장 특징적인 높낮이 유형의 차이가 ‘-서 오-’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이 부분의 높낮이 유형이 (3A)에서는 내림조(falling tone)를 (3B)에서는 수평조(level tone)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림조를 보일 때는 구경계 앞의 음절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운율적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높낮이 유형의 차이가 부정의 영향권을 나타내는 의미 구조상의 차이를 드러내줌으로써 부정문의 중의성이 해소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3A), (3B)에서의 운율구조실현은 (4)의 문장 의미 해석과도 연관된다고 하였다. 즉(4)의 문장은 (4A)의 의미로만 해석되기 때문에 (3A)에서 확인된 내림조의 경계 높낮이 유형이 (4A)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내림조의 경계 높낮이 유형이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경계(phrasal boundary)에서 나타나는 높낮이 유형은 ‘-고, -면, -지만, -으려고, -으러’로 형성되는 부정 접속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문장의 중의성 해소에 운율적 측면 특히 구경계와 높낮이 유형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A)와 (3B)의 문장에서 운율적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지영(2014)에서도 동일하게 파악하였다. 다만, 신지영(2014: 133)에서는 운율적 차이를 갖는 두 발화가 서로 다른 언어학적 의미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서로 다른 발화(문장)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문어 중심의, 운율을 고려하지 않은 의미론 연구의 문제가 부정문의 중의성을 비롯한 문장의 중의성과 관련된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밖에 이 연구에서

는 (3B)와 같이 부정의 영역이 선행하는 명제 전체인 경우에는 ‘않다’와 이에 선행하는 용언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행하는 용언이 선행 명제의 일부로 묶일 수 있는 운율 구조를 가지고 발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3C)에서와 같이 운율적 분리를 쉽게 초래하는 형태 표지인 보조사 {는}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보조사 {는} 뒤에는 역양구 경계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기 때문에 보았다. 즉, 구어에서는 위의 장형 부정문들이 운율적 장치를 통해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두 연구에서 모두 정량적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연구들에서는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확보하여 부정문에서의 중의성 해소에서의 운율적 역할의 통계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미 정보와 운율 단서가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지각실험을 통한 피험자의 반응시간을 측정한다면 중의성 해소 전략과 관련하여 폭넓은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화의 운율 구조는 초분절적 음성 자질인 음높이, 길이, 진폭 등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초점과 비초점 같은 정보 구조가 드러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통사적 구조의 시작과 끝이 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의미론과 음성학의 접면에서 문장의 구조 및 정보와 운율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핀 연구도 이루어졌다. 즉, 음향음성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은/는, 이/가’에 실현된 초점과 운율적 흔들림의 상관관계¹¹⁾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그것인데, 김미란 외(2000), 황손문(2002), 김용범(2004), 하영우·김민국(2017) 등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란 외(2000)에서는 다양한 의문문들에서 나타나는 경계성조의 유형이 초점¹²⁾의 실현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두 가지 초점의 유형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문문들에서 실현되는 경계성조와 초점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표 30] 의미와 운율 실현 특징에 따른 초점의 재분류(김미란 외 2000: 205)

초점의 종류	특징	운율 실현 범위
강조초점	어휘적 대조 의미나 어휘 단위의 대조 의미 화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 감정이나 태도와 같은 언어외적인 요소도 개입될 수 있음 문장 해석에서 초점받은 단위의 의미 강조	액센트구(AP)
정보초점	발화의 중심 정보 기능 (의문문의 경우에는 질문의 의도와 직접 관련)	역양구(IP)

- (5) (A) 가부의문문(부정사 포함): 미나는 뭘 안 먹나요?
(B) 가부의문문: 미나는 무를 안 먹나요?

11) 초점의 실현 수단에는 크게 문법적인 것과 음성적인 것으로 나뉜다. 문법적 수단에는 격조사나 보조사 등의 형태적 수단이나 어순이나 분열문과 같은 통사적 수단이 있으며, 음성적 수단은 강세(stress), 음높이(pitch), 길이(length) 등을 이용한 운율적 흔들림이 가장 대표적이다.(김민국·하영우 2017: 63).

12) 김미란 외(2000)에서는 Gundel(1994)에서의 ‘심리초점, 의미초점, 대조초점’의 분류는 운율과 관련된 강조 의미를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담화상에서 화자가 감정적 태도나 의도를 나타내는 강조의 의미를 포함하고 운율과 의미와 보다 직접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위해서는 초점을 강조초점과 정보초점으로 분류하여 논의를 하였다.

- (C) 의문사의문문(+정보초점): (그럼) 미나는 뭘 안 먹나요?
- (D) 선택의문문(+정보초점): 미나는 마늘을 안 먹나요, 오이를 안 먹나요?
- (E) 반복의문문(+강조초점): 미나가 뭘 안 먹어요?

우선 (5A, B)의 가부의문문과 (5C)의 의문사의문문은 음운구 형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의문사의문문의 경우 의도적인 휴지(pause)가 있지 않는 한, 이어지는 단어들을 음운구 해지시키고 자신과 함께 하나의 액센트구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5C)의 의문사의문문에서 ‘뭘’이 질문의 중심을 갖기 때문에 정보초점을 받아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5C)와 같이 의문사의문문의 경우 다른 의문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H%, HL%의 경계성조가 실현되는데, 이는 ‘누구, 뭘, 언제, 어디’에 정보초점이 실현되고 그 결과로 경계성조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보초점이 실현되는 (5C)의 의문사의문문과 (5D)의 선택의문문에서 HL% 경계성조가 실현되는 것은 초점 단위의 돌출됨에 의하여 경계성조의 기본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5E)의 반복의문문의 경계성조는 정보초점이 부여되지 못하고 강조초점만이 개입될 수 있어서 다른 의문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H%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경계성조의 유형이 실제로 초점과 연관되어 일관되게 작동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황송문(2002)에서는 화제표지인 ‘은/는’이 실현된 의문사의문문과 가부의문문 그리고 서술문에서의 경계성조의 실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운율과 의미의 관계를 살핀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출신 여성 3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화제표지인 ‘은/는’이 실현된 8개의 문장에서 실현된 음높이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문문에서 ‘은/는’이 실현된 화제구의 음높이와 음강세는 해당 지시대상이 신정보인지 구정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조성이 강한 신정보가 실현된 경우 상승역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대조성이 명시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맥락에서는 해당 화제구 사이의 대조 관계가 화제구의 역양이나 화제표지의 음높이 변화 및 음강세에 있어서 운율적 대조를 보여서 의미적 대조관계를 표시하는 데에 운율적 역할이 어느 정도 기여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김용범(2004)에서는 초점과 비초점 명사구의 차이를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서울근교 출신 20대 남녀 학생 23명을 선발하여 다양한 초점들이 실현된 아래 문장의 음높이 변화와 길이를 측정하였다.

(6) 확인초점 실험 문장

소규모 모임을 갖던 중 잠깐 휴식하는 사이에 밖에 나갔던 A(회장격)가 회의장에 다시 돌아와 영수하고 만두(별명)가 없는 걸 보고 A가 질문한다.

A(실험수행자) : 영수랑 만두랑 모두 떠났어? (만두가 간 상황에서)

피실험자: (떠나도 상관없는 영수는 안 가고, 핵심 인물인) 만두가 갔어.(원망스런 어조로)

(7) 대조초점 실험 문장(6)과 같은 상황에서

A(녹음 진행자): 영수랑 만두랑 모두 떠났어?

피실험자: (영수는 원래 적극적이지 않으니깐 내가 알 바 없고, 핵심인물인 만두가 있어야 하는 데 좌우지간) 만두는 갔어.(가능하면 영수에 대해서 일부러 관심이 없다는 듯한 어조로)

(8) 정보초점 실험 문장

입후보자 없이 학교 교장의 지명으로 학교 대표 약간 명을 뽑은 경우 그 결과를 몰라서 묻는 말에 대답한다.

A(녹음 진행자): 누가 누가 학교대표로 뽑혔는지 아니?

피실험자: (대표로) 만두가 갔대. (만두는 친구 중의 하나임)

그 결과 정보량이 많다고 추정되는 확인초점, 정보초점, 대조초점을 나타내는 조사의 순으로 높은 음높이를 보이며, 확인초점이 실현될 때 조사 '가'의 길이가 정보초점을 나타낼 때보다 길어지며, 주제를 나타낼 때의 조사 '은/는'이 대조 주제를 나타낼 때보다 길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정보량이 많을수록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음성학적 실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점이 놓인 구절에서 높은 음높이 및 음절의 길이가 길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초점의 유형과 운율적 돌들림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결과를 나누어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분석한 문장들의 변인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하영우·김민국(2017)에서는 '은/는, 이/가'로 표시된 초점 성분을 '초점의 유형, 총망라성의 함축 여부, 답변 내의 총망라성의 맥락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느냐'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유형화하고, 음높이와 길이 외에도 점진하강의 실현 정도와 음높이 기울기의 변화를 고려하여 초점 성분에서 나타나는 운율 실현 양상(운율적 돌들림)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초점의 형태적 실현 수단과 운율적 실현 수단 사이에서 발견되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동일한 형태적 표지로 실현되는 성분이 서로 다른 성격의 초점을 지니고 나타난다면 음성적 수단(혹은 음성적 특징)이 이들을 구분해주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출신의 20~30대 표준어 여성 화자 10명을 대상으로 낭독 발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초점의 종류와 관계 없이 초점이 실현되면 일정한 운율적 돌들림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운율적 돌들림 자체가 초점의 성격을 구분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점 표지와 운율적 돌들림이 함께 나타나 초점을 표시해 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즉, 운율적 돌들림은 '초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초점 표지'가 서로 다른 성격의 초점을 구분하는 데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운율적 돌들림은 '은/는'과 '이/가'에 초점이 중복되어 나타나거나 원래의 기능과는 다른 초점으로 실현될 때 더 강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은/는' 대조주제는 대조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조성이 불분명한 '은/는' 주제보다 운율적 돌들림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초점은 대개 절대적인 음높이 값의 돌들림을 통해 실현되지만 발화 내의 전체적인 음높이 재조정이나 길이를 통해서도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즉, 초점 성분의 절대적 음높이 값을 높이지 않고도 발화 내의 다른 성분의 음높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하여 전체 발화의 상대적인 음높이 조정을 통해 운율적 돌들림이 실현됨을 확인한 것이다.

접속문에서 나타나는 대등연결어미의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에 따른 운율 실현 양상을 살핀 연구도 있다. 김진웅·박상훈(2013)에서는 한국어에서 절과 절을 잇는 역할을 하는 대등연결어미에서 상승조의 역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¹³⁾고 보고 구어말뭉치에서

13) 이 연구는 Gussenhoven(2002)에서의 가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Gussenhoven(2002)에서는 상승조로 시작하는 발화는 새로운 주제를 하강조로 시작하는 발화는 연속되는 주제라는 신호로 작용하는 한편, 발화의 끝이 상승조로 맺음하는 경우에 발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로 작용한다

나타나는 대등연결어미의 운율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새연세말뭉치 2’ 중 총 5개의 음성 파일에서 나타나는 대등연결어미 ‘-고/구, -지만’의 억양구 경계성조를 분석하였다.¹⁴⁾ 연구 결과 대등연결어미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성조는 M > HL > H의 순이며, L과 LH는 각각 6개씩만 관찰되었으며 LHL는 1회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비종결상승조¹⁵⁾는 모두 83개(전체의 65.3%)를 차지함으로써 상승조가 ‘발화의 지속’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Gussenhoven(2002)의 가설이 한국어에도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은경(2000)에서 밝힌 대등연결어미의 독립성 위계인 ‘대조 > 나열 > 선택’과 경계성조 실현의 상관관계도 확인하였다.¹⁶⁾ ‘대조’는 하강조가 18개, 상승조가 17개 나타났으며, ‘나열’은 하강조가 23개, 상승조가 54개 나타났고, ‘선택’은 하강조가 3개, 상승조가 12개 나타났다. 하강조의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대조 > 나열 > 선택’의 순서가 나타나서 대등연결어미의 통사-의미적 독립성이 경계성조에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하영우·김민국(2018)에서는 접속문의 의미-통사 구조에 따른 운율 실현 양상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대등접속문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활용한 운율 분석 방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¹⁷⁾, K-ToBI 기반의 분석 방법론보다는 전체적인 음높이 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 경계의 물리적 특성을 관찰하는 것이 대등접속문의 운율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¹⁸⁾ 그리고 이러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결어미의 용법별 운율 실현 양상’과 ‘대등접속문의 유형에 따른 운율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연결어미의 용법별 운율 실현 양상’에서 ‘-고’의 용법에 따른 점진하강 기울기를 살펴보면 대칭적 용법인 [나열]의 기울기는 11.5로 양(+)의 범주로 나타나며, 비대칭적 용법인 [계기, 인과, 방식]은 각각 -0.1, -8.1, -6.0으로 모두 음(-)의 범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대등접속(대칭적 용법)과 종속접속(비대칭적 용법)에 따라 점진하강의 기울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대등접속으로 문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선행절 사이에서 점진하강의 재설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대등접속문의 유형에 따른 운율 실현 양상’에서는 ‘이접, 순접, 역접’의 의미 관계를 가진 대등접속문의 점진하강 기울기는 모두 양(+)의 범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이접 = 순접 > 역접’의 순서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연결어미의 용법과 대등접속문의 유형이 운율 실현 양상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였다. 더욱이 접속문의 운율 실현 양상(점진하강의 기울기)이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 보았다.

14) 이 연구에서 살펴본 말뭉치에서 대등연결어미는 총 4개(-고/구(77개, 60.6%), -지만(35개, 27.6%), -거나(4개, 3.1%), -든지(11개, 8.7%))가 나타났지만 분석자료의 수를 고려하여 ‘-고/구, -거나’만을 분석하였다.

15) 선행절이 후행절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경우에, 발화가 지속된다는 신호를 억양의 상승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경우를 ‘비종결상승조’라고 한다.

16) 이은경(2000)에서는 연결어미 전체를 독립성을 기준으로 ‘대조>나열>선택>배경>원인>조건>양보>결과>시간’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조’의 연결어미로 ‘-지만, -으나, -오되’를 ‘나열’은 ‘-고’로, ‘선택’은 ‘-든지, -거나’가 각각 의미를 지닌다고 파악하였다.

17) 기존 대등접속문의 운율 실현 양상을 살핀 연구들은 운율구 형성과 경계성조의 측면을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언어 내적,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절 접속과 운율 실현 양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18) 이 연구에서 활용한 점진하강 상위성 측정법은 광숙영(2012)에서 수립한 것으로 각 음운구의 ‘+H’를 연결하여 발화의 음높이 움직임을 관찰한 방법으로, 접속문 전체의 운율 실현 양상을 보다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높이 값을 바탕으로 한 요소 간 직접 비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의미론과 음성학의 접면에 대한 몇몇 논의들을 어휘 의미 해석과 문장 의미 해석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의미론과 음성학의 접면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결론은 대신하고자 한다.

사회언어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의 선택을 보다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20, 30대 서울 방언 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일부 방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그 수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더불어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종합적으로 한국어 의미와 음성학의 접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규모 코퍼스 구축에 의미론과 통사론자 전공자들이 참여하여 두 학문의 접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이 담기도록 해야 한다.

연구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확장시켜 의미 해석과 운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 송인성(2018, 2020, 2022), 도선희(2020)에서는 구어 자료도 담화 유형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고, 실제 담화 유형에 따라 언어 현상이 다름을 확인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장 의미 해석과 운율적 특징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낭독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낭독 자료를 바탕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이 대화 자료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음성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실시간성과 상호교류성이며, 이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일상대화 자료이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는 것 또한 의미론과 음성학의 접면을 살펴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어휘 의미 해석과 운율적 특징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경계성조를 분석할 때 K-ToBI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김민국·하영우(2018)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IPO식 기반의 점진하강 측정법을 사용한 연구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경계성조만을 분석할 때 조금 더 정밀하게 실현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L, H, LH’ 등이 나타나도 경계성조의 기울기를 측정한다면 동일한 경계성조 패턴 안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말소리는 연속적이며 지각은 범주적이다. 의미와 음성학의 상관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출실험의 결과뿐만 아니라 지각실험을 통해서 두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각실험은 억양의 문법적인 기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어 화자들이 어떠한 운율적 단서를 통해 어휘/문장 의미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 산출뿐만 아니라 지각의 측면에서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권재일 외(1997), “통사 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관성 연구: 중의성 해소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학 20, 한국언어학회, 59-112.
- 곽숙영(2012), 「한국어 발화의 점진하강 현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란(2001), “한국어 대등적 연결어미 '-고'의 함축 의미와 운율”, 음성과학 8(4), 한국음성과학회, 289-305.
- 김미란 외(2000), “초점과 관련된 의문문 역양 패턴 실험”, 음성과학 7(4), 한국음성과학회, 203-217.
- 김민국·손혜옥(2013), “구어 사용역에 따른 역양단위의 문법적 특성”, 말뭉치 기반 구어 문어 통합 문법 기술의 탐색, 박이정.
- 김민국·하영우(2017), “초점의 유형에 따른 운율 실현 양상”, 한국어의미학 58, 한국어의미학회, 57-88.
- 김용범(2004), “초점과 주제의 음성학적 관련성”, 언어와 정보 8, 한국언어정보학회, 57-88.
- 김진웅·박상훈(2013), “구어말뭉치에서 나타난 대등연결어미 운율의 양상”, 담화와 인지 20(3), 담화·인지언어학회, 65-87.
- 도선희(2020), 「상황과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 담화 표지의 운율 연구」,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 송인성(2013), “담화표지 ‘뭐’의 기능과 운율적 특성”, 「한국어학」 58, 한국어학회, 83-106.
- 송인성(2014), “‘막’의 운율적 특성과 담화적 기능”, 「한국어학」 65, 한국어학회, 211-236.
- 송인성(2015), 「국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운율」,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송인성(2017), “‘정말’, ‘진짜’의 담화 기능과 운율 특성”, 「한국어학」 77, 한국어학회, 155-179.
- 송인성(2018), “‘네/예’의 담화 기능과 운율 특성”, 「한국어학」 81, 한국어학회, 169-196.
- 송인성·신지영(2014), “담화표지 {좀}의 기능과 형태·운율적 특성의 실현 양상”, 「한국어학」 62, 한국어학회, 315-339.
- 신우봉(2019), “한국어 대화체 자료의 운율 연구 현황”, 한국어의미학 66, 한국어의미학회, 143-173.
- 신지영(2014), “구어 연구와 운율”, 한국어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119-139.
- 오재혁(2011), 「국어 종결 역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한 지각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오재혁(2014), “한국어 역양 곡선의 정규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62, 한국어학회, 395-420.
- 윤영숙(2022), “동형다의 종결어미의 의미와 경계성조의 상관성에 대한 지각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14(4), 한국음성학회, 1-10.
- 이정애(2002),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월인.
- 전영옥(2017), “한국어 담화표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말연구」 45, 한말연구학회, 127-160.
- 정명숙·최은지(2013), “한국인과 외국인의 발화에 나타난 ‘-잖아’의 기능과 역양 실현 양상”, 「한국어학」 60, 한국어학회, 143-165.
- 조민하(2011), “‘-는데’의 종결기능과 역양의 역할”, 「우리어문연구」 40, 우리어문학회, 225-254.
- 조민하(2014), “종결어미 ‘-거든’의 화용전략과 역양의 기능”, 「한국어학」 65, 한국어학회, 237-262.
- 조민하(2015), “구어 종결어미 ‘-잖아’의 화용적 특성과 역양의 기능”, 「화법연구」 28, 한국화법학회, 165-194.
- 조민하(2018), “발화 말 역양의 양태성 연구: 인식 양태 어미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5-226.
- 차지현(2010), “운율과 담화 기능의 상호 작용: 문장 뒤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담화 표지 “뭐”

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25,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27-256.
황손문(2002), “한국어 화제구문의 운율적 고찰”, 「음성과학」 9(2), 한국음성학회, 59-68.

▣ 토 론

“음성학 연구와 의미론의 성과”에 대한 토론문

하영우(전주대)

언어는 소리를 통해 시작되고, 뜻을 바탕으로 갈무리됩니다. 소리는 음성이고 뜻은 의미이니 음성학과 의미론은 언어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시종(始終)에 서 있는 두 영역은 너무나도 당연히 유기적 관계를 전제하지만, 언어적 사실과 별개로 음성학과 의미론은 서로 별리한 채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궤도만 돌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음성학 연구와 의미론의 성과”는 두 영역 간의 관계와 한계를 그간의 연구사를 통해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음성학과 의미론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언하고 있습니다. 음성과 의미 간의 연계 연구 성과와 지속 필요성, 그리고 미래에 대해 정리하고 논의하는 이 시간이 향후 음성학과 의미론의 학문적 협업은 물론 융합적 언어 연구 풍토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을 되짚고 미래 방향성을 설정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의 논의에 모두 동의하며, 특히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음성학 연구와 의미론의 성과에 대한 기왕도 살피는 자리인 만큼 발표문에서 거시적으로 기술하신 ‘한계’에 대해 조금 더 살을 보태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부분’에 관한 한계

일반적으로 실험 음성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의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 연구와 달리 언어적 실증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 점이 특징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방식은 의미 연구에 있어 한계 또한 뚜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미에 관한 음성학 기반 논의는 기존 견해의 실증 내지 새로운 관점 제시에 의의가 있지만 엄밀히 보아 ‘현상 확인’과 ‘부분 해석’이라는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듯 보입니다. 어휘 의미 해석과 운율 특징에 관한 연구 중 대개의 논의가 기능별 운율 유형 분포 확인에 그치거나 극히 높은 토큰을 보이는 특정 형태에 한정하여 해석을 기하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특히 전체 체계 내에서 음성적 특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특정 범주 내 특정 기능 내지 특정 형태에만 해석을 제시하는 경향은 공통적 한계로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 요소가 해당 범주 내에서 매우 중요할 수도 있겠으나 ‘체계’의 관점에서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서 ‘한정적 관찰’이라는 한계는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학 기반의 의미 연구가 한정적 해석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의미 체계가 주요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의미에 관한 음성적 연구가 전체적 시야를 확보하려면 애초 의미 체계의 설계가 구어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기존 논의는 대개 전통적 의미 연구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수정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

해 전체 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음성적 특성 전반을 살피지 못하고 기존 의미 체계 내에서 음성적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적/주변적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동일한 음성 기반의 의미 연구이지만 담화 영역의 경우 독자적인 기능 체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부분적 논의와 함께 해당 영역의 전체적 기능 체계와 양상을 조망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도 대비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2. '기술과 이론'에 관한 한계

음성학을 기반으로 한 의미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음성 자료를 분석합니다. 음성 자료 분석은 분절음 단위에서부터 운율 구조까지 다양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론적/기술적 접근도 그에 맞추어 다양하거나 안정화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운율에 관한 연구 방법론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면 대개 K-ToBI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어 의미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에 있어 적절한 모델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모델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일부 논의는 K-ToBI 모델의 수정이 전체 체계 내에서 타당성을 갖고 재정립된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K-ToBI 모델이 갖는 한계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국어 의미 연구에 관한 음성 분석 모델링의 다양성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IPO 기반의 연구나 한국형 IPO 체계를 설정하는 접근도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법론적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형태론 연구와 의미론의 성과

정한대로(가천대)

< 차 례 >

1. 서론
2. 단어 형성과 '개념'
3. 단어 형성과 '의미 합성성'
4. 단어 형성과 '의미관계'
5. 신어 형성과 '의미'
6. 결론

1. 서론

잘 알려져 있듯이 '언어'(기호)는 '형태'(기표)와 '의미'(의의)로 구성된다. 따라서 언어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외현적(overt)으로 드러난 형태를 관찰하는 것과 더불어 언어 연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의미에 관한 탐구는 형태론 분야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는데, 형태론의 몇 가지 주요 개념만 떠올려 보더라도 형태론과 의미의 불가분한 관계가 쉽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언어 단위(the minimal meaningful units of language)'를 뜻하는 '형태소'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의미를 떼어 놓는 절대 형태소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이형태를 확인하는 절차나 단어 간 계열관계를 포착해 내는 과정 역시 대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 품사 분류 기준으로 알려진 '형태, 기능, 의미'에도 의미가 포함되며, 어휘적 단어와 문법적 단어(조사, 어미)를 규명하는 과정에도 의미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그동안 한국어 형태론 연구가 관찰 자료의 형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통은 수집 자료의 형식적 특성을 관찰하고 분류하는 일에서부터 언어 연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는 해석론적 접근(semasiological approach), 즉 주어진 언어 형식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그 후에 각 성분의 어휘적·문법적 의미를 밝히는 방향(형태 → 의미)으로 연구하는 방식이 그동안 주류 연구 방법으로 자리 잡아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글은 단어 연구에서 '의미'가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종래 형태론, 그중에서도 단어형성론 연구에 반영된 의미론의 성과를 조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종합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형태'와 달리 가시화되지 않은 단어의 '의미'가 단어 형성, 단어의 연결 관계, 어휘부 등재 등의 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형태론 연구에서 의미 분석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자 한다.

(1) 단어 형성의 과정

대상 → 개념 → 언어

그중 첫째는 단어 형성 과정에서의 ‘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단어 형성은 새로운 지시 대상을 명명하려는 화자의 동기에서 출발한다. 그 과정을 (1)로 간단히 도식화하였을 때, 그 중간 단계에 위치한 ‘개념’이 주목된다.¹⁾ 명명 화자는 대상을 곧바로 언어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여러 속성 가운데 현저한(salient) 특정 개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단어를 만든다. 이른바 화자의 해석(construal) 작용을 거쳐 명명이 전개되는 것인데, 성공적으로 단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중추적 역할이 필수적이다(2장 후술).

(2) 가. 국그릇: ‘국을 담는 그릇’ <표준국어대사전>

① 형태: 국 + 그릇

② 의미: ‘국’ + ‘그릇’ + **~을 담는**

나. 가마꾼: ‘가마를 메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① 형태: 가마 + -꾼

② 의미: ‘가마’ + ‘사람’ + **~를 메는**

둘째, 외현적 형태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단어의 의미 일부를 이루는 특정 의미 성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형태와 의미의 결합체인 단어의 기본 속성을 바탕으로, 합성어 ‘국그릇’과 파생어 ‘가마꾼’을 구성하는 형태와 의미는 (2)처럼 기술할 수 있다. 이때 형태로 실현되지 않은 음영의 의미가 주목된다. 복합어 ‘국그릇’이 구성성분 ‘국’과 ‘그릇’ 의미의 합 이상으로 추가적인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의미의 존재로 인해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복합어가 의미 합성성(compositionality)을 지니지 않는다고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밥그릇, 국그릇, 물그릇’ 등이 ‘밥/국/물을 담는 그릇’의 의미로 일정한 규칙성(regularity)을 띠고 있고 또 이로부터 새로운 단어 ‘X그릇’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2)의 음영 의미를 합성성의 원리에 반(反)하는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음영 의미를 축으로 ‘X그릇’ 단어 간의 계열관계 및 어휘적 관련성이 포착되기에, 오히려 단어 형성 과정 내 음영 의미의 역할을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3장 후술).

(3) 가. 돼지-돌, 아들-딸, 동물-개

나. 산돼지-멧돼지, 친아들-친딸, 개-삼살개

셋째, 그간 어휘의미론에서 논의되어 온 어휘 간 ‘의미관계’ 분석은, 내부 구조를 지닌 복합어 사이의 의미관계와 복합어 내부 구성성분 사이의 의미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 어휘의미론에서의 의미관계 유형이 단어 간 1차적인 관계를 기술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복합어의 내부 구조를 고려한 의미관계 분석은 단어를 둘러싼 통합/계열관계 및 형성 방식까지도 관심 대상

1) 이렇듯 ‘개념 → 언어’(의미 → 형태)의 방향에서 목표한 대상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되는지에 관심 갖고 이를 탐구하는 입장은 표현론적 접근(onomasiological approach)에 해당한다. 해석론적 접근과 상반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된다.²⁾ (3가)의 ‘돼지-돌, 아들-딸, 동물-개’는 각각 동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에 있는 어휘 쌍으로 각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³⁾ 이와 비교할 때 (3나)는 복합어 내부의 성분 분석을 통해 어휘 간 의미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산돼지-멧돼지’는 ‘산:메’의 동의성이 복합어의 동의관계로 반영되었으며, ‘친아들-친딸’은 구성성분 ‘아들:딸’의 대립이 복합어의 반의관계를 형성한다. ‘개-삽살개’는 ‘삽살개’의 후행 성분 ‘개’가 ‘삽살개’와 상하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3가)의 ‘동물-개’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하관계를 이룬다. (3나)는 복합어의 내부 구조를 고려하여 어휘 간 의미관계를 조명한 점에서 어휘의미론의 성과가 형태론 연구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4장 후술).

(1)~(3)의 각 밑줄 친 부분은 ‘의미’가 형태론 연구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종래 형태론 연구가 ‘형태 → 의미’ 방향의 ‘형태 중심 연구’에 치중해 온 경향으로 인해, 의미는 형태만큼의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어 형성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의미’ 중심에서 다시 바라보고 그 의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1)~(3)의 3가지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장을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먼저 단어 형성에서의 ‘개념’ 문제를 다루고(2장), 단어의 ‘의미 합성성’과 관련하여 ‘형태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의 단어형성론적 의의를 확인한 후(3장), 단어의 ‘의미관계’를 논의한 형태론 연구를 검토한다(4장). 끝으로 신어 형성과 관련한 의미 문제를 덧붙일 것이다(5장).

2. 단어 형성과 ‘개념’

기존 단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기술 중심의 구조주의 언어학 이후, 일반언어학 내 단어 형성에 관한 관심은 1970년대 생성형태론(generative morphology)을 거치며 본격화된다. 당시 연구는 파생어 형성, 즉 접사 중심의 형태론적 규칙과 제약을 밝힘으로써 결합 방식을 원리화하거나, 계열관계의 단어들 간 어휘적 관련성을 포착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한국어학계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1990년대 중반까지 규칙과 제약 중심의 연구 성과가 주를 이루며 형태 결합 및 구조 중심의 단어형성론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 ‘의미 중심 단어형성론’을 표방한 황화상(2001)은 연구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논의이다.

(4) 의미 중심 단어형성론 (황화상 2001: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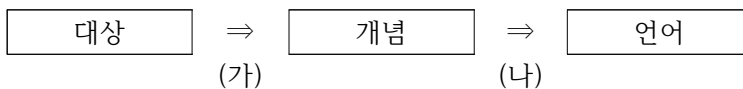
- 가. 개념의 형성: 단어의 의미 부여
- 나. <개념 구조> = <의미 구조>
- 다. 의미와 형태의 대응: 단어 형성 요소의 선택
- 라. 형태 연결: 형태 단위의 결합
- 마. <형태 구조>

2) 의미관계 전반에 관한 형태론 연구의 필요성은 최형용(2014나)에서 강조된 바 있다. 고재철(1996), 최형용(2014가, 2016, 2018), 이은섭(2019)도 참고된다.

3) 주지하듯이 동의어 개념은 ‘절대적 동의어(absolute synonym)’와 ‘상대적 동의어(relative synonym)’로 구분되는데(임지룡 1992: 136-137), 이 글은 후자의 관점에서 유의어를 포함하여 동의어를 기술하고자 한다. 의미관계의 하위 유형과 관련하여 연구자마다 조금씩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 각 용어마다 미세한 개념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통일성 있는 기술을 위해 이 글에서는 후술할 고재철(1996)의 ‘대립관계’를 ‘반의관계’로, 최형용(2014나, 2018, 2019)의 ‘유의관계’를 ‘동의관계’로 기술하였다.

황화상(2001: 78)에서 제시한 (4가~4마)의 과정은 ‘의미 → 형태’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단어 형성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목표한 ‘개념’을 먼저 형성하고, 구축된 <의미 구조>에 형태를 대응시켜 형태 단위를 결합함으로써 <형태 구조>를 완성한다. 새로운 단어가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서 시작된다는 일반적 진술이 김광해(1982), 임지룡(1997)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일부 언급된 바 있기는 하지만, 단어 형성 문제에 집중하여 ‘의미에서 형태로’ 단계별 과정을 제안한 점에서 황화상(2001)은 의미를 강조한 한국어 단어형성론의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5) 표현론적 접근의 단어 형성⁴⁾ (정한대로 2015가: 134)



Ogden & Richards(1923: 11)의 ‘기호 삼각형(semiotic triangle)’을 구성하는 ‘지시 대상(referent), 사고·지시(thought or reference), 상징(symbol)’은 단어 형성 과정을 도식화한 (5)의 ‘대상, 개념, 언어’에 각각 대응된다.⁵⁾ ‘지시 대상’과 ‘상징’이 ‘사고·지시’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과 평행하게, (5)의 ‘대상’ 역시 중간의 ‘개념’을 거쳐 ‘언어’로 표상된다. 이는 단어 형성 과정에 ‘개념’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5가)와 (5나)는 각각 ‘개념화’와 ‘언어화’로 명명되는데(정한대로 2015가: 134), 전자는 화자의 인식에 따라 특성 속성이 선택되어 개념을 구성하는 단계를, 후자는 화자가 특정한 형식과 방법을 선택하여 개념을 언어로 실현하는 단계를 가리킨다.⁶⁾ 이때의 (5) 과정 전반은 화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에 따라 전개되는데, 이는 곧 단어 형성 현장의 상황 맥락과 화자가 지닌 백과사전적 지식 등이 복합적으로 실제 단어 형성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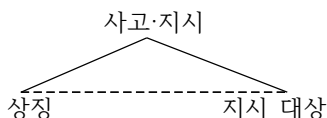
이때 (5가)의 개념화는 인지언어학에서 논의된 ‘해석(contrual)’ 과정과 다르지 않다.

(6) 인지언어학의 ‘해석’에 관한 기술 (임지룡 2004: 225-226)⁷⁾

가. ‘해석’이란 동일한 상황을 대안적인 방식으로 지각하고 묘사하는 인간의 다면적인 능력이다(Langacker 1997: 250).

나. ‘세계’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에 의해서 ‘해석된’ 어떤 것이다(Taylor 1995: 4). 또한 ‘해석’은 언어 의미의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 4) 개념에서 언어로, 즉 ‘의미 → 형태’ 방향의 언어 연구를 지향하는 표현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단어 형성 연구로 인지언어학에 기반한 Stekauer(1998, 2005a, 2005b)를 들 수 있다. 정한대로(2013, 2015가, 2019가, 2022나, 2022다), 오규환(2016), 박혜진(2019가, 2019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5) ‘지시 대상, 사고·지시, 상징’의 관계는 Ogden & Richards(1923)에서 아래와 같이 도식화되었다.



- 6) 박혜진(2019가, 2019나)는 (5가)와 (5나)를 각각 ‘의미 형성, 형태 형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황화상(2001)의 <의미 구조>, <형태 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된 용어이다.
 한편, 오규환(2016: 45-46)에서 제시한 ‘어휘 단위의 형성 동기와 그 절차’에서도 ‘개념’에서 시작하여 ‘어휘 단어의 형성’에 이르는 4가지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된다.
 (단계 I) 새로운 개념을 표현할 필요성의 인식 → (단계 II) 어휘부 등재소의 탐색 → (단계 III)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과정 선택(결합/대치/절단) → (단계 IV) 어휘 단위의 형성
 7) 이하 각 인용글에 표시된 ‘밑줄’과 ‘기호’(⊙, ⊙)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Taylor 1995: 19).

다. ‘해석’은 대안적 방식으로 장면을 개념화해서 표현하는 화자의 선택을 가리킨다
(Radden & Dirven 2002?: 44).

해석은 ‘대안적 방식으로 장면을 개념화해서 표현하는 개념화자의 선택’이자 ‘화자의 적극적, 능동적, 주체적 인지 능력의 발현’으로 논의되는데(임지룡 2004: 226), 이는 (5가)의 결과물이 보여 주는 역동성과 밀접하다. 단어 형성이 구성성분 간의 문법적(언어 내적) 원리뿐만 아니라, 화자의 해석이 관여하는(언어 외적) 방식과도 관련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 현상은 같은 대상을 달리 개념화하여 상이한 방식으로 명명해 낸 결과물, 즉 동의어(synonym)에서 두드러진다.

(7) 가. 동해(東海)-일본해(日本海)

나. 조갈병(燥渴病)-소갈병(消渴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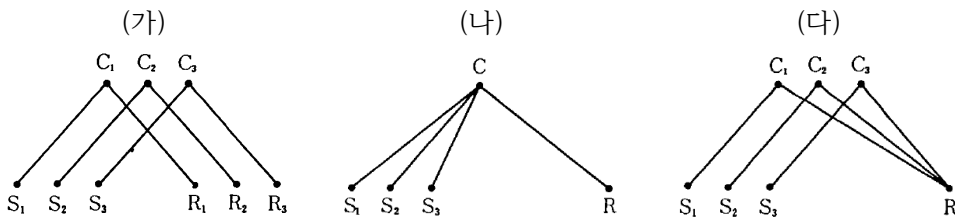
다. 고기밥-닭싹밥, 원폭운(原爆雲)-버섯구름, 식(食)갈-부엌갈, 흰죽-쌀죽

(7)의 각 동의어에 반영되어 있는 초점화된 의미를 분석해 보면, 형성 단계에 각각 다른 방식의 개념화(또는 해석) 작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간적 차이로 인한 ‘동(東):일본’의 대립(7가), 갈증 상태와 해소 과정에 따라 달리 초점화된 ‘조갈:소갈’의 대립(7나)은 명명 화자의 상이한 의미 해석에 기인한 결과이다(임지룡 2004: 233, 2018: 173-174). 단어 형성 현장에서 화자가 취한 선택에 따라 단일한 지시 대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명명된 것이다.

이와 비교할 때 (7다)의 ‘고기:닭싹(<실체:작용>), 원폭:버섯(<실체:속성>), 식:부엌(<실체:상황>), 희:쌀(<작용:속성>’은 (7가, 7나)보다 역동적인 개념화 양상을 드러낸다.⁸⁾ (7가)의 ‘동:일본’은 ‘장소’(<상황>), (7나)의 ‘조갈:소갈’은 ‘동작’(<작용>)으로 동일 개념 범주 내에서 대립하지만, (7다)는 달리 범주화된 개념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명명 양상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정한데로 2022나: 359-363). 이러한 단어 형성의 역동성은 ‘형태’가 아닌 ‘의미’에 주목할 때 포착되는 특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김광해(1990)은 (8)과 같이 어휘소 간 유의관계(동의관계 포함)를 도식화한 바 있는데, 이 도식 역시 개념화의 역동적 양상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 참고가 된다.

(8) 유의관계의 유형 (김광해 1990: 35 참고)



8) 정한데로(2022나)는 Štekauer(1998, 2005)에서 제시한 4가지 개념 범주(<실체>(substance), <작용>(action), <속성>(quality), <상황>(concomitant circumstance))와 표현론적 구조(<표현론적 표지 (onomasiological mark) - 표현론적 핵(onomasiological base)>)를 활용하여 동의어별 개념적 특성을 언급하였다. (7다)의 ‘고기, 원폭, 식’은 <실체>, ‘닭싹, 희-’는 동작, 상태의 <작용>, ‘버섯, 쌀’은 형상, 재료의 <속성>, ‘부엌’은 공간의 <상황> 개념에 대응한다.

김광해(1990)의 세 도식 중 (8가)는 R_1, R_2, R_3 로 지시 대상이 상이한 유의어에 관한 설명이므로 우리는 단일한 지시 대상 R(Reference)을 다룬 (8나, 8다)에 주목한다. (8나)는 지시 대상(R)이 하나의 개념(Concept)으로 연결된 후에 그 개념이 서로 다른 언어 형식(Symbol) S_1, S_2, S_3 로 표현되었다. 'R→C'의 개념화 과정은 일대일 대응을 보이지만, 이후 'C→S'의 언어화 과정에서 ' S_1, S_2, S_3 '의 역동적인 결과물이 도출된 것이다.⁹⁾ 지시 대상과 개념의 대응 측면에서는 (8나)의 일대일 양상(R→C)이 (8가)의 일대일 대응($R_1→C_1, R_2→C_2, R_3→C_3$)과 일치된다. 반면, (8다)는 하나의 지시 대상(R)이 서로 다른 개념(C) C_1, C_2, C_3 로 해석된 후에 각각의 개념에 맞게 상이한 언어 형식(S) S_1, S_2, S_3 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초기의 'R→C' 단계에서 역동적인 개념화(또는 해석) 양상이 드러나는 유형이다. (8다)는 (8가, 8나)와 달리 화자의 주체적 인지 능력에 기대어, 화자의 의도와 선택에 따라 상이한 개념을 도출한다. 결과적 측면에서는 (8나, 8다)의 동의어 S_1, S_2, S_3 가 동질적으로 수용되지만, 단어 형성의 과정적 차원을 고려한다면, (8나)와 (8다)는 상이한 절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정한데로 2022나: 353). (8나)는 '개념 → 언어'(5나), (8다)는 '대상 → 개념'(5가) 과정에서 화자의 선택에 따라 역동적으로 결과를 실현하며, 이러한 단어 형성 과정이 그 중심에 놓인 '개념'과 밀접하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표현론적 접근에 기반한 단어형성론에서는 화자의 역할(개념화, 언어화 과정)이 강조되지만, 이는 공인어 위주의 기존 형태론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형복합형태'를 대상으로 삼은 김광해(1982)는 단어 형성 시 화자, 그리고 상황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중요하다.¹⁰⁾

- (9) 신형복합형태의 최종적 의미는 ㉠그 많은 가능성있는 의미들 중의 어느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형태를 사용한 화자에게만 전권이 쥐어져 있는 것이다. (중략) ㉢화자의 의도적(intended) 의미는 상황부여에 의해서만 청자의 해석적(interpreted) 의미와 일치되어 질 수 있음으로 해서 (후략) (김광해 1982: 18)

(9)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능성을 지니지만(9㉠), 결국 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9㉡), 이때 화자가 의도한 의미는 청자와 공유되는 상황 맥락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9㉢)고 강조한다. 이는 사전 등재어의 공인화된 규범적 의미 외에도 모든 역동적인 의미 가능성을 수용하고, 최초 명명 화자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화자의 능동적·주체적 역할 및 화자를 둘러싼 형성 당시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단어 형성을 탐구한다.¹¹⁾ 이상적 화자가 내재한 보편적 문법에 기대어 일관된 원리로 단어 형성을 설명하려는 접근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단어 형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서면 '단어의 의미'는 개별 형태에 명세된 축자적 의미로 한정되지 않고, '개인, 그리고 이를 둘러싼 언어공동체'가 반영된 사회 문화적 의미로까지 그 외연이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과 분석도 단어형성론의 연구 대상이 된다

9) 이러한 점에서 (8나)는 (5나)의 언어화 단계에서 화자의 주체적·능동적 선택이 반영된 것이다.
 10) 김광해(1982)의 '신형복합형태'는 공인화 이전의 '임시어'와 개념적 외연이 다르지 않다. 정한데로 (2021: 430-431)도 참고된다.
 11) 채현식(2003: 159)은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상황 맥락과 같은 정보는 세계 지식을 이용한 해석인바 형태론이 아닌 화용론이 관여하는 층위로 논의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정한데로(2015다, 2021)은 단어 형성 현장의 상황 맥락 정보가 단어를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를 형태론(단어형성론)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정한데로 2019나).

3. 단어 형성과 ‘의미 합성성’

단어 형성에서 ‘의미’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의로 복합어의 의미 합성성 문제가 있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단어는 합성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10) 가.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결합은 전체의미가 부분의미의 총화로 이루어진다는 합성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최상진 1997: 155).

나. 단어에서 의미의 합성성(compositionality)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복합어를 형성하는 요소의 의미가 형성된 단어의 의미에 일정한 역할을 함에는 틀림이 없다(황화상 2001: 148).

다. 대부분의 단어 형성은 합성성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나은미 2005: 83).

(10가~10다)의 입장은 복합어의 의미가 각 구성성분 의미의 산술적 합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관찰에 기초한다. ‘국을 담는 그릇’을 뜻하는 복합어 ‘국그릇’이 ‘국’과 ‘그릇’ 이외의 의미(‘~을 담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만으로 복합어의 의미론적 합성성을 판단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의미론적 합성성의 원리는 ‘합산’이 아닌 ‘함수’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11) 가. 어떤 표현의 의미는 그 구성성분들의 의미적 함수이고 그 구성성분들이 결합되는 방식의 함수이다(Frege 1892 / 이성범 1999: 119 참고).

나. 문법적으로 복합적인 형태의 의미는 그것의 문법적 구성성분들이 지닌 의미들의 합성적 함수이다(Cruise 2000: 66-81).

의미론적 합성성에 관한 (11)의 기술을 참고한다면, 적어도 복합어의 의미 합성성은 구성성분 간의 합산이 아닌 함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는 곧 (10)의 선행 연구가 취해 온 접근과는 다른 방식으로 복합어의 의미가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상의 상반된 두 접근을 (12)처럼 기호로 형식화하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12) 단어의 의미 합성성에 관한 두 접근

가. $AB = A + B$

나. $f(A,B) = A + B + \alpha$

위 두 입장 중 (12가)는 복합어 AB를 구성성분 A와 B의 ‘합산’으로 파악한 반면, (12나)는 이를 ‘함수’ 차원에서 이해한 것으로서 변수인 구성성분 A와 B뿐만 아니라, 상수 α 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구본관 2002, 정한데로 2009, 2014, 2021 참고).¹²⁾ (12가)의 합산적 관점에서

12) 둘 이상의 구성성분을 결합하여 복합어를 형성하는 과정은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형식화된 바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의미가 전체 구성을 비합성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12나)의 함수적 관점에서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포괄하여 합성성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2가)와 (2나)의 음영 의미를 (12나) 함수의 상수(α)에 대응시켜 전체 구성을 합성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2나)는 아래의 방식으로 보다 선명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

(13) 복합어 의미의 함수 관계와 대응 속성

	함수 관계	합성성	정합성	규칙성	투명성
가.	$f(A,B) = A + B$	+	+	규칙	투명
나.	$f(A,B) = A + B + \alpha$		-		반투명
다.	$f(A,B) \neq A + B (+ \alpha)$	-		불규칙	불투명

정한대로(2009, 2014)는 단어의 의미 합성성을 함수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13)과 같이 함수 관계에 기초한 합성성·정합성 기준을 통해 복합어의 유형을 설명하였다. 상수 α 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유무와 상관없이 (13가, 13나)처럼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합성성], 즉 합성성의 원리가 반영된다고 파악하고, 이후 α 의 여부에 따라서 [\pm 정합성]을 통해 의미가 투명한 경우(13가)와 반투명한 경우(13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13다)는 함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합성성]과 관련한다. 대개 복합어가 어휘화(lexicalization)되어 공식적으로 규칙성을 띠지 않는 경우, 따라서 복합어 구성성분의 구조와 분석이 불투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어휘화한 일부 복합어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복합어 대다수는 (13가, 13나)로 합성성을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¹³⁾

일각에서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은 α 를 함수 내 상수로 설정한 (12나)의 함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¹⁴⁾ 그렇다면 (12나)의 α 가 단어 형성 내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단어형성론에서 α 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확인함으로써 함수는 물론 (13)의 [합성성], [정합성] 대응의 타당성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단어형성론적 차원의 α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ㄱ) $X \rightarrow X+Y$ (송철의 1985: 194)

(X: 어기, Y: 파생접사, X+Y: 파생어)

(ㄴ) $X + Y + (\alpha) \rightarrow f(X, Y) + (\beta)$ (구본관 2002: 118)

(X: 어기의 의미(변수), Y: 접사의 의미(변수), f(X, Y): 파생어의 의미,

α : 파생어가 되면서 생기는 변화, β : 파생어 형성 이후의 의미 변화)

(ㄷ) $\text{집} + \underline{x} + N_2$ (김창섭 1996: 33)

(ㄹ) $P = xy$ (최상진 1997: 159-166)

(ㄱ, ㄴ)은 파생어, (ㄷ, ㄹ)은 합성어에 관한 형식적 기술이다. 그중 밑줄 친 α, β, x 의 존재는 복합어의 의미가 구성성분의 의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관찰의 결과가 각 형식에 반영된 것이다. 다만 구본관(2002)가 ‘공시적 결합 과정상의 의미’와 ‘통시적 변화 차원의 의미’를 단일한 함수 안에 동시에 반영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정한대로(2012: 27-28, 2014: 268-269)는 둘을 각각 별개의 함수로 구분하였다.

13) (13가)와 (13나) 중에서도 대다수의 복합어(합성어, 파생어)는 (13나)에 해당하리라 판단된다. 앞서 (2)의 예에서 보았듯이 형태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복합어 내부의 다양한 의미가 α 로서 복합어 전체 의미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4) 채현식(2003: 147)은 김창섭(1996: 29)의 합성명사 형성 규칙에 고정된 상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X]_N, [Y]_N \rightarrow [[X]_N [Y]_N]_N$ 으로 기술된 김창섭(1996)의 합성명사 형성 규칙 내부에 상수로 인정할 법한 별도의 형식이 부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외현적 ‘형태’ 중심의 규칙 기반 입장에 국한된 비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함수 내 α 는 단어 형성 시 복합어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 관여하는 상황 맥락과 밀접하다.¹⁵⁾ 앞서 논의한 ‘국그릇’의 예를 가져와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14) ‘X그릇’ 구성의 형태와 의미

가. 국그릇: ‘국을 담는 그릇’

- ① 형태: 국 + 그릇
- ② 의미: ‘국’ + ‘그릇’ + ‘~을 담는’

나. 돌그릇: ‘돌로 만든 그릇’

- ① 형태: 돌 + 그릇
- ② 의미: ‘돌’ + ‘그릇’ + ‘~로 만든’

합성명사 ‘국그릇’을 구성하는 ‘국’과 ‘그릇’의 의미만으로는 온전하게 ‘국그릇’ 전체의 의미를 구성할 수 없다. 특히 서술 의미 역할을 하는 성분이 형태 구성 내 부재하다는 점에서 ‘국그릇’은 ‘~을 담는’의 의미를 포함할 때 비로소 완성된 의미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서술 의미는 어떻게 복합어 의미로 반영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명사 연결 구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N_1 과 N_2 의 의미관계를 통해 그 방향이 몇 가지로 유형화된 바 있다. 최경봉(1998: 235-241)은 명사의 속성 정보를 ‘구성역, 형상역, 기능역, 작인역’으로 구분하고 ‘ N_1+N_2 ’형 명사 연결 구성의 의미관계를 설명하였으며, 황화상(2001: 223-226)도 ‘성상, 기능, 부분’의 3가지 속성을 토대로 의미관계를 분류하면서 위의 ‘~을 담는’과 같은 의미가 화자로부터 추론된다고 파악한다. ‘국그릇’은 ‘그릇’이 지닌 ‘기능역/기능’(담다) 속성이 ‘국’과 대응함으로써 ‘~을 담는’의 의미가, ‘돌그릇’은 ‘그릇’의 ‘구성역/성상’ 속성이 ‘돌’과 대응함으로써 ‘~로 만든’의 의미가 가능해진 것이다.

표현론적 접근(개념 → 언어)을 강조한 정한데로(2015나: 104-107)는 최초 단어 형성 현장의 상황 맥락이 단어의 의미를 완성한다고 보고, 형태로 드러나지 않은 (14)의 ‘~을 담는’, 즉 α 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파악한다.¹⁶⁾ α 의 의미에 따라서 ‘돌그릇’은 ‘돌로 만든 그릇, 돌을 담는 그릇, 돌 모양이 새겨진 그릇’ 등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초 형성 현장 내 화자의 명명 동기에 따라 α 의 의미가 선택되며, 이때 반영된 의미가 복합어 의미를 완성하고 그 의미가 언어 공동체에서 공인화되어 오늘날 보편적 의미로 수용되고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최경봉(1998), 황화상(2001)의 논의처럼 선후행 명사 간의 속성을 토대로 α 가 일정한 경향성을 띠는 수는 있지만, α 가 선후행 명사 간 의미관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특정 의미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α 의 존재는 형태 구성과 의미 구성의 비대칭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선행 연구는 형태 중심적 접근에 서서 α 를 포함한 복합어의 의미론적 비합성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α 는 최초 단어 형성 현장의 맥락 및 화자의 선택과 밀접한 요소이며, 복합어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단어형성론에서 주목해야 하는 대상이다.

둘째, α 는 단어들 간 계열관계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로서 어휘적 관련성을 드러내고, 통시적으로는 접사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다.

15) 정예은(2022가, 2022나)는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구성성분 외적 의미인 α 를 ‘고정 α ’와 ‘임시 α ’로 구분하였으며, ‘임시 α ’를 형성하는 ‘맥락’의 유형으로 ‘화맥(extralinguistic context)’과 ‘문맥(intralinguistic context)’이 달리 존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6) 복합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화용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 연구로 김광해(1982), 이재인(199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5) 'X그릇' 합성어의 형태와 의미 (정한대로 2021: 451)

	형태	의미
가.	국그릇 밥그릇 (단추그릇)	국을 담는 그릇 밥을 담는 그릇 (단추를 담는 그릇)
나.	돌그릇 유리그릇 (그림자그릇)	돌로 만든 그릇 유리로 만든 그릇 (그림자로 만든 그릇)
다.	꽃그릇 (뽀로로그릇)	꽃이 그려져 있는 그릇 (뽀로로가 그려져 있는 그릇)

(14)의 'X그릇'은 (15)처럼 더 다양한 유형의 합성어로 확대될 수 있다. (15가~15다)는 유형별로 서로 다른 α 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함수 내 상수 값을 ' $\alpha_1 \sim \alpha_3$ '로 달리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15가), 즉 'f(A,B) = A + B + α_1 '의 일관된 함수 내에서는 '국그릇, 밥그릇, 단추그릇' 등이 규칙성(regularity)을 띠며 합성적인 함수 관계를 지닌다. 특히 괄호 안의 '단추그릇, 그림자그릇, 뽀로로그릇'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들로서, 화자의 명명 동기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단어는 필요에 따라 생산적으로 추가 형성 가능하다. 이렇게 (15가~15다)마다 각각 어휘적 관련성을 지닌 단어를 추가로 확장할 때 동일 유형의 동일성 및 유형별 변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각 함수의 상수 ' $\alpha_1 \sim \alpha_3$ '이다. ' α_1 '은 '국그릇, 밥그릇, 단추그릇, 지우개그릇, 쓰레기그릇' 등 'X를 담는 그릇' 간의 계열관계를 형성하는 주축으로 기능한다. 형태로 드러난 선행 명사 '국, 밥, 단추, 지우개, 쓰레기'간의 계열관계가 아니라, 형태 없이 의미로만 존재하는 각 합성명사의 ' α_1 ' 의미가 본질적인 계열관계의 주축인 것이다.

계열관계 내 α 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기존 대치에 의한 단어 형성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근이나 접사 위주의 연결관계가 아닌 α 를 중심으로 한 관계 설정으로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치를 활용한 단어 형성의 대표적 예인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 이에 해당한다.

(16) 가. 팔에 부착하는 장신구 : 팔찌 = 귀에 부착하는 장신구 : X

나. Y(Y=먹을 수 있는 재료)를 넣어 만든 빵 : [Y]_{N(Y=먹을 수 있는 재료)}-빵 = 보리를 넣어 만든 빵 : X

(16가, 16나)는 채현식(2003)에서 제시한 '개별 단어에 의한 유추'와 '유추의 틀에 의한 유추'의 예로서, 이들 대치의 바탕이 되는 계열관계 구성의 중심은 회색 음영의 공통된 α 의미와 관련이 깊다(정한대로 2014: 276-277). α 에 대응될 만한 (16)의 음영 의미도 '귀찌, 보리빵' 내에서 형태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단어의 개별 의미 및 계열관계를 완성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한다. (15)에서 확인했듯이 형태로 드러난 성분((16가)의 '팔:귀') 간의 형태론적·의미론적 상관정보보다도 음영 α 를 통해 포착된 복합어 간 유사성이 대치에 의한 단어 형성에서도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단어 형성에 관여한 α 는 통시적으로 복합어 구성성분 중 일부를 접사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복합어 내 특정 구성성분이 형태론적·의미론적으로 고정된 쓰임을 보이면서 계열관계의 단어를 생산적으로 확장하고, 이로부터 그 지위를 분명히 해 나가는 모습을 관찰하게 된다.

(17) 'X꾼'의 파생어의 유형별 계열관계

- 가. 모사꾼, 살림꾼, 소리꾼, 심부름꾼, 씨름꾼, 장사꾼
→ X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 나. 낚시꾼, 난봉꾼, 노름꾼, 말썰꾼, 잔소리꾼, 주정꾼
→ X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 다. 구경꾼, 일꾼, 장꾼, 제꾼
→ X 때문에 모인 사람
- 라. 과거꾼, 건달꾼, 도망꾼, 뜨내기꾼, 마름꾼, 머슴꾼
→ X를 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
- 마. 건성꾼, 피꾼, 덜렁꾼, 만석꾼, 재주꾼, 천석꾼
→ X의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

(17가~17마)의 파생어는 그 형태가 'X꾼'으로 동일하지만, 미세한 의미 차이에 따라 각 유형별로 상이한 계열관계를 드러낸다. 이때 각 함수의 상수, 즉 회색 음영의 각 의미가 (15)와 마찬가지로 어휘적 관련성을 구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각 단어의 초기 형성 과정에 이 상수 의미는 형태로 드러난 두 구성성분 'X'와 '꾼' 외에 추가된 α 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한자 '軍'에서 유래한 형태 '꾼'(<스군)은 '사람이나 특정 무리'를 뜻하는 일반적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가~17마)에 대응하는 ' $\alpha_1 \sim \alpha_5$ ' 값에 따라 'X꾼'의 의미가 다양화되고, α 에 해당하는 (17)의 각 회색 음영 의미는 오늘날 다의적 접사 '-꾼'의 개별 의의(sense)로 분석되어 각각 사전에 기술된다. 사전에 풀이된 접사의 공시적 의미 기술은 복합어의 어근(X)을 제외한 나머지 의미를 따로 분석해 낸 것인바, <표준국어대사전>의 '-꾼' 뜻풀이는 각기 다른 α 가 접사 의미의 한 부분으로 명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접사의 형성, 다의적 접사의 각 의미는 α 의 존재를 통해 동기화되고 성립된다.¹⁷⁾

셋째, 형태로 드러나지 않은 α 의 존재는 특정 복합어를 어휘부 저장 단위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α 는 어휘부 등재 기준으로서의 단어형성론적 의의를 지닌다.

(18) 등재의 두 차원

- 가. 형성 차원의 등재: 부가 정보(α)
- 나. 수행 차원의 등재: 출현 빈도

정한데로(2010: 6)은 등재를 (18)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단어 형성 시 구성성분 외에 부가된 정보(α)가 문법적 차원의 등재 조건이 된다고 논의한다. 앞서 언급한 '국그릇, 돌그릇, 꽃그릇'을 비교할 때, 특정 화자가 단일어 '국, 돌, 꽃, 그릇'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복합어 '국그릇, 돌그릇, 꽃그릇'의 의미까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돌그릇'이 '돌을 담는 그릇, 돌이 그려져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으며, '꽃그릇'도 '꽃을 담는 그릇, 꽃으로 만든 그릇'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합어 '국그릇, 돌그릇, 꽃그릇'이 명확한 의미로 화청자 간 의사소통에 쓰이기 위해서는 단어마다 '~을 담는, ~로 만든, ~가 그려져 있는'의 의미

17) 합성명사를 대상으로 논의된 바 있는 '단어형성 전용 요소'(김창섭 1996), '의사접사'(송원용 2005), '고정소'(시정근 2008)는 합성명사 구성성분 중 일부가 α 의미를 포함한 주축으로 고정되어 점차 접사화되는 단계의 초기 모습을 각각 다른 방식의 용어로 구현한 결과이다.

중에서 어떠한 α 가 복합어의 한 부분 의미로 고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정화 작용이 곧 어휘부 등재라고 할 수 있다.

합성어 ‘X그릇’과 파생어 ‘X꾼’의 예에서 확인했듯이 복합어 유형에 상관없이 상당수의 복합어는 최초 단어 형성 당시의 상황 맥락과 화자의 의도에 따른 선택적 판단에 기반하여 부가 정보(α)를 지니게 된다.¹⁸⁾ 따라서 α 가 부가된 (13나) 유형의 복합어는 그 의미가 투명하지 않은 반투명 지위에 있으므로 문법적으로 등재의 대상이 된다.

(18나)의 방식으로 출현 빈도 상승에 따라 ‘어휘 강도(lexical strength)’가 높아지면서 등재되는 복합어도 인정된다. 부가 정보(α) 없이 구성성분만으로 복합어 의미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13가) 유형의 복합어일지라도 자주 쓰이면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8가)와 (18나)는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등재의 두 조건을 이루며, 그중 형태로 실현되지 않은 부가 정보(α)는 등재의 충분조건이 된다.

앞서 언급했던 어휘적 관련성을 띠는 단어 간 계열관계는 어휘부 관점에서 등재소 연결망과도 다시 연결된다. α 는 최초 단어 형성의 맥락 정보, 어휘부 등재 조건으로서의 부가 정보에 그치지 않고, 등재 이후 어휘부 안에서 연결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한다면,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 α 가 단어의 형성과 등재 전반에 걸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단어 형성과 ‘의미관계’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는 어휘의미론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이때 주된 연구 대상은 (19가)와 같이 단어 ‘X’와 ‘Y’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동의/반의/상하’의 관계적 의미이다.¹⁹⁾

(19) 가. X-Y

나. xz-yz, zx-zy, x-zx, x-xz: xy, xx', xyy' 등

①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 xz-yz, zx-zy, x-zx, x-xz 등

② 단어 내부의 의미관계: xy의 x:y, xx'의 x:x', xyy'의 xy:y' 등

그런데 (19나)처럼 의미관계의 분석 대상이 일련의 내부 구조를 지닌 복합어 ‘xz, yz, xx’ 등인 경우는 보다 복잡한 양상이 펼쳐진다.²⁰⁾ 둘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어의 의미관계

18) 정한데로(2009, 2010)은 ‘달관스럽-, 신성스럽-, 혼동스럽-’과 같이 ‘추상명사+접사’ 구성 형용사의 경우에 부가 정보(α) 없이 투명하게 그 의미가 해석된다고 논의한 바 있다. 반면 ‘시골스럽-, 소녀스럽-, 남성스럽-’의 ‘구체명사+접사’ 구성의 형용사는 어근의 속성이 부가 정보(α)로 관여함으로써 문법적 차원의 등재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추상명사와 구체명사가 어근으로 쓰일 때의 이러한 비대칭적 특성은 송철의(1992: 202-204)를 참고할 수 있다.

19) 단어의 의미관계에 관한 연구는 계열적 어휘 체계를 강조한 구조주의적 입장과 어휘의 사용 맥락(context)과 용법을 강조한 문맥주의적 입장이 대립해 왔다(김진해 2006, 2013, 최경봉 2010, 2013, 2017, 남경완 2019 참고). 이 글은 문장 내 다양한 쓰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어휘 단위 차원에서 각 복합어가 지닌 대내외적 의미관계에 집중하고 있는바 전자의 관점에서 논의한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20) ‘xz-yz’는 공통 성분(z)이 후행하는 경우를, ‘zx-zy’는 공통 성분(z)이 선행하는 경우를 각각 형식화한 것이다. ‘xx’은 의미가 같은 상이한 형태(x, x')가 직접 결합한 경우를 표현한 것이다. 각 해당 자료는 후술하기로 한다.

를 형태론적 차원에서 논의 가능한데, 그 범위가 ‘①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뿐만 아니라 ‘② 단어 내부(구성성분 사이)의 의미관계’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의미관계를 조명한 형태론 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²¹⁾

먼저 (19나)의 ①처럼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를 다룬 형태론 연구를 확인해 보자. 이에 관한 초기 연구로 고재설(1996)이 주목된다.

(20) 단어 사이의 ‘반의관계’ <xz-yz> (고재설 1996: 196-200)

- 가. 산토끼-집토끼, 산돼지/멧돼지-집돼지, 산딸기-밭딸기
- 나. 참깨-들깨, 참꽃-개꽃, 친부모-시부모, 친아들-양아들

(20)처럼 복합어 내부의 선행 구성성분이 의미적으로 대립하여 단어 사이에 반의관계가 드러나는 예가 있다. 고재설(1996)은 반의관계에 있는 복합어가 지닌 몇 가지 형태론적 특성을 일반화하였는데,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된 것은 반의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같은 품사를 지닌다는 사실이다(‘품사 동일성의 조건’). ‘좋-:나쁘-(형용사), 많이:조금(부사), 가-:오-(동사), 남자:여자(명사)’와 같이 대립 쌍 간에 일관된 품사 일치 양상이 드러나며, 이는 (20)의 복합어에도 평행하게 적용된다.

또한 고재설(1996)은 복합어 대립 쌍(xz-yz)의 각 후행 구성성분(z)이 동일한 점에 주목한다(‘피수식 성분 동일성의 조건’). 그리고 (20)에 제시된 ‘토끼, 돼지, 깨, 꽃’ 등이 각 복합어의 핵(head)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산:집, 산:밭’(20가)이나 ‘참-:들-, 참-:개-; 친-:시-, 친-:양-’(20나)과 같이 선행 구성성분의 대립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후행하는 핵 성분만큼은 동일하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이는 ‘xz-yz’ 형식에 국한된 자료를 전체로 규정하고 이를 조건화한 점에서 한계가 확인된다. 고재설(1996)의 ‘피수식 성분 동일성의 조건’은 최형용(2016: 60, 2018: 147)에서 반박되는데, ‘친아들’의 반의어로 ‘양아들’뿐만 아니라 ‘친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아들:양아들’은 후행 명사 ‘아들’을 축으로 접사 ‘친-:양-’이 대립하지만, ‘친아들:친딸’은 선행 접사 ‘친-’을 축으로 명사 ‘아들:딸’이 대립한다. 고재설(1996)의 주장과 달리 ‘친아들:친딸’은 피수식 성분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반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단어 사이의 동의관계를 다룬 대표적인 형태론 연구로 최형용(2008)을 들 수 있다. 최형용(2008)은 이른바 ‘동의파생어’를 대상으로 삼아 접두사/접미사 대응소를 기준으로 분포 및 의미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21) 단어 사이의 ‘동의관계’ <xz-yz, zx-zy 등> (최형용 2008: 44-48)

- 가. 굳기침-헛기침, 날고치-생(生)고치, 불(不)가역-비(非)가역
- 나. 난봉쟁이-난봉꾼, 대장공(工)-대장장이, 경락자(者)-경락인(人)
- 나. 꾀꾼-꾀보-꾀쟁이, 벌목꾼-벌목공(工)-벌목부(夫), 문학가(家)-문학인(人)-문학자(者)

21) 복합어 구성성분의 ‘의미관계’를 다룬 형태론 연구로 정동환(1991), 이석주(1995)도 확인되지만 이들 연구에서 기술된 의미관계는 용어만 같을 뿐 어휘의미론 차원의 계열적 의미관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선택], [결합], [구분] 등의 독자적인 범주로 의미를 기술하거나 대등관계, 수식관계와 같이 통사적 차원에서 구성성분 간 관계를 기술한 연구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2) 고재설(1996)은 Williams(1981)의 ‘오른쪽 핵 규칙(Right-hand Head Rule, RHR)’을 언급하면서 오른쪽 구성성분이 전체 합성어의 핵이 되며, 대립 관계의 합성어에서도 후행하는 핵이 공통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개교:폐교, 등산:하산, 승선:하선, 출근:퇴근’ 등의 한자어 복합 구성도 후행 구성성분이 핵으로 실현된 점에서 (20)과 평행한 자료로 소개된다.

(21가, 21나)는 각각 접두사, 접미사를 대치함으로써 동의관계를 드러내는 파생어 쌍(xz-yz, zx-zy)을 제시한 것이다.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한자어’로 대응된 접사의 어종별 유형이 고르게 관찰되며, 접미사 대응소의 경우는 (21나)처럼 3항 관계(zx-zy-zw)의 예도 확인된다. 이들 구성은 하나의 어근이 ‘의미는 같으나 상이한 형태의 접사’와의 형태론적 결합을 통해 파생어 사이에 동의관계를 구축한 것으로서, (21)은 동의어의 내적 구조에 관심을 두고 양적 분석을 시도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어 사이의 동의관계를 탐색한 또 다른 형태론 연구로 정한대로(2022나)도 확인되는데, 형성 과정을 고려하여 동의어를 다룬 점에서 (21)과 다른 시도로 평가된다.

(22) 단어 사이의 ‘동의관계’ <xz-yz, zx-zy 등> (정한대로 2022나: 381-383)

가. 증인대-증언대, 식칼-부엌칼, 흰죽-쌀죽, 유기견-길강아지

가’. 온수병-보온병-이중병, 수호-창간호-초호

나. 계휴-휴계, 날계란-날달걀, 강기침-건기침, 동북쪽-동북향, 걸등-괘등, 깊은숨-심호흡, 닭의똥-닭똥

나’. 공수-맨손-빈손, 수요반-물말이-물만밥

(22)는 표현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개념화’ 및 ‘언어화’의 관점에서 동의어 대응 양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22가, 22가’)은 화자가 동일한 대상을 목표로 상이한 개념을 적용(‘개념화’)하여 각각의 단어를 형성한 것으로, 가령 ‘증인대-증언대’는 ‘증인:증언’이 <실체>:<작용>의 개념 범주 대립을 보이는 반면, ‘식칼-부엌칼’은 ‘식(食):부엌’이 <실체>:<상황>의 대립을, ‘흰죽-쌀죽’은 ‘희-:쌀’이 <작용>:<속성>의 대립을 드러낸다.²³⁾ 한편 (22나, 22나’)은 화자가 같은 대상의 동일한 개념에 상이한 형태론적 방식과 형식을 적용(‘언어화’)하여 각각의 단어를 형성한 결과이다. ‘어근 도치 합성어, 동일 접사 결합 파생어, 동일 어근 결합 파생어, 합성어와 파생어 형성, 동사+명사 합성어, 어미 ‘-르’이 결합한 통사적 복합어, 조사 ‘-의’가 결합한 통사적 복합어’의 관련 예가 (22나)에 차례로 제시되었다. 단어 사이의 동의관계를 다룬 (22)는 ‘xz-yw(유기견-길강아지, 깊은숨-심호흡), xz-zx(계휴-휴계), xz-yz-wz(온수병-보온병-이중병), xz-yw-vw(공수-맨손-빈손)’ 등 훨씬 다양한 방식의 성분 결합 양상을 보여 준다.

한편, (19나)의 ㉔에 해당하는 단어 내부의 의미관계 유형을 논의한 연구가 있다. 의미중복 현상을 중심으로 구성성분 간 의미관계를 다룬 형태론 연구로 노명희(2006, 2009)가 주목된다.²⁴⁾

(23) 단어 내부의 ‘동의관계’ <xx’의 x:x’> (노명희 2006: 276-278)

가. 애간장(肝腸), 새중간(中間), 애당초(當初)

나. 가루분(粉); 분(紛)가루

(23가)의 ‘애’와 ‘간장’, ‘새’와 ‘중간’, ‘애’와 ‘당초’는 각각 같은 의미를 지니는 ‘x’와 ‘x’의

23) (22가’, 22나’)는 각각 3항 대립을 보이는 예들이다.

24) 노명희(2006, 2009)는 경제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동의중복 현상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잉여적인 오용 사례라는 기존 해석과 달리, 이를 한자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전개되는 광범위한 언어 현상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는 곧 화자의 인식 변화가 새로운 단어 형성의 동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 문제가 단어 형성을 촉발한 사례로서 형태론적 의의를 지닌다.

동의관계 어휘가 결합한 것인데, 선행 고유어와 후행 한자어가 결합한 점에서 평행한 양상을 띤다. (23나)의 ‘가루’와 ‘분’도 동의관계의 어휘가 결합하여 복합어를 구성한 것으로, ‘고유어+한자어’와 ‘한자어+고유어’의 두 방식(xx', x'x)이 모두 가능하다. 이들 구성은 표면적으로 동의관계의 두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이지만, 각 단어의 세부적인 의미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개별적이고 복잡한 의미론적 양상이 드러난다.²⁵⁾ ‘애간장, 가루분’은 구성성분 간의 동의관계는 물론 구성성분과 복합어 사이의 상관관계(간장-애간장, 분-분가루/가루분)까지 고려 가능한 대상이다.

(24) 단어 내부의 ‘상하관계’ <xyy'의 xy:y'> (노명희 2006: 265-268)

가. 외가(外家)집, 처가(妻家)집, 초가(草家)집; 한옥(韓屋)집, 양옥(洋屋)집

나. 계수(桂樹)나무, 고조(高祖)할아버지, 단발(短髮)머리, 사기(砂器)그릇, 생일(生日)날, 전선(電線)줄

(24가)는 ‘X+집’ 구성의 합성어로서, 그중 ‘외가집’(xyy')은 선행 한자어 ‘외가’(xy)의 ‘가’(y)와 후행하는 고유어 ‘집’(y')이 동의중복된 것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외가’와 ‘집’ 사이에 상하관계가 드러난다는 사실인데, ‘외가’(xy)의 ‘외’(x)가 ‘가’(y)를 하위범주화한 결과로 ‘외가’(xy)가 ‘집’(y')의 하위어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한옥집’은 선행 한자어 ‘한옥’의 ‘옥’이 ‘외가’의 ‘가’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 역시 선행 한자어 ‘한옥’과 후행 고유어 ‘집’ 사이에 상하관계가 포착된다. (24나)는 ‘외가집, 한옥집’과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예들로서 이러한 유형의 복합어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후, 최형용(2014나, 2018)에서 단어의 내부 구조를 고려한 의미관계 연구의 의의가 부각되고, 단어 사이 및 단어 내부 기준의 동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유형별 자료가 정밀하게 분석된다. 이는 ‘의미관계 형태론’으로 명명할 만큼의 체계화된 시도로서, 형태론과 의미관계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종합적 연구라는 점에서 최형용(2014나, 2018)의 연구사적 의의가 확인된다. 최형용(2018)에 제시된 유형별 예시 일부를 간단히 살펴보자 한다.²⁶⁾

(25) 단어 사이의 ‘동의/반의/상하관계’ <xz-yz, zx-zy, x-zx, x-xz> (최형용 2018)

가. <동의> 산돼지-멧돼지, 돌문-석문; 망신감-망신거리, 봉급날-봉급일

나. <반의> 친아들-양아들, 악감정-호감정; 친아들-친딸, 극좌-극우

다. <상하> 개-삽살개, 총각-노총각; 미달이-{미달이문, 미달이창}

(25가~25다)에 제시된 각 의미관계 유형은 대응 성분의 선후행 위치에 따라서 하위 유형을

25) 노명희(2006: 276)은 ‘간장(肝腸)’이 ‘① 간과 창자’, ‘② 애나 마음’의 두 의미를 모두 지니지만 동의어 ‘애’와 결합한 ‘애간장’이 ②의 의미로만 한정되어 쓰이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분 동의어로 파악하였다. 한편, ‘가루분’과 ‘분가루’ 두 구성은 미세한 의미 차이가 확인되는데, 노명희(2006: 277)에 따르면 이는 ‘가루’와 ‘분(粉)’의 의미적 외연 차이에 기인한다. ‘분’은 한때 ‘① 화장품의 하나’, ‘② 가루’의 의미를 모두 지녔으나, 현재는 ①의 의미로 제한되어 쓰인다. 그러나 ‘가루분’은 여전히 ①과 ②의 의미를 모두 지니는데, ②의 의미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던 ‘분’에 ‘가루’를 더하여 ‘가루분’이 두 의미를 얻게 된 것이다. 반면 ‘분가루’는 ‘화장품으로 쓰는 분의 가루’, 즉 ①의 의미를 지닌 ‘분’과 동일한 의미이다.

26) 이 글은 지면의 제약으로 일부 명사 예만을 가져와 인용하였으며, (25)와 (26)은 그중 한 예시일 뿐이다. 최형용(2018)은 여러 품사에 걸쳐 훨씬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세부 하위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화할 수 있다. 후행 성분(돼지, 문; 아들, 감정)을 축으로 후행 성분 간 의미관계(동의, 반의)가 포착되기도 하고(xz-yz), 선행 성분(망신, 봉급; 친-, 극(極))이 축이 되어 선행 성분 간 의미관계가 드러나기도 한다(zx-zy). 상하관계도 그 위치에 따라 복합어의 후행 성분(개, 총각)이 상위어를 지시하기도 하고(x-zx), 선행 성분(미달이)이 상위어가 되기도 한다(x-xz).²⁷⁾ ‘미달이’는 ‘미달이문’과 ‘미달이창’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²⁸⁾ 최형용(2018)의 체계적 유형은 이후 신어를 대상으로 한 최형용(2019)에서 ‘빛삭-광삭, 다람쥐족-메뚜기족; 짝먹파-부먹파, 할져씨-할쫄마; 사랑꾼-프로사랑꾼, 노잼-핵노잼’ 등의 예로 소개되기도 한다.²⁹⁾

(26) 단어 내부의 ‘동의/반의/상하관계’ <xx’의 x:x’, xy의 x:y> (최형용 2018)

가. <동의> 밀바탕, 틈새; 뺨골(脣) 널판(板); 가옥(家屋), 안목(眼目)

나. <반의> 손발, 암수, 가로세로; 남녀(男女), 상하(上下), 수족(手足)

다. <상하> 봄철, 사흔날, 장맛비; 여인(女人), 경비원(警備員)

(26가~26다)는 단어 내부의 구성성분 간 의미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종(고유어/한자어)과 성분의 형태론적 지위(형태소/어근)에 따라 하위 유형이 구체화되기도 한다. ‘밑:바탕, 뺨:골(脣), 가(家):옥(屋)’ 등은 단어(xx’) 내부의 구성성분이 ‘x:x’로 동의관계를 드러내며, 단어(xy) 내부의 구성성분이 ‘손:발, 남(男):여(女)’ 등은 ‘x:y’의 반의관계를, ‘봄:철, 여(女):인(人)’ 등은 ‘x:y’의 상하관계(하위어:상위어)를 보여준다.

단어의 의미관계가 일견 어휘의미론의 연구 대상으로만 여겨질지 모르나, 둘 이상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의 경우에 ‘단어 사이’, ‘단어 내부(구성성분 사이)’의 두 측면에서 훨씬 역동적으로 전개된 의미관계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의미관계에 관한 의미론의 성과가 형태론 연구로 이어져 연구 대상을 확장하고 심도 있는 자료 분석을 이끌어 낸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³⁰⁾

5. 신어 형성과 ‘의미’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어(neologism)도 형태론의 관심 대상 중 하나이다. 신어는 낱선 형식의 첫 등장으로 가시화되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우선적 관심은 이 단어가 어떠한 형태론

27) 이민우(2011: 253)에서는 ‘개다리, 밤나무, 꽃봉오리’를 합성어 내부의 상하관계가 발견되는 예로 논의하였으나, 최형용(2018: 78)은 이러한 자료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는 ‘개다리’가 ‘다리’의 한 유형이므로 ‘개다리’와 ‘다리’가 상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최형용(2018)에서 관심을 둔 단어 내부의 의미관계는 구성성분인 ‘개’와 ‘다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하관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8) ‘미달이-{미달이문, 미달이창}’은 ‘파생어-합성어’ 간에 상하관계가 형성된 예이기도 하다(최형용 2018: 175).

29) 신어의 의미관계를 다룬 최근 논의로 송현주(2022)도 참고된다.

30) 이에 더해 최형용(2018: 187-194, 267-268)은 단어 사이 및 단어 내부의 의미장을 중심으로 복합어의 의미관계를 논의하면서, 이를 ‘의미장 형태론’(최형용(2014가)의 ‘어휘장 형태론’)으로 명명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내부 구조 측면에서는 평행하지 않다. ‘덧-’은 접두사 ‘덧-’이 ‘셈’과 결합한 구성, ‘뺄셈’은 동사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뺄--+ㄹ’이 ‘셈’과 결합한 구성, ‘곱셈’은 명사 ‘곱’이 ‘셈’과 결합한 구성, ‘나눗셈’은 동사 어간 ‘나누-’와 명사 ‘셈’ 사이에 ‘스’가 개재한 구성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최형용 2014가, 2018 참고). 형성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하지만, 이들 단어는 연산에 관한 의미장에 속한 어휘라는 점에서 동질적인 대상이기도 하다.

적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데 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식의 등장, 즉 외현적 형태의 새로움이 당장 연구자들의 이목을 끈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형태론에서는 특히 개별 신어의 형성 원리를 밝히고 단어 간 계열관계를 통해 그 패턴을 일반화하는 일에 집중하여 신어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 최근에는 혼성어, 축약어(약어, 음절어, 절단어)와 같이 합성, 파생 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대상으로 형성 원리를 탐색하는 작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신어 중에는 형태적 새로움 없이, 다시 말해 기존 단어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예도 일부 포함된다.

- (27) 가. 개미, 교통정리, 군살빼기 (임지룡 1997)
- 나. 교통정리, 껌기, 떡값, 셀프 (문금현 1999)
- 다. 잠수, 도배하다 (시정곤 2006)
- 라. 삽질, 희생양 (정한데로 2015나)
- 마. 프레임, 사이버재판 (남길임 외 2018, 2019)

일찍이 임지룡(1997: 222-224)은 (27가)의 단어들이 다의적 확장을 거쳐 새로운 의미로 쓰이면서 신어로 쓰이는 양상에 주목한 바 있으며,³¹⁾ 문금현(1999: 312)는 (27나)의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다의적 재활용’의 예로 분류하였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시정곤(2006: 236-237)도 (27다)를 다의화(의미 변이)의 예시로 처리하였으며,³²⁾ 정한데로(2015나: 238-239)는 (27라)를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 인쇄본(1999년)과 누리집(2015년) 간 사전 기술을 비교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비유적 의미의 공인화(사회적 정착) 양상을 논의한 바 있다.

그중 남길임 외(2018, 2019)는 (27마)를 ‘의미적 신어’로 명명하고 신어의 체계 내에서 서술함으로써, 신어 형성의 한 방식으로 다의화의 지위를 분명히 한 연구이다. 남길임 외(2018: 55-56)의 신어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28) 남길임 외(2018: 55-56), 남길임 외(2019: 136) 참고³³⁾
- 가. 형태적 신어(formal neology): 어휘부에 새로이 등장한 새로운 형태로서 일반적 의미의 신어
- 나. 의미적 신어(semantic neology): 기존 형태에 의미적 확장이나 축소, 의미의 가치상승과 가치하락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
- 다. 문법적 신어(grammatical neology): 기존 형태의 문법 범주가 달라진 것

(28)은 기존 일반적 의미의 신어를 ‘형태적 신어’로, (27)처럼 기존 형태가 의미 변화를 거

31) 개미(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 교통정리(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일), 군살빼기(회사, 은행, 기타 조직사회에서 불필요한 인력이나 기구를 줄이는 일)

32) 잠수(사이버상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사라지는 것), 도배하다(한 사람이 같은 내용의 글이나 파일을 게시판에 연속적으로 올리는 행위)

33) ‘의미적 신어’는 Guilbert(1975: 59)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길임 외 2018: 55 참고). Boussidan(2013), Renouf(2013)에서도 ‘semantic neology’가 신어의 한 유형으로 소개되는데, 그중 남길임 외(2018)의 체계는 Boussidan(2013)과 유사하다. 정한데로(2022가: 43-44)는 관련 논의의 신어 체계와 해당 예시를 일부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쳐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를 ‘의미적 신어’로 명명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존 형태의 문법 범주 변화는 ‘문법적 신어’로 따로 구분한다. 종래의 신어 연구가 주로 (28가) 유형에만 집중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28)의 체계 구분은 신어를 더욱 균형 있고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위 체계는 몇 가지 지점에서 한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먼저 ‘형태, 의미, 문법’ 용어의 층위가 대등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일견 ‘형태’와 ‘의미’가 서로 대립하지만, ‘의미적 신어’와 ‘문법적 신어’가 기존 형태 그대로 의미 및 문법 범주의 변화를 겪은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긴밀한 관계가 확인되기에 유형 분류 체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형태적 신어’는 형태적 새로움뿐만 아니라 신어가 지시하는 새로운 의미도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형태적 신어’로 명명하는 것은 ‘의미적 신어’와 비대칭적인 대립을 이룬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 바로 정한데로(2022가)의 신어 유형이다.

(29) 형태/의미 기준에 따른 신어의 유형³⁴⁾ (정한데로 2022가: 48)

신어 유형	유형별 세부 분류 기준		단어 유형	
가. 형태의미적 신어	단일 구성		단일어(차용어 포함)	
	복합 구성	합성	합성어	형태적 복합어
		파생	파생어	
		혼성	혼성어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	통사적 복합어			
나. 의미적 신어	어휘적 의미	기존 단어의 다의화	다의어	
		동일 형태의 단어 생성	동형어	
	문법적 의미	품사 전성	품사통용어	
다. 형태적 신어	기존 형태 축소	기존 단어의 음운 감축	약어	축약어
		기존 단어의 음절 선택	음절어	
		기존 단어의 음절 절단	절단어	
	유사 형태 활용	동일 의미의 단어 생성	동의어	

(29)는 ‘형태’(기표)와 ‘의미’(기의)에 관한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두고 신어를 유형화한 것이다. 형태와 의미 모두 새롭게 구성된 신어는 ‘형태의미적 신어’로, 기존 단어 형태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신어는 ‘의미적 신어’로, 기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진 신어는 ‘형태적 신어’로 분류한다. 이는 (28가)의 ‘형태적 신어’가 새로운 의미의 등장으로 촉발된 점을 고려하여 종래 ‘일반적 의미의 신어’를 ‘형태의미적 신어’로 달리 명명한 것이다. 신어의 의미적 새로움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28나)의 ‘의미적 신어’가 체계에 반영되었지만, (28가)의 ‘형태적 신어’ 개념이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적 새로움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명한 용어에는 ‘의미’가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에 (29)는 형태와 의미의 새로움이 모두 고려된 부류는 ‘형태의미적 신어’로, 형태적 새로움만이 강조된 부류를 ‘형태적 신어’로 (28)과 달리 명명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체계는 몇 가지 의미론 용어와도 연결되는데, 특히 어휘의미론의 대상인 ‘다의어, 동형어, 동의어’((29)의 음영 참고) 등을 체계 내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29나)의 ‘의미적 신어’가 어휘적/문법적 의미 기준에 따라 다시 유형화된 결과, ‘기존 단어의 다의화’는 ‘다의어’, ‘동일 형태의 단어 생성’은 ‘동형(이의)어’ 형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리고 형태적 신

34) 이는 ‘기표(형태)’와 ‘기의(의미)’ 기준을 바탕으로 수립된 Tournier(1985)의 ‘어휘 생성 (lexicogéniques) 매트릭스’를 한국어 신어 자료에 맞게 수정 확대한 것이다.

어 중 ‘동일 의미의 단어 생성’은 ‘동의(이형)어’ 형성의 문제와 관련한다.

(30) 가. 개미, 교통정리, 잠수, 삽질, 프레임 [(27) 참고]

나. 경로당(敬老黨), 사오정(四五停), 오륙도(五六盜), 이태백(二太白)³⁵⁾

다. 땡땡이, 땡작, 커엽다; 곤농, 곰국, 롬곡윤늬; 뿔, 뿔, 꺾밥³⁶⁾

(30가)가 의미 차원에서 다의어로 분류된 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사실이다. 반면 (30나)를 동형어로, (30다)를 동의어로 보아 단어 유형의 체계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룬 논의는 많지 않은 듯하다. (30나)는 같은 형태의 한글을 활용하되 다른 한자로 교체하여 상이한 의미의 신어를 만든 결과물이다.³⁷⁾ (30다)는 이른바 ‘야민정음’으로 불리는 것으로, 이들의 형성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도 더러 있으며 이를 신어에 포함해야 할지 의문을 갖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 (29)는 이들 자료 역시 신어의 한 유형으로 보고, 형태는 다르나 의미가 같은 동의어로 분류함으로써 체계 안에서 설명한다.

신어 연구에 관한 초기 상당수의 접근 방식은 주어진 낱신 단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데 있었다. 개별 신어의 형성 원리를 밝히고, 특정 접사(X녀, X족, X꾼 등)나 구성(X짱, X파라치, X세권 등)을 중심으로 관련 어휘 간 계열관계를 부각함으로써 시기별 신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조명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형태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 것은 외현적 속성에 먼저 주목한 형태론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비하면 신어의 한 유형으로서 ‘의미적 신어’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관련 단어를 수집하는 작업은 비교적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30)에 제시한 여러 유형의 결과물을 신어로 인정하고, 또 의미와 관계된 용어(다의어, 동형(의의)어, 동의(이형)어)로 각각의 지위를 파악한 시도는 신어 연구에서 ‘의미’에 관한 연구자들의 탐구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6. 결론

(생략)

35) 경로당(敬老黨):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정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오정(四五停): 45세가 정년(停年)이라는 말로, 정년이 아닌 데도 직장에서 내몰리는 40대 직장인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오륙도(五六盜):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이라는 뜻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에서 내몰리는 직장인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이태백(二太白): 심각한 취업난으로 이십대의 반수 이상이 일정한 직업을 잡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6) 이들은 문자 형태의 유사성을 활용한 것들로 ‘곤농’류는 상하 반전을, ‘뿔’류는 다음절을 단음절로 압축하여 표현한 결과이다.

37) 시정곤(2006)은 이러한 단어를 ‘의미 변화에 의한 단어 형성’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선영(2016: 287-288)은 이를 ‘역약칭어’로 명명하였다.

■ 참고문헌

- 고재설(1996), 합성어의 내부 구성과 의미 대립 관계: 형태론의 입장에서 본 의미 대립, 《국어학》 28, 국어학회, 187-218.
- 구본관(2002), 파생어의 형성과 의미, 《국어학》 39, 국어학회, 105-135.
- 김광해(1982), 복합명사의 신생과 어휘화과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8, 국어국문학회, 5-29.
- 김광해(1990), 어휘소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재검토, 《국어학》 20, 국어학회, 28-46.
- 김인균(2005), 《국어 명사의 문법 I》, 역락.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나은미(2005), 파생 접미사의 의미적 패턴 연구, 《이중언어학》 28, 이중언어학회, 81-110.
- 남경완(2019), 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어휘 의미관계 고찰: 계열적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66, 한국어의미학회, 1-33.
- 남길임·이수진·강범일(2019), '프레임'의 언어학: 의미적 신어 '프레임'에 대한 말뭉치언어학적 분석, 《한국어 의미학》 65, 한국어의미학회, 135-163.
- 남길임·이수진·최준(2018), 웹 말뭉치를 활용한 의미적 신어의 연구 동향과 쟁점,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55-84.
- 노명희(2006), 국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동의중복 현상, 《국어학》 48, 국어학회, 259-290.
- 노명희(2009), 국어 동의중복 현상, 《국어학》 54, 국어학회, 275-302.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新語)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국어학회, 295-325.
- 박혜진(2019가), 표현 중심 단어 형성 교육 연구를 위한 시론, 《문법 교육》 35, 한국문법교육학회, 163 - 195.
- 박혜진(2019나), 표현론적 관점의 단어 형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원용(2005),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태학사.
- 송철의(1985), 파생어형성에 있어서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3-211.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송현주(2022), 의미적 신어와 신어의 의미 관계, 《한국어 의미학》 76, 한국어의미학회, 103-131.
- 시정곤(2006),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215-243.
- 시정곤(2008), 국어 형태론에서 단어형성 전용요소의 설정에 대한 타당성 연구, 《한국어학》 38, 한국어학회, 83-107.
- 오규환(2016),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우(2011), '명사+명사'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 연구, 《한국어 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235-258.
- 이석주(1995), 복합어 구성성분의 의미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47-269.
- 이선영(2016가), 신어에서의 약칭어와 혼성어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69-291.
- 이성범(1999), 《언어와 의미》, 태학사.

- 이은섭(2019), 의미의 대립 관계와 단어 형성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66, 한국어의미학회, 263-288.
- 이재인(1991), 국어 복합명사 구성의 이해,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612-628.
- 이재인(1996), 국어 합성명사 형성에서의 의미론적 제약 현상, 《배달말》 21, 배달말학회, 75-93.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7), 새 낱말 창조의 인지적 연구, 《국어교육연구》 29, 국어교육연구회, 1 - 33.
- 임지룡(2004), 동의성의 인지적 해석, 《국어교육연구》 36, 국어교육학회, 223 - 246.
- 임지룡(2018),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 정동환(1991), 국어 합성어의 의미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예은(2022가), 한국어 신어의 문화 맥락 의미 형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예은(2022나), 어휘의미를 형성하는 ‘맥락’의 범위, 《형태론》 24-2, 형태론, 347-369.
- 정한데로(2009), 국어 복합어의 등재와 어휘화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한데로(2010), 문법 차원의 등재에 대한 연구, 《형태론》 12-1, 형태론, 1-22.
- 정한데로(2011), 임시어의 형성과 등재: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211 - 241.
- 정한데로(2012), 어휘 변화의 세 방향: ‘보-’를 중심으로, 《형태론》 14-1, 형태론, 25-52.
- 정한데로(2013), 명명 과제(naming task)를 기반으로 한 임시어의 형태론: 도구 명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68, 국어학회, 367 - 404.
- 정한데로(2014), 단어 형성과 의미 합성성: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263-289.
- 정한데로(2015가), 단어 형성 과정의 개념화와 언어화: 19세기 말~20세기 초 자료의 의의, 《언어와 정보 사회》 2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 - 158.
- 정한데로(2015나), 단어의 공인화에 관한 고찰, 《국어학》 74, 국어학회, 233-266.
- 정한데로(2015다), 《한국어 등재소의 형성과 변화》, 태학사.
- 정한데로(2019가), 표현론적 접근과 단어형성론, 《어문연구》 47 - 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7 - 144.
- 정한데로(2019나), 《발견을 위한 한국어 단어형성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 정한데로(2021), 합성명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국어학》 99, 국어학회, 421 - 466.
- 정한데로(2022가), 신어 형성에 관한 몇 문제, 《한국어 의미학》 76, 한국어의미학회, 27-63.
- 정한데로(2022나), 동의 관계 어휘의 단어 형성: 표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어학》 103, 국어학회, 345-390.
- 정한데로(2022다), 북한의 『단어만들기연구』(1974) 다시 읽기: 표현론적 접근의 단어형성론, 《어문학》 158, 한국어문학회, 157-192.
- 채현식(2003),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 채현식(2012), 계열관계에 기반한 단어 분석과 단어 형성, 《형태론》 14-2, 형태론, 208-232.
- 최경봉(1998),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태학사.
- 최경봉(2015), 《어휘의미론》, 한국문화사.
- 최상진(1995), 합성어의 의미적 공기관계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2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0-71.

- 최상진(1997), 합성어 의미형성의 유기체적 관계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1, 한국어의미학회, 155-170.
- 최형용(2008), 국어 동의파생어 연구, 《국어학》 52, 국어학회, 27-53.
- 최형용(2014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형태론: 어휘장 형태론을 제안하며, 《형태론》 16-1, 형태론, 1-23.
- 최형용(2014나), 복합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국어학》 70, 국어학회, 85-115.
- 최형용(2016), 반의 관계 형태론, 《형태론》 18-1, 형태론, 52-75.
- 최형용(2018), 《한국어 의미 관계 형태론》, 역락.
- 최형용(2019), 의미 관계와 신어 형성, 《한국어 의미학》 66, 한국어의미학회, 35 - 74.
- 황화상(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월인.
- Boussidan, A.(2013), Dynamics of semantic change: detecting, analyzing and modeling semantic change in corpus in short diachron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e Lumiere - Lyon 2.
- Cruse, D. A.(2000), *Meaning in Language*,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owning, P.(1977), On the creation and use of English compound nouns, *Language* 53 - 4, 810 - 842.
- Guilbert, L.(1975), La créativité lexicale, *Langue et language*, Paris: Larousse.
- Ogden, C. K. & I. A. Richards(1923), *The Meaning of Meaning: A study of the Influence of Language upon Thought and of the Science of Symbolism*,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Renouf, A.(2013), A finer definition of neology in English: The life-cycle of a word, in Hilde Hasselgard, Jarle Ebeling, & Signe Oksefjell Ebeling(eds.), *Corpus perspectives on patterns of lexi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77-207.
- Štekauer, P.(1998), *An Onomasiological Theory of English Word - Form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Štekauer, P.(2001), Fundamental principles of an onomasiological theory of English word - formation, *Onomasiology Online* 2, 1 - 42.
- Štekauer, P.(2005), *Meaning Predictability in Word Form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Tournier, J.(1985), *Introduction descriptive à la lexicogénétique de l'anglais contemporain*, Champion Books.
- Williams, E.(1981), On the Notions “Lexically Related” and “Head of a Word”, *Linguistic Inquiry* 12-2, 245-274.

▣ 토 론

“형태론 연구와 의미론의 성과”에 대한 토론문

오규환(동덕여대)

정한대로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몇 개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이 발표문에서는 형태론의 하위 분야 중 주로 ‘단어 형성론’과 관련하여 ‘개념, 의미 합성성, 의미 관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휘부학, 품사론, 형태소의 식별과 분석 등과 관련하여서도 ‘개념, 의미합성성, 의미 관계’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정된 지면에서 논의를 펼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을 발표자 선생님의 마음은 십분 이해됩니다만, 추후에 발표문을 논문으로 수정하실 때 ‘어휘부학, 품사론, 형태소 식별 및 분석’ 등의 문제와 의미론의 성과가 얼마나 연관되는지를 간략하게 언급해 주신다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2. ‘개념’은 언어 특정적이라기보다는 언어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특정 개념이 기호로 부호화될 때에는 다양한 방책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개념이 기호로 부호화될 때 다양한 방책이 동원되는 양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더욱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합성, 파생 등과 같은 결합 과정을 주로 다루었는데, 자음이나 모음이 대치되는 현상으로 강화(intension)라는 개념을 표현한다든지[빨강-:빨강-, 콧(찌르다):콧(찌르다)], 완전 중첩(full reduplication)으로 강화나 약화를 표현한다든지(쿵:쿵쿵, 쓰-:쓰쓰하-) 하는 과정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Štekauer *et al.*(2015), *Word-Formation in the World's Languages*가 좋은 참고가 될 듯합니다. 특히 이 논의의 6장인 ‘표현론적 기술(An onomasiological description)’이 발표자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3. (17)에 제시된 ‘-꾼’ 관련 기술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발표자의 기술이 매우 적절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접사화’와 부가 의미(+a)의 관련성은 다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알려져 있드시피 접사화를 비롯한, 문법화나 어휘화에서의 의미 변화를 서술할 때에는 의미 변화 양상을 선조적으로 서술할 것인지(A > B > C > D) 동시다발적으로 서술할 것인지를(A > B/C/D) 역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접미사 ‘-꾼’은 ‘-스軍’에서 비롯하였으므로 이는 명사 ‘軍’의 의미가 ‘-꾼’에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17다)에서 (17가, 나, 라, 마)가 발달한 것인지, 아니면 (17다)와 무관하게 (17가, 나, 라, 마)가 발달한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하여 준다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 ‘총알택시(빠른 택시), 총알오징어(작은 오징

어)’에서 ‘총알’이 다의성을 띠는 것은 단어 형성 과정에서 ‘총알’이 가지는 여러 속성 중 현저한 속성이 무엇인가와 관련되므로 이는 ‘총알’의 의미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꾼’의 다의성과 관련하여서도 이와 같은 서술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4. (29)에는 ‘단어를 내적 구조에 따라 분류한 결과(단일어, 합성어)’와 ‘단어를 다의 유무에 따라 분류한 결과(단의어, 다의어)’, ‘단어를 동형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결과(동형어, 이형어)’가 섞여 있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분류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분류라고 생각되지만 이들을 교차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찬밥’은 직접 구성 성분에 접사가 없으므로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찬밥’은 ‘식은 밥’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하찮은 것’을 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의어입니다. ‘식은 밥’을 뜻하는 단어가 먼저 형성되어 ‘형태의미적 신어’의 자격을 가지고 ‘하찮은 것’을 뜻하는 ‘찬밥’이 나중에 나타나 ‘의미적 신어’라면 결국 ‘찬밥’은 형태의미적 신어인 ‘찬밥’과 의미적 신어인 ‘찬밥’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의 구분을 경험적으로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제 愚問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사론 연구에서 의미론의 역할

김민국(경상국립대)

< 차례 >

1. 서론
 2. 통사론 연구의 목표
 3. 통사 현상의 합리적 설명
 4. 더 합리적인 설명을 위한 고민들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통사론은 의미¹⁾와 분리되어 연구될 수 없다. 의미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통사 구조의 문제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순수하게 문장의 의미만을 연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의미의 결합 및 확장은 통사 단위의 결합 및 확장을 통해 실현되고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이 형식과 의미가 결부된 문법 단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사론과 의미론이 분리되기 어렵다는 주장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적어도 문장 문법의 영역에서는 통사론과 의미론을 철저히 구분하여 이것은 통사론이고 저것은 의미론이라고 딱 잘라 규정하기 쉽지 않다.²⁾

그러나 이러한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현대 통사 이론과 의미 이론의 발전 과정은 ‘갈등’과 ‘분리’의 형태로 먼저 나타났다. 경험주의 철학,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을 둔 기술 언어학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측면과 관련한 언어의 의미가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기술언어학의 한계로 인해 이성주의 철학,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을 둔 변형생성문법이 대두되었는데, 그 결말이 어찌되었든 언어의 형식적 특성을 인간의 정신과 관련 시킴으로써 의미가 비로소 언어 연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문장 연구의 한 켠에 의미의 자리를 내 줌으로써 이후 통사론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시작되었고 의미론의 입장에서는 ‘분리’의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주류 생성문법이론³⁾이 처음부터 통사 이론에서 의미를 배척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율 통사

1) 본고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매우 넓게 보고 있다. 따라서 명제 의미와 관련된 진리조건적 의미, 인간의 인지나 세상사적 지식과 관련된 개념적 의미, 언어의 실제 사용과 관련된 화용적 의미가 모두 의미의 범위에 들어온다.

2) 한국어학의 연구 전통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듯하다. 그간의 문장 의미에 대한 연구는 구조의미론, 형식의미론, 인지의미론 등과 같이 독자적인 의미 이론을 형성하기보다는 통사론 연구의 한 갈래로서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요소의 의미를 기술하고 이와 관련한 통사 현상이나 의미 현상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전영철 2016: 7-8 참고).

론을 추구한 촘스키조차 초창기에는 의미와 통사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였다(Newmeyer 1986/나병모 옮김 1992: 128). 이러한 미온적 입장으로 인해 생성문법이론에서의 의미 이론은 이른바 ‘생성의미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미는 통사를 설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포섭해야 할 대상이었고 의미를 통해 통사를 설명하려는 시도도 꽤 성공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의미와 통사의 구분이 모호해져 버리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 언어 외적 현상과 언어 내적 현상의 구분도 모호해져 버렸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⁴⁾ 생성문법이론에서의 의미 이론은 통사 구조의 형성과 무관한 ‘해석의미론’의 바뀌게 된다.

‘생성의미론’이 몰락한 표면적 원인은 ‘의미 보존 가설’에 대한 반례였지만,⁵⁾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문장 의미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형식주의 통사 이론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이는 ‘생성의미론’ 시기에 제시된 의미 이론들 중 비교적 쉽게 형식화될 수 있는 것들은 이후의 통사 이론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⁶⁾ 이러한 측면에서 ‘생성의미론’은 통사론 입장에서는 형식주의 내에서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의미론의 범위를 제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의미론 입장에서는 통사론에서 벗어나 독자적 노선을 걷게 된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⁷⁾

이처럼 현대 언어학의 패러다임을 지배했던 주류 생성문법이론의 관점에서는 통사 이론과 의미 이론의 발전 과정이 ‘갈등’과 ‘분리’로 요약된다.⁸⁾ 그러나 주류 생성문법이론 이후의 통사 이론의 관점에서는 통사 이론과 의미 이론의 발전 과정이 ‘수용’ 또는 ‘통합’으로 묘사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형식주의 통사 이론의 반대 진영에 서 있는 기능주의 통사 이론은 통사론과 의미론의 통합적 이해로부터 출발하였고 형식주의 통사 이론의 진영 내에서 분기된 대안 생성문법이론은 의미론 연구 성과의 수용에 따른 생성문법이론의 재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대 언어학에서 통사론이 의미론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는가를 아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분리’의 형태로든 ‘통합’의 형태로든 통사 이론의 발전은 의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의미론이 통사론의 발전에 기여했다면 통사론은

3) 본고에서 다루는 주류 생성문법이론의 범위는 ‘지배결속이론’까지임을 밝혀 둔다. 이는 필자의 한계인 동시에 국내 통사 이론의 일반적 수용 범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4) 이러한 문제는 자율 통사론을 가정하는 형식주의 통사 이론에서만 발생한다. 기능주의 통사 이론에서는 의미와 통사의 경계, 언어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의 경계는 모호하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연구의 대상이 된다.

5) 주류 생성문법이론의 변천에 ‘생성의미론’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Newmeyer(1986/나병모 옮김 1992: 5장) 참고.

6)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미역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역은 통사론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이기에 통사론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의미역은 기본적으로 술어의 논항 구조와 관련되는 의미적 개념이다. 다만, 의미적 현상은 통사적 현상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의미역이라서 통사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7) 현대 의미 이론의 대표적인 두 진영인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의 탄생은 생성의미론의 몰락과 그 시기를 거의 같이 한다. 두 의미 이론은 언어의 의미에 대한 완전히 상반된 입장(지시설 對 개념설, 객관주의 對 인지주의)를 취하지만 주류 생성문법이론에서 의미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형식의미론은 주류 생성문법이론과 같이 객관주의적 의미관을 취하지만 주류 생성문법에서의 의미 표상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고, 인지의미론은 주류 생성문법이론과는 다른 인지주의적 의미관을 취하면서 주류 생성문법에서 포기한 의미와 통사의 관련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8) 생성의미론의 성과가 이후의 해석의미론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류 생성문법이론의 발전도 의미론 연구 성과의 수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의 문제를 통사의 문제로 바꾸어 이해했다는 점에서 ‘분리’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의미론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반대로 통사론 연구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의미의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통사론 연구의 목표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의미론이 통사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몇몇 사례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의미론을 통해 통사 현상을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통사론 연구의 목표

의미론이 통사론 연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가장 먼저 통사론 연구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목표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사론 연구의 목적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문장의 구조 및 형성을 기술하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사론 연구의 목적을 (1)과 같이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Haspelmath & Sims 2010/오규환 외 2015 옮김 : 30-36 참고).⁹⁾ 이러한 연구 목적들은 각기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며 상호보완적(관점에 따라서는 ‘대립적’) 관계를 이룬다.

- (1) 가. 세련된 기술
 - 나. 인지적으로 실제적인 기술
 - 다. 체계 외적인 설명
 - 라. 기술을 위한 제한적 언어 모형

(1가, 나)는 문법 기술 방식과 관련하여 형식주의 통사론과 기능주의 통사론이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당연히 통사 기술은 (1가, 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규칙의 일반화를 위해 (1가)를 추구하게 되면 (1나)가 어려워지고, 반대로 (1나)를 추구하게 되면 (1가)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¹⁰⁾ 이는 통사 기술에서 의미를 얼마나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의미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의미는 인지와 직결된 것이므로 통사 기술에서 의미를 얼마나 고려하느냐에 따라 (1가, 나)가 갈리기 때문이다. 가령, 주류 생성문법이론은 통사에서 의미를 분리시킴으로써 (1가)를 얻는 대신 (1나)를 잃었고 기능주의 통사론은 통사와 의미를 통합시킴으로써 (1나)를 얻는 대신 (1가)를 잃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어휘 기능 문법(LFG), 역할·지시 문법(RRG) 등의 대안 생성문법이론은 주류 생성문법이론과는 다른 방식의 일반화를 통해 세련된 통사 기술을 꾀하는 동시에 통사 기술에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다 인지적으로 직관적인 통사 기술도 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기능주의 통사론 진영에서도 체계 기능 문법(SFG)이나 구문 문법은 언어 모형 설정과 일반화된 기술 방식을 통해 기능주의 통사론이 가진 약점으로 늘 지적되어 왔던 통사 기술의 엄밀성이나 체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통사에 관여하는 의미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

9) Haspelmath & Sims(2010)에서는 (1)을 형태론 연구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형태론뿐만 아니라 언어학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10) 이러한 양상은 단어형성론에서 ‘규칙론’과 ‘유추론’의 대립에서도 아주 잘 나타난다.

정하고 이를 어떻게 규칙화하고 모형화하여 세련미를 추구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사실, 기능주의 통사론과 형식주의 통사론이 가장 화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문법의 설명 방식과 관련한 (1다, 라)이다. 기능주의 통사론은 인지, 언어 사용 빈도, 화용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통시적 발달 과정 등과 같이 언어 체계 외적 사실을 통해 통사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반면, 형식주의 통사론은 언어 모형을 통해 통사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 때문이다. 주류 생성문법이론으로 대표되는 형식주의 통사론에서는 언어 능력을 인지 능력과 별개의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설정하는 언어 모형이 곧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선천적이고도 보편적인 언어 지식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인간에 내재된 언어 모형이 이러하기 때문에 언어 사실이 이러하다'라는 설명 방식이 설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¹⁾ 반면에 기능주의 통사론에서는 언어 능력이 인간의 다양한 인지 능력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내재한 특별한 언어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언어 외적 요인들로 언어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곧 통사론에서 의미가 차지하는 위상의 차이로 이어진다. 형식주의 통사론에서는 통사 규칙을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한 법칙처럼 이해하므로 통사 구조는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만 형성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형식주의 통사론에서는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된 의미는 통사 규칙에 의해 형성된 통사 구조의 해석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물론 대안 생성문법이론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의 문제를 고려하지만, 통사 구조의 형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것만을 체계 내에 편입시키고 이를 모형화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직접적인 설명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를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기능주의 통사론에서는 통사 구조가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통사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의미의 문제가 곧 통사의 문제가 되고 의미가 통사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도구가 된다.

선택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통사론 연구의 목표는 (1다)를 더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다)가 (1라)보다 더 나은 설명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1라)는 체계 내적 설명이기 때문에 해당 언어 모형에서만 설명력을 지닌다는 한계가 있다.¹²⁾ 반면, 체계 외적 설명은 세련미는 떨어지지만 인간에 대한 일반적 사실을 통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특정 언어 모형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보편적인 설명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의미론은 통사 현상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더 극단적으로는 의미를 통해 통사를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다, 라)도 선택의 문제보다 상호보완적 관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체계 외적 사실이 전혀 끼어들 틈이 없는 자율적인 통사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¹³⁾ 이처럼 통사론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1다, 라)의 설명을

11) 비유하자면, 기존에 관찰된 사실을 통해 이론적 모형을 세워, 이러한 모형에 따라 새롭게 관찰되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설명되지 않는 반례가 나타나면 기존 모형을 수정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높이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2) 형식주의 통사론 진영에서는 기능주의 통사론의 설명 방식이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이 또한 결국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언어 현상을 자연계의 물리 현상처럼 언어에 내재된 체계의 결과로 파악한다면 기능주의 통사론이 추구하는 설명 방식은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어도 결국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라는 관점을 취하면 형식주의 통사론의 설명 방식은 가설에 기댄 순환적 설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언어 연구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대 언어학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선천성 가설은 그 타당성을 보다 엄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두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면, 통사론에서 의미론의 역할을 일정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우선, 통사론은 의미와 관련된 통사 현상을 원리화하거나 모형화하여 이론적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의미론은 의미와 관련된 체계 외적 사실을 통해 통사적 원리나 모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가 통사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통사와 의미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들의 연결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리나 언어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포착해 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통사론은 이러한 이론적 설명력을 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설명은 통사와 의미의 연결이 왜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반쪽짜리 설명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의미론의 역할은 이론적 설명력의 한계를 이론 외적으로 보완하여 통사론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설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사 현상의 합리적 설명

3.1. 명제부의 통사 현상

Fillmore(1968: 24)에 따라 문장을 ‘문장 = 명제(proposition) + 양상(modality)’으로 구조화한다면 명제부에 해당하는 통사 기술의 핵심은 술어의 개념 구조에 따른 논항의 통사적 실현이 될 것이다. 가령, ‘먹다’라는 술어가 문장의 서술어로 선택됨으로써 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인 ‘철수’와 ‘밥’이 각각 주어와 목적어로 실현되어 ‘철수가 밥을 먹-’이라는 문장의 가장 기본적 뼈대가 완성되는 양상이다. 이는 의미와 통사가 긴밀히 연결되는 지점의 대표적 사례로서 통사 이론에 따라 이를 이론화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류 생성문법이론은 논항의 보충어 실현 양상을 논항 구조를 통사 구조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이론화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의미 범주(논항)와 통사 범주(보충어)가 거의 1:1로 대응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¹⁴⁾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예컨대, ‘먹다’가 요구하는 논항인 ‘철수’와 ‘밥’이 각각 왜 주어와 목적어로 실현되느냐는 것이다. 주류 생성문법 이론에서는 서술어의 논항이 내재 논항과 외재 논항으로 구분되고 이를 통해 서술어의 최대 투사가 결정된다고 보는 투사 원리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즉, 내재 논항은 서술어의 최대 투사 내부에 나타나고 외재 논항은 최대 투사 외부에 나타나 논항 구조가 통사 구조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내재 논항과 외재 논항의 구분 기준은 통사 구조이므로, 의미와 통사의 연결 지점이 순수하게 통사의 문제로 환원되어 이해되는 것이다.¹⁵⁾

13) 예컨대, 구 구조가 왜 핵 계층 구조를 이루는지, 구 구조 내에서 핵의 위치가 왜 일정하게 나타나는지는 체계 외적 사실을 통해 도무지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 논항과 보충어가 1:1 대응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서술어의 개념 구조상 논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현된 보충어가 통사적 완성에서 요구되는 필수성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다’와 ‘팔다’는 ‘A(행위주)가 B(수혜주)에게 C(대상)를 주다’와 ‘A(행위주)가 B(수혜주)에게 C(대상)를 D(가격)에 팔다’라는 개념 구조의 차이로 구분되지만, ‘팔다’의 개념 구조에 들어 있는 ‘가격’은 보충어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15) 이러한 양상은 주류 생성문법이론에서 피동문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난다. 피동문은 내재 논항이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논항 구조와 통사 구조가 불일치한다.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는 ‘피동사는 비대격 동사이므로 대격을 받을 수 없는 내재 논항이 격을 받기 위해 주어 자리로 이동한다’라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즉, 투사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의미와 통사의 연결 지점의 문제를

이러한 설명 방식은 아주 간결하고 세련되지만 직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론적 측면에서도 진정한 설명이라고 보기 힘들다. Jackendoff(1990/고석주·양정석 옮김 1999: 372)에서는 이러한 설명 방식에 대해 행위자(Actor)가 주어 위치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이론적 장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내재 논항과 외재 논항을 어휘 내항에 표시해 주는 그 어떤 이론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행위주와 같은 의미역은 왜 외재 논항이 되고 대상역과 같은 의미역은 왜 외재 논항이 될 수 없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통사 구조 이외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를 독립적으로 포착해 줄 수 있는 이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 생성문법이론은 문장의 형성에 관여하는 의미 층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Van Valin & Lapolla(1997)로 대표되는 역할·지시 문법(RRG), Bresnan(2001)로 대표되는 어휘 기능 문법(LFG), Culicover & Jackendoff(2005) 등의 대안 생성문법이론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문장의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문법 층위를 인정하고 이를 통사 층위와 연결시키기 위한 연결 규칙(linking rule) 또는 사상 규칙(mapping rule)을 설정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양한 연결 규칙들 중 ‘의미역 위계’는 의미가 통사에 관여하는 양상을 포착해 주는 이론적 장치로서 주류 생성문법에서 통사 구조의 문제로 환원하여 이해했던 내재 논항과 외재 논항의 구분 문제를 의미의 문제로 분리시켜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2) 가. 행위주(Agent) > 수혜주(Beneficiary) > 경험주/도착점(Experiencer/Goal) > 피행위주/대상역(Patient/Theme) > 처소역(Locative)

나. 행위자/행위주(Actor/Agent) > 피행위주(Patient) > 피행위자(Undergoer) > 수혜주(Beneficiary) > 피행위주가 아닌 대상역(non-Patient Theme)

(2)는 Bresnan(2001: 307), Culicover & Jackendoff(2005: 185)에서 제시한 의미역 위계이다.¹⁶⁾ 대안 생성문법이론들에서는 논항의 문법관계(또는 통사 구조상의 위치)가 (2)와 같은 의미역 위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예컨대,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 또는 명제에 행위주와 대상역이 있다면 (2)에 따라 위계가 높은 행위주가 주어와 되고 위계가 낮은 대상역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역 위계는 의미와 통사 간의 상관관계를 포착해 주는 장치로서 보다 진실보한 이론적 설명력을 더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와 통사 간의 연결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결 장치가 보다 합리적인 설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주와 대상역이 각각 주어와 목적어에 연결되는 이유를 이론 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2)와 같은 의미역 위계가 왜 성립하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2)와 같은 의미역 위계가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 체계 외적으로 보다 폭넓은 의미론적 고찰이 요구된다. 인지적 측면에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것을 출발점을 삼아 발화를 한다. 즉 발화의 출발점인 주어는 인지상의 출발점이기도 한 것이다. 이때 인지상의 출발점이 의미 층위의 요소인 행위주와 관련된다. 임

¹⁶⁾ ‘이동’이라는 통사적 장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16) 의미역 위계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 파악된다. (2)만 보더라도 ‘행위주’의 의미역 위계가 가장 높고 ‘피행위주’나 ‘대상역’이 이보다 위계가 낮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 이외에는 차이를 보인다. 송복승(1995), 박철우·김종명(2005)를 참고하면 한국어에서는 ‘행위주(Agent) > 경험주(Experiencer) > 대상역(Theme)’의 위계 관계는 대체로 합의를 보이는 듯하지만 대상역보다 위계가 낮은 ‘처소역(Location)’, ‘도착점(Goal)’, ‘출발점(Source)’, ‘도구역(Instrument)’들 사이의 위계 관계는 합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동훈(1996: 92-94)에 따르면 (3)의 1차 개체가 가장 출발점이 되기 쉽고 1차 개체 중에서도 사람, 동물, 사물의 순서로 출발점이 되기 쉽다. 달리 말하면, 사건, 과정, 사태, 명제와 같이 추상적인 것보다 사람, 동물, 사물과 같이 구체적인 것이 인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인식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구체물 중에서도 인간 개체를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3) 개체의 존재론적 지위(Lyons 1977: 443)

가. 1차 개체(first-order entity): 사람, 동물, 사물

나. 2차 개체(second-order entity): 사건(event), 과정(process), 사태(state of affairs)

다. 3차 개체(third-order entity): 명제

이러한 주장은 꽤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은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을 더 쉽게 인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정물보다 유정물을 더 쉽게 인지하고 유정물 중에서도 동물보다는 사람에게 더 쉽게 관점을 이입하여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지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의식을 가지는 개체이므로 ‘동물’이나 ‘사물’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주’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발화상의 출발점인 주어와 왜 ‘행위주’의 의미역과 가장 일반적으로 연결되는지 자연스럽게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바로 의미역 위계라는 이론적 설명력에 합리적 설명력을 더하는 것으로서, 의미론이 통사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3.2. 양상부의 통사 현상

이제는 문장의 양상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양상부에 해당하는 통사 단위들은 화시(사회 화시, 시간 화시), 양태, 화행 등의 의미 범주가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범주들이다.¹⁷⁾ 따라서 양상부와 관련된 다양한 통사 현상은 의미론과 분리시켜 논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상부를 이루는 통사 단위들의 의미론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 통사론에서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에서 보인 어미들의 결합 양상은 표면적으로 의미의 문제와 전혀 무관해 보이므로 통사 층위의 문제로만 환원하여 다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로 인해 주류 생성문법이론에서는 양상부의 통사 단위 결합 양상을 IP나 CP와 같은 기능 범주의 투사로 이론화하였다. 즉, (4)의 어미 결합 양상도 일반적인 구 구조 형성 원리로 설명한 것이다.

(4) 아버지께서 집에 가-1시-2있-3겠-4더-5라

이러한 설명 방식은 모든 통사 단위들의 확장을 일관된 원리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

17) 양상부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명제부가 문장의 명제 의미에 대응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진리조건적 의미에 관여하지 않는 요소만이 양상부에 포함되었지만(박철우 2022 참고), 여기서는 Fillmore(1968)의 방식대로 서술어와 그 논항이 이루는 문장의 기본적인 뼈대만을 명제부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양상부로 간주한다. 즉, 서술어의 어간을 포함하여 그 왼쪽 부분을 명제부, 나머지 오른쪽 부분을 양상부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적 구성의 경우에는 문법화의 정도가 낮아 서술어의 특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명제부와 양상부 중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편의상 어미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술적으로도 세련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매우 강력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령, 종결어미 ‘-라’는 왜 맨 마지막에 결합하는가와 같은 질문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언어의 구조가 원래 이렇다’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답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유컨대, ‘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을 넘어 ‘왜 만유인력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4)의 결합 양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력을 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앞서 3.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미 층위와 통사 층위를 연결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의 어미들은 화시, 양태, 화행 등의 의미 범주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들의 결합 양상은 의미 층위에도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은 문장의 명제 의미와 관련된 양태 부사가 절 단위와 결합하고 동사구의 사건 의미와 관련된 방식(manner) 부사가 구 단위와 결합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¹⁸⁾ 그렇다면, (4)의 어미들이 나타내는 의미 범주들 중 의미적 작용역이 더 넓은 것이 더 큰 통사 단위와 결합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5)와 같은 ‘작용역 위계’를 세워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4)의 통사 현상을 이론적으로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5) 화행 및 청자 높임 > 양태 > 시제 > 주체(지시체) 높임

그러나 3.1의 의미역 위계와 마찬가지로 (5)와 같은 연결 장치가 보다 합리적인 설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화행’이 ‘양태’나 ‘시제’와 비교해 왜 더 넓은 의미론적 작용역을 지니는가를 이론 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문장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 범주들의 계층 구조를 통해 합리적 설명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인(2016)에서는 문장이라는 외연은 맥락에 따라 ‘사건’, ‘명제’, ‘사실’, ‘화행’의 내포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내포 의미는 (6)과 같은 계층 구조를 지닌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 구조는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 범주의 성립 순서로 설명한다.

(6) 화행(speech act) > 사실(fact) > 명제(proposition) > 사건(event)

‘사건’은 (3나)의 2차 개체로서 화자의 존재와 무관하게 시간이라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화자에게 인식되면 비로소 ‘명제’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3다)의 3차 개체가 되어 더 이상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에 대해 화자가 참이라고 판단하면 ‘사실’이 된다. 한편, 문장은 명제를 넘어 그 자체가 메타적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화행’이다.¹⁹⁾ 그리고 김태인(2022)에서는 이러한 문장 의미의 성립 순서를 인간의 인지 체계와 관련지어 설명하는데, ‘사건’은 일화 기억과 관련되고 이러한 일화 기억들이 일반화되거나 추상화되어 의미 기억이 되면 명제와 관련된다. 그리고 의미 기억이 된 명제는 비로소 ‘참/거짓’의 판단이나 화행 등의 언어적 연산의 대상이 된다.

다소 소략하지만 (6)의 계층 구조 설정에 대한 이론 외적 설명이 만족할 만하다면, 이제 (6)

18) 이와 관련하여 김태인(2016)이 좋은 참고가 된다. 김태인(2016)에서는 문장의 의미는 ‘사건 < 명제 < 사실 < 화행’의 순서로 그 작용역이 확장되는데, 부사는 이들 중 어떠한 의미 범주를 논항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결합하는 통사 단위도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19) 예컨대, ‘철수가 도망갔다.’라는 문장은 무표적으로 진술 화행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때 문장은 “나는 ‘철수가 도망갔다’를 참이라고 말한다”와 같은 (암시적) 수행 발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의 계층 구조가 (5)의 작용역 위계와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먼저, 주체 높임은 사건의 참여자인 주어와 관련된 것이고 시제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사건' 범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어는 사건을 구성하는 일부라면 시제는 사건 전체와 관련되므로 이들의 의미적 작용역 차이는 자연스레 설명된다. 다음으로 양태는 명제에 대한 인식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명제' 범주와 관련된다. 화행은 (6)의 계층 구조와 직접 대응되므로 따로 설명할 것이 없지만 청자 높임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 청자 높임은 화행과 마찬가지로 화청자의 상호주관성을 지닌 요소로서 의미 범주의 실현에 청자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화자 → 문장 → 청자'라는 의사소통 과정을 고려하면 청자 높임의 의미 범주는 화행과 마찬가지로 가장 나중에 성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화행과 더불어 가장 넓은 작용역을 지닌다.

(4)의 결합 양상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Bybee(1985)에 따르면 동사의 굴절 범주들은 동사와 의미적 상관성이 더 높을수록 동사 어간에 더 가까이 나타난다. 이는 인지적 근접성(proximity)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지적으로 근접한 것은 물리적으로도 근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을 발화 생산물로 이해한다면, 발화 생산물의 내부적 의미에 가까운 것은 문장 내부에 나타나고 외부적 의미에 가까운 것은 문장 외부에 나타날 것이다. 이를 한국어 어미의 결합 양상에 적용해 보면, 주체 높임은 발화 내부 요소인 주어와 관련되므로 가장 안쪽에 결합할 것이고 시제, 양태는 발화 외부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보다는 바깥쪽에 결합할 것이다. 시제와 양태를 비교해 보면, 시제는 화자의 발화 상황과 관련되지만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태보다는 발화 내부 요소에 더 가깝다. 그리고 청자는 발화 수용자로서 발화 생산자인 화자보다 더 외부적인 요소가 되므로 청자와 관련된 화행이나 청자 높임은 양태보다 더 바깥쪽에 나타날 것이다.

(7) 발화 내부 <----- 발화 외부(화자) -----> 발화 외부(청자)
 -시- -었- -겠- -더- -라

이러한 설명 방식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론적 세련미는 떨어지지만 관형사의 결합 순서나 부사의 결합 순서에도 적용될 수 있어 설명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8)은 한국어 문법론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관형사 및 부사의 어순인데, 이러한 어순은 각각의 관형사나 부사가 포괄할 수 있는 의미의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설명해야 할 부분은 가령, '지시관형사는 왜 성상관형사에 비해 의미의 범위가 더 넓은가'와 같은 질문의 답이 될 것이다.

(8) 가. 지시관형사 - 수관형사 - 성상관형사 + 체언
 나. 양태부사 - 지시부사 - 성상부사 - 부정부사 + 용언

먼저 관형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자. 성상관형사는 체언이 지시하는 개체의 내적 속성을 나타내므로 체언에 가장 가까이 결합한다. 수관형사가 나타내는 수는 체언이 나타내는 개체의 내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이 모인 집합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속성보다는 발화 외부적 요소가 된다. 그리고 지시관형사가 나타내는 개체의 공간적 위치는 화자 및 청자가 존재하는 공간적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수보다는 발화 외부적 요소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닌다. 따라서 수관형사는 성상관형사 앞에 오게 되고 지시관형사는 체언과 가장 먼 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관형사를 넘어 관형어 전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빨간 모자를 쓴 얼굴이 고운 아이’가 ‘얼굴이 고운 빨간 모자를 쓴 아이’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를 ‘얼굴이 고운’이 ‘빨간 모자를 쓴’보다 개체의 내적 속성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부사의 결합 양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명되는데, 더 추가되어야 할 설명은 양태부사와 부정부사의 순서이다. 양태부사와 지시부사의 어순은 양태와 시제의 어순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지시부사의 의미는 발화 외부 상황과 관련되지만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어려우므로 양태부사의 의미와 비교했을 때 발화 내부 요소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부정부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명제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즉 참-거짓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부사들이 나타내는 의미 중에서 발화 내부 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지닌다. 따라서 부정부사는 용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나타나는데, 굴절하지 않는 첨사형 부정소가 정동사(finite verb)와 되도록 가까이 결합하는 경향이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더 합리적인 설명을 위한 고민들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3장의 논의를 통해 의미론이 통사론의 이론적 설명력의 한계를 이론외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 설명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2장에서 언급했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의미론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언어의 형식과 의미의 상관성을 인정하는 기능주의적 시각을 취하더라도 의미적 요소가 통사에 편입되어 고도로 문법화되면 형식과 의미의 상관성은 매우 멀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론이 통사론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의미를 통해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한국어의 주격 조사 실현 양상은 통사 구조 혹은 문법 관계와 같은 통사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주격 조사를 주어의 원형적인 의미역과 관련시켜 원형 행위주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로 설명한다거나 화용적 의미와 관련시켜 주제나 초점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격 조사가 주어에 나타나는 양상은 통사 층위의 문제이므로 이를 의미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통사 현상에 대한 의미론적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면 주어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역이 왜 행위주인가, 주어의 격 표시 실현 양상에 왜 주제나 초점과 같은 화용적 의미가 관여하는가와 같이 설명의 영역을 일정하게 분리하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다.

통사에서 의미를 일정하게 분리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는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의 긴밀한 관련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미적 설명이 지닌 매력 자체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9가)의 밑줄 친 부사어의 수식 범위는 ‘읽고’에 미치고 (9나)의 밑줄 친 부사어의 수식 범위는 ‘읽고 싶다’에 미친다. 이러한 의미 구조를 통사 구조에 그대로 대응시키면 (9가)는 ‘싶다’가 절과 결합하는 복문 구조가 되고 (9나)는 ‘싶다’가 ‘읽다’와 결합하는 단문 구조가 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보조 용언이 경우에 따라 단문 구조를 이루기도 하고 복문 구조를 이루기도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결론은 한국어 보조 용언 구성을 둘러싼 논란(즉, 단문 구성이나 복문 구성이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매력적인 설명을 제공해 준다.²⁰⁾

(9) 가. 나는 [책을 빨리 읽고] 싶다.

나. 나는 책을 문적 [읽고 싶다].

그러나 통사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보조 용언 구성이 단문 구성이 될 수도, 복문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10가, 나)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정 극어는 부정소와 동일한 절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사실과 (10다)를 고려하면 (9가)는 단문 구성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의미 구조를 이용한 통사 구조의 설명은 매우 매력적임에 틀림없다. 가령, 한국어에 단형 부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형 부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면 장형 부정문을 어떻게든 복문 구성으로 보고 싶을 것이다. 단형 부정은 부정소의 의미적 작용역과 통사 구조가 불일치하여 부정소의 의미적 작용역을 통사 구조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장형 부정이 발달했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 극어의 통사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장형 부정문은 통사적으로 단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이러한 설명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합리적 설명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처럼 의미적 설명은 통사 현상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제공해 준다는 매력 이면에 잘못된 설명을 이끌 위험성도 숨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 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가. 철수는 [영희가 아무것도 안 먹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나. *철수는 [영희가 아무것도 먹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 나는 책을 전혀 빨리 읽고 싶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민할 문제는 의미론을 통한 이론 외적 설명 또는 체계 외적 설명의 타당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이다. 3장에서 제시한 통사 현상에 대한 의미론적 설명의 사례는 대개 인지 의미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에 대해 다소 냉정하게 평가해서 인간의 인지가 실제로 그러한지 누가 어떻게 알 것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더 냉정하게 평가하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통사 현상을 바탕으로 그럴 듯하게 인지 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통사 현상의 설명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심리 술어 구문에서 경험주 주어 가 여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경험주가 심리적 영향이 미치는 정신적 처소로 이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여격이 도착점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을 통해 순환적으로 설명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통사 현상의 설명에 이용되는 의미론적 사실이 인간의 보편적 인지 기제나 의사소통 기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²¹⁾

통사 현상에 대한 인지 의미론적 설명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인간의 보편적 인지 기제로 알려진 은유나 환유의 설명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른바 ‘유형 강제 (type coercion)’나 구문 문법적 의미에서의 구문처럼 어떤 통사적 요소가 본래의 통사적 제

20) 더욱이 이러한 결론은 합리적 설명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더라도 화자의 인식에 따라 통사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매력적이다.

21) 가령, ‘경험주가 심리적 영향이 미치는 정신적 처소로 이해된다’라는 의미적 설명이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경험은 물리적 이동이다’라는 은유가 인간의 보편적 인지 방식이라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어유형론적 연구 성과는 의미론적 설명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여격 주어 현상 외에도 정신적 경험이 물리적 이동 구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범언어적 현상이라면 ‘정신적 경험은 물리적 이동이다’라는 은유가 인간의 보편적 인지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을 여기지만 적격으로 수용되는 현상은 모두 환유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장성분의 담화화용적 생략 현상마저도 환유로 설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사실, 환유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문장의 형식적 특성은 모두 환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장은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두 다 형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사 현상의 설명에 의미 이론을 보다 엄밀하게 적용하여 설명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미 이론을 엄밀하게 적용하다 보면 그 엄밀성만큼 설명이 복잡해져 직관적 설명력을 잃을 위험이 생긴다. 따라서 통사 현상에 의미 이론을 얼마나 엄밀하게 적용하여 설명할 것인가도 통사 현상의 합리적 설명을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민들은 통사 의미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문법 범주를 이루는 통사 단위, 즉 조사나 어미, 우연적 구성 등은 성공적인 의미 기술만으로도 문법 범주와 관련한 통사 현상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문법 요소의 의미는 매우 추상적이라서 기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된 의미가 얼마나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²²⁾ 또한 문법 요소의 추상적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이 어느 층위에 속하는 것인지, 화용적 의미가 얼마나 문법 요소에 관습화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사 현상의 합리적 설명을 위해서는 문법 범주를 이루는 통사 단위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어 통사 현상에서 조사나 어미, 우연적 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문법 요소의 의미 기술이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문법 요소의 의미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지금까지 통사론 연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지금까지의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즉, 우리가 통사론을 더 잘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통사론 연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의감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인공 지능이 만들어 내는 언어가 점점 더 인간의 언어를 닮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에 통사론자들이 밝혀 낸 문장 형성 원리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둘째,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공 지능이 방대한 언어 자료를 학습해 스스로 문장 형성 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인공 지능이 찾은 문장 형성 원리가 인간이 찾은 문장 형성 원리보다 더 정확하다면 굳이 우리가 통사론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물론 인공 지능이 인간 언어의 모든 측면을 완벽히 모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적어도 문장의 형식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인간의 언어를 완벽히 모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통사론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자율 통사론의 영역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의미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를 완벽히 모사하기 전까지

22) 이로 인해 한국어 통사론 논의에서 문법 요소에 대한 연구는 '의미 기술 → 의미 기술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 새로운 의미 기술' 과정의 순환적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의미의 문제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론을 통해 통사 현상을 언어 외적으로 설명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통사론은 그 지점에서 여전히 인간에 의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미론은 우리가 통사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주 급진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언어학이 인문학의 하위 분야라면 의미를 통한 통사 현상의 설명이 반드시 엄밀한 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소 과학적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상상력이 가미된 허구적인 설명이라도 이것이 인간이 언어라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 준다면 인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의 많은 영역이 생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듯이, 언어학의 많은 영역 또한 생물학이나 신경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 지능 때문이 아니라도 과학의 발전에 따라 결국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추구하는 현재의 언어학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이다. 따라서 결국 언어학은 인문학으로서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의미론은 언어학이 지닌 인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 참고문헌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6), 『한국어 문법 총론 II』, 집문당.
- 김민국(2016),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인환(2022), 「한국어의 비전형적 주어 구문에 대한 인지문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인(2016), 「문장의 의미 범주와 부사어 분류」, 『한국어 의미학』 51, 57-83.
- 김태인(2019),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대한 연구-사건, 명제, 사실, 화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인(2022), 「인간의 인지 체계를 기반으로 한 문장 이해」, 『한국어 의미학』 75, 121-145.
- 박재연(2007),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과 통사론·의미론·화용론」, 『한국어학』 37, 181-206.
- 박재연(2014), 「한국어 환유 표현의 체계적 분류 방법」, 『한국어 의미학』 45, 1-30.
- 박재연(2021), 「한국어 명사의 속성적 용법과 활성화 성분 현상」, 『국어학』 99, 137-173.
- 박재연(2022), 「한국어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을 위한 의미의 종류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77, 103-130.
- 박진호(2016), 「환유 개념의 통사적 적용」,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381-396.
- 박진호(2022), 「의미유형론은 한국어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국어학』 101, 439-466.
- 박철우(2013), 「부정문의 중의성 문제 재고-작용역과 정보구조의 상호작용-」, 『국어학』 68, 135-165.
- 박철우(2022), 「문장 의미의 분석 방법과 언어 교육적 함의」, 『한국어 의미학』 78, 173-200.
- 박철우·김종명(2005), 「한국어 용언 사전 기술을 위한 의미역 설정의 기본 문제들」, 『어학연구』 41-3, 543-567.
- 송복승(1995), 『국어의 논항구조 연구』, 보고서.
-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윤평현(2020), 『새로 펴낸 국어의미론』, 역락.
- 이수미·김민국(2009), 「새로운 유형의 관형사 설정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 24, 165-194.
- 임동훈(1996), 「현대 국어 경어법 어미 ‘-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2020), 「장형 부정문의 생성과 ‘못’ 부정문의 분화」, 『국어학』 93, 19-56.
- 임지룡(2008), 「한국어 의미 연구의 방향」, 『한글』 282, 195-234.
- 임지룡(2018)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 임지룡(2018), 「‘의미’ 연구의 흐름과 전망」, 『한국어 의미학』 59, 1-30.
- 전영철(2016), 「한국어 의미 연구와 의미 이론」, 『한글』 312, 5-25.
- 정연주(2015), 「형용사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형용사절」, 『한국어 의미학』 50, 189-209.
- 허철구(2016), 「보조용언 구문의 화자 선택적 이중 구조」, 『배달말』 59, 43-78.
- Bresnan, J.(2001), *Lexical Functional Syntax*, Blackwell.
- Bybee, J.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 Bybee, J. L., R. D. Perkins & W.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ft, W. & D. A. Cruse(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ft, W.(2003), *Typology and Universals*(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licover, P. W. & R. Jackendoff(2005), *Simpler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 Dik, S. C.(1978), *Functional Grammar*, North-Holland.
- Fillmore, C. J.(1968), The Case for Case. In Bach, E. & R. T. Harms(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1-88.
- Foley, W. A. & R. D. Van Vallin(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vón, T.(1992),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1, John Benjamins.[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2002), 『기능 영문법 1』, 도서출판 박이정.]
- Goldberg, A. E.(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egeman, L.(1994),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2nd edition), Blackwell.
- Halliday, M. A. K.(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3rd edition), Hodder Arnold.
- Haspelmath, M & A. Sims(2010), *Understanding Morphology*(2nd edition), Hodder Education.[오규환·김민국·정한데로·송재영 옮김(2015), 『형태론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 Jackendoff, R.(1990), *Semantic Structures*, MIT Press.[고석주·양정석 옮김(1999), 『의미 구조론』, 한신문화사.]
- Landau, I.(2002), *The Locative Syntax of Experiencers*, MIT Press.
- Langacker, R.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Löbner, S.(2002), *Understanding Semantics*, Routledge.
- Lyons, J.(1977), *Semantics* 1,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meyer, F. J.(1986), *Linguistic Theory in America*(2nd edition), Academic Press. [나병모 옮김(1992), 『현대언어학의 흐름』, 글.]
- Ouhalla, J.(1999), *Introducing Transformational Grammar: From Principles and Parameters to Minimalism*, Oxford University Press.[김용석·문귀선 옮김(2003), 『변형 문법의 이해: 원리와 매개 변인에서부터 최소주의까지』, 한신문화사.]
- Radford, A.(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eed, J. I.(2003), *Semantics*(2nd edition), Blackwell.
- Van Vallin R. D. & R. J. LaPolla(1997),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토 론

“통사론 연구에서 의미론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정연주(홍익대)

이 발표에서는 통사론 연구에서 의미론이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로 의미와 관련된 체계 외적 사실을 통해 통사적 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들고, 의미역에서 문법 관계로의 대응 양상과 선어말어미 결합 순서를 예로 들어 의미론이 통사론의 이론적 설명력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통사론의 모든 현상을 의미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 의미론을 통한 체계 외적 설명의 타당성을 최대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통사 단위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하였습니다. 사소하나마 글을 읽으며 떠오른 질문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1. 선어말어미 결합 순서에 대한 설명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는 사건의 참여자인 주어와 관련된 것, 발화 내부 요소인 주어와 관련된 것이므로 어간에 가장 가까이 결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으시-’는 주어와 화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발화 외부에 존재하는 화자와 관련이 있고, 이를 고려하면 현재 기술과 좀 다르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한 (6)에 기반한 설명에서는 ‘사건’은 화자의 존재와 무관하게 시간이라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주체 높임과 시제는 사건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7)에 기반한 설명에서는 시제는 화자의 발화 상황과 관련된다고 하여 기술이 좀 충돌하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여쭙고자 합니다.

2. 체계 외적 사실이 전혀 끼어들 틈이 없는 자율적인 통사 영역의 존재에 대해 말씀하시며 구 구조가 왜 핵 계층 구조를 이루는지, 구 구조 내에서 핵의 위치가 왜 일정하게 나타나는지는 체계 외적 사실을 통해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 핵 계층 구조의 문제가 성분 구조와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면, 성분 구조의 의미적 기반에 대해 Bybee(2002)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성분 구조는 빈번하게 함께 사용되는 요소가 한 덩어리로 묶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창발하는 것이고, 어떤 요소들 사이에 의미적인 긴밀성이 있을 때에는 그 요소들이 자주 함께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의미적 긴밀성을 갖는 요소들의 연쇄가 하나의 성분으로 묶일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가령 영어에서 ‘지시사-명사’, ‘한정사-명사’, ‘상 표지-동사’ 등). 이를 고려하면 핵 계층 구조의 문제는 체계 외적 사실로 설명이 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영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문법 요소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대략 2000년대 이전에는 고전 범주 이론에 기반하여 한 문법 요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미 양상 중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의미 성분 하나를 추출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고, 2000년대 이후로는 인지적 범주 이론에 기반하여 공통된 하나의 핵심 의미 성분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문법 요소의 다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구분된 의미의 개별적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쪽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휘의 다의를 구분할 때 적용되는 기준인 중의성(맥락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상정할 수 있는지), 의미 관계(유의 관계나 반의 관계)를 고려하고 의미 지도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에서 나타나는 의미 양상을 참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법 요소의 의미를 구분하고 기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문법 요소 의미 기술 방법론이나 기술 결과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국어사 연구에서 의미론의 위상

김현주(공주교대)

< 차 례 >

1.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론
2. 연구 자료에 대한 메타 분석
3. 요약 및 제언
 - 국어사, 국어사 연구, 의미론, 의미 연구, 연구사

1.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론

1.1. 연구 문제

본고는 국어 연구의 하위 분야인 국어사 연구에서¹⁾ 의미 연구, 즉 의미론의 위상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어사를 연구 영역으로 명시적으로 표방한 그간의 논저들이나, 현대국어 문제를 다루며 부수적으로 국어사를 검토한 논저들의 의미 연구 특징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토대로 한다.

또 이러한 토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 연구라는 것이 어떤 연구를 일컫는지에 대해서도 그 테두리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의미 연구의 테두리를 확정하고서 국어사 연구에서 의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여 일종의 연구의 지도를 얻어 내는 작업이 곧 국어사 연구에서 의미 연구의 위상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어사의 축자적 의미는 ‘국어의 역사’이지만 국어학계에서는 ‘국어사 연구’를 가리키는 용법으로도 용인되어 쓰이고 있다: 예) “전공이 뭐예요?” / “네, 국어사입니다.”

1.2 연구 방법론

1.2.1 연구의 지형 구성

의미 연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전통적으로 의미론이라는 분야가 본격화하기 전 언어학 내지 국어학은 ‘음운론, 문법론, 어휘론’의 하위 분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 중에서 어휘론이 현대적 의미의 의미론 연구를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 언어가 상징 기호를 선조적으로 나열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표에 대한 기의의 측면과 언어 기호 간의 통합 관계에 내포된 의미의 측면에서 언어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다(Mel'cuk 2006: 18).

최호철(1998)은 이러한 언어 기호의 특징이 대체로 충실히 반영하여 의미론 하위 분야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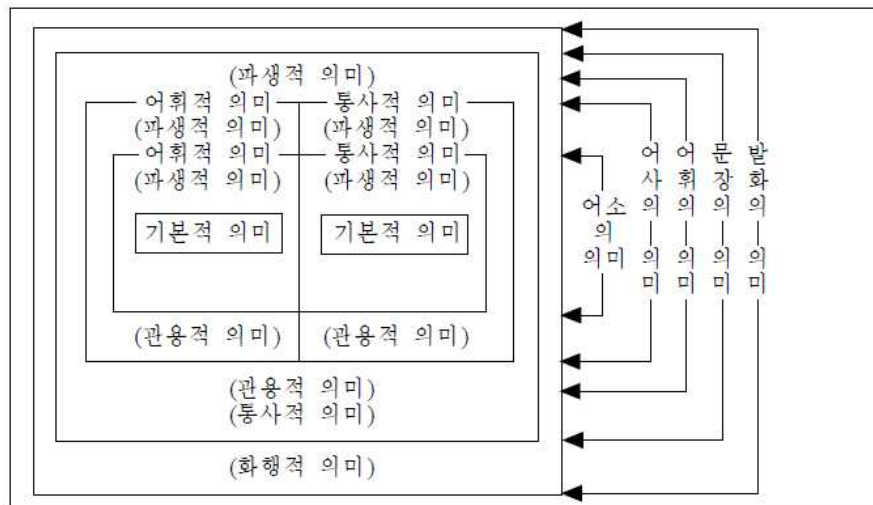


그림 23 최호철(1998: 30)에서 인용

이는 이론적 틀이지만 그간의 국어 의미론 연구들이 이러한 틀에 잘 들어맞는지, 또 그 구체적인 연구물의 모습들은 대략적으로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어사 연구들에서 의미론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물을 선별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객관적 준거가 마련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어 의미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인 “한국어 의미학”의 창간호부터 2022년 12월에 간행된 78호까지의 논저를 위 표의 체계를 참조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형식과 연구대상이 되는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로써 국어 의미론 연구의 연구대상과 주제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 대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어 의미 연구 영역 정보를 바탕으로 국어사 연구 중 의미 연구를 선별하고, 마찬가지로 연구대상의 형식과 연구대상의 의미를 기준으로 연구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로써 국어사의 국어 의미 연구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소논문 수준의 논저를 검토 대상으로 한다. 국어사 의미 연구들의 연구대상의 다양성과 빈도를 파악하기에는 소논문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학술지를 검토 대상으로 한다.

(1) 국어사 의미 연구 검토 학술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글”, “진단학보”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국어국문학”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국어학”
2000년 전후부터 지금까지	“국어사연구”, “한국어 의미학”

이들 학술지는 지금도 여전히 간행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연대를 구분하여 살펴도록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진단학보”는 최초의 과학적 방법의 인문학 학술지로서 특히 논문들의 실증성이 인상적인바, 국어국문학에 특화된 학술지인 “국어국문학”이 등장하기까지 국어학의 주요 논저들이 이를 통해 공유되었다.

초기의 “한글”은 순수한 학술 잡지는 아니었다. 수필, 논설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한글 정서법 마련에 대한 논의가 많다. 그러나 중요 학술논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어국문학”은 창간과 더불어 국어국문학 연구물 공유의 허브가 되었다. 이후 “국어학”이 등장하여 국어학 연구의 허브 역할이 “국어학”으로 넘어온다.

국어사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어사연구”의 창간호가 2000년 간행되어 국어사 연구의 허브 역할을 떼어 받았다.

국어 의미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어 의미학”이 1997년 창간하면서 국어 의미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게재된 연구 중에도 국어사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학술지의 국어사 연구를 추리고 연구대상에 따라 분류하고서 현대국어 의미 연구와 국어사 의미 연구의 지형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논의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국어사 의미 연구에서 더 활발히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1.2.2 연구의 지형을 짜기 위한 기준 설정

국어 의미 연구의 지형을 그리는 것은 “한국어 의미학” 창간호부터 2022년 12월에 간행된 78호까지 실린 801편의 연구들을 최호철(1998)의 안내를 참고해 분류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

다.2)

연구대상 형식의 분류든 연구대상 의미의 분류는 키워드를 태그 방식³⁾으로 선별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낸 연구대상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2) 국어 의미 연구의 대상 형식

간투사, 감탄사, 고유명, 관용표현, 관형사, 관형표현, 구문, 구성요소, 구어, 내부구조, 네트워크, 노랫말, 논항, 담화, 담화표지, 대명사, 동사, 만화, 명령문, 명사, 목적어, 문법, 문어, 문장, 문형, 반복, 발화, 보조용언, 부사, 분류사, 비속어, 사이시옷, 상징부사, 상표-아파트, 생략, 서술표현, 소멸, 수량사, 스크립트-거래, 신생, 어미, 어순, 어휘, 연어, 연어, 오류, 외래어, 외래어-붙어, 유머, 음운, 의문문, 의문문-판정, 이름, 자동사, 전문어-바둑, 전문어-요리, 접사, 정도부사, 조사, 지명, 지시어, 텍스트, 텍스트-광고, 텍스트-교과서, 텍스트-도로명, 텍스트-바둑, 텍스트-사전, 텍스트-성경, 텍스트-속담, 텍스트-시, 텍스트-연해서, 텍스트-영화제목, 텍스트-온라인, 텍스트-요리서, 텍스트-주석, 텍스트-학술, 표제어, 표현법, 품사, 학습자-아동, 학습자-연변, 학습자-영어권, 학습자-일어권, 학습자-청소년, 한문, 한자어, 합성어, 형식변화, 형용사, 호격⁴⁾

(3) 국어 의미 연구의 대상의 형식: 구체적 어형

[N1+스 N2], [N의 N], [가지다], [놓다], [-어 주다], [주다], =이-, 가다, 가다, -거 든, 거시기, 거시기, -게 되다, 겨우, 고맙다, 그것, 그래 가지고, 그러나, 길다, 깊다, 굽바티-, 날-X, -느라고/-고서/-자마자, 다, -답다, -더-, 도, -도록, 돼지, 둘우다, 들(복수), -롭다, 마누라, 만, 만큼, 맨-X, 무-X, 무섭다, 방고개, 붙쌍하다, 사랑하다,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생-X, -스럽다, 슬슬, -시-, 앞-X, 양중(良中), 얇다, -어 다, 어떠, -어야 되다, -어야 하다, 어찌, 역시, 역중(亦中), 오다, 요, 우리, -으면서, -을 터이-, 이(주격), 이(지시사), 이것, 인자, 저that, 저것, 정말, -줄 모르다, -줄 알다, 즐겁다, -지(요), 지다, 짧다, 처럼, 하거나(爲去乃), 하다, 한, 힐후다

(3)에서 대괄호([])로 표시된 것은 구문문법에서 통용되는 의미로서의 구문을 의미한다. X는 고정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후보가 있다는 뜻이다.

2) 초벌 검토를 통해 이 801편에 대해 연구대상 형식과 연구대상 의미를 태그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이 기술은 임의적이지만 잉여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자세하게 하였다. 이후 2차 검토를 진행하면서 태그를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하며 체계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09년 12월에 간행된 30호까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덧붙여 이 801편의 연구 가운데는 서평 논문이나 의미 연구와 거의 무관해 보이는 연구들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

3) 인터넷 블로그나 인터넷 기사들의 태그(tag)는 게시물 하단에 기입되어 해당 기사에 대해 키워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태그는 범주적으로 엄격하지 않아서 여러 특성들을 가진 대상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때 겹치기를 허용하지 않는 풀더 방식보다 유리하다(김현주·김흥규 2013) 가령 '가다'는 '어휘', '동사', '자동사' 태그를 모두 부착할 수 있다. 역으로 '어휘'로 검색하든, '동사'나 '자동사'로 검색하든 '가다'가 포함된다.

4) 키워드들은 한글 자모 순으로 배열하였다. (3)~(5)의 키워드들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배열되었다.

연구대상인 의미(개념, 내용)는 다음과 같다.

(4) 국어 의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의미(개념, 내용)

감정, 결속, 결합가, 공간, 공기제약, 공손, 구문의미, 구어체, 금기, 긍정, 낱말밭, 다의, 담론, 담화, 대역의미, 대인관계, 대조-한독, 대조-한일, 대조-한중, 도식, 말하기, 맥락, 명명, 문법화, 문식성, 문어체, 문장의미, 문체, 문화, 반의, 방식, 번역, 범주, 복수, 부분/전체, 부사성, 부정, 비교, 비유, 빈도, 사동, 사태, 상, 상보반의, 상태, 상황유형, 서법, 소유주, 수여, 시간, 시제, 양보, 양상, 양태, 양화, 어원, 어종, 언어습득, 언어이해, 여성, 연상, 오류, 요구, 원형성, 유의, 유정성, 은유, 응대, 응집성, 의미관계, 의미구조, 의미변화, 의미역, 의미영역, 의미이해, 의미일반, 의미자질, 의미제약, 의미합성, 의미확장, 의사소통, 이동, 이유, 전문, 접속, 정도성, 정보구조, 조건, 조음, 존대, 종결, 주제, 중의성, 지시, 추론, 칭찬, 타동성, 표상, 표현효과, 필수성, 함축, 형식논리, 화용, 화행, 환유

(5) 국어 의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의미: 의미장/개념장

[감정], [과일], [관상], [기쁨], [긴장], [꽃], [날씨], [말씀], [머리], [복부], [분노], [비], [사물], [색], [슬픔], [승부], [아부], [야구], [여성다움], [음료], [전쟁], [정치], [지조], [초조]

(5)에서 대괄호([])로 표시한 것은 의미장 내지 개념 영역을 뜻한다.

2. 연구 자료에 대한 메타 분석

2.1 국어 의미 연구의 지형

2.1.1 <한국어 의미학> 전체 (1호~78호까지 / 이번 발표는 30호까지)

- 30호까지 논문 총 317편, 이중 국어사 의미 연구 47편 (약 14.89%)

1) 연구대상의 형식

- 총 179종의 연구대상 형식 키워드가 추출된다. (3)에 제시한 구체적인 어형 81종을 제외하면 98종이 남는다. 다시 국어사 연구를 제외하면 83종의 키워드가 남는바 각 키워드별 빈도는 다음과 같다.

[N1 + N2]	[N의 N]	[가지다]	[놓다]	[어주다]	[주다]	갈투사	갈타사	고유명	관용표현	관형표현	광고	교과서	구문	구성요소	구어
1	1	1	1	1	1	1	1	5	12	2	3	2	23	1	1
내부구조	네트워크	논항	담화	담화표지	대명사	대용어	동사	만평	만화	명명표현	명사	명제	목적어	문법	문어
2	1	12	9	3	2	1	16	1	1	1	8	1	1	41	2
문장	문형	반복	발화	보조용언	부사	분류사	비속어	사이시옷	사건	상징부사	상표	생략	서술표현	속담	손동작
4	4	1	3	6	16	1	1	1	8	1	1	2	2	4	1
수량사	스크립트	시	신생	어미	어순	어휘	연어	영화제목	유류	유관인	유머	은어	음운	의문문	이름
1	1	1	1	12	2	102	3	1	1	3	1	1	1	2	1
자동사	전문어	접사	정도부사	조사	주격	지명	지시어	텍스트	표제어	표현법	품사	학술	한문	한자어	합성어
2	1	1	1	10	1	3	1	28	1	2	1	2	1	3	4
형식변화	형용사	호격													
1	8	1													

- 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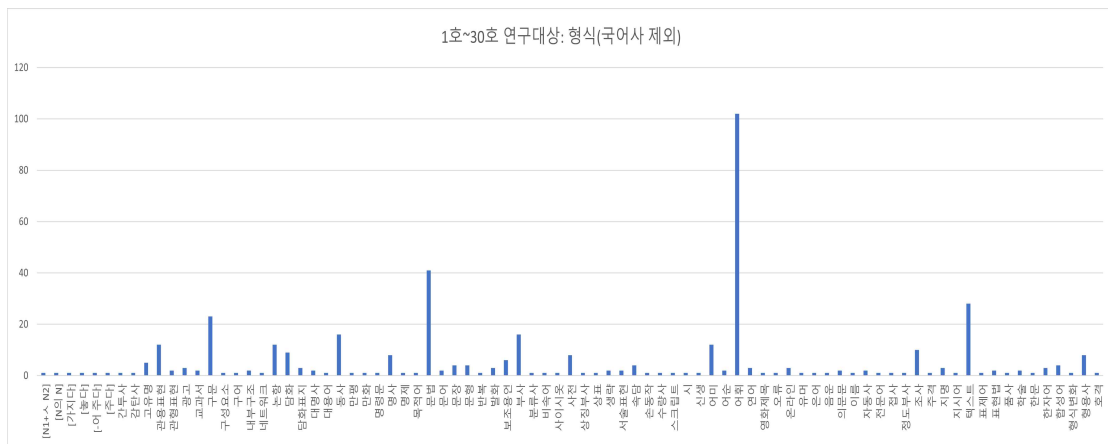


그림 24 1호~30호 연구대상: 형식(국어사 제외)

- 어휘 형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문법 형식, 구문, 특정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고빈도도 눈에 띈다.

2) 연구대상의 의미(개념, 내용)

- 연구대상이 되는 의미(개념, 내용)에 대해 139종의 키워드가 추출된다. 국어사 연구를 제외하면 100종의 키워드가 남는다. 키워드별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상]	[기쁨]	[꽃]	[달씨]	[마음]	[말]	[머리]	[미각]	[복부]	[비]	[사물]	[생각]	[슬픔]	[승부]	[시선]	[아쉬움]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야구]	[정치]	[지조]	[초조]	감정	결속	결합가	공기계약	공존	구분의미	구어체	긍정	날말말	다의	달말	담화성
1	1	1	1	3	1	1	3	1	2	1	1	11	3	1	5
대상의의미	대응성	대인관계	언어대조	도식	맥락	명명	무정성	문식성	문어체	문장어미	문제	문화	반의	벌주	부분전체
1	1	2	5	1	1	2	1	1	1	5	1	1	2	3	1
부사성	부정	부정격어	비교	비유	사태	상	상보반의	상태	상행영	설득	시간	시제	양태	어종	언어습득
1	4	1	1	1	3	3	1	1	1	1	1	2	5	3	3
언어의의미	여성	연상	유류	원형성	유의	유정성	유류	유정성	의미관계	의미구조	의미변화	의미의의	의미영역	의미해	의미일반
1	1	1	2	2	3	1	15	1	11	12	3	2	3	5	12
의미자전	의미제약	의미합성	의미확장	의사소통	전쟁	전제	전속	정당성	정보구조	증명	존대	중의성	지시	칭찬	표상
1	1	2	5	5	1	1	1	1	3	1	1	1	1	1	2
합계	형식적리	화용	화행												
1	2	20	3												

- 이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5 1호~30호 연구대상: 개념(국어사 제외)



그림 28 <한국어 의미학> 1호~9호 논문(국어사) 연구대상: 형식

- 연구대상이 되는 형식의 키워드 종류 측면에서 국어사 의미 연구가 현대국어 의미 연구에 비해 단조롭다.
- 어휘를 다룬 연구의 비율이 현대국어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 현대국어 의미 연구에 비해 부사를 다룬 연구가 적다.
- 특히 문법 형식에 대한 의미 연구가 없다. 당시 국어사 커뮤니티에서 문법 기능을 다룬 연구가 의미 연구로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국어사 연구의 특징으로서 특정 텍스트를 연구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연구 대상의 의미(개념, 내용)

- 마찬가지로 국어사 의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된 의미(개념, 내용)의 키워드별 빈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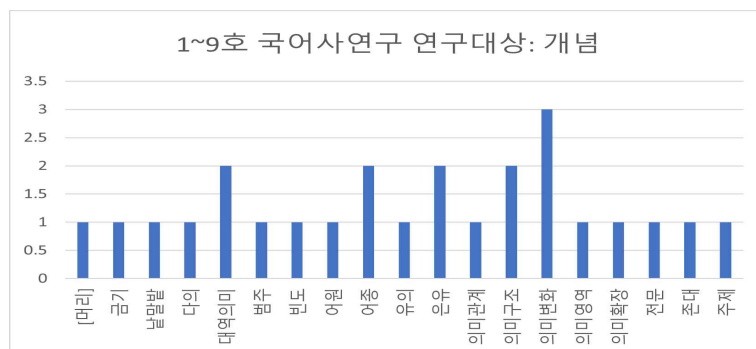


그림 29 1~9호 국어사연구 연구대상-개념

[관상]	[기쁨]	[말]	[미각]	[부]	[슬픔]	[지조]	감정	공기계약	공손	구문의미	구어체	날말발	다의	담	담화성
1	1	1	1	1	1	1	3	1	1	1	1	5	1	1	3
대상어동	대인관계	대조	명명	무정성	문식성	문어체	문장문의미	문체	문화	별뿔	부사성	부정격어	비교	비유	사태
1	2	3	1	1	1	1	2	1	1	2	1	1	1	1	2
상	상태	상행위양상	시간	양태	어종	언어수법	언어이해	여성	연상	유류	원형성	유의	유정성	유류	유정성
1	1	1	1	3	1	3	1	1	1	2	1	3	1	1	1
의미관계	의미구조	의미표화	의미영역	의미이해	의미일반	의미제약	의미확장	의사소통	전제	접속	정돈성	정보구조	주어	존대	중의성
6	4	1	1	2	8	1	1	4	1	1	1	2	1	1	1
지시	칭찬	학	형식관리	화용	화행										
1	1	1	1	8	2										

- 이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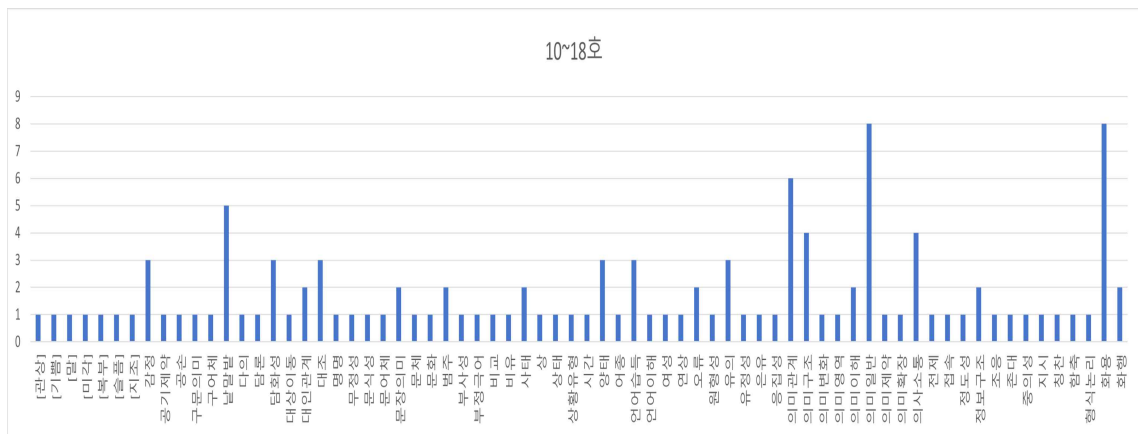


그림 31 10호~18호 연구대상(국어사 연구 제외): 의미

- 한 범주로 묶이지 않는 것을 몰아 둔 ‘의미일반’ 키워드를 무시하면 1~9호와 마찬가지로 화용 상황에 따른 개념의 양상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

- ‘날말발’을 탐구한 논의들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의미구조’, ‘의미관계’ 등을 다루는 구조 의미론 연구들이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어사 연구

① 연구대상의 형식

- “고맙다” 등의 구체적 어형의 키워드 5종을 제외하고 17종의 키워드가 추출된다. 그 빈도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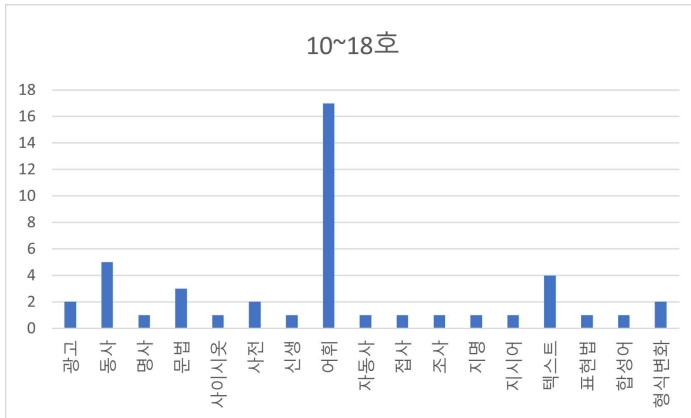


그림 32 10호~18호 연구대상(국어사 연구): 형식

- 문법 형식이 연구 대상에 들어와 있다.

② 연구 대상의 의미(개념, 내용)

- 12 종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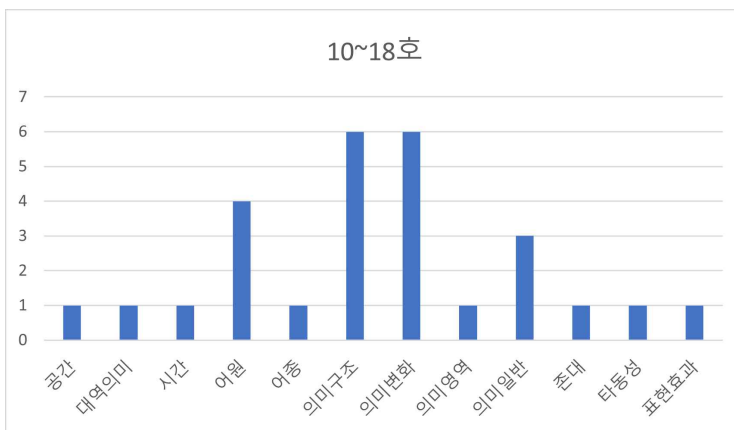


그림 33 10호~18호 연구대상(국어사 연구): 의미

- 의미변화와 어원에 대한 연구의 빈도가 눈에 띄는 가운데 의미구조를 탐구한 연구의 빈도도 높게 나타난다.

2.1.4 <한국어 의미학> 19호(2006년) ~ 30호(2009년)

- 총 124편, 이중 국어사 의미 연구 10편 (약 8.06%). 국어사 의미 연구 논문의 비중이 확연하게 낮아짐

1) 현대국어 연구

① 연구대상의 형식

- ‘=이-’부터 ‘화’까지 39종의 개별 구체 어형 키워드를 제외하고 40종의 키워드가 추출된다. 각 키워드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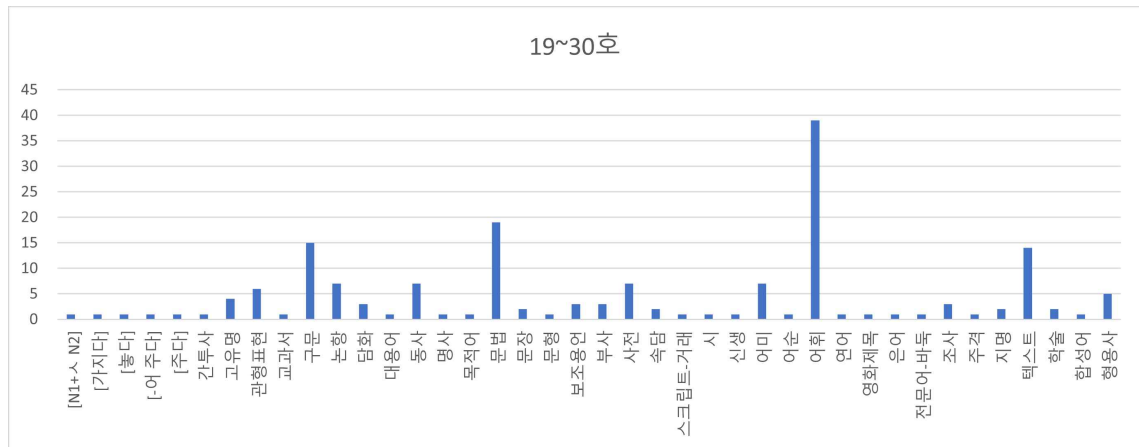


그림 34 19호~30호 연구대상(국어사 연구 제외): 형식

② 연구 대상의 의미(개념, 내용)

- 75개의 키워드가 추출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정]	[과일]	[긴장]	[날씨]	[마음]	[분노]	[비]	[사물]	[색]	[시선]	[여성상다움]	[원인]	[음료]	감정	결합가	공기제약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구문의미	날달	다의	담화성	대용성	대조	말하기	문장의미	문화	반의	박소	부수	복수	부정	비유	사동
4	4	2	3	1	1	1	2	1	5	1	1	1	1	1	1
사태	상	색	서법	설득	소유주	수여	시제	양보	양상	양태	양화	언어스레	연상	유구	원형성

1	2	1	1	1	1	1	3	1	1	3	1	2	1	1	1
유어	유어	어단	어미	어미관계	어미구사	어미표현양	어미표	어미표양	어미어행	어미어단	어미화양	어배	어아	전사	전어구사
1	15	1	1	10	6	1	2	2	2	13	8	1	1	3	2
조건	준대	준전	제어양	지시	추론	필수양	개양	어양	어행	어아					
1	1	1	1	1	1	1	1	10	3	1					

- 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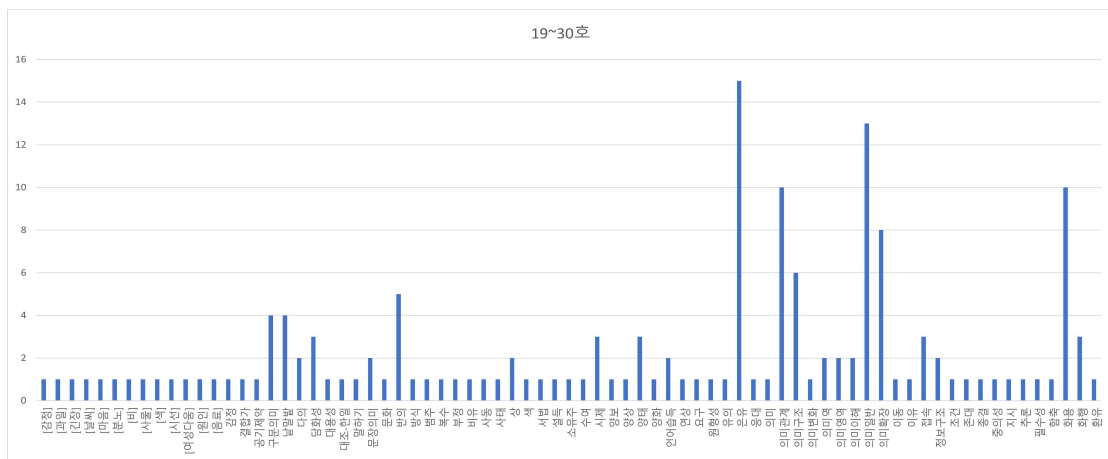


그림 35 19호~30호 연구대상(국어사 연구 제외): 내용

2) 국어사 연구

① 연구대상의 형식

- '-겠-'부터 '하거나(爲去乃)'까지 8종의 개별 구체 어형 키워드를 제외하고 14종의 키워드가 추출된다. 그 빈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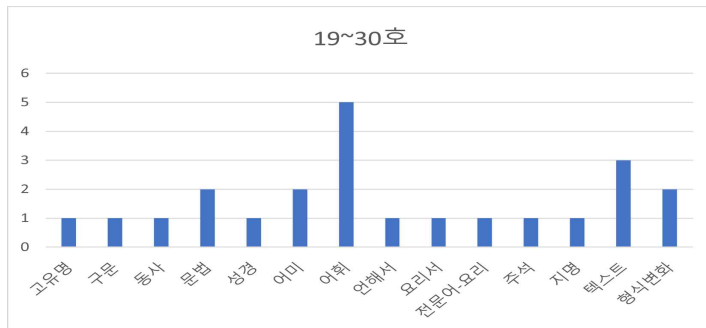


그림 36 19호~30호 연구대상(국어사 연구) 형식

② 연구 대상의 의미(개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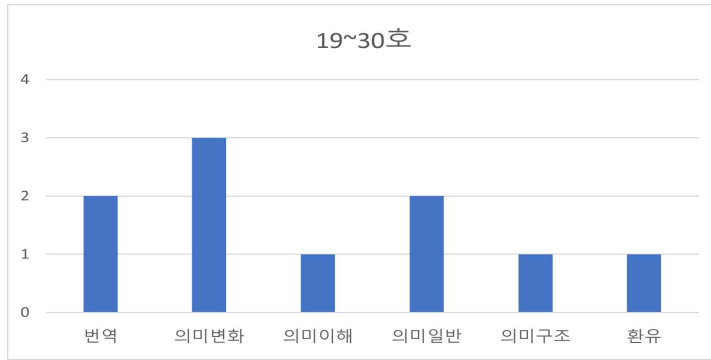


그림 37 19호~30호 연구대상(국어사 연구) 내용

- 국어사 연구가 <한국어 의미학>에 많이 실리지 못함. 124편 중 10편.

(이하 현재 작업 중)

2.2 여타 학술지

- 앞서 제시한 시대별 검토 학술지를 검토하여 앞서와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분석한다.
- “한글”, “진단학보”, “국어국문학”, “국어학”, “국어사 연구”
- <한국어 의미학>의 국어사 연구와 이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합쳐 국어사 연구에서 의미론에 해당하는 연구들이 다른 형식과 내용들을 정리함

2.2.1 <한글>과 <진단학보>

2.2.2 <국어국문학>

2.2.3 <국어학>

2.2.4 <국어사 연구>

2.3 소결론

- 국어 의미론 연구의 전반적 구도에 비추어 국어사 연구에서의 의미 연구가 어떠한 상황인지 평가함

1. 요약 및 제언

■ 참고문헌

논저

김현주·김흥규, 2013, '세종역사말뭉치'의 몇 가지 현안과 그 개선 방안, 『우리어문연구』 46, 85~114.

최호철, 1998. 구조 의미론의 수용 양상과 국어 어휘 의미론의 과제, 『한국어 의미학』 2, 11~39.

Mel'cuk, I., 2006, *Aspects of the theory of morphology*, Mouton.

자료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글』, 『진단학보』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국어국문학』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국어학』

2000년 전후부터 지금까지 『국어사연구』, 『한국어 의미학』

▣ 토 론

“국어사 연구에서 의미론의 위상”에 대한 토론문

허인영(인하대)

※ 별 지



[제3 분과]

글쓰기

대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에서 나타난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 양상*

안신혜 · 최영미(경동대)

< 차 례 >

1. 서론
 2. 대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에서 문법외식 설문조사
 3. 대학생 어문규범 오류 분석
 4. 어문규범 오류 분석과 지도 방안
 5. 맺음말
- 참고문헌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글쓰기 활동을 할 때, 한글맞춤법과 올바른 문장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고, 실제, 글쓰기 활동의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어문규정과 문장 오류를 살펴, 글쓰기 수업에서 어문규정과 문장 사용에 대한 지도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글쓰기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현대인들은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표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글쓰기 과정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글을 잘 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글쓰기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활동이 된다. 그러나 1인 미디어 시대에 글쓰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고, 글쓰기가 더 이상 ‘작가’라는 전문가들의 향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

대학교육현장에서 글쓰기 교육의 본질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표현적인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대학 글쓰기 교육은 실용 위주로 형식과 결과를 강조하면서 글쓰기 교육의 본질을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글쓰기 교육은 사고력 계발과 자질의 형성이라는 교양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김현정, 2012), 최근 글쓰기 교육이 비판적 문식성 관점과 표현주의 관점을 병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현정, 2018).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글쓰기 교육 내용에서 올바른 표기에 대한 지식이나 바른 문장 쓰기 영역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있다. 즉, 대학글쓰기 교재에서 어문규정 영역을 배재하는 경향이 늘고 있고, 어문규정 영역을 포함했다라도 어문규범 영역 선정이나 관련 규정들의 선정, 예시 선정에 학술적인 바탕

1) 이 논문은 경동대학교 2022년도 대학혁신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나 진지한 고민이 없고, 학생들이 교재를 통하여 어문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주장한다(손달임, 2014 ; 박동근, 2022).

어문규범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문장 쓰기는 글쓰기의 기초 지식으로 글쓰기 교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대학글쓰기 과제활동의 결과물로 제출된 글에서 나타나는 어문규범과 문장 쓰기 오류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글쓰기에서 발견되는 어문규범과 문장 쓰기 오류는 한편의 글에서 같은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못 학습된 어문규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문장 쓰기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학습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한글맞춤법과 문장 사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실제, 글쓰기 활동의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어문규정과 문장 오류를 살펴, 대학글쓰기 수업에서 어문규정과 올바른 문장 사용에 대한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학생들의 글쓰기와 맞춤법에 대한 인식 조사

2.1. 조사 방법

어문규범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문장 쓰기는 글쓰기의 기초 지식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완전한 문장을 사용한 글을 쓰지 않고 말하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의사소통할 때처럼 구어에 가깝게 글을 쓰는 세대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엄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논리적인 글을 써본 경험과 올바른 문장 쓰기를 위한 학습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대학 1학년생들은 글쓰기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글쓰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글의 문법 요소나 어휘 요소의 표기가 올바른지를 사전에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서 잘못 알고 있는 어문규범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문장을 쓰는 데 필요한 문법지식을 학습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 양상을 분석하기 전에, 대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인식과 글쓰기 첨삭에 대한 요구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할 것이다. 설문조사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교육환경과 첨삭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대상과 방법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재한 K대학교 교양필수 교과목인 <독서토론과 발표> 수강생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 수는 전체 204명이다. 설문지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선택지를 작성했으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술함에 있어서 글쓰기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과 글쓰기 첨삭활동에서 피드백을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한 문항의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 양상과 글쓰기 활동에서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아래 10개 문항이다.

(1) 설문지 문항

가. 글쓰기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

ㄱ. 평소에 글쓰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ㄴ. 글쓰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느끼는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ㄷ.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ㄹ. 글쓰기 능력이 학교 수업의 과제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ㅁ. 취업을 위해 글쓰기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ㅂ. 방송 자막, 친구의 글에서 맞춤법 오류를 보면 맞춤법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나. 글쓰기 활동에서 영역별 어려움과 첨삭활동에서 피드백을 받고 싶은 영역

ㄱ. 글쓰기를 할 때 표현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① 단락 쓰기 ② 문장 쓰기 ③ 띄어쓰기와 맞춤법 ④ 서론(시작) 쓰기 ⑤ 결론(끝) 쓰기

ㄴ. 글쓰기를 할 때 내용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① 주제 선정 ② 제목 쓰기 ③ 전체적인 글의 구성 ④ 문단과 문단의 연결 ⑤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

ㄷ. 글쓰기의 표현에서 어떤 부분을 첨삭 받고 싶은가?

- ① 맞춤법 ② 띄어쓰기 ③ 어휘 사용 ④ 문장 성분의 호응 ⑤ 문장 쓰기

ㄹ. 글쓰기의 구성에서 어떤 부분을 첨삭 받고 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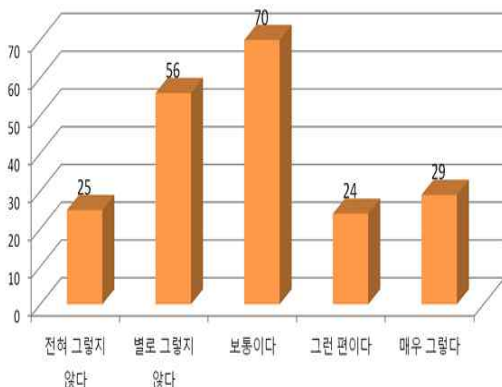
- ① 주제 선정 ② 문단 쓰기 ③ 개요서 작성 ④ 서론 쓰기, ⑤ 결론 쓰기

2.2. 설문 결과

2.2.1. 글쓰기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설문 결과

대학생들이 글쓰기에 관한 관심도는 ‘보통이다(70명)’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뒤로 ‘별로 그렇지 않다(56명)’이다. 캠퍼스별 글쓰기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응답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대학생들이 글쓰기에 갖는 관심도는 보통이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 글쓰기의 관심도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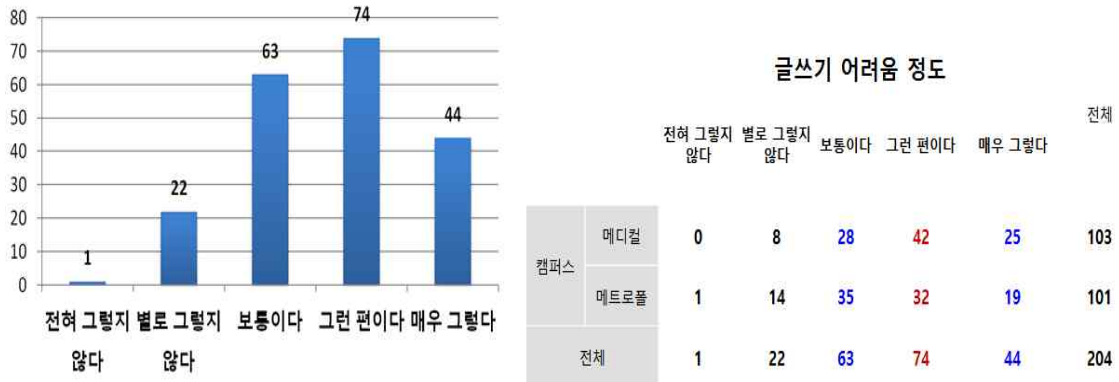
<그림-1> 글쓰기의 관심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캠퍼스	메디칼	12	28	36	11	16	103
	메트로폴	13	28	34	13	13	101
	전체	25	56	70	24	29	204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편이다(74명)’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

고, '보통이다'로 응답한 사람이 63명으로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다. 또한 '매우 그렇다(44명)'로 응답한 수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대학생들이 글쓰기를 어느 정도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2>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



<그림-2>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정도

<그림-1>과 <그림2>를 토대로 보면, 대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거나 관심이 적은 편이고,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은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사실을 지지하는 설문조사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글쓰기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그 결과, '그런 편이다(84명)'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뒤로 '보통이다(74명)'로 응답한 사람이 많다. 대학생들은 글쓰기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3> 글쓰기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그림-3> 글쓰기 수업의 필요성

수업 과제 점수와 취업에 관련하여 글쓰기 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했다. 먼저, 학교 수업 과제점수에 미치는 글쓰기 능력의 영향력에 대한 응답이다. 대학생들은 글쓰기 능력이 학교 수업의 과제점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그런 편이다(99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다. 그 뒤로 ‘보통이다(56명)’과 ‘매우 그렇다(37명)’ 순으로 응답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대학생들은 글쓰기 능력이 학교 수업의 과제점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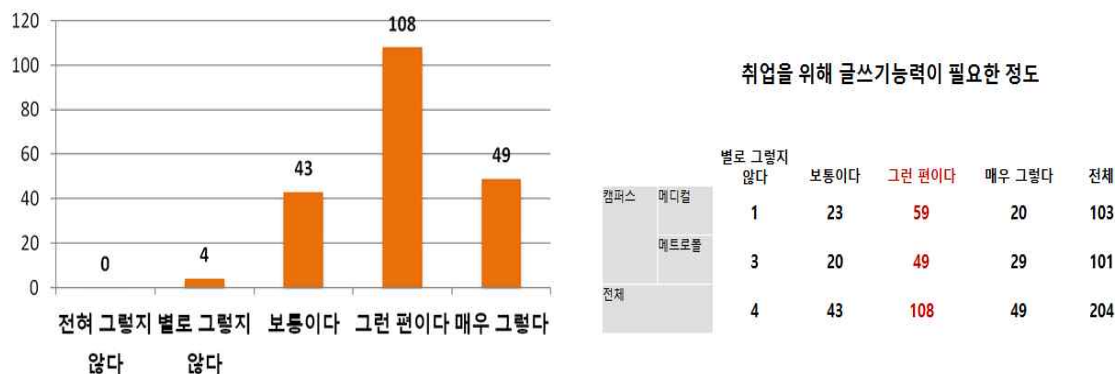
<표-4> 글쓰기능력이 학교 수업 과제점수에 미치는 영향



<그림-4> 글쓰기능력이 학교 수업 과제점수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글쓰기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질문했다. 대학생들은 글쓰기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런 편이다(108명)’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매우 그렇다(49명)’와 ‘보통이다(43명)’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글쓰기 능력이 취업에 영향 정도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5> 글쓰기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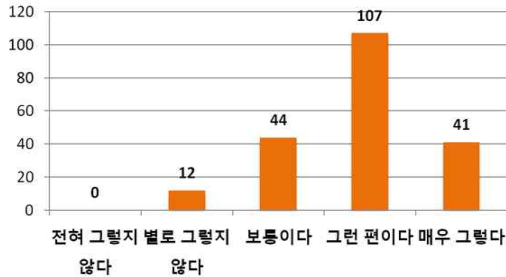


<그림-5> 글쓰기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그림-4>와 <그림-5>를 보면, 대학생들은 글쓰기능력이 학교 수업 과제점수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방송 자막, 친구의 글에서 맞춤법 오류를 보면 맞춤법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 ‘그런 편이다(107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고, ‘보통이다(44명)’와 ‘매우 그렇다(41명)’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6>을 보면, 대학생들은 맞춤법 오류를 본면 맞춤법 수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맞춤법 오류를 보면 맞춤법 수업의 필요성



캠퍼스	맞춤법오류를보면 맞춤법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				전체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메디컬	5	16	68	14	103
메트로폴	7	28	39	27	101
전체	12	44	107	41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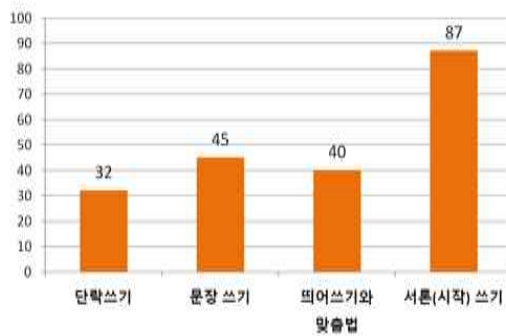
<그림-6> 맞춤법 오류를 보았을 때 맞춤법 수업의 필요성

2.2.2. 글쓰기 활동에서 영역별 어려움과 첨삭활동에서 피드백을 받고 싶은 영역 조사 결과

글쓰기 수업시간에 일반적으로 학습자 글쓰기 결과물에 대해 1회-2회의 첨삭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글쓰기 활동에서 영역별 어려움과 글쓰기 첨삭활동에서 대학생들이 첨삭을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대학생들에게 글쓰기 활동에서 표현 측면과 내용 측면에서 어려운 영역을 질문했다. 그 결과, 표현 측면에서 서론(시작)쓰기(87명) > 문장쓰기(45명) > 띄어쓰기와 맞춤법(40명), 단락쓰기(32명)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내용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글 구성(82명) >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61명) > 주제 선정(26명) > 문단과 문단의 연결(23명) > 제목쓰기(12명)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글쓰기 활동 시 표현 측면에서는 서론(시작)쓰기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고, 내용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글 구성을 어려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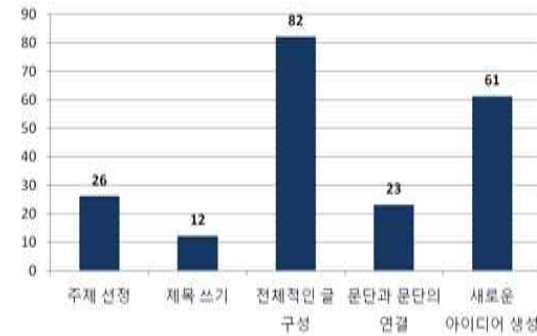
<그림-7> 표현 측면에서 영역별 어려움



글쓰기활동시표현측면에서어려운점

캠퍼스	글쓰기활동시표현측면에서어려운점				전체
	단락쓰기	문장 쓰기	띄어쓰기와 맞춤법	서론(시작) 쓰기	
메디컬	21	24	16	42	103
메트로폴	11	21	24	45	101
전체	32	45	40	87	204

<그림-8> 내용 측면에서 영역별 어려움



글쓰기활동시내용측면에서어려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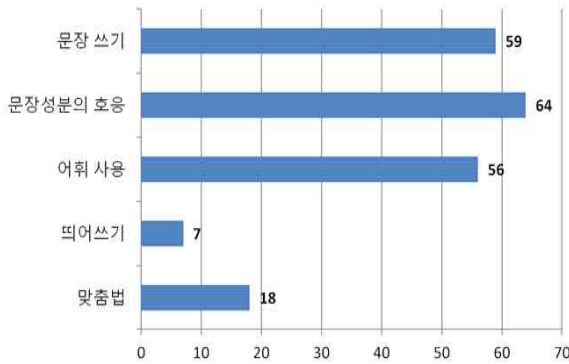
캠퍼스	글쓰기활동시내용측면에서어려운점					전체
	주제 선정	제목 쓰기	전체적인 글 구성	문단과 문단의 연결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	
메디컬	7	5	46	8	37	103
메트로폴	19	7	36	15	24	101
전체	26	12	82	23	61	204

<표-7> 글쓰기 활동에서 영역별 어려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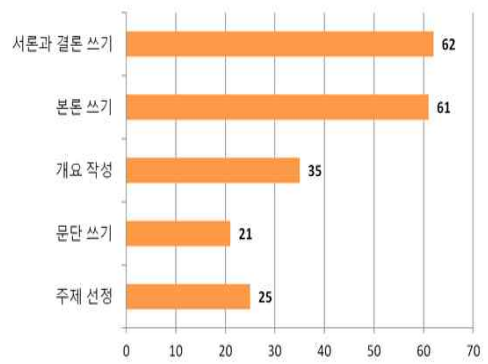
<표-8> 글쓰기 첨삭을 받고 싶은 영역 응답

다음으로, 글쓰기 첨삭활동에서 대학생들이 첨삭을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 표현 측면에서 첨삭을 받고 싶은 영역은 문장성분의 호응(64명) > 문장쓰기(59명) > 어휘 사용(56명) > 맞춤법(18명) > 띄어쓰기(7명)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내용 측면에서 첨삭을 받고 싶은 영역은 서론과 결론 쓰기(62명) > 본론쓰기(61명) > 개요 작성(35명) > 주제 선정(25명) > 문단 쓰기(21명) > 제목쓰기(12명)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표현 측면에서 ‘문장성분의 호응’에 대한 첨삭을 받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내용 측면에서 ‘서론과 결론 쓰기’에 대한 첨삭을 받기를 가장 많이 원했다. 특히 사항은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응답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림-9> 형식 측면에서 첨삭을 받고 싶은 영역



<그림-10> 내용 측면에서 첨삭을 받고 싶은 영역



글쓰기 표현에서 어떤 첨삭을 받고 싶나

캠퍼스	글쓰기 표현에서 어떤 첨삭을 받고 싶나					전체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 사용	문장성분의 호응	문장 쓰기	
메디컬	11	2	25	33	32	103
메트로폴	7	5	31	31	27	101
전체	18	7	56	64	59	204

글쓰기 내용 측면에서 어떤 첨삭을 받고 싶나

캠퍼스	글쓰기 내용 측면에서 어떤 첨삭을 받고 싶나					전체
	주제 선정	문단 쓰기	개요 작성	본론 쓰기	서론과 결론 쓰기	
메디컬	12	12	18	37	24	103
메트로폴	13	9	17	24	38	101
전체	25	21	35	61	62	204

<표-9> 형식 측면에서 첨삭을 받고 싶은 영역 응답

<표-10> 내용 측면에서 첨삭을 받고 싶은 영역 응답

정리하면, 대학생들은 표현 측면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첨삭을 받고 싶은 영역에서도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요구는 적게 나타났고, 올바른 문장 쓰기에 대한 첨삭 희망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글쓰기 과정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다.

3. 대학생 어문규범 오류 분석

3.1. 조사 방법

본 장에서는 대학생들의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기초 지식 수준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글쓰기 지도 방안을 고안해 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K대학교의 <독서토론과 발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과제로 작성한 글쓰기이다. 이 수업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토론 주제를 선정하여 조별 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1,500자 내외의 글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연구가 진행되었던 2022년 2학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첨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으로 글을 작성하고, 교수자들 역시 동일한 첨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첨삭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111명의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교수자들이 첨삭한 결과지를 이용하여, 글쓰기에서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오류를 분류하고 오류 빈도를 조사하였다. 오류 분류 항목은 띄어쓰기, 맞춤법, 어휘 사용과 문장 의미, 문장 성분, 단락과 소주제문과의 연관성, 단락의 구분, 단계별 글쓰기이다. 어휘의 의미를 잘못 알고 사용하는 오류, 문맥과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오류는 어휘 사용 오류로 분류하였다.

(2) 어문규범 오류 항목

- ㄱ. 띄어쓰기
- ㄴ. 맞춤법
- ㄷ. 어휘 사용과 문장 의미
- ㄹ. 문장 성분
- ㅁ. 단락의 구성 - 소주제문과의 연관성
- ㅂ. 단락의 구분 - 내용에 따라 들여쓰기, 단락 구분하기
- ㅅ. 단계별 글쓰기 - 서론, 본론, 결론의 기능에 맞게 작성하였는가.

대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소통을 하고 짧은 글을 작성하는 데에 익숙하고 긴 글을 작성해 보았던 경험이 적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낀다. 그렇지만 전공 수업이나 교양 수업에서 보고서나 발표문 등을 작성해서 발표해야 하는 일이 잦은 만큼 대학 생활에서나 앞으로의 취업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다만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별개여서 대학생들의 실제 글에서는 어문규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글에서 문법 요소나, 어휘 요소 등의 표기가 올바른지,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지, 적절한 장소에 적당한 어휘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은 드물다. 특히 대학생들의 글쓰기가 주로 과제 작성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한 번 글을 작성한 이후에는 그 글을 다시 읽어 보거나 퇴고를 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의 빈도를 조사하고 분류하여 분석하는 작업은 학생들이 어문 규범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확인하고 지도 방안을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1.에서 설명한 오류 항목에 따라 학생들의 오류 빈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1> 전체 학생 오류 빈도

오류	전체 학생
띄어쓰기	213(21.66%)
맞춤법	141(14.34%)
어휘 사용	330(33.57%)
문장성분	20(2.03%)
단락의 구성	46(4.67%)
단락의 구분	193(19.63%)
단계별 글쓰기	40(4.06%)
총합	983건

캠퍼스별 학생들의 오류 빈도는 아래와 같다.

<표-12> 캠퍼스별 학생들의 오류 빈도

	메디컬 캠퍼스	메트로폴 캠퍼스
띄어쓰기	107(28.38%)	106(17.49%)
맞춤법	59(15.64%)	82(13.53%)
어휘 사용	64(16.97%)	266(43.89%)
문장성분	9(2.38%)	11(1.81%)
단락의 구성	28(7.42%)	18(2.97%)
단락의 구분	79(20.95%)	114(18.81%)
단계별 글쓰기	31(8.22%)	9(1.48%)
총합	377건	606건

위의 표에서 보면 983건의 오류 중 684건이 띄어쓰기, 맞춤법, 어휘 사용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문장성분의 경우 메디컬 캠퍼스나 메트로폴 캠퍼스 각 9건과 11건으로 모두 아주 적은 숫자의 오류가 발견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학생들이 띄어쓰기, 맞춤법, 어휘 사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띄어쓰기나 맞춤법 표기의 경우 틀리는 이유도 다양하고 빈도도 높아 글쓰기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문장성분 오류는 문장 안에 쓰여야 할 필수 문장성분이 누락된 오류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이었는데 캠퍼스에 상관 없이 학생들이 잘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오류 분류는 글에서 나타난 오류들을 크게 분류한 것으로 각각의 항목 아래에는 여러 유형의 오류들이 산재해 있다. 이 글에서는 오류의 세부 분류 항목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유형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3.2. 띄어쓰기 오류

띄어쓰기 오류는 메디컬 캠퍼스와 메트로폴 캠퍼스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오류이다. 여기에서는 띄어쓰기 오류 중 가장 많은 빈도의 사례들 위주로 설명하겠다. 띄어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오류는 의존명사를 앞에 오는 말에 붙여 쓰는 오류와 조사를 앞에 오

는 말에 붙여 쓰지 않은 오류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 통일성 없어서 한 편의 글 안에 띄어쓰기와 붙여 쓰는 사례가 번갈아 나타나는 사례이다.

- (3) ㄱ. 체벌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타인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다.
- ㄴ. 이 사람은 두 명의 살인자로 유죄판결 받았을 때, '미국에서 가장 걱정되는 아이'로 묘사되었다.
- ㄷ. 소년범이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한국의 법 체계를 보았을 때 미국과 비교해서 아주 희박하다.
- ㄹ. 경찰이 일정한 규칙 아래에서 자신이 체포해야 하는 범죄자가 공격을 할 때 자기방어권을 발동시킨다면 반발이 생길 리 없다.
- ㅁ. 체벌금지법이 제정된지 몇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자행되는 일이 많다.

(3)ㄱ~ㅁ은 문장에서 의존명사 '것', '때', '수', '리', '지', '년'을 쓸 때 앞에 오는 말과 띄어서 적지 않고 하나의 구성으로 붙여서 적은 오류이다. 의존명사는 홀로 쓰일 수 없어 앞에 일정한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있지만 명백히 명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오는 말과 띄어서 적어야 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글에서는 의존명사의 종류나 의미에 상관없이 앞에 오는 말에 붙여서 적는 일이 많았다. 의존명사를 앞에 오는 말에 붙여 적은 오류는 띄어쓰기 오류 총 213건 중에 65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의존명사와 관련된 띄어쓰기 규칙을 제대로 모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여러 종류의 의존명사가 한 편의 글에서 쓰인 경우에는 어떤 의존명사의 경우는 매번 앞에 오는 말에 붙여서 적고, 어떤 의존명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의존명사를 띄어서 적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존명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위의 예시 중 ㅁ 예문을 작성한 학생은 '지'나 '년'은 매번 앞에 오는 말과 붙여서 적었지만 '수'나 '만큼'은 붙여서 적는 일이 없었다.

- (4) ㄱ. 앞에서 말했던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조건은 동물이 고통 받지 않는 환경 아래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 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식이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 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 ㄷ.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저지른 죄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가중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ㄹ. 안락사를 선택한 환자는 자신의 생각 대로 자신의 목숨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 ㅁ. 현재 상황에서는 테이저건의 사용 허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4)ㄱ~ㅁ은 문장에서 조사인 '이다', '처럼', '만큼', '대로', '보다'를 쓸 때 앞에 오는 말에 붙여서 적지 않고 띄어서 적은 오류이다. 조사는 앞에 오는 말에 붙여서 적어야 하는데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띄어서 적는 오류가 많이 보인다. 조사 띄어쓰기 오류는 띄어쓰기 오류 총 213건 중에 68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띄어쓰기 오류는 의존명사 띄어쓰기 오류와는 달리 조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조사가 격조사인 경우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보조조사인 경우에만 오류를 범했다. 격조사의 경우는 사용 빈도가 높고 조사라는 확실한

개념이 있지만 보조사와 같이 일정 부분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 아닌 의존명사로 인식하거나 문법소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존명사와 형태가 같은 ‘만큼’, ‘대로’ 등과 같은 조사는 더욱 통일성 없는 띄어쓰기를 보이고 있다. 서술격 조사의 경우 격조사임에도 띄어서 적는 예가 많았는데 이 역시도 서술격 조사에 실질적인 어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5) ㄱ. 경쟁이 지나친 한국 사회 속에서 동료가 아닌 친구와 경쟁하는 일은 지양해야한다.
 - ㄴ. 인생이라는 사회 속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불가결의 요소이므로 견뎌야된다.
 - ㄷ. 현재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부양 인구의 증가와 생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아닌가싶다.
 - ㄹ.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체계를 굳건하게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 ㅁ. 안락사라는 제도는 한 번 해봤다가 다시 무를 수 있는 종류의 제도가 아니다.

(5)ㄱ~ㅁ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말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붙여서 적을 수도 있고 띄어서 적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처럼 붙여서 적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학생들의 글에서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가 통일성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한 편의 글 안에서도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서 적을 때가 있고 띄어서 적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본용언이나 보조 용언의 의미나 종류와는 상관이 없이 규칙적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학생 중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모두 붙여서 쓰거나 모두 띄어서 적는 학생은 몇 명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는 57건으로 나타나 띄어쓰기 오류 중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3. 맞춤법 오류

맞춤법 오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는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 사이시옷 오류이다. 띄어쓰기 오류는 세부 분류에서는 빈도수가 의존명사 띄어쓰기 오류, 조사 띄어쓰기 오류, 본용언과 보조 용언 띄어쓰기 오류 세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맞춤법 오류는 종류가 다양하여 여러 유형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는 발음으로 인한 오류와 사이시옷 관련 오류였다. 발음으로 인한 오류는 맞춤법 오류 총 141건 중 32건으로 나타났고, 사이시옷 관련 오류는 21건으로 나타났다.

- (6) ㄱ. 아무리 많은 확실히 줄여도 그 영향이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 ㄴ.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가족이 연명을 위한 기계의 코드를 끊어 놓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ㄷ.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폭팔하듯이 늘어나 우리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다.

ㄹ. 눈에 띄는 점은 자라온 환경보다 교화 과정이나 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ㅁ.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말한다. 단지 짓궂은 장난이었을 뿐이었다고.

(6) ㄱ~ㅁ은 단어의 정확한 표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이다. 맞춤법 오류 중 많은 사례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단어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부터 시작하여 전문용어나 흔히 사용되지 않는 단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단어의 의미나 결합 방법과 같은 면에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한 가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학실험’, ‘쏟아’, ‘폭팔하듯이’, ‘띄는’, ‘짓궂은’과 같은 단어는 발음상으로 보았을 때 ‘화학실험’, ‘꽃아’, ‘폭발하듯이’, ‘띄는’, ‘짓궂은’과 유사하다. ‘띄다’나 ‘짓궂다’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므로 학생들이 단어의 표기를 정확히 모르는 일상용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7) ㄱ.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4명이 무리 지어 등교길에서 민식이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ㄴ. 경찰의 자기방어권 문제는 총과 같은 자기방어도구의 갯수와는 상관이 없다.

ㄷ. 재판 당시에도 피해자의 비아냥대는 인삿말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잘못된 원인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ㄹ.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에 따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나잇대에 따라 학년을 나누지 말고 교육 수준에 따른 등급 체계가 필요하다.

ㅁ. 장맛비가 내리면 비를 피하듯 같듯이 생겼을 때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상대와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은 아니다.

(7) ㄱ~ㅁ은 사이시옷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사이시옷을 적는 규칙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순우리말이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가운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사이시옷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 ‘등교길’과 ‘장맛비’는 뒷말인 ‘길’과 ‘비’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서 ‘등궂길’, ‘장궂비’로 표기해야 한다. 그런데 ‘등교길’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지만 ‘장궂비’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도 뒷말인 ‘비’를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일이 많아 조금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개수’의 경우는 한자어이기에 사이시옷을 받치지 않지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기에 오류를 범한 것이다. ‘나이대’는 뒷말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실제 언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삿말’ 역시 ‘ㄴ’을 덧나게 발음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러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3.4. 어휘 사용 오류

어휘 사용 오류는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여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는 경우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오기 전까지 교재 이외의 글을 읽는 일이 많지 않아 독서의 양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알고 있는 어휘의 수가 많지 않아 어휘 사용 오류를 범하는 일이 많다.

- (8) ㄱ. 음주운전 처벌 수준과 똑같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ㄴ.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는 정당합니다.
 - ㄷ.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황망한 마음만 들게 된다.
 - ㄹ. 결국 지나친 경쟁 구도를 막기 위해서는 동료와의 갈등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 ㅁ. 가해자의 논리는 자기 부인의 자유를 해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

(8)ㄱ은 ‘수준’과 ‘수위’를 헷갈려서 잘못 쓴 사례이다. (8)ㄱ에서는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라 정도’를 뜻하는 ‘수준’이 아닌 ‘어떤 일이 진행되는 정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수위’를 쓰는 것이 더 적확하다. (8)ㄴ에서 사용된 ‘정당하다’라는 말도 문맥으로 보았을 때에는 ‘적당하다’로 수정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 (8)ㄱ과 ㄴ은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여 생기는 오류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단어는 사용 빈도가 꽤 높다. 그러나 (8)ㄷ에서 쓰인 ‘황망하다’는 학생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틀리는 단어인데 ‘마음이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다’의 뜻이므로 위의 문장에는 맞지 않는다. (8)ㄹ은 문맥상 동료와의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지양’이라는 말을 써야 하지만 ‘지향’이라는 정반대의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발음상 비슷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로 볼 수도 있으나 이 학생의 글 안에서 ‘지향’이라는 말과 ‘지양’이라는 말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ㅁ은 ‘부인’과 ‘아내’의 의미 차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부인’은 다른 이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여기까지는 우리말의 맞춤법, 띄어쓰기, 단어와 문장의 의미와 관련된 오류를 살펴보았다. 이 뒤에서는 문장 층위 위의 단락의 구성, 내용, 단락과 단락의 연결과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5. 단락과 구성(소주제문과의 연관성)

- (9) 집단 중 한 명이라도 자신의 실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서로의 믿음이 깨지고 협력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므로 쉽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단락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작성된 글의 일부 분이다. 그런데 위의 단락에서 앞의 문장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후 단락의 마지막에서는 잘못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잘 작성된 글은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 아래에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주제들을 단락 안에 담겨 하나의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생각의 흐름대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큰 주제와 소주제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이러한 오류는 교수자들이 학생의 글 전체를 읽고 피드백을 해야 하는 경우이다.

3.6 단락 구분

- (10)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타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격려와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따르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질타만이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력과 격려로 더욱 성장해나갈 가능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다.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은 자기 객관화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자기 객관화는 제 3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을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것이다.우린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보완한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객관화를 통한 성장을 하지 못한다. 물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일은 판매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위의 단락은 두 개로 나뉘어야 하는 단락이 하나로 작성되어 있는 사례이다. ‘물품의 가격’ 부분부터는 앞에서 노력과 잘못에 대한 인정에 대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나오므로 단락이 나뉘어야 한다. 그런데 내용에 따라 단락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락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단락을 구분하여 써야 한다는 것을 아예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여 쓰지 못하는 경우 들여쓰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7. 단계별 글쓰기

- (11) 동물실험의 윤리성에 대한 입장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동물보호 제도로 3R를 제시하여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 3R이란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이 덜 고통스럽도록 개선(Refinement)하고, 통계학적인 분석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점차 감소(Reduction)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동물실험을 다른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하자는 개념으로 각 단어의 첫 글자 R을 따서 3R 원칙이라고 한다.

위의 단락은 ‘동물실험의 윤리성’에 대한 글의 결론 부분이다. 글의 결론은 전체 내용을 끝맺는 단계이므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 번 피력하여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거나 앞에서 나온 의견과 다른 의견을 다시 시작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는 3R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이 각각 기능하는 바가 다르므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 기능에 맞게 단락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어문규범 오류 분석과 지도 방안

대학의 글쓰기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활동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글쓰기 활동은 정신을 집중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활동을 끝내려면 짧은 글이나 한 단락 글쓰기 이외에는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 특히 글쓰기에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촉박한 시간은 더욱 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은 맞춤법, 띄어쓰기, 단어 사용, 문장 쓰기, 문장 성분, 단락 구분하여 쓰기, 단계별 글쓰기 등 여러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어느 한 단계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 지식 이론부터 시작하여 단락 쓰기와 글 전체에 이르기까지 조밀한 지도가 필요하다. 띄어쓰기에서는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의존명사, 조사,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용이었다. 의존명사 띄어쓰기에서는 여러 종류의 의존명사가 한 편의 글에서 쓰인 경우에는 어떤 의존명사의 경우는 매번 앞에 오는 말에 붙여서 적고, 어떤 의존명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의존명사를 띄어서 적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존명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주 사용되는 의존명사 목록을 작성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띄어쓰기에서는 격조사에서는 실수가 없었으나 보조사에서 실수가 많았고 특히 의존명사와 형태가 같은 조사의 경우 일관성 없이 띄어쓰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조사에는 어휘 의미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조사에 해당되므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존명사와 형태가 같은 조사 역시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 띄어쓰기에서는 글 안에서 띄어쓰기가 된 부분과 되지 않은 부분이 섞여서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고 일관적으로 띄어쓰거나 붙여 쓴 경우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용언과 보조 용언에 관련된 띄어쓰기 규칙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붙여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기본 원리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춤법에서는 발음으로 인한 오류와 사이시옷 관련된 오류가 두드러졌다. 그러므로 단어의 원래 표기에 대한 교육과 사이시옷 규칙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또 어휘 사용에서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일이 많아 문맥에 맞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이 되는 일이 많으므로 실생활에 사용되는 어휘 이외에 사회, 경제, 의학 등 여러 분야의 어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 맺음말

이 연구의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첨삭 요구도와 첨삭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글쓰기 첨삭활동에서 대학생들이 첨삭을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표현 측면에서는 문장성분의 호응 64명, 문장쓰기 59명, 어휘 사용 56명으로 이 세 가지 영역이 가장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맞춤법은 18명, 띄어쓰기는 7명이어서 학생들은 어문규범에 대한 것보다는 문장성분 사용이나 문장 쓰기, 어휘 사용과 같은 부분에 대해 첨삭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았다. 이 결과만 봐서는 하객들이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첨삭 요구가 낮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의 글에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관련된 오류가 가장 많았고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 학습이 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총 오류 983건 중 띄어쓰기에서 213건이 발생했고, 맞춤법에서는 141건, 어휘 사용에서는 330건이 발생했다. 띄어쓰기에서는 조사, 의존명사,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사용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띄어쓰기 규칙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이며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다. 어휘 사용에서도 330건의 오류가 발생하여 이 세 부분에서 총 684건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결국 학생들은 어문규범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

에 자신이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글에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괴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교과 과정에서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대한 기본 원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글쓰기 교재나 글쓰기 강의에서 학생들이 주로 오류를 범하는 띄어쓰기나 맞춤법 위주로 집중적인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의 어문규범 지식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이와 관련한 오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현정(2012),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과와 본질과 방향, 《교양교육연구》 6-2, 한국교양교육학회, 79-103 쪽.
- 김현정(2018),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 《리터러시 연구》 9-1, 한국리터러시학회, 9-37쪽.
- 나은미(2008), 대학생들의 문장 쓰기 실태와 지도, 《한성어문학》 27, 한성어문학회, 235-270 쪽.
- 남경완(2008), 대학 글쓰기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문 규정 교육의 현황 분석과 방향 모색 - 각 대학의 신 입생 대상 글쓰기 교재 분석을 통하여, 《우리어문연구》 31, 우리어문연구학회, 7-41쪽
- 방영심·이혜용(2013), 대학 글쓰기에 나타나는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의 유형 및 지도 방안, 《어문연구》 4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3-124쪽.
- 손달임(2014),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의 표기와 표현교육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8-4, 한국 교양교육학회, 427-461쪽.
- 유혜령(2011),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문장 쓰기 지도의 방향과 실제, 《대학작문》 2호, 101-131쪽.
- 이재현(2013), 대학생 글쓰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식적 오류의 유형과 지도 방안, 《사고와표현》 7-1, 207-240쪽.
- 정희모(2005), 대학 글쓰기 교육과 사고력 학습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5, 한국문학연구회, 425-465쪽.
- 정희창(2010), 글쓰기 교재의 표기·표현 내용 구성 방안 연구, 《한말연구》 27, 한말연구학회 325-345쪽.
- 최성규(2021), 대학 글쓰기 어문규범 관련 오류-교육 현장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글》 82-4, 한글학회, 1068-1099쪽.
- 박동근(2022), 대학글쓰기 교재의 어문규범 수록 방식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63-34, 한말연구학회, 1-15쪽.

▣ 토 론

“대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에서 나타난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 양상”에 대한 토론문

방영심(상명대)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글쓰기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어문규범 영역을 배제하거나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이를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2장의 인식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대학생 대상 인식조사는 ‘글쓰기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과 ‘글쓰기 첨삭활동에서 피드백을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한 문항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 양상과 글쓰기 활동에서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의 주제, 3장, 4장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설문항목이 ‘어문규범’, ‘문장’ 등에 좀 더 초점화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1.가.ㄱ.-ㄴ.)까지의 글쓰기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문항보다는 ‘비. 방송 자막, 친구의 글에서 맞춤법 오류를 보면 맞춤법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는가?’를 세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자막’은 공식적 글쓰기, ‘친구의 글’은 사적 글쓰기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따로 분리하여 질문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대학에서의 글쓰기가 공식적 쓰기 영역임을 인식시키는 지도방안으로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1.나.) ‘영역별 어려움과 첨삭활동에서 피드백을 받고 싶은 영역’에서는 질문을 일관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ㄱ.)에서는 표현 측면으로 ‘문단 쓰기’를 제시하고 있고 (나.ㄴ.)에서는 글쓰기의 구성 측면으로 ‘단락 쓰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설문 조사 결과와 오류 빈도 결과의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2.2. 설문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메디컬 캠퍼스’와 ‘메트로폴 캠퍼스’의 차이가 크지 않는 항목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항목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관심도’는 두 캠퍼스 간 큰 차이가 없으나 ‘글쓰기 어려움의 정도’는 메디컬(42), 메트로폴(32), ‘글쓰기 수업의 필요성’은 메디컬(50), 메트로폴(34)로 차이가 보입니다. 캠퍼스별 학생들의 오류 빈도(<표-12> 참고)에서도 메디컬은 띄어쓰기(107, 28.38%), 메트로폴은 어휘사용(266, 43.89%)이 가장 높은 오류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차이의 원인 등을 분석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도 방안(4장)을 구체화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오류 양상의 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3장에서 오류 유형 항목을 ‘띄어쓰기, 맞춤법,

어휘 사용과 문장 의미, 문장 성분, 단락과 소주제문과의 연관성, 단락의 구분, 단계별 글쓰기'로 분류했습니다. 이때의 '문장성분'은 '문장 안에 쓰여야 할 필수 문장성분이 누락된 오류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이고 20(2.03%) 건의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가장 첨삭을 받고 싶은 형식 측면은 '문장성분의 호응'으로 나타납니다.(<그림-9> 참고) 그렇다면 실제 학생들의 글에서 문장성분 간의 호응 오류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 오류의 빈도가 높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3.2. 보조용언 띄어쓰기 오류, 3.4. 어휘 사용 오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에서는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오류만 제시하고 있는데 '본용언+본용언', '본용언+보조용언' 등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3.4. 어휘 사용의 오류는 문해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메트로폴 캠퍼스의 경우 266(43.89%)으로 가장 높은 오류 빈도를 보인 항목입니다. '지양/지향'은 유사한 발음의 문제, '부인/아내'는 언어예절과 관련된 지칭이나 의미의 문제로 분류할 수도 있어 보이므로 앞으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해석을 추가하기를 첨언합니다.

글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실제 글에서 나타나는 어문규범과 문장 오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글쓰기 지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분석 결과가 지도 방안으로 구체화되어 대학 글쓰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대학생의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

- 쓰기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

양태영(성균관대)

< 차례 >

1. 서론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4. 교재 분석 결과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본 연구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교양교육 목표를 전제로 사고력의 관점에서 보고서 쓰기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 융합,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쓰기 교육의 목표는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¹⁾ 대부분의 대학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중시하고 있다.

김현정(2018)에서는 각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종합하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사고력 계발’, ‘자기 표현을 통한 자아 성찰의 기회 제공’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원해영(2020)에서는 교양과정 쓰기 교육의 목표가 인문학적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논리적이면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높이고 자아와 타인, 세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간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외국인 대학생에게도 대학의 담화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지영, 김정숙(2015:15)에서는 한국어 쓰기 과목의 목표가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자신만의 관점으로 주제를 구체화하되, 자신이 속한 학문 공동체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참고 자료를 연계하고 통합한 학술적 텍스트

1)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핵심역량이란 직업능력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의미하며, ① 자기관리 역량, ② 대인관계 능력, ③ 자원·정보·기술의 활용능력, ④ 글로벌 역량, ⑤ 의사소통 능력, ⑥ 종합적 사고력의 6가지 분야를 진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홈페이지 <https://www.kcesa.re.kr/intro.do>)

트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종합적, 통합적 사고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은 한국어 학습이나 글쓰기의 형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사고력의 신장 부분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이경수(2017)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재에서 창의성 관련 요소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하였고, 장채린(2022)은 외국인 유학생의 교재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인 교재는 ‘어떻게 읽고 무엇을 써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외국인의 교재에서 창의성, 독창성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판만 있을 뿐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력이 어떻게 교수-학습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학술적인 글 중에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근거로 추론하고 새로운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고서 쓰기 교재를 분석하여 어떤 사고력이 어떻게 교수-학습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분석의 틀을 세우기 위해 기존의 교재 분석 연구와 사고력에 대해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사고력의 관점에서 한국어 보고서 쓰기 교재 4종을 분석하고 5장에서는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글쓰기 교육에서 사고력

먼저, 교양 과정 글쓰기에서 대학생의 사고 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정희모(2008:253)에서는 대학생의 사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글쓰기 교육에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기능 활동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쓰기 능력보다 사고 능력을 우선할 경우는 과목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교육학의 관점에서 핵심역량 중 하나인 종합적 사고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김동일 외(2009)에서는 고등 교육 단계에서 육성되어야 할 핵심역량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수들에게 설문 조사와 면담을 실시해 조사한 결과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학습 능력, 창의성, 리더십, 대인 관계 능력, 가치관 및 태도의 7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고, 논리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로 종합·통합적 사고력, 분석적 합리적 판단력, 창의성의 하위 범주로 새로운 사고, 적응력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교양 과정 글쓰기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에서 제시하는 종합적 사고력에 대해 창의력²⁾,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³⁾ 등 하나의 사고력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왔지만, 종합적 사고력에 어떤 사고 기능이 있고 교재에서 어떻게 교수-학습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2015년에 발표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심화 국어’에서는 초·중·고 공통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급 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창의적 사

2) 김문희(2015), 이경수(2017)

3) 오세인(2018), 김화경(2020), 안정호 외(2022)

고와 문화 활동, 윤리적 사고와 학문 활동 능력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하였다.

이유경(2016)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쓰기 교재를 설계하면서 글쓰기에 필요한 사고력의 관점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로 구분하였다.⁴⁾

이윤자(2018)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어 소통 방식이 변화하였고 다양한 미디어로 의사소통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⁵⁾의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도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디어 텍스트를 접할 때 필요한 사고영역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사고영역	미디어 내용 이해
사실적 사고	세부 내용 이해하기,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어휘 파악하기, 중심 내용 찾기, 일이 일어난 차례 파악하기,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추론적 사고	현재의 결과나 결론을 통해 전체 내용 짐작하기, 제시된 내용의 성격, 공통점, 차이점 추론하기, 일의 원인 추측하기, 결과 예측하기
비판적 사고	의도, 목적, 태도 파악하기, 내용을 근거로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적합성, 타당성 생각하기, 가치나 의미 생각하기
감상적 사고	미디어 내용을 수용하여 동의하기, 관심, 동기, 흥미 갖기, 내면화하기 - 느낌, 소감, 반응 느껴보기, 공감하기, 거부하기 등을 생각하고 정리하기

<표 1: 이윤자(2018:656) 미디어를 접하는 사고 영역과 미디어 내용 이해>

선행 연구에서 대학 쓰기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사고력의 유형은 한국인과 외국인 교육 목표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사실적	논리적	비판적	추론적	분석적	감상적	윤리적	창의적
김동일 외(2009)		●			●			●
정희모(2008)		●	●					●
교육부 심화국어(2015)		●	●				●	●
이유경 외(2016)	●		●	●				●
이윤자(2018)	●		●	●		●		

<표 2: 교양 과정 글쓰기를 위한 사고력의 유형>

<표 2>에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사고력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한국인 대학생의 교육 목표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대학생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적 사고가 필수로 포함되고 비판적, 추론적, 창의적 사고를 포함하여 두

4) 이유경 외(2016)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요소인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를 근간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를 설계하면서 초급은 사실적 추론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며 비판적 창의적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급은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의 비중을 동일하게 두고 창의적 이해를 경험하게 하며, 고급은 초·중급과 달리 사실적 이해의 비중을 줄이고 추론적 비판적 이해를 기반으로 창의적 이해를 늘려 지식을 새롭게 적용 및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5)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종합하는 문해력, 해독능력을 지칭하는데, 넓게는 미디어에 접근하고 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고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이 능력은 2015년부터 국어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의 쓰기 교육 목표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가 교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2. 글쓰기 교재 분석

정희모(2008:244)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재는 대학생이 배워야 할 쓰기 교육의 목표에 따라 쓰기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 시켜 놓은 것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활동을 매개하여 수업을 가능케 하는 자료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 분석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사고력이 어떻게 교수-학습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김문희(2015)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재에서 창의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설명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창의적 글쓰기에 대한 의미와 양상을 구분하였다. 첫째, 창의성을 새로움, 독창성, 상상력으로 정의하고 확산적 사고를 활성화 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성, 둘째, 유용성, 문제 해결 과정으로 규명하고, 독창성뿐만 아니라 수렴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유용성의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문제의 발견 및 정의, 자료 탐색 및 해결안 발견, 평가 및 보완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분절하여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활성화하는 조별 보고서 쓰기 방법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재를 사고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 이경수(2017)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인 교재는 새로운 교수법이 제안되고,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교재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외국인 대학생 교재가 언어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창의적 사고 능력 계발의 측면에서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재 8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재가 창의력을 계발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학습자가 글쓰기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도록 교재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확산적 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자기소개, 비평문, 보고서 등 다양한 장르를 가르치는 쓰기 교재를 대상으로 창의력 분석 방식인 확산적 사고, 문제 해결 과정의 유무 여부만 표시되어 있어서 분석한 정보가 부족하다.

원해영(2020)의 연구 역시 대학의 교양 글쓰기 수업은 외국인 대학생들의 창의적, 논리적,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결과를 글로 표현하게 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교과목인데, 대부분의 교재가 지금까지 텍스트의 유형과 형식에만 치중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교육 내용과 사고의 수준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러 장르를 섞어서 배우는 글쓰기 교재의 경우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쓰기 교재에서 보고서 한 종류를 살펴본 연구로 손다정 외(2022)에서는 장르 중심 접근 방법으로 쓰기 교수 모형을 확인한 결과 ‘장르 이해하기-협력적 쓰기-독립적 쓰기’ 단계로 교육이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인데 대부분의 교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장르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습하고 실제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역시 이 연구도 자기소개, 비평문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영역을 다루고 있는 교재에서 보고서 부분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보에 대한 자세한 특징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하다.

외국인 대학생의 쓰기 교재를 사고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으며 구체적인 분석의 방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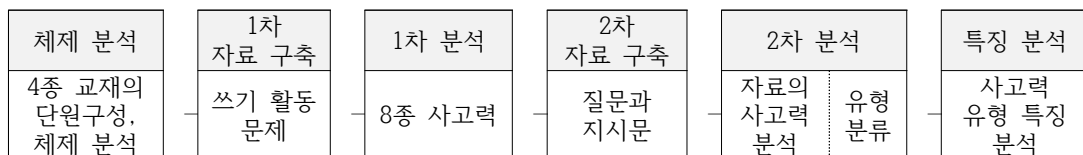
3.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고급 수준 학문 목적 외국인 대학생의 보고서 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재 4종이다. 이들 교재는 공통적으로 한편의 보고서를 완성하는 과정을 교수-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2),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고급,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나.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7), 학문 목적 쓰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다. 김은영 외(2020),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보고서 쓰기에서 발표하기까지, 박이정.
- 라. 양태영(202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고서 쓰기, 박이정.

4종의 교재에서 쓰기 과제나 활동만을 분석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질문과 지시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시문은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단서로 일정한 과정에 따라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⁶⁾

1차 분석에서는 쓰기 과제를 중심으로 앞선 연구에서 제시한 사실적, 논리적, 비판적, 추론적, 분석적, 감상적, 윤리적, 창의적 사고의 8종을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보고서 쓰기 과정을 살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지시문을 추출하여 정리한 후, 사고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지시문을 공통적인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한 개의 지시문 하에 여러 개의 문제가 있으면 같은 사고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 과정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연구 과정>

4. 교재 분석 결과

4.1. 교육 목표 및 단원 구성

1) 교재에서 반영된 교육 목표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각 교재에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

6) 연구 초기에는 기존의 쓰기 과제를 분석하는 통제적 쓰기, 유도적 쓰기, 자유 쓰기의 틀이나 박정진, 윤준채(2004)는 읽기 수업 과정에서 질문을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틀을 참고하고자 했으나 사고력의 기준이나 범주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분석 대상을 수업 진행하는 모든 지시문으로 확대하여 사고의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는 교육 목표를 쓰기 능력, 대학 강의 수강 능력, 사고력으로 구분하여 <표 3>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교육 목표	가	나	다	라
쓰기 능력	· 장르를 중심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 한국어 구사 능력 · 학술 텍스트 쓰기 능력	· 보고서 쓰기 능력 · 보고서 목적에 맞는 전략	· 보고서 쓰기 능력
대학 강의 수강 능력	· 대학 수학에서 요구되는 기능 · 읽기 능력 향상	· 대학에서 학습·연구 활동		· 전공에 대한 종합적 능력
사고력				· 창의력 · 종합적 사고력
기타	·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		· 발표 자료 구성 능력	· 의사소통 역량 · 대인관계역량 · 자기관리 역량

<표 3: 보고서 쓰기 교육 목표>

<표 3>에서 4종의 보고서 쓰기 교재에서 나타나는 교육 목표를 살펴본 결과 한국인 대학생의 교재 대부분이 ‘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을 통한 의사소통으로서의 글쓰기’를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 교재는 부족한 한국어 표현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사고력을 교육 목표에서 제시한 교재는 라교재 뿐이다. 교재에서 나타난 보고서 쓰기 교육 목표를 살펴본 결과 김화경(2020)⁷⁾의 비판과 같이 사고력 보다는 한국어 능력 향상이 강조되고 있었다.

쓰기 교재에서는 외국인 대학생에게는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표현과 형식에 대한 교수-학습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학습자 스스로 ‘무엇을’, ‘왜’ 써야하는지를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고 능력에 대한 교수-학습도 필요하다.

2) 단원 구성 방식

4종 교재는 보고서를 쓰는 과정을 교수-학습 하는 전체 단원 구성에서 공통점이 나타났다. 교재의 단원 구성 방식이 기본적으로 보고서 쓰기 단계를 준비 단계, 보고서 쓰기 단계, 완성 후 단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교재에서 나타난 단원 구성과 쪽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7) 새로운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김화경(2020)에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적, 학제적 통합 교육이 미래의 교육인데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교육과정은 한국어 능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교재	준비 단계	보고서 쓰기 단계	완성 후 단계	기타	쪽수
가	1. 보고서	2. 개요 작성하기 3. 서론 쓰기 4. 논리 전개하기 5. 비교하기 6. 인용하기 7. 조사하기 8. 결론 쓰기 9. 각주 및 참고문헌 달기	10. 평가하기		99쪽
나	1. 주제 정하기 2. 자료 수집하기 3. 계획 세우기 4. 조사 준비하기 5. 차례 만들기	6. 인용하기 7. 평가하기 8. 주장하기 9. 연결하기 10. 정확하게 쓰기 11. 서론 쓰기 12. 이론적 배경 쓰기 13. 연구 방법, 결과 쓰기 14. 논의 제안 쓰기 15. 결론 쓰기 및 고쳐 쓰기		부록	182쪽
다	1. 보고서의 개념과 종류 2. 자료 읽고 요약하기 ①, ② 3. 자료 이용하기 4. 담화표지 연습 5. 표현 연습 6. 화제 선정과 제목 정하기	7. 보고서 개요 쓰기 8. 보고서 서론 쓰기 9. 보고서 본론 쓰기 ①, ② 10. 보고서 결론 쓰기		11. 발표문 쓰기 12. 발표 자료 만들기 부록	237쪽
라	1. 대학 보고서의 특징 2. 창의력과 아이디어 확장 방법 3. 문어체 문장 쓰기 4. 단락 구성하기 5. 단락 쓰기	6. 개요 만들기 7. 자료 인용하기 8. 서론 쓰기 9. 본론 쓰기 10. 결론 쓰기	11. 초고 점검하기 12. 수정하기	발표하기	280쪽

<표 4: 교재의 전체 단원 구성>

<표 4>에서 가교재는 10과 구성되어 과제의 숫자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⁸⁾ 나머지 교재는 15주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구성에서 보고서 쓰기의 과정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재는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쓰기 전에 장르의 특징을 파악하고, 학술적인 글쓰기 방법을 어느 정도 익힌 후에 쓴 후 서론-본론-결론 순으로 쓰고, 마지막에 수정하는 것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각 교재에 따라 특징이 나타났다. 가교재는 보고서 쓰기 준비 단계를 장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시작하고 바로 쓰기 과정을 교수하고 있고, 나교재는 보고서 쓰기 전 단계가 연구의 시작으로 주제 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라 교재는 보고서를 쓰기 전 학술적인 글에서 필요한 연습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 나교재는 보고서 쓰기에 집중하고, 다·라 교재는 보고서를 쓴 후 발표하는 과정을 연계하고 있다. 가, 나, 라 교재는 초고를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의 발표, 부록 부분은 사고력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 교재의 각 과의 단원 전개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8) 가 교재는 시리즈로 이전 단계 학습 교재로 '중급 I'에서는 예시, 비교와 같은 단락 쓰기, '중급 II'에서는 설명문, 요약문, 조사보고서와 같이 일정한 장르의 짧은 글쓰기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교재	각 과 단위 구성
가	준비해봅시다→써봅시다→과제1→과제2→과제3
나	들어가기→구성 및 표현 이해하기→쓰기1→쓰기2→자기평가
다	학습목표→생각거리→ 학습할 개념 이해 →(연습하기→ 학습할 개념 이해) →연습하기
라	읽고 알아보기→알아보기→연습하기→쓰기→참고하기

<표 5: 교재의 각 과 단위 전개 방식>

<표 5>에서 각 과에서 나타난 전개 방식은 비슷한 구성을 볼 수 있었다. 가, 나, 라 교재의 첫부분은 준비해봅시다, 들어가기, 읽고 알아보기로 제시하는 명칭은 교재마다 다르지만 처음 도입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거나 예시를 들고 있고, 다음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보고서 장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에서 학습한 것을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보고서의 일부를 쓰는 네 단계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교재도 기본적으로 다른 교재와 비슷한 구성이나 과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4.2 사고력의 유형

본 연구에서 보고서 쓰기 교재의 지시문을 추출하여 사고력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실적, 분석적, 비판적, 추론적, 창의적 사고의 다섯 가지 유형을 분석할 수 있었다. 교재에 나타난 실제 예시를 통해 각 사고력이 어떤 지시문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⁹⁾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분석, 비판, 추론, 창의적 사고의 저차원에서 고차원적 사고의 순으로 살펴보면, 여러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사실적 사고

사실적 사고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텍스트 자체의 의미와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전문적인 어휘나 전공 영역의 표현, 문어체 표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재에서 강조되는 영역이다. 사실적 사고 유형 지시문의 예를 살펴보면 자료 a, b와 같다.

자료 a.

1) 각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다음 보기에서 골라 봅시다.

보기	(a) 연구 배경 (d) 선행 연구의 한계	(b) 문제점 제기 (e) 선행 연구의 동향	(c) 연구 목적, 내용, 의의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나교재 11과. 서론 쓰기 120쪽_읽고 이해 확인하기 유형

9)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교재에서 가장 비슷한 내용을 다룬 '서론 쓰기' 과를 예시로 들었다.

위의 자료 a는 사실적 사고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문을 읽고 각 단락의 화제를 찾아서 고르는 것은 ‘읽고 이해 확인하기’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약해서 인용하게 되는데, 이때 자료의 주제를 이해하고 정확한 인용 표현을 사용해서 보고서에 쓰는 것도 사실적 사고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사실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로 경험의 유무 확인이라는 단순한 문제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자료 b와 같다.

자료 b.



01 무슨 김치를 먹어 본 적 있습니까?

라교재. 5. 단락 쓰기_81쪽_경험·능력 유무 확인

자료 b에서 1번은 단순 경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인데, 실제 교재에서 ‘서론을 쓸 때 무엇이 힘들었습니까’와 같은 보고서 쓰기 경험을 확인하는 질문도 나타났다. 이처럼 사실적 사고의 유형도 다양한 단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에서 사실적 사고의 지시문은 총 118회 나타났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사실적 사고	총계(백분율)
읽고 이해 확인하기	35(29.66%)
읽고 주제, 중심생각 찾기	21(17.8%)
읽고 세부내용 (소주제, 뒷받침 문장) 찾기	17(14.41%)
읽고 중심내용 요약하기	14(11.86%)
단순 기억의 재생	11(9.32%)
읽고 제목 붙이기	8(6.78%)
기타: 경험·능력 유무 확인, 의미를 찾아서 문장 쓰기, 읽고 내용 찾기	12(10.17%)
계	118(100%)

<표 6: 사실적 사고의 지시문 유형>

<표 6>에서 읽고 이해를 확인하기가 가장 많은 29.6%, 주제나 중심 생각을 찾기가 17.8%로 나타났다. 대부분 읽은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제 파악의 유형이었다. 본고에서 글 전체의 주제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단순 기억의 재생(9.32%)와 경험 여부를 묻는 것을 (2.7%) 사실적 이해로 분석했다. 같은 사실적 사고도 단순 기억의 재생에서 이해한 내용 확인 읽고 제목 붙이기, 요약하기 등 여러 단계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보고서 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사고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분석적 사고

분석적 사고는 사실적 사고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워서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는 사고력이다. 분석에서 보고서 장르에 적합한 특징을 정리한 목록을 보고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하였다. 한국인 글쓰기 목표에서 중요한 논리적 사고는 학문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목적과 대상에 맞게 조직하여 전달하는 능력인데, 자료에서 너무 적게 나타나서 ‘논리적 순서 분석’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실제 예를 들면 다음 자료 c와 같다.

자료 c.

1. 위 글은 여러 장르의 서두 부분입니다. (가)~(라)가 각각 다음 보기 중 어떤 장르인지 생각해 보고, 각 장르에서 글의 첫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소설	수필	개론서	기사
----	----	----	-----	----

2. 논문의 첫 부분은 어떤 기능을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교재. 11과 서론 쓰기 117쪽_읽고 표현의 의미·기능 분석하기

자료 c에서 2번은 서론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지시문으로 ‘생각해 보고 첫부분이 어떤 기능’은 장르에 따른 특징을 분석해 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야기해 봅시다로 말로 표현하는 활동이 결합해 있다. 자료에서 분석적 사고의 지시문은 총 193회 나타났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분석적 사고	총계(백분율)
읽고 표현의 의미·기능 분석	31(16.1%)
읽고 내용과 형식 분석	30(15.5%)
읽고 이유, 관점, 목적 분석	21(10.9%)
읽고 제시한 기준(표)로 분석	19(9.8%)
문장과 표현이 어문규정에 맞는지 분석	15(7.8%)
읽고 내용 분류	11(5.7%)
읽고 논리적 순서 분석	9(4.7%)
읽고 형식(직접, 간접인용) 분석	7(3.6%)
읽고 공통점, 차이점 분석	6(3.1%)
읽고 문제점 분석	5(2.5%)
내 글 읽고 형식과 내용 분석	4(2.1%)
형식, 내용(보고서 장르)에 대한 정확성, 적절성 평가	4(2.1%)
기타: 장단점, 차이점, 분석, 장르에서 (서론, 본론, 결론의) 기능 분석, 세부 내용의 흐름 분석, 필자의 관점, 태도 분석, 읽고 수정할 부분 분석하기	31(16.1%)
계	193(100%)

<표 7: 분석적 사고의 지시문 유형>

<표 7>에서 분석적 사고는 읽고 이해한 내용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는 유형이 16.1%로 가

장 많이 나타났고 내용과 형식을 분석이 15.5%로 나타났다. 정리한 유형과 같이 분석적 사고는 대부분 읽고 나서 자료에 근거한 분석, 분류하기로 나타났고 자신만의 기준 확립과 같은 주제적인 활동은 많지 않았다.

3)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관념을 근거로 논점을 구성하여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과 효용성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타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다양한 정보를 주제적인 관점, 개념, 증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구조와 의미를 조합하고 재구성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자료에서 내글, 동료의 글을 읽고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 자료 d, e와 같다.

자료 d.

서론 내용을 확인한 후 아래의 질문에 ○, ×로 답하십시오.

	질문	대답
필수	주제와 목적이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이나 사실이 있습니까?	
	연구 순서나 방법이 있습니까?	
선택적 필요	주제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가 있습니까?	
	개인 의견이나 경험이 있습니까?	
	필요성이나 문제 제기가 있습니까?	
	중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능력	필자가 쓸 수 있는 주제가 맞습니까?	
형식	서론이 1~2단락의 내용입니까?	

라교재. 8과 서론 쓰기 147쪽_ 내 글 읽고 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자료 d에서 자신이 쓴 서론을 읽고 목록에 있는 내용과 형식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글의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다. 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대해서 동료들과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과제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음 자료 e와 같다.

자료 e.

3 다른 학생들이 정한 연구 문제를 보고 평가해 봅시다.

- 1) 연구 문제의 내용이 구체적인가?
- 2) 연구 목적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 3) 연구자가 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인가?

나교재. 3. 계획 세우기 35쪽_ 동료의 주제 평가하기

자료 e에서 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였다. 자료에서 비판적 사고의 지시문은 총 63회 나타났다.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비판적 사고	총계(백분율)
내글 읽고 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44(69.8%)
동료글 읽고 형식과 내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9(14.3%)
목록보고 점수 매기기	4(6.4%)
필자의 관점을 추가하기, 동료의 주제 평가하기, 예비 조사하기+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사하기, 동료의 평가를 받고 + 고쳐서 쓰기	6(9.5%)
계	63(100%)

<표 8: 비판적 사고의 지시문 유형>

<표 8>에서 비판적 사고의 지시문 유형을 살펴본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관념이나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은 평가 목록이 함께 제시되었다.


4) 추론적 사고

추론적 사고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회적 인식이나 장르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론적 사고는 텍스트의 정보를 근거로 분명히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제시된 정보 이상의 것을 추리해 내는 능력으로, 구체적이지 않지만 필자의 의도와 의미를 생각해서 자료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정보를 추리하는 적극적인 사고로, 사실적 사고보다 고차원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특히, 사실적인 이해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자료가 가진 의미를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력 교육이 필요한데 교재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자료에서 가장 많은 247회가 나타났다. 추론적 사고의 지시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f.

연구의 필요성 쓰기

1 다음 보기 중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보기	부족하다	그치다	겪다
	지적되다	문제가 있다	어렵다

1) 다문화 정책 사업이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에 치중되어 있어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동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_____.

다교재. 11. 서론 쓰기 122쪽_<보기>의 표현으로 문장 만들기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표현 학습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료 f의 예와 같이 적절한 표현을

문장이나 맥락에 맞게 쓰는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추론적 사고는 수업의 준비 단계에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거나 보고서 장르에 대한 형식을 스스로 추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추론적 사고로 분류하였지만 지문을 읽고 맥락에 맞는 어휘를 추론하여 빈칸 채우기 활동을 하는 것과 학습자가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는 글쓰기 지식을 보고서 쓰기와 관련짓는 것은 주어진 정보에서 보고서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추론적 사고의 수준도 여러 단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g.

- 보고서의 첫 단락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까?
- 보고서의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합니까?

가교재. 3. 서론 쓰기 26쪽_배경지식으로 장르에 맞는 형식, 내용 추론하기

자료 g에서 학습자는 보고서 쓰기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경우는 답할 수 있으나,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라면 아직 서론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았고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지 추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학습자의 고차원적 사고 연습을 위해 추론적 사고의 비중이 높은 교재를 구성할 경우 학습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배경지식이나 사고력 연습이 필요한 학습자는 교수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수준이나 흥미 또는 지식의 수준에 맞지 않는 텍스트나 정보를 추론할 때는 고차원적 사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단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이해를 확인하거나 분석이나 비판과 같이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사고력에 대한 교수-학습이 충분히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에서 분석한 추론적 사고력이 필요한 지시문의 유형은 총 247회 나타났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추론적 사고	총계(백분율)
배경지식으로 장르에 맞는 형식, 내용 추론	66(26.72%)
읽고 추론하여 장르에 맞는 형식으로(단락 완성) 쓰기	52(21.05%)
배경지식으로 질문에 대답 추론	30(12.15%)
<보기>의 표현을 보고 추론하여 문장, 글 만들기	25(10.12%)
읽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 예측하기	20(8.1%)
<보기>의 표현으로 단락, 문장의 빈칸 채우기	10(4.05%)
전후 맥락 보고 추측	7(2.83%)
<보기>를 보고 장르에 맞는 형식, 내용 추론	5(2.02%)
보고서에 적절한(필자의 관점, 부정적 관점) 표현 추가	4(1.62%)
기타: 제목을 보고 내용 추측하기, 읽고 표현의 의미 추론하기, 읽고(의미를 파악하여) 표현 찾기, 장르에 맞는 표현으로 고치기 (답화표지), <보기>를 보고 찾아서 고치기, 배경지식으로 이유가 무엇인가, 관점을 분석, (<보기>의 표현으로 적절한) 제목 만들기	28(11.34%)
계	247(100%)

<표 9: 추론적 사고의 지시문 유형>

<표 9>에서 추론적 사고가 필요한 지시문은 추론, 예측, 표현 추가하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장르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보고서 장르에 맞는 형식이나 내용을 추론하는 것으로 26.7%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한국어 표현 연습

을 위해서는 <보기>에서 제시한 표현으로 빈칸이나 맥락에 적합하게 쓰는 유형도 10.1%와 4%로 나타났다.

5)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학습자가 정보에 대해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반응하며 적절한 대안을 찾는 활동으로 주제에 대해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 활동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거나,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이디어를 정교화하는 사고력의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고서 장르의 특성상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많은데, 자신의 관점으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창의적 사고로 분석하였다. 주제에 맞게 자료를 찾아서 맥락에 적절하게 활용하여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사고로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유형의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를 창의적 사고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쓰기와 발표하기처럼 언어 기능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표현을 분석해서 자신만의 서론에 쓰기도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나타났다.¹⁰⁾ 사고력이 결합한 경우 각 사고력의 유형을 + 표시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h.

3) 시간제 근로 제도에 관해서 시사적인 일이나 문제가 되는 일이 있는지 자료를 찾아봅시다.



4) 3)에서 찾은 내용을 정리해서 시사적 내용으로 서론을 다시 써 봅시다.

다교재. 8. 서론 쓰기 119쪽_4) 자료를 찾고 + 인용해서 + 쓰기

자료 h에서 3번은 자료를 찾지만 하고, 4번은 앞의 3에서 찾은 자료를 정리해서 시사적인 내용을 포함하면서 보고서의 서론을 쓰는 유형으로, 다양한 사고력 유형이 결합하여 서론을 쓰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쓰기를 학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외국인 학습자가 각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단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과 i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10) 연구 초기에는 ‘자신의 주제에 맞는 서론을 쓰시오’와 같은 확산적인 사고나 ‘보고서의 개요를 정리하시오’와 같은 사고의 정교화를 창의적 사고로 분류했으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연구를 참고로 간접적으로 인용한 부분은 어디입니까?(분석) 간접 인용한 내용에 밑줄을 그어 보고 [분석] 어떻게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지[추론] 이야기해 봅시다.’와 같이 여러 사고 과정이 필요한 지시문을 창의적 사고로 분류하였다.

자료 i.

- 1) 본문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연구가 인용된 부분을 찾아봅시다. 각각의 경우 인용한 목적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다른 사람의 말이나 연구가 그대로 인용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직접 인용한 내용에 밑줄을 그어 보고 어떻게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3) 다른 사람의 말이나 연구를 참고 자료로 간접적으로 인용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간접 인용한 내용에 밑줄을 그어 보고 어떻게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교재. 6. 인용하기 64쪽_3)번 인용 분석하기 + 출처 표시 방법 추론 + 이야기하기

자료 i에서 1)번은 읽고 인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인용한 목적을 추론하고 이야기하고 2)번은 직접 인용을 찾고, 출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3)번은 간접 인용을 찾고, 출처 표시 방법을 추론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나의 지시문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고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찾은 것을 이야기하는 말하기 활동과 결합되어 있으며 누구에게 이야기 하는지 조활동인지 개인활동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자료에서 설문조사 하기 유형이 나타났는데,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하고 어떻게 설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시문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지시문이 명확하여 사고력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¹¹⁾ 또한 지시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더 필요해 보인다. 자료에서 창의적 사고의 지시문은 총 130회 나타났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창의적 사고	총계(백분율)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 찾아서 + 정리	28(21.5%)
생각해서 + 보고서 내용 쓰기	18(13.8%)
보고서 계획(개요) 세우기 + 발표하기	18(13.8%)
생각해서+ 자신의 관점, 평가 추가해서 + 보고서 쓰기	17(13.1%)
특정 형식을 사용하여 보고서 내용 쓰기(서론, 결론)	9(7%)
주제문을 만들고 제목 쓰기(+ 발표하기)	8(6.3%)
특정 표현이나 내용 사용 + 서론 쓰기	6(4.6%)
자료를 찾고+ 인용해서+ 쓰기	5(3.8%)
찬성이나 반대 이유 생각하기	5(3.8%)
읽고 기준대로 분석 + 쓰기	5(3.8%)
설문조사 만들고 하기(조별로 생각해서 + 설문조사 작성 + 조사) 자료에 대해 추론, 표 내용 분석 + 글 쓰기, 주제를 생각+ 제목과 개요 쓰기 + 발표하기, 설문지 만들기, 이야기하고 + 쓰기	11(8.5%)
	130(100%)

<표 10: 창의적 사고의 지시문 유형>

<표 10>에서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한 지시문 유형을 보면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기가

11) 고은선, 전한성(2019)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유학생들에게 심층면담을 진행했는데 ‘간단한 지시사항도 이해를 못해요, 번역기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거나 과제를 제출해요. 과제가 너무 많고, 양식도 우리나라와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등의 내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21.5%가 가장 많았고 생각해서 쓰기와 보고서의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기까지가 각 13.8%로 나타났다. 보고서 쓰기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관점을 추가하는 유형도 있지만 자료를 찾거나, 특정 형식과 내용을 적용하여 쓰거나 발표하기 기능을 결합하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났다.

6) 교재에 나타난 사고력 유형 분석

지금까지 각 교재에서 보고서 쓰기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력 유형의 분석결과를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라	총계	백분율
추론	37(43.02%)	81(29.03%)	70(33.65%)	59(33.15%)	247	32.9%
분석	18(20.93%)	79(28.32%)	51(24.52%)	45(25.28%)	193	25.7%
창의	11(12.79%)	54(19.35%)	35(16.83%)	30(16.85%)	130	17.3%
사실	6(6.98%)	40(14.34%)	48(23.08%)	24(13.48%)	118	15.7%
비판	14(16.28%)	25(8.96%)	4(1.92%)	20(11.24%)	63	8.4%
계	86(100.00%)	279(100.00%)	215(100.00%)	178(100.00%)	751	100

<표 11: 보고서 쓰기 교재에 나타난 사고력 유형 분석>

<표 1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교재에서 나타나는 지시문을 사고력의 관점으로 분석했을 때 이 중 나교재가 다른 교재보다 지시문이 279회로 전체 평균 188회보다 많았는데, 이는 한 개의 지문에 여러 사고력이 섞여서 나타난 자료가 많기 때문이다.

전체 사고력의 빈도를 살펴보면 가교재에서 비판이 많이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추론(32.9%) > 분석(25.7%) > 창의(17.3%) > 사실(15.7%) > 비판(8.4%)의 순으로 4종의 교재에서 사고력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앞서 <표 2>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교육 목표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가 공통적이고, 외국인 대학생은 사실적, 비판적, 추론적, 창의적 사고를 포함하는데, 외국인 대학생의 교재에서는 분석적 사고와 더 포함되어 있고, 논리적 사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대학생 대상 보고서 쓰기 교재 4종의 지시문을 대상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능력인 사고력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학습 위주라고 비판 받았지만 다양한 사고력을 창의적 사고에서는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교재에서 나타나는 사고력을 분석한 결과 사실적, 추론적, 분석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의 다섯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각 사고력의 개념을 정리하면, 사실적 사고는 텍스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변별하고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비판적 사고는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관이나 관념을 근거로 논점을 구성하는 것

으로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과 효용성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분석적 사고는 기준을 세워서 이에 대해 표현, 관점, 필자의 태도 등을 살피는 것이다. 추론적 사고는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분명히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제시된 정보 이상의 것을 추리해 내는 능력으로,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 단계라 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는 학습자가 정보에 대해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반응하며 적절한 대안을 찾는 활동으로 주제에 대해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 활동으로 사고력의 최종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보고서 쓰기 교재에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고력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재에서 추론적 사고가 가장 많이(32.9%) 나타났고 다음으로 분석적 사고(25.7%), 창의적 사고(17.31%), 사실적 사고(15.71%), 비판적 사고(8.39%)의 순으로 교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사고력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서, 외국인 대학생이 보고서를 쓸 때 비슷한 유형의 사고력을 교수-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교재가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한국인의 교재와 비교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고차원적인 창의적 사고가 적다고 보는 것보다 비판적, 분석적, 논리적 사고력에 대한 고려가 교재에서 더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대학생의 교재는 한국어 표현에 대한 학습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어 능력이 모국어 학습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적 사고력의 유형을 교재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전체의 15%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론적 사고로 분류하였지만 지문을 읽고 맥락에 맞는 단락을 쓰거나 빈칸 채우기 활동을 하는 것과 학습자가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는 글쓰기 지식을 보고서 쓰기와 관련짓거나, 주어진 정보로 추론하는 것은 동일한 사고의 수준으로 볼 수 없으리라고 본다. 이처럼 같은 유형의 사고력에서도 단계별 부분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고은선·정한성, 2019, 외국인 유학생의 교양교육과정 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분석: D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13-6, 한국교양교육학회, pp. 403-427
- 김동일·오헌석·송영숙·고은영·박상민·정은혜, 2009, 대학 교수가 바라본 고등교육에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권 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pp. 195-214.
- 김문희, 2015, 대학 글쓰기 교재에 나타난 창의적 글쓰기의 양상과 수업 방법 탐색, 인문과학연구 4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81-108.
- 김지영·김정숙, 2015,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쓰기 교재 개발 원리에 의한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8호, 이중언어학회, pp. 1-31.
- 김현정, 2018,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 리터러시연구 9권 1호. 리터러시학회, pp. 9~40
- 김화경, 202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 함양 수업 방안 연구, 시민인문학 39,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 103-130
- 박정진·윤준재, 2004, 읽기 수업에서의 질문 들여다보기: 비판적, 창의적 질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2호, 한국독서학회, pp. 119-144.
- 손다정·정다운, 2022, 외국인 학부생을 위한 교양 글쓰기 교재 분석: 보고서 쓰기를 중심으로, 한 국 어와문학 56호,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pp. 121-153.
- 안정호·류선숙·허유경·임형옥, 2022, 외국인 학부생의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문적 토론 수업 사례 연구, 교양교육연구 16-3, 한국교양교육학회, pp. 151-166
- 오세인, 2018, 대학 글쓰기 교재의 읽기·쓰기 통합 과제 분석, 한국어와 문학 42, 한국언어문화학술 확산연구소, pp. 37-70
- 원해영, 2020, 유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글쓰기교재 구성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제60집, pp. 195-222.
- 이경수(201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재 분석: '창의적 사고 능력 계발'의 측면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20호, 리터러시학회, pp. 49-85.
- 이유경·박현진·이선영·장미정·노정은·류선숙, 2016, 외국인 학부생 대상 대학 글쓰기 과목의 교재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방안연구, 어문논집 78, pp. 391-422.
- 이윤자, 2018,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연구: 문제중심학습(PBL) 활용의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0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pp. 633~674.
- 장채린, 2022, 한국인 대학생 대상 교재와의 비교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학술 글쓰기 교재 분석: 학업 기술과 교육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3-2, 리터러시학회, pp. 315-338.
- 정희모, 2008, 대학 글쓰기 교재의 분석 및 평가 준거 연구,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pp. 244-277.

[참고 교재]

- 김은영, 김주희, 유진아, 김정아(2020),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보고서 쓰기에서 발표하기까지, 박이정.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7), 학문 목적 쓰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양태영(202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고서 쓰기, 박이정.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2),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고급,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토 론

“외국인 대학생의 사고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 쓰기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혜란(건국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현실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교재에서는 어떤 사고 능력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먼저 제가 논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본 연구는 교재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재를 분석했느냐가 연구의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글쓰기 강의를 위한 목적으로 출간된 교재는 다양합니다. 그중 네 권의 교재를 분석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교재를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글쓰기에서 논리적으로 글을 풀어내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으며 독자를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표 2>에 나타난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는 공통적으로 논리적 사고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목표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의 교재 분석에서도 사고력 5종(사실, 비판, 분석, 추론, 창의)으로 분석되었을 뿐 논리적 사고는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외국인 글쓰기에서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본 연구의 분석 교재 중에는 발표자께서 집필하신 교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사실적 사고 유형인 <표 6>의 ‘읽고 세부 내용 분석하기’와 분석적 사고 유형인 <표 7>의 ‘읽고 내용과 형식 분석’은 표면적으로 분석적 사고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사실적 사고로 하나는 분석적 사고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의사소통의 차이로 인해 한국 학생 글쓰기 수업과 유학생 글쓰기 수업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겠지만 한국 학생들의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이나 의견 교환 등을 한 후 주제를 찾아 글쓰기를 하는 반면 유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력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과목이 추후 어떻게 변모해야 할지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4 분과]

음성·음운론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변화 양상

한명숙(안양대)

< 차례 >

1. 머리말
 2. 표기 실태 조사 방법
 3. 어두 경음화 표기 변화 양상
 4. 어두 경음화 표기의 방향성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이 연구는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개별 어휘의 표기 실태를 조사하여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¹⁾ 이를 위해 인터넷 웹 검색을 활용하여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경향을 살피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두 경음화 표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²⁾

어두 경음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의성’과 ‘개별성’이다. 각각의 어휘마다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는 정도도 다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신자의 입장도 다르다. 가령 ‘국물이 진하다’의 경우 ‘진하다’를 /찐하다/라고 발음하거나 /진하다/라고 발음할 수도 있다. 즉 화자마다 선택적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어두 경음으로 발음한 /찐하다/를 듣는 사람들도 용인 가능하다. 반면에 ‘중국이 이겼어’라고 할 때 ‘중국’을 어떤 화자는 /쥬국/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그런데 수신자에 따라서는 [쥬국]으로 발음한 것을 거북한 표현으로 느끼는 언중들도 있다. 이처럼 어

1) 어두 경음화 표기에 대한 논의는 몇몇 논문에서 언급되었다. 어두 경음화 표기 실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한명숙(2011L)에서부터이다. 한명숙(2011L)은 42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높은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불러 주고 피실험자에게 평상시대로 쓰게 하는 방법으로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대면 조사나 설문 조사 방법이 지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로 어휘를 한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로운 어휘를 추가할 수도 없으며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다.

2) 어두 경음화 실현에 있어서 발화 상황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미재(1989)에서도 어두 경음화 현상은 평상적인 말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발화자가 무의식적인 순간에 경음화가 가장 많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김유권(2004)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발음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경음화 현상이 억제된다고 보았다. 그 예로 ‘자르다’의 경우를 들고 있다. 만약 공식적인 결혼식 사회의 경우에는 “케이크 자르기 순서입니다”라고 하겠지만, 비공식적인 일반적인 자리에서는 “수박 잘라봐”로 발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어두 경음화 표기 자체만을 보기 때문에 발화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는 농도가 적다고 본다.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언중들이 발화 상황을 의식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이다.

두 경음화 현상은 동일한 단어라도 화자나 세대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언중들의 태도도 다르다. 이에 박동근(2000), 김유권(2004), 한명숙(2011ㄱ, 2013ㄱ)에서는 어두 경음화를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였다.³⁾

어두 경음화는 음운 현상으로 발음의 문제이다. 그런데 어두 경음화 현상이 강화되어 표기상에도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형태가 나타난다.⁴⁾ 이는 어두 경음화가 언중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실제 어두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어두 경음 표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현재 ‘주꾸미’와 ‘꼼장어’는 어두 경음화한 /쭈꾸미/, /꼼장어/로 발음하는 경향이 높고, 실제 표기상에도 ‘쭈꾸미’, ‘꼼장어’처럼 경음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⁵⁾ 반면에 ‘수세미’, ‘(힘이)세다’, ‘족집게’는 어두 경음화 실현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쑈세미’, ‘(힘이)썰다’, ‘족집게’로 표기하는 어두 경음화 표기율은 낮다.⁶⁾ 언중들이 입으로는 경음으로 발음하지만 여전히 머리로서는 ‘수세미’, ‘(힘이)세다’, ‘족집게’를 표준 어형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어 사용에서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면 이는 언중들이 해당 어휘의 어두 경음화가 거의 굳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 글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표기에도 반영되는 현실을 단순히 어문규범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 경음화에 대한 언중의 수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 어휘의 표기 양상을 인터넷 웹 검색을 활용하여 어두 경음화 표기가 강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약화되고 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상을 계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박동근(2000)에서는 어두 경음화의 실현 정도에 따라 ‘된소리와 예사소리가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된소리로 거의 굳어진 것’으로 구분하였다. 김유권(2004)에서는 어두 경음 실현 목록을 ‘옛듣기 방식’과 ‘간접 제보 방식’으로 목록을 채록하고 이를 ‘필연성’과 ‘급진성’의 정도성으로 3등급으로 나누었다. ‘1등급’은 경음화 현상에 대한 필연적 성격의 어휘, ‘2등급’은 그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것, ‘3등급’은 우리가 따른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한명숙(2011ㄱ)에서는 240명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 방법을 통해 개별 어휘의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어두 경음화 실현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수치’라는 말을 사용하여 ‘어두 경음화 수치 1, 어두 경음화 수치 2, 어두 경음화 수치 3’으로 구분하였다. ‘어두 경음화 수치 1’은 어두 경음 실현율이 50% 이상이고 ‘어두 경음화 수치 2’는 어두 경음 실현율 10% 이상~ 50% 미만, ‘어두 경음화 수치 3’은 어두 경음 실현율이 10% 미만으로 보았다. 한명숙(2013ㄱ)에서는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는 정도를 판정하는 기제로 ① 연구자의 어두 경음화 여부에 대한 판단, ② 구어에서 실제 어두 경음화 실현 여부, ③ 어두 경음화 실현에 대한 피실험자 설문 조사, ④ 어두 경음화 표기 정도에 대한 피실험자 설문 조사, ⑤ 어두 경음화 수용에 대한 피실험자 설문 조사를 제시하였다.

4) 김유권(2004)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표기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명숙(2011ㄱ)은 KBS 뉴스 등에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표기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예를 제시했다.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높은 어휘들은 화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경음으로 발음한다. 가령 ‘(힘이)세다’의 경우는 대체로 [썰다]라고 발음한다. 발음에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발음의 결과이다. 그러나 표기에도 어두 경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말맛을 극대화하거나 글쓴이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한명숙(2011ㄴ)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표기에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받아쓰기를 하였다. 조사 방법은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높은 어휘가 포함된 각 문장을 불러주고 평상시 쓰는 대로 쓰도록 하였다.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가장 높은 어휘는 ‘쭈꾸미(90%)’와 ‘꼼장어(9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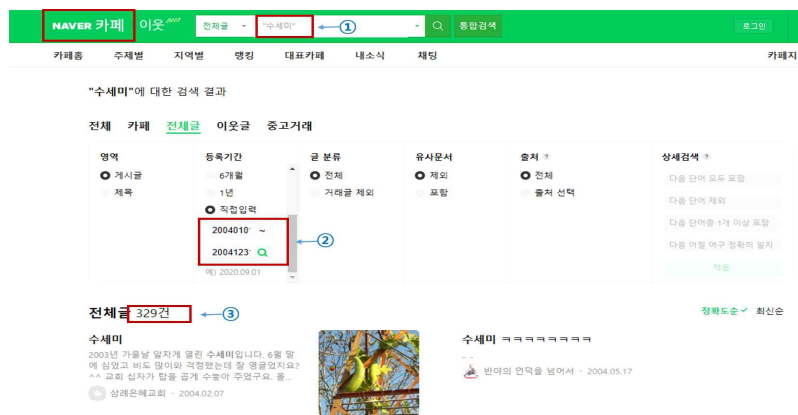
6) 한명숙(2011ㄱ)은 어두 경음화 비율을 조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수세미’는 95.8.0%, ‘힘이(세다)’는 92.9%, ‘족집게’는 88.3%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명숙(2011ㄴ)에서는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을 조사하였다. 어두 경음화 표기 비율은 ‘수세미’는 5.0%, ‘(힘이)세다’는 18.6%, ‘족집게’는 25.7%이다. 이처럼 어두 경음화 비율과 어두 경음화 표기 비율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2. 표기 실태 조사 방법

이 연구는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개별 어휘의 표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에 구축된 웹 문서를 활용하고자 한다.⁷⁾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방법은 박동근(2010), 한명숙(2014)의 방법을 따른다. 박동근(2010)에서는 웹의 언어 자원을 활용하여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어문규범 오류 실태를 계량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검색 엔진을 활용한 방법의 실효성을 논의하였다. 한명숙(2014)은 박동근(2010)의 방법을 따라 어두 경음화 표기 실태를 살폈다.

이 글에서는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실태의 변화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다.⁸⁾ 조사 어휘 목록은 한명숙(2014), 한명숙(2015)에서 제시한 어휘 48개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네이버 카페’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서 생성 기간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에 글을 쓰기 때문에 참여자의 폭이 넓다. 셋째,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중들의 자연스러운 쓰기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넷째, 한명숙(2014)에서 조사한 10년 전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어휘의 조사 방법은 표준 표기⁹⁾와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표기를 각각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하여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어휘를 검색할 때는 일치하는 어휘를 찾기 위해서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¹⁰⁾ 예를 들어 ‘수세미’를 검색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네이버 카페’에서 ‘수세미’를 검색한 결과

- 7) 한영균·이두행(2014)에서는 웹 문서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도록 정제하고 다듬어 활용할 수 있다면 자료의 부족 때문에 시도하기 어려웠던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 8) 네이버에서 카페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인 2004년부터이므로 2004년부터 검색하였다. 2022년 인터넷 트렌드(<http://internettrend.co.kr>)에 따르면 네이버(Naver)가 65.91%, 구글(Google)이 25.36%, 다음(Daum)이 3.63%, 마이크로소프트(MSbing)이 1.27%, 기타가 0.2%, 줌(Zum)이 0.14%, 나머지 항목 등으로 분포 비율을 보인다.
- 9) ‘표준어 표기’가 아닌 ‘표준 표기’라고 한 이유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도 있기 때문이다.
- 10) 큰따옴표(“ ”)는 목표 어휘를 변형 없이 입력된 순서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를 찾도록 하는 연산자이다. 큰따옴표의 사용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조사 어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주꾸미’, ‘곰장어’ 등은 큰따옴표 사용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쌍기초’의 경우 빈도 조사에 큰 차이가 있다. 당연히 큰따옴표 연산자를 사용한 빈도 결과가 정확한 수치이다. 또한 네이버 상세 검색에서도 큰따옴표가 일치하는 연산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처럼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창 ①에 “수세미”를 큰따옴표로 입력한다. 그리고 ②에 서처럼 등록 기간을 직접 입력하면 ③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04년도 ‘수세미’의 검색 결과는 329건이다.¹¹⁾ 어두 경음 표기인 “쑤세미”도 같은 방법으로 검색한다.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년 단위로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개별 어휘의 어두 경음화 표기 실태를 조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표기 변화 양상을 살핀다.¹²⁾

3. 어두 경음화 표기 변화 양상

3.1. 어두 경음화 표기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

현대국어에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표기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휘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어휘에는 ‘공돈, 썩기초, 찌린내, 꼬물’ 등이다. 언중들의 표기 습관과 표기 정서가 점점 어두 경음 표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먼저 ‘공돈’과 ‘꽁돈’의 표기 양상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공돈’과 ‘꽁돈’의 표기 변화 양상

연도	표기	공돈(空-)	%	꽁돈	%
2004		92	67.65	44	32.35
2005		83	61.03	53	38.97
2006		528	55.40	425	44.60
2007		1,340	53.26	1,176	46.74
2008		1,392	48.89	1,455	51.11
2009		1,377	45.63	1,641	54.37
2010		1,957	47.44	2,168	52.56
2011		1,345	37.19	2,272	62.81
2012		1,312	29.65	3,113	70.35
2013		1,467	26.90	3,986	73.10
2014		1,364	23.34	4,480	76.66
2015		2,928	35.70	5,273	64.30
2016		3,721	38.46	5,954	61.54
2017		9,096	56.09	7,122	43.91
2018		6,483	45.82	7,667	54.18
2019		4,328	33.63	8,541	66.37
2020		4,265	24.83	12,910	7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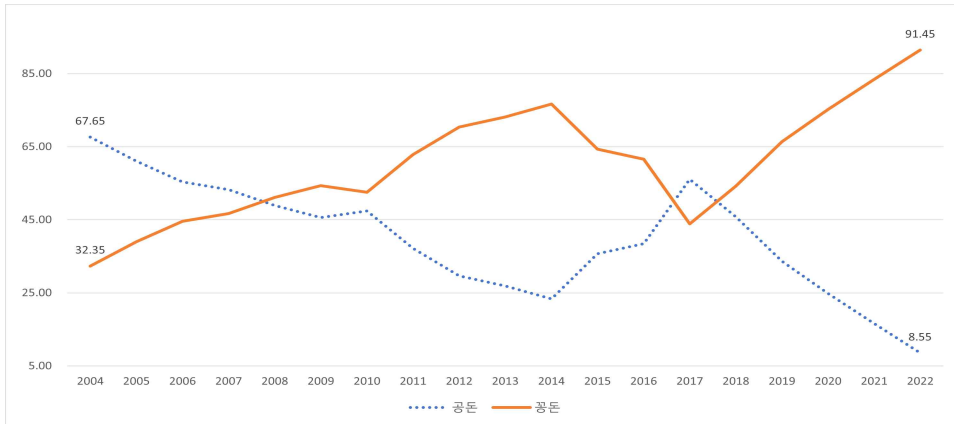
11) 여기에서 제시한 수치는 절대 출현 빈도가 아니다. 인터넷 웹 문서의 텍스트는 항상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글을 삭제하거나 혹은 카페를 폐쇄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수치는 상대적 출현 빈도이다. 따라서 검색 날짜에 따라 본고에서 제시한 수치와는 다른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12) 이 글에서는 어두 경음화의 표기 변화 양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어두 경음화는 연령, 언어 태도, 성별, 지역에 따라 경음화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변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큰 시간의 흐름에서 본다면 통시적인 변화의 한 단면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19년간의 표기 추이에 주목하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였다.

13) 한명숙(2014), 현대국어의 어두 경음화 표기 실태 연구, 겨레어문학 53, 겨레어문학회, 307쪽.

연도 \ 표기	공돈(空-)	%	꽁돈	%
2021	2,959	16.56	14,912	83.44
2022	2,590	8.55	27,697	91.45

‘공돈’과 ‘꽁돈’의 표기 비율을 보면 어두 경음 표기인 ‘공돈’의 표기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표준 표기인 ‘공돈’은 2004년에 67.65%에서 2022년에는 8.55%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어두 경음 표기인 ‘꽁돈’은 2004년에 32.35%에서 2022년에는 91.45%로 표기 비율이 높아졌다. ‘공돈’의 평균 표기 비율은 39.79%이고 ‘꽁돈’의 평균 표기 비율은 60.21%로 어두 경음 비율이 높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공돈’의 표기 비율은 2014년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7년 이후에는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어두 경음 표기인 ‘꽁돈’이 언중들에게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공돈’과 ‘꽁돈’의 표기 선호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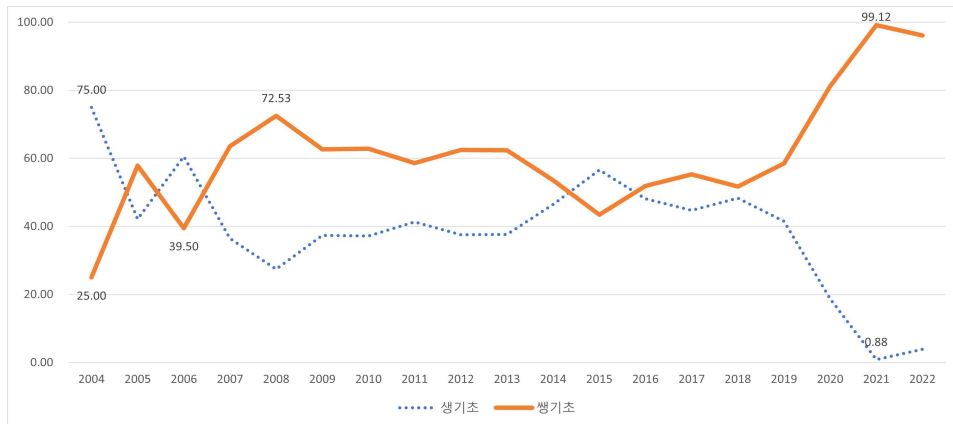
<표 2>를 보면 2004년에 ‘생기초’의 표기 비율은 75.00%였고, 2022년에 3.93%로 줄었다. 표준 표기인 ‘생기초’의 표기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어두 경음 표기인 ‘쌍기초’의 표기 비율은 2004년에 25.00%에서 2022년에 96.07%로 늘었다. 점차 ‘쌍기초’의 표기 비율이 증가하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쌍기초’의 표기 비율이 99.12%, 96.07로 90%가 넘었다.

<표 2> ‘생기초’와 ‘쌍기초’의 표기 변화 양상

연도 \ 표기	생기초(生基礎)	%	쌍기초	%
2004	6	75.00	2	25.00
2005	8	42.11	11	57.89
2006	72	60.50	47	39.50
2007	101	36.46	176	63.54
2008	128	27.47	338	72.53
2009	190	37.33	319	62.67
2010	249	37.16	421	62.84
2011	311	41.36	441	58.64
2012	246	37.56	409	62.44
2013	322	37.62	534	62.38

연도	표기	생기초(生基礎)	%	쌍기초	%
2014		434	46.42	501	53.58
2015		422	56.57	324	43.43
2016		421	48.11	454	51.89
2017		463	44.73	572	55.27
2018		607	48.29	650	51.71
2019		645	41.51	909	58.49
2020		951	18.74	4,125	81.26
2021		844	0.88	95,295	99.12
2022		1,085	3.93	26,558	96.07

<그림 3>을 보면 어두 경음 표기인 ‘쌍기초’가 2006년에 39.50%에서 2008년에 72.5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급격히 ‘쌍기초’ 표기 비율이 80~90%대로 높아졌다.¹⁴⁾ 이는 언중들이 ‘쌍기초’의 표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쌍기초’는 접두사 ‘생(生)-’에 ‘기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사전에 없는 말이다. 아직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어두 경음 표기인 ‘쌍기초’의 표기를 언중들이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으며 친숙한 표기처럼 보인다.



<그림 3> ‘쌍기초’와 ‘생기초’의 표기 선호도 변화 추이

3.2. 어두 경음화 표기 빈도가 낮아지는 경우

한국어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은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가마귀>까마귀’, ‘꽃>꼇’, ‘불휘>뿌리’와 같은 역사적으로 어두 경음화가 완성된 예이다. 또한 인간 사회생활의 복잡함에 따라 언어도 강한 발음을 하는 예들이 그렇다. 가령 ‘번데기’를 [뽀데기], ‘베끼다’를 [뽀끼다], ‘건수’를 [깐수]처럼 발음하는 경우이다. 어두 경음화 현상은 경음이 아닌 쪽에서 경음으로 바뀌어 온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어두 경음은 표현의 강화에 쓰인다. 발음에서 시작된 것이 표기에도 확산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표기가 점차 줄어드는 어휘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어

14) 어두 경음 표기인 ‘쌍기초’가 쓰이는 예를 보면 ‘쌍기초 교재 무료 나눔, 주식 쌍기초, 쌍기초 무료 특강, 쌍기초 영문법, 수능 쌍기초반’ 등이다. 신문 기사 헤드라인에서도 ‘쌍기초’의 표기가 쓰일 정도로 언중들에게 용인된 표기라 볼 수 있다.

휘는 ‘잘렸다(잘렸어), 쪽집게’ 등이다. 먼저 ‘잘렸어’와 ‘잘렸어’의 표기 변화 양상을 보면 <표 3>과 같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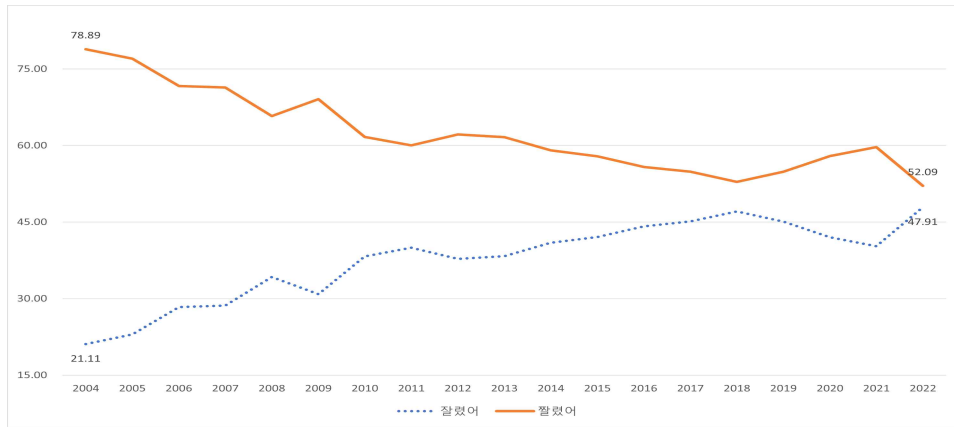
<표 3> ‘잘렸어’와 ‘잘렸어’의 표기 변화 양상

연도	표기	잘렸어	%	잘렸어	%
2004		19	21.11	71	78.89
2005		20	22.99	67	77.01
2006		214	28.34	541	71.66
2007		513	28.63	1,279	71.37
2008		654	34.24	1,256	65.76
2009		663	30.89	1,483	69.11
2010		794	38.30	1,279	61.70
2011		793	39.97	1,191	60.03
2012		784	37.80	1,290	62.20
2013		816	38.35	1,312	61.65
2014		806	40.96	1,162	59.04
2015		817	42.09	1,124	57.91
2016		823	44.18	1,040	55.82
2017		864	45.14	1,050	54.86
2018		945	47.11	1,061	52.89
2019		1,037	45.11	1,262	54.89
2020		1,518	42.04	2,093	57.96
2021		1,371	40.30	2,031	59.70
2022		1,168	47.91	1,270	52.09

<표 3>을 보면 2004년에 ‘잘렸어’의 표기 비율이 21.11%였던 것이 2022년에는 47.91%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잘렸어’로 표기한 비율은 2004년에 78.89%에서 2022년에는 52.09%로 줄었다. <그림 4>에서도 보듯이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잘렸어’의 표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을 보인다. ‘잘렸어’의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파면당하다’를 의미한다. 어두 경음화는 일정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¹⁶⁾ 어두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이 원래 표준 표기의 의미보다 부정의 의미가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 표준 표기인 ‘잘렸어’보다는 어두 경음 표기인 ‘잘렸어’가 훨씬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화된다.

15) 한명숙(2014)에 따르면 ‘잘리다/잘리다’는 표준 표기와 어두 경음화 표기가 비슷한 경우로 나왔다. 그 결과는 2004년부터 2013년의 표기 결과였다. 이 글에서는 ‘잘렸어/잘렸어’의 형태로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잘리다/잘리다’의 형태보다 ‘잘렸어/잘렸어’의 활용형 표기가 더 많은 사용 빈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16) 어두 경음화의 기능에 대한 앞선 논의로는 박동근(2000), 한명숙(2013년, 2015)가 있다. 박동근(2000)에서는 어두 경음의 의미 기능으로 ‘강조’, ‘비하 또는 부정’, ‘새로운 의미 획득’을 제시하였다. 한명숙(2013년)에서는 한국어 용언의 어두 경음화 기능으로 ‘의미 기능’, ‘표현 효과의 기능’, ‘어휘화 판단 기능’을 논하였다. 한명숙(2015)에서는 한자어 어두 경음화의 기능으로 의미 기능과 표현 효과의 기능 언급하였다. 그리고 의미 기능을 강조의 의미, 부정의 의미, 비속의 의미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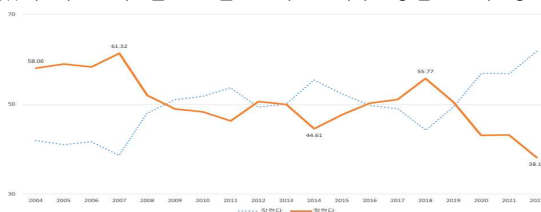
<그림 4> '잘렸어'와 '잘렸어'의 표기 선호도 변화 추이¹⁷⁾

<표 4>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족집게'와 '족집게'의 표기 변화 양상이다.¹⁸⁾ 연도별로 보면 '족집게'의 경우는 2011년에 34.1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008년에 67.27%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족집게'의 경우는 2008년에 32.7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011년에는 6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족집게'와 '족집게'의 표기 변화 양상

연도	표기	족집게	%	족집게	%
2004		137	53.94	117	46.06
2005		144	54.34	121	45.66
2006		618	47.14	693	52.86
2007		1,298	45.31	1,567	54.69
2008		4,536	67.27	2,207	32.73
2009		2,307	46.79	2,624	53.21
2010		2,625	46.63	3,005	53.37
2011		2,100	34.17	4,046	65.83
2012		2,835	41.83	3,942	58.17
2013		2,476	43.77	3,181	56.23
2014		3,534	50.44	3,473	49.56
2015		3,149	42.88	4,194	57.12
2016		3,673	43.32	4,805	56.68
2017		3,996	44.67	4,949	55.33
2018		8,341	57.46	6,175	4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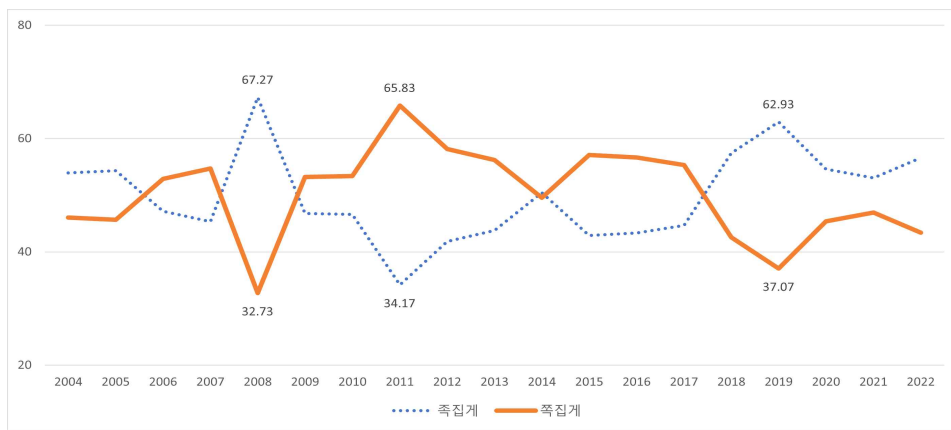
17) 본고에서는 활용 형태인 '잘렸어'와 '잘렸어'의 표기 양상을 제시하였다. 원형 형태인 '잘렸다'와 '잘렸다'의 표기 선호도를 보아도 어두 경음 표기 형태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18) 한명숙(2011)에서는 24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 방법을 통해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족집게'를 '족집게'로 발음하는 비율이 88.3%였다.

연도	표기	족집계	%	족집계	%
2019		15,553	62.93	9,161	37.07
2020		10,760	54.62	8,940	45.38
2021		9,503	53.07	8,404	46.93
2022		11,957	56.61	9,164	43.39

<표 4>에서 제시한 표기 비율만 보면 ‘족집계’와 ‘족집계’의 비율이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를 그래프로 보면 표기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족집계’의 표기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상승하는 구간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경음 표기가 약화되고 있다.



<그림 5> ‘족집계’와 ‘족집계’의 표기 선호도 변화 추이

3.3. 어두 경음화 표기 빈도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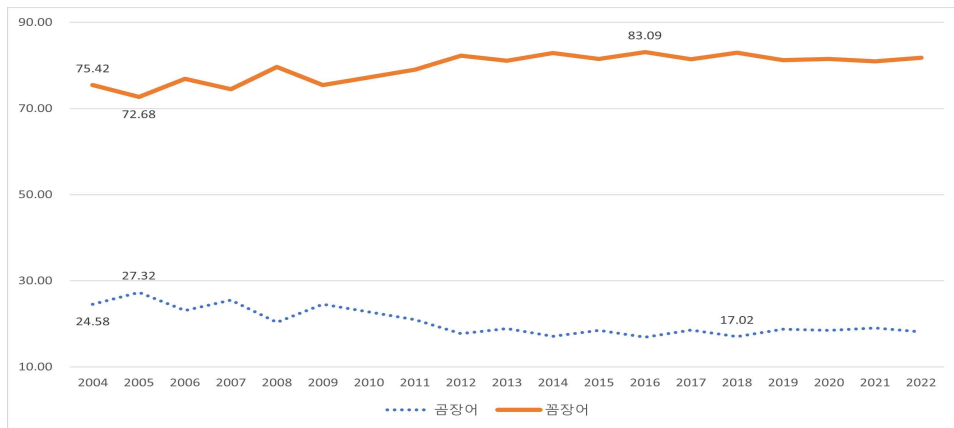
2004년부터 2022년까지 표기 실태를 살펴보면, 어두 경음화 표기의 빈도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대체로 어두 경음 표기가 훨씬 우세한 어휘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곰장어, 썩맥, 주꾸미’로 항상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규범을 따지면 ‘곰장어, 속맥, 주꾸미’가 바른 표기이고 ‘곰장어, 썩맥, 주꾸미’는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형태로 비표준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표준 형태인 어두 경음 표기를 언중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이다. 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표기까지 어두 경음이 실현된 것은 언중들에게는 표준 표기 형태보다 이미 어두 경음 형태가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곰장어’와 ‘곰장어’의 표기 변화 양상을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곰장어’와 ‘곰장어’의 표기 변화 양상

연도	표기	곰장어	%	곰장어	%
2004		74	24.58	227	75.42
2005		56	27.32	149	72.68
2006		188	23.10	626	76.90
2007		422	25.54	1,230	74.46
2008		386	20.38	1,508	79.62

연도	표기	곰장어	%	꼼장어	%
2009		527	24.57	1,618	75.43
2010		738	22.73	2,509	77.27
2011		710	21.00	2,671	79.00
2012		723	17.70	3,361	82.30
2013		943	18.88	4,051	81.12
2014		995	17.08	4,831	82.92
2015		1,014	18.51	4,465	81.49
2016		963	16.91	4,731	83.09
2017		1,017	18.53	4,471	81.47
2018		1,117	17.02	5,445	82.98
2019		1,721	18.79	7,439	81.21
2020		1,866	18.50	8,219	81.50
2021		1,768	19.03	7,521	80.97
2022		1,688	18.18	7,598	81.82

<표 5>를 보면 ‘곰장어’와 ‘꼼장어’의 경우도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어두 경음 표기인 ‘꼼장어’의 표기 비율이 항상 높다. 2004년에 ‘곰장어’로 표기한 비율이 24.58%였던 것이 2022년에는 18.18%로 줄었다. 표준 표기인 ‘곰장어’는 조금씩 내려가는 추이를 보인다. 반면에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표기인 ‘꼼장어’의 경우는 2004년에 75.42%였던 것이 2022년에는 81.82%로 증가하였다. ‘꼼장어’의 사용 빈도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언중들에게는 ‘곰장어’보다 ‘꼼장어’의 표기가 더 친숙하고 ‘꼼장어’를 표준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곰장어’와 ‘꼼장어’의 표기 선호도 변화 추이

<그림 6>을 보면 어두 경음 표기인 ‘꼼장어’의 표기 비율은 등락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어두 경음 표기 ‘꼼장어’의 최소 표기 비율은 2005년에 72.68%이고 어두 경음 표기 ‘꼼장어’의 최대 표기 비율은 2016년에 83.09%이다. ‘꼼장어’의 표기 비율은 72%~83%를 유지하고 있다.¹⁹⁾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언중들에게 표준 표기인 ‘곰장어’가 어두 경음 ‘꼼장어’로 굳어진 것은 2004년 이전으로 보인다. <그림 6>에서

19) 20% 내외의 표준 표기인 ‘꼼장어’가 나타나는 것은 뉴스, 기사 등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되어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듯이 어두 경음 ‘꼼장어’의 표기 비율은 2004년에도 75%가 넘는다.

‘꼼장어’보다는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은 낮지만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일정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쓱맥’이다. <표 6>은 ‘숙맥’과 ‘쓱맥’의 19년간 표기 변화 양상이다.

<표 6> ‘숙맥’과 ‘쓱맥’의 표기 변화 양상

연도	표기	숙맥(菽麥)	%	쓱맥	%
2004		41	35.34	75	64.66
2005		43	31.16	95	68.84
2006		159	29.34	383	70.66
2007		350	32.26	735	67.74
2008		381	33.78	747	66.22
2009		471	34.97	876	65.03
2010		471	32.71	969	67.29
2011		396	30.87	887	69.13
2012		448	31.18	989	68.82
2013		430	35.27	789	64.73
2014		319	30.56	725	69.44
2015		277	28.38	699	71.62
2016		272	32.30	570	67.70
2017		207	32.09	438	67.91
2018		256	35.36	468	64.64
2019		258	30.71	582	69.29
2020		263	28.59	657	71.41
2021		265	30.67	599	69.33
2022		294	26.82	802	7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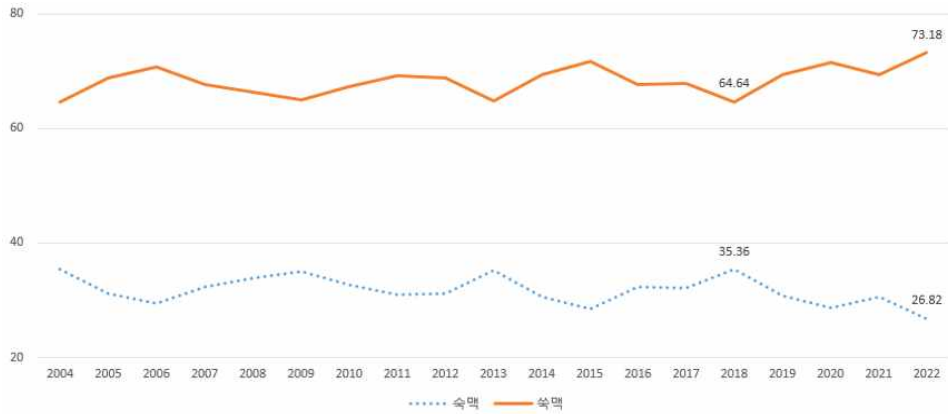
<표 6>을 보면 2004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어두 경음 표기인 ‘쓱맥’의 빈도수가 더 높다. 표준 표기인 ‘숙맥’을 보면 2004년에 35.34% 표기율을 보였고 2022년에는 26.82%로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35.36%로 ‘숙맥’으로 표기한 최대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에 어두 경음 표기인 ‘쓱맥’은 2004년에 64.66%였던 것이 2022년에는 73.18%로 증가하였다. 표준 표기인 ‘숙맥’에 비해 어두 경음 표기인 ‘쓱맥’을 점차 더 많이 쓰고 있다.²⁰⁾

주목할 점은 ‘숙맥(菽麥)’이 한자어라는 사실이다. 보통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는 고유어에 비해 잘 나타나지 않는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 경음 표기인 ‘쓱맥’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언중들의 무의식 속에는 어두 경음 표기인 ‘쓱맥’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중들이 ‘숙맥’을 한자어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림 7>에서 보듯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어두 경음 표기

20) 한명숙(2015)에서는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어두 경음화 실현에 대한 정도성을 조사하였다. ‘숙맥’을 어두 경음형인 ‘쓱맥’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1%가 나왔다. ‘숙맥’은 어두 경음화 실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어두 경음 표기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김성규 외(2012:161)에서는 어두 경음화 정도가 높을 때 이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21) 현대국어에서 관찰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주로 고유어에서 나타난다. 박동근(2000)에서는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를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김유권(2004), 한명숙(2011)에서도 어두 경음화 현상이 주로 고유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가 고유어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한자어의 경우 본음이 경음으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자어 중에서 경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끼(喫), 씨(氏), 쌍(雙)’뿐이다.

인 ‘쑥맥’의 사용 빈도가 높고 60%~70%의 표기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림 7> ‘숙맥’과 ‘쑥맥’의 표기 선호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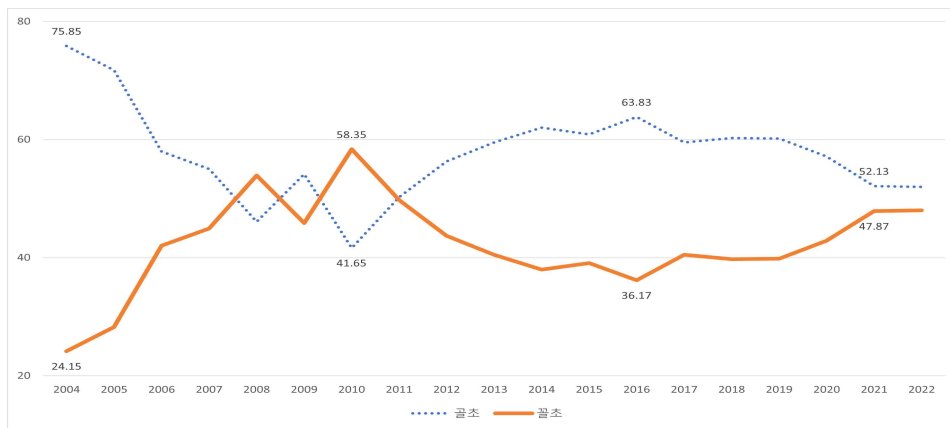
3.4. 어두 경음화 표기 빈도의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어두 경음 표기 비율에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꿀초, 쌍판, 쫄병’ 등이다. 이들 어휘는 어떤 시점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어휘가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급작스럽게 증가하거나 혹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먼저 ‘꿀초’와 ‘쫄초’의 양상을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꿀초’와 ‘쫄초’의 표기 변화 양상

연도	표기	꿀초	%	쫄초	%
2004		179	75.85	57	24.15
2005		132	71.74	52	28.26
2006		473	57.97	343	42.03
2007		1,207	55.04	986	44.96
2008		1,294	46.08	1,514	53.92
2009		1,369	54.13	1,160	45.87
2010		1,441	41.65	2,019	58.35
2011		1,210	50.25	1,198	49.75
2012		1,250	56.28	971	43.72
2013		1,215	59.50	827	40.50
2014		1,221	62.01	748	37.99
2015		1,182	60.90	759	39.10
2016		909	63.83	515	36.17
2017		709	59.53	482	40.47
2018		751	60.27	495	39.73
2019		1,131	60.16	749	39.84
2020		1,438	57.13	1,079	42.87
2021		1,858	52.13	1,706	47.87
2022		1,383	51.99	1,277	48.01

<표 7>을 보면 표준 표기인 ‘골초’는 2004년에 75.85%였고 2022년에는 51.99%로 줄어 들었다. 반면에 어두 경음 표기인 ‘꼰초’는 2004년에 24.15%의 표기율을 보였고 2022년에는 48.01%의 표기율이었다. 표기 비율만 보면 어두 경음 표기인 ‘꼰초’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림 8>을 보면 ‘꼰초’의 양상이 증가하는 추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양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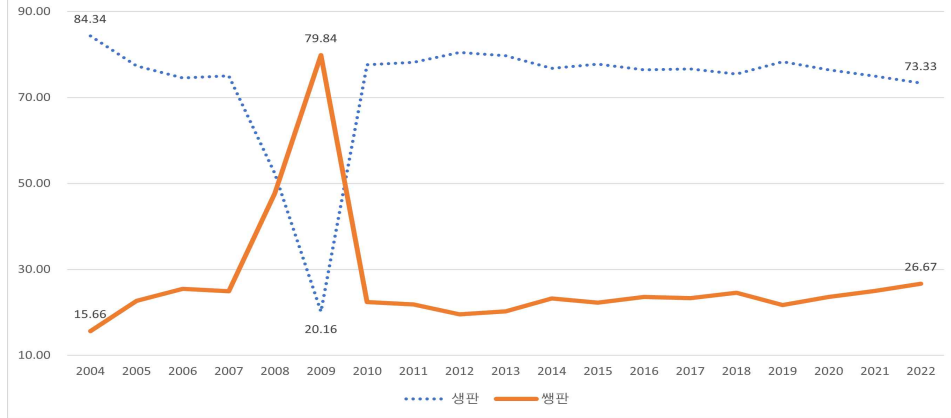
<그림 8> ‘골초’와 ‘꼰초’의 표기 선호도 변화 추이

<그림 8>을 보면 어두 경음 표기인 ‘꼰초’의 표기 비율은 2004년에 24.15%였고 2010년에는 58.3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어두 경음 표기인 ‘꼰초’의 표기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2016년에는 ‘꼰초’의 표기 비율이 36.17%로 떨어졌다. 그 이후 2021년에는 47.87%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어두 경음 표기인 ‘꼰초’는 어두 경음 표기가 증가하는 추세와 약화하는 모습이 모두 나타났다.

<표 8> ‘생판’과 ‘쌍판’의 표기 변화 양상

연도	표기	생판	%	쌍판	%
2004		210	84.34	39	15.66
2005		201	77.31	59	22.69
2006		1,155	74.52	395	25.48
2007		2,555	75.06	849	24.94
2008		2,830	52.28	2,583	47.72
2009		3,114	20.16	12,334	79.84
2010		3,405	77.62	982	22.38
2011		3,154	78.15	882	21.85
2012		3,145	80.48	763	19.52
2013		2,661	79.74	676	20.26
2014		2,812	76.79	850	23.21
2015		2,791	77.77	798	22.23
2016		2,517	76.41	777	23.59
2017		2,635	76.67	802	23.33
2018		2,833	75.47	921	24.53
2019		4,064	78.29	1,127	21.71
2020		4,617	76.40	1,426	23.60

연도	표기	생판	%	쌍판	%
2021		4,647	74.99	1,550	25.01
2022		4,455	73.33	1,620	26.67



<그림 9> '생판'과 '쌍판'의 표기 선호도 변화 추이

<표 8>과 <그림 9>를 보면 어두 경음 표기인 '생판'은 2004년에 15.66%였고 2009년에는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79.84%로 최대 경음 표기 비율을 보였다. 특히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어두 경음 표기 '쌍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특정한 단기간에 어휘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²²⁾ 그 해에 어떠한 사건이나 유행어 등 일시에 많이 쓰이는 특정 어형의 빈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어두 경음 표기인 '쌍판'의 표기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 어두 경음화 표기의 방향성

4.1. 개별 어휘의 경음 표기의 일반적인 경향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간의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개별 어휘의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각 어휘의 경음 표기 비율의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은 <표 9>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표 9> '꼬물'의 표기 변화 양상

연도	표기	꼬물	%
2004		270	30.41
2005		284	26.42
2006		1,354	27.55
2007		3,914	28.05

22)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언어 연구의 단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보다 어두 경음 표기의 경향을 연구하는 방법론상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연도	표기	꼬물	%
2008		4,304	30.25
2009		6,025	37.69
2010		6,734	36.31
2011		7,150	34.23
2012		8,368	39.40
2013		7,751	44.52
			33.48
2014		8,895	45.81
2015		9,293	38.59
2016		8,954	35.43
2017		9,845	39.70
2018		9,964	39.81
2019		13,194	40.52
2020		15,973	37.86
2021		18,078	46.76
2022		14,108	40.11
			40.51

<표 9>는 어두 경음 ‘꼬물’의 표기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어두 경음화 표기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어두 경음 표기 평균값은 33.48%이다.²³⁾ 그리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꼬물’의 경음 표기 비율의 평균값은 40.51%이다. 그리고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의 편차를 구한다. 2004년부터 2013년의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33.48%에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40.51%로 7.03%로 늘었다. ‘꼬물’의 경음 표기 양상은 늘어난 것으로 본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꼬물’의 어두 경음 표기 평균값

어두 경음 표기	2004-2013년	2014-2022년	편차	경음 표기 방향
꼬물	33.48	40.51	+7.03	↑

이 글에서는 48개 어휘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 3개 어휘는 동음이의어가 있어서 제외하였다. 총 45개 어휘의 표기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늘어난 것은 ‘↑’로,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줄어든 것은 ‘↓’로 표시하였다. 특히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5% 이상 늘어난 경우는 ‘▲’, 5% 이상 줄어든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변화가 없는 경우는 ‘~’로 하였다.

<표 11> 개별 어휘의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의 평균값과 경음 표기 방향

어두 경음 표기	2004-2013년	2014-2022년	편차	경음 표기 방향
깜방	16.78	16.79	+0.01	↑

23) 각 개별 어휘의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2013년, 2014년부터 2022년으로 나누어 살폈다. 그 이유는 한명숙(2014)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한명숙(2014)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어두 경음 표기 변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물론 그때 제시되지 않은 어휘들도 본고에서는 조사하였다.

어두 경음 표기	2004-2013년	2014-2022년	편차	경음 표기 방향
견수	3.11	1.03	-2.08	↓
계속	0.08	0.02	-0.06	↓
꼬물	33.48	40.51	+7.03	↑
꼴초	43.15	41.34	-1.81	↓
꼼장어	77.42	81.94	+4.52	↑
콩돈	52.70	68.56	+15.86	↑
콩짜	10.31	6.48	-3.83	↓
파사무실	1.01	0.16	-0.85	↓
편투	0.08	0.06	-0.02	↓
뿐때	4.63	3.99	-0.64	↓
싸나이	8.73	10.74	+2.01	↑
싸모님	4.55	2.23	-2.32	↓
싸부	7.37	4.38	-2.99	↓
싸이비	3.08	1.07	-2.01	↓
쌩고쌩 ²⁴⁾	26.08	27.24	+1.16	↑
쌩고집	31.50	32.15	+0.65	↑
쌩기초	56.74	65.65	+8.91	↑
쌩난리	32.66	41.95	+9.29	↑
쌩떼	13.70	12.59	-1.11	↓
쌩맥주	0.56	0.38	-0.18	↓
쌩머리	1.03	1.03	0	~
쌩소리	20.75	22.33	+1.58	↑
쌩얼	59.99	64.86	+4.87	↑
쌩으로	8.91	15.42	+6.51	↑
쌩초보	36.84	37.37	+0.53	↑
쌩판	30.03	23.76	+6.27	↑
쌩런	0.33	0.24	-0.09	↓
쏘주	6.01	5.37	-0.64	↓
쑤세미	3.57	1.85	-1.72	↓
쑤맥	67.19	69.30	+2.11	↑
짜잘하다	9.69	9.55	-0.14	↓
짜투리	42.05	40.20	-1.85	↓
짜대기	31.85	28.51	-3.34	↓
짤렸어	67.94	56.13	-11.81	↓
짱아찌	18.91	23.72	+4.81	↑
쩌번	0.19	0.05	-0.14	↓
쩌일	0.04	0.01	-0.03	↓
쪽두리	12.44	11.57	-0.87	↓
쪽집게	51.88	48.22	-3.66	↓
쫄병	64.19	67.64	+3.45	↑
쫄꾸미	87.84	86.96	-0.88	↓
쫄국	0.06	0.05	-0.01	↓
찌린내	46.33	59.90	+13.57	↑
찢하다	6.42	8.02	+1.6	↑

24) 조사 어휘 중 12개는 접두사 ‘쌩(生-)’이 결합한 단어이다. 동일한 접두사가 결합하는 다수의 단어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쌩(生-)’이 접두사로서 기능하면서 많은 어휘를 생산하고 그것이 어휘에 따라 다른 표기 양상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시켰다. <표 13>에서 보듯이 ‘쌩기초, 쌩난리, 쌩판’은 평균 경음 표기 비율의 차이가 5% 이상으로 늘어났다. 반면에 ‘쌩떼, 쌩맥주’는 어두 경음 평균 표기 비율이 줄어든 형태이다. 같은 ‘쌩

<표 11>을 보면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늘어난 어휘는 19개,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줄어든 어휘는 25개이다. 그리고 변화가 없는 어휘는 1개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늘어난 어휘 : 감방, 꼬물, 곰장어, 콩돈, 싸나이, 썩고생, 썩고집, 썩기초, 썩난리, 썩소리, 썩얼, 썩으로, 썩초보, 썩판, 썩맥, 썩아찌, 썩병, 썩린내, 썩하다

(2)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줄어든 어휘 : 견수, 께속, 꼴초, 콩짜, 파사무실, 편투, 뽀뽀, 싸모님, 싸부, 싸이비, 썩뽀, 썩맥주, 썩런, 썩주, 썩세미, 썩잘하다, 썩투리, 썩대기, 썩렸어, 썩번, 썩일, 썩두리, 썩집게, 썩구미, 썩국

(3)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변화가 없는 어휘 : 썩머리

(1)-(3)의 결과를 보면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줄어든 어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차의 비율이 어휘마다 다르고 편차의 비율이 1% 미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두 경음화 어휘의 방향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40% 이상인 어휘만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2.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방향성

<표 12>에서 제시한 어휘들은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40%가 넘는 어휘들이다. 이들 어휘는 실제 발음에서도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높게 나타나고 표기에서도 어두 경음 표기가 나타난다.²⁵⁾ 특히 ‘썩구미’와 ‘곰장어’의 경우는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70%가 넘는다. 표준 표기인 ‘썩구미’와 ‘곰장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썩구미’의 경우는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87.40%이고 ‘곰장어’는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79.68%이다. ‘썩구미’와 ‘곰장어’는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은 70%가 넘지만 경음 표기 방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표 12>를 보면 ‘썩구미’는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줄어들었고, ‘곰장어’는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40% 이상인 어휘

어두 경음 표기	2004-2013년	2014-2022년	편차	경음 표기 방향
썩구미	87.84	86.96	-0.88	↓
곰장어	77.42	81.94	+4.52	↑
썩맥	67.19	69.30	+2.11	↑
콩돈	52.70	68.56	+15.86	↑
썩병	64.19	67.64	+3.45	↑
썩기초	56.74	65.65	+8.91	↑

(生)-’이 결합한다고 해도 어휘마다 양상은 다르다.

25) 한명숙(2015)에서는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썩병(卒兵)’을 ‘썩병’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93%, ‘썩맥(菽麥)’을 ‘썩맥’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91%, ‘공돈(空-)’을 ‘공-’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87%로 나왔다

어두 경음 표기	2004-2013년	2014-2022년	편차	경음 표기 방향
쌍얼	59.99	64.86	+4.87	↑
찌린내	46.33	59.90	+13.57	↑
짤렸어	67.94	56.13	-11.81	↓
쪽집게	51.88	48.22	-3.66	↓
쌍난리	32.66	41.95	+9.29	↑
꼴초	43.15	41.34	-1.81	↓
꼬물	33.48	40.51	+7.03	↑
짜투리	42.05	40.20	-1.85	↓

<표 12>를 보면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늘어난 어휘는 9개이다.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곰장어, 썩맥, 콩돈, 쫄병, 쌍기초, 쌍얼, 찌린내, 쌍난리, 꼬물’이다. 반면에 어두 경음 표기 평균 비율이 줄어든 어휘는 5개로 ‘쭈꾸미, 짤렸어, 쪽집게, 꼴초, 짜투리’이다. 한명숙(2014)에서는 표준 표기와 어두 경음 표기 실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곰장어, 썩맥’은 어두 경음 표기가 굳어진 것으로 나왔다. 10년 전에는 어두 경음 표기가 굳어진 것으로, 그 이후에는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들 어휘는 언중들에게 어두 경음 표기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두 경음 표기인 ‘곰장어, 썩맥’은 무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표기로 이미 언중들은 ‘곰장어, 썩맥’을 표준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표준 표기인 ‘곰장어, 썩맥’보다 어두 경음 표기인 ‘곰장어, 썩맥’을 언중들이 수용하기에 더 익숙한 표기이다.²⁶⁾

어두 경음의 표기 변화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표 12>를 다시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어두 경음 표기 방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휘는 ‘콩돈, 찌린내, 쌍난리, 쌍기초, 꼬물, 쌍얼, 곰장어, 쫄병, 썩맥’이다. 이들 어휘의 경음 증가 비율을 보면 ‘콩돈’은 15.86%, ‘찌린내’는 13.57%, ‘쌍난리’는 9.29%, ‘쌍기초’는 8.91%, ‘꼬물’은 7.03%, ‘쌍얼’은 4.87%, ‘곰장어’는 4.52%, ‘쫄병’은 3.45%, ‘썩맥’은 2.11%이다. 특히 ‘콩돈’과 ‘찌린내’는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10%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에 ‘짤렸어, 쪽집게, 짜투리, 꼴초, 쭈꾸미’는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줄어든 어휘이다. ‘짤렸어’는 11.81%, ‘쪽집게’는 3.66%, ‘짜투리’는 1.85%, ‘꼴초’는 1.81%, ‘쭈꾸미’는 0.88%로 감소하였다. ‘짤렸어’의 경우는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10% 이상 줄었다.

<표 13> 개별 어휘의 어두 경음 표기 방향

어두 경음 표기	2004-2013년	2014-2022년	편차	경음 표기 방향
콩돈	52.70	68.56	+15.86	↑
찌린내	46.33	59.90	+13.57	↑
쌍난리	32.66	41.95	+9.29	↑
쌍기초	56.74	65.65	+8.91	↑
꼬물	33.48	40.51	+7.03	↑

26) 어두 경음화는 1차적으로 발음을 전제로 한다. 발음이 표기에도 확산되어 표준어의 지위를 얻은 어휘가 있다. 바로 ‘짜장면’이다. 2011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자장면’이 표준어였다. 그러나 ‘자장면’을 /자장면/으로 발음하는 것은 언중들의 정서에 맞지 않았다. 이에 ‘자장면’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짜장면’까지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효과’와 ‘김밥’의 표준 발음도 /효과/와 /김밥/의 어중 평음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였지만 언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어중 경음 발음인 /효과/, /김빡/도 인정하였다. ‘곰장어, 쭈꾸미, 썩맥’도 ‘짜장면, 효과, 김밥’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복수 표준어 혹은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두 경음 표기	2004-2013년	2014-2022년	편차	경음 표기 방향
쌍얼	59.99	64.86	+4.87	↑
꼼장어	77.42	81.94	+4.52	↑
쫄병	64.19	67.64	+3.45	↑
쑥맥	67.19	69.30	+2.11	↑
짤렸어	67.94	56.13	-11.81	↓
쪽집게	51.88	48.22	-3.66	↓
짜투리	42.05	40.20	-1.85	↓
꼴초	43.15	41.34	-1.81	↓
쭈꾸미	87.84	86.96	-0.88	↓

한명숙(2014)에서도 ‘찌린내, 쌍기초, 꼬물’은 어두 경음 표기가 증가하는 어휘였다. <표 13>에서도 이들 어휘는 어두 경음 표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표기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또한 ‘쌍얼, 쫄병’은 어두 경음화 표기가 우세한 어휘였다. <표 13>에서도 ‘쌍얼, 쫄병’은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쌍얼, 쫄병’도 어두 경음 표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명숙(2014)에 따르면 ‘잘리다/짤리다’의 경우는 표준 표기와 어두 경음화 표기가 비슷한 경우였다. 그러나 현재 ‘짤렸어’는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어두 경음화 표기가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다.²⁷⁾ ‘쪽집게’는 10년 전에는 어두 경음화 표기가 우세한 어휘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쪽집게’의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줄어들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두 경음 표기의 변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²⁸⁾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간 표기 비율을 각 개별 어휘별로 살펴보았다.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늘어난 어휘도 있고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줄어든 어휘도 있다. 실제 어두 경음화 실현율과 어두 경음화 표기율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 경음으로 표기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언중들에게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분명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표기는 비규범 표기이다. 그런데 언어 생활의 주체자가 어두 경음 표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개별 어휘의 표기 실태를 조사하여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웹 검색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두 경음화 표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어두 경음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는 현실은 대체로 어문규범에 어긋난 것으로만 치부하였

27) 한명숙·박동근(2012)에서는 어중 경음화 약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경음화 현상은 강화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실 언어에서 어중 경음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어휘들이 있다. 이를 위해 규범 사전에서 경음으로 발음이 표시되어 있는 어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또한 10개의 사전을 대상으로 발음 표기를 비교하였다.

28) 강희숙(2001)에서는 구개음화와 어두 경음화를 대상으로 언어의 변화와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었다. 특히 어두 경음화의 쇠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물론 어두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모든 어휘에 대해서 논한 것이 아니라 광주 방언을 중심으로 어휘를 제시하였다. 또한 어두 경음화 역시 쇠퇴의 방향으로 언어 변화를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어두 경음화가 표기에도 반영되는 현실을 단순히 어문규범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 표기에도 확산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각 개별 어휘의 어두 경음화 표기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두 경음화 표기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어휘에는 ‘꽁돈, 썩기초, 찌린내, 꼬물’ 등이다. 둘째, 어두 경음화 표기 빈도가 낮아지는 경우로 ‘짤렸어, 쪽집게’ 등이 있다. 셋째, 어두 경음화 표기 빈도 변화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꼼장어, 쭈꾸미, 쓱맥’이다. 넷째, 어두 경음화 표기 빈도의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로 ‘꼴초, 썩판, 쫄병’ 등이 해당한다. 다섯째,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어두 경음 표기 방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휘는 ‘꽁돈, 찌린내, 썩난리, 썩기초, 꼬물, 썩얼, 꼼장어, 쫄병, 쓱맥’이다. ‘짤렸어, 쪽집게, 짜투리, 꼴초, 쭈꾸미’는 어두 경음 표기 방향이 줄어드는 어휘이다.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는 측면에서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만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표기의 변화가 경음화 쪽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어두 경음화의 특성 중 하나인 개별성을 반영하여 각 어휘의 표기 빈도를 명확한 수치를 통해 살폈다. 다만 모든 어휘를 대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 참고문헌

- 강희숙(2001), 언어의 변화와 보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어문학』 47, 한국어문학회, 537-564쪽
- 김성규 외(2012),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 김유권(2004),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겨레어문학』 32, 겨레어문학회, 1-23쪽.
- 박동근(2000), 말머리에 나타나는 이유 없는 된소리 현상 연구, 『언어학』 27, 한국언어학회, 179-200쪽.
- 박동근(2012), 웹 검색 엔진을 활용한 어문규범 오류 실태의 계량적 추출 방법, 『언어과학연구』 63, 언어과학회, 145-170쪽.
- 박동근(2014), 웹 검색 엔진을 이용한 맞춤법 오류의 변화 양상 연구, 『문법교육』 21, 한국문법교육학회, 67-93쪽.
- 박종관(2021), 비규범 표기 분석을 통한 표기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혜진·이혁화(2010), 대구 지역 어두 경음화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01-329쪽.
- 이미재(1989), 어두 경음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논문집』 7, 수원대학교, 61-73쪽.
- 이은선(2011), 전주 지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행(1999), 한국 사회계층별 언어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7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51-76쪽.
- 이호영(2009), 서울 토박이들의 경음화 선호도, 『말소리와 음성과학』 1권 2호, 한국음성학회, 151-162쪽.
- 장승혜(2011), 어두 경음화 현상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연(2019), 경음화에 대한 언어태도의 사회언어학적 조사 및 분석, 『어문논집』 77, 중앙어문학회, 41-74쪽.
- 정소운(2017), 현대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명숙(2011ㄱ),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명숙(2011ㄴ), 대학생들의 어두 경음화 실현 및 인지 양상 연구,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329-370쪽.
- 한명숙(2013ㄱ), 어두 경음화 수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말연구』 32, 한말연구학회, 393-424쪽.
- 한명숙(2013ㄴ), 한국어 용언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겨레어문학』 51, 겨레어문학회, 639-672쪽.
- 한명숙(2014), 현대국어의 어두 경음화 표기 실태 연구, 『겨레어문학』 53, 겨레어문학회, 289-321쪽.
- 한명숙(2015), 현대국어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우리말연구』 41, 우리말학회, 61-94쪽.
- 한명숙(2017), 어두 경음화에 따른 새 표준어 사정 문제, 『한말연구』 44, 한말연구학회, 203-239쪽.
- 한명숙(2021), 1음절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한말연구』 61, 한말연구학회, 425-450쪽.
- 한명숙·박동근(2012), 현대국어의 어중 경음화 약화 현상, 『한말연구』 30, 한말연구학회, 351-386쪽.
- 한영균·이두행(2014), 웹 문서와 인터넷을 이용한 현대 한국어 참조 코퍼스의 구축, 『어문학』 124, 한국어문학회, 129-166쪽.
- 홍미주(2014), 어두경음화의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22권 1호, 281-307쪽.

▣ 토 론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변화 양상”에 대한 토론문

김연희(대진대)

이 연구는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개별 어휘 44개의 표기 실태를 인터넷 웹 검색을 활용하여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2004년~2013년에 이어 2014년~2022년까지 약 20년간의 ‘어두 경음화 어휘의 표기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님께서 ‘어두 경음화’ 현상과 이에 대한 표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신 점에서 발표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연구자들에게 공부에 대한 재미와 연구에 자극을 주는 발표를 해 주신 발표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맡은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발표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연구가 20년 동안의 ‘어두 경음화 표기’를 다룬 연구이다 보니 3장의 ‘표기 선호도 변화 추이’ 그래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유형별로 정리해 주셔서 어휘별 표기 변화 추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표자님께서 4장의 ‘어두 경음화 표기의 방향성’을 또 다루신 것은 분명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과 4장을 통해 주목해야 할 부분과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4장에서는 20년간의 ‘어두 경음화 표기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어휘들의 변화 양상을 2004~2013(전반부), 2014~2022(후반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셨는데 저희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특징이나 시기별 차이, 혹은 어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표11>을 보면 44개의 어휘 중 24개의 어휘가 경음표기 방향이 - 이고, 19개의 어휘만이 +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만 놓고 본다면 어휘의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은 오히려 줄어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한명숙(2014)에서는 10년간의 조사를 통해 ‘어두 경음화 표기’가 굳어진 것으로 ‘주꾸미, 곰장어, 숙맥’을 그리고 ‘어두 경음화 표기’가 우세한 경우로 ‘생얼, 졸병, 족집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 내용에서 ‘주꾸미’와 ‘족집게’는 -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음화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방향성에서만 그러한 것인지 발음 현상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발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어두 경음화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언어 외적인 원인’과 ‘언어 내적인 원인’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언어 태도’, ‘경음화의 의미적 기능’, ‘지역적 차이’, ‘사회언어학적인 변인의 하나’ 등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두 경음화 현상을 연구해 오신 발표자님께서서는 무엇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 음성 언어의 실현 연구

박지은(고려대)·신지영(고려대)

< 차례 >

1. 서론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4. 논의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격식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틀의 기준에 맞는 어떤 형식이나 방식으로, 격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틀에 맞춰 행동한다(신인환 2017:202). 언어는 옷차림, 제스처, 표정 등과 더불어 격식을 드러내는 주요한 의사소통 코드 중 하나로, 본 연구는 대화 상황의 격식성이 달라질 때 한국어 음성 언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관찰함으로써, 언어를 통한 격식의 실현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한 담화 맥락에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는 담화 완성 과제(Discourse Completion Task, 이하 DCT로 약칭)를 통해, 격식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른 한국어 음성 언어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격식성은 다양한 의사소통 코드들을 최대한 일관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특성을 가지며(J.T Irvine 1979), 언어를 통한 격식의 실현 역시 음성·어휘·문법 중 특정 한 층위에 국한되지 않고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격식성이라는 상황 변수가 한국어 음성 언어의 여러 층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격식성이 음성 언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음높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공손이 높은 음높이와 관련된다는 주파수 코드 가설(Frequency Code Theory)¹⁾을 입증하려는 시도 하에 이루어져 온 것이다. 주파수 코드 가설이란 기본 주파수의 높고 낮음이 신체 크기를 도상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높은 음높이는 '존중', '공손', '복종', '자신감의 부족' 등과 관련지어지며, 낮은 음높이는 '단언', '권위', '공격', '자신감'과 관련지어진다는 주장(Ohala 1984,

1) 주파수 코드 가설이란 보통 높은 음높이가 작은 크기나 피지배와 관련된다는 것으로 인해 공손한 발화가 보편적으로 높은 음높이와 관련된다는 제안이다. Ohala는 높은 음높이는 '존중(deference)', '공손(politeness)', '복종(submission)', '자신감의 부족(lack of confidence)' 등과 관련되며, 이와 반대로 낮은 음높이는 '단언', '권위', '공격', '자신감'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관련 연구서는 winter et al(2021)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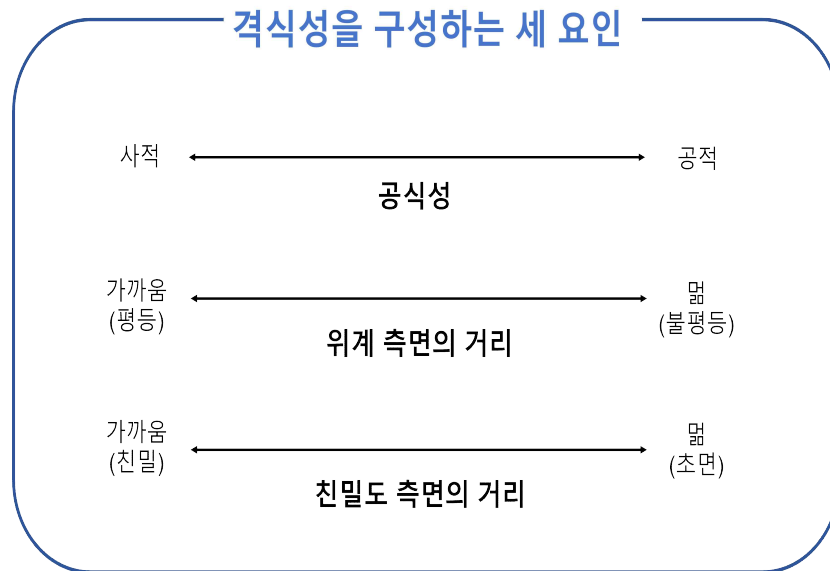
1994)이다. 이때, 공손이 요구되는 상황은 참여자 간 위계 차이가 존재하고 친밀하지 않은 상황이며(Brown & Levinson 1978/1987), 이러한 상황이 곧 격식적 상황이기 때문에, 공손과 음높이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격식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격식 상황과 비격식 상황에서의 비교하는 방식의 DCT를 통해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른 음높이 실현 양상을 살펴본 일련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Winter and Grawnder(2012)가 있으며, 일본어(Idemaru et al 2019), 중국어(Oh and Cui 2020), 카탈로니아어(Hübscher et al 2017), 호주 독일어 및 독일어(Grawunder et al 2014) 등이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격식 상황으로는 상사나 교수와 대화하는 상황을 상정하였고 비격식적 상황으로는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각 상황에서의 음성 실현 양상을 비교하였다. Winter et al(2021)에서는 공손 개념에 대한 엄밀하지 않은 정의와 연구방법론상의 불일치로 인해 선행연구들 간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앞서 제시한 DCT 연구들의 데이터를 교차언어적 시각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논의에 따르면 격식적 상황에서는 범언어적으로 낮은 음높이가 사용되었으며, 한국어 역시 격식적 상황에서 낮은 음높이가 실현된 언어 중 하나였다.

Winter et al(2021)은 왜 격식성이 낮은 음높이로 실현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격식적 상황의 공손은 정중한 태도와 관련되는 만큼, 활기차고 강화된 감정을 드러내는 높은 음높이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은 제스처와 굳은 얼굴 표정 등과 함께 완화된 발화(mitigated speech)의 특징인 낮은 음높이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 상황에서 높은 음높이의 실현을 보고한 Loveday(1981)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높은 음높이 역시 친절하고 나긋나긋한 태도가 요구되는 서비스업 상황과 같은 공손 맥락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Winter et al(2021)은 음높이와 격식성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격식적 공손 상황에서 낮은 음높이가 실현되는 원인에 대해 설득력 있게 논의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도 이상의 연구들과 동일한 DCT를 활용하여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 음성 언어의 실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된 선행 연구 결과와의 유의미한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DCT의 아쉬움을 보완하여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해당 논의들에서 설정한 ‘격식적 상황’이 다소 평면적이며, 언어 현실에는 ‘교수나 상사와 공적으로 대화하는’ 전형적인 격식 상황뿐 아니라 전형성이 떨어지는 비전형적인 격식 상황 역시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의에서는 대화 상황을 격식과 비격식으로 양분하기보다는 격식성 연속체에서 다양한 위치를 점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도식화하였듯 격식성은 보다 세밀하게 체계화할 수 있으며, 격식성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으로는 상황의 공식성, 위계 측면의 거리, 친밀도 측면의 거리의 세 요인이 존재한다(신인환 2017). 선행연구에서 다른 격식 상황 혹은 비격식 상황은 이들 세 측면에서 모두 격식적이거나, 모두 비격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이지만 위계나 친밀도 측면에서는 거리가 먼 상황이나, 공적이고 위계는 멀지만 친밀도는 가까운 상황 등 세 요인 간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른 전형적 격식 상황과 전형적 비격식 상황에, 전형성이 떨어지는 다양한 격식 상황들을 더해 DCT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며 본고에서 다룬 대화 상황은 (1)과 같다.



<그림 1> 격식성의 세 구성 요인

(1) 격식성¹ 연속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는 대화 상황

- (ㄱ) 중견 기업의 1:1 임원 면접을 보는 상황 (이하: (1ㄱ) 면접)
- (ㄴ) 프렌차이즈 카페 스타벅스의 매니저로서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 (이하: (1ㄴ) 스타벅스)
- (ㄷ) 초면의 남자친구 어머니와 대화하는 상황 (이하: (1ㄷ) 남친 어머니)
- (ㄹ) 초면의 친구의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 (이하: (1ㄹ) 친구의 친구)
- (ㅁ) 초면의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 (이하: (1ㅁ) 친한 친구)

(1)은 세 요인 모두에서 격식적인 (1ㄱ) 면접) 상황과, 세 요인 모두에서 비격식적인 (1ㅁ) 친한 친구)에, 이들의 중간에 위치하는 (1ㄴ-ㄹ)의 세 가지 격식 상황을 추가로 상정한 것이다. (1ㄴ 스타벅스)는 ‘공적’이며 ‘친밀도 관련 거리’가 멀며, (1ㄱ)만큼은 아니지만 직원과 손님 간의 위계상의 거리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격식성을 가진다. (1ㄷ)는 ‘사적’이지만 ‘위계 관련 거리’와 ‘친밀도 관련 거리’가 모두 먼 만큼 격식성을 가진다. (1ㄹ)는 ‘사적’인데다 ‘위계 관련 거리’도 가깝지만, ‘친밀도 관련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격식성을 가진다.

(1ㄱ-ㄹ)는 격식성의 연속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며 점진적인 속성을 띠는 대화 상황 들임과 동시에, 범주적으로 구분할 때는 모두 ‘격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화 상황이다. <표 1>에서는 (1)을 격식성을 이루는 세 요인인 ‘공식성’, ‘친밀도에 따른 거리’, ‘위계에 따른 거리’에 따라 구분한 후, 이를 ‘격식’과 ‘비격식’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격식성을 이처럼 ‘공식성’과 ‘친밀도에 따른 거리’, ‘위계에 따른 거리’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격식성을 구성하는 요인들 각각이 한국어 음성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른 특정 언어 변수의 실현 양상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더욱 분명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대화 상황별 격식성 차이

대화 상황	격식성	공식성	참여자 거리	
			친밀도	위계
(ㄱ) 면접	격식	공적	없	없
(ㄴ) 스타벅스		공적	없	보통
(ㄷ) 남자친구 어머니		사적	없	없
(ㄹ) 친구의 친구		사적	없	가까움
(ㅇ) 친한 친구	비격식	사적	가까움	가까움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한 (1)의 대화 상황들이 연속체적 관점과 범주적 관점에서 모두 기술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의 격식성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이 점진적인지 범주적인지 역시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 역시 가진다. (1)의 대화 상황 중 (1ㄱ-ㄹ)은 격식적 상황이며, (1ㅇ)는 비격식적 상황이며, (1ㄱ-ㄹ)은 격식성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정 언어 변수가 단순히 (1ㄱ-ㄹ)와 (1ㅇ) 간의 범주적 대립만을 이루는지, 아니면 (1ㄱ-ㅇ) 전반에 걸쳐 점진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격식성이 언어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섬세하고 다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격식성에 따른 음성 언어 실현을 관찰할 때, 음높이를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이때 음높이와 함께 숨소리 발생 역시 주된 관찰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숨소리 발생은 여성 언어의 특징으로서도 자주 언급되는 변수인데, 숨소리 발생은 여성에 의해, 짜내기 발생은 남성에 의해 더 많이 사용되며(Sttuart-Smith 1999), 여성이 권위적인 태도 등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반대로 짜내기 발생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Diley 1996; Lefkowitz 2007; Yuasa 2010). 이때 여성 언어로 여겨지는 특질들이 ‘공손함’을 드러내는 언어로 여겨진다는 점에서(lakoff 1975), 숨소리 발생 역시 음높이와 마찬가지로 ‘공손함’과 관련지어 격식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만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대화 상황의 격식성이 음성 층위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어휘 및 문법 층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격식성은 다양한 의사소통 코드들을 최대한 일관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J.T.Irvine 1974), 음성뿐 아니라 어휘·문법 등 다양한 언어 내 층위들 역시 동시에 대화 상황의 격식성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의 격식성에 따라 어휘 및 문법의 실현이 달라짐은 한국인 대학생들이 실제로 교수와 대화할 때와 친구와 대화할 때 어휘적·문법적 변수들이 달라짐을 보고한 Kim et al(2021)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어휘적 층위의 경우, (1)의 대화 상황에 따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여러 어휘들 중 특정 어휘가 선택되는 양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자유도가 높은 DCT를 통해 산출된 발화는 내용적으로 통일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대화 상황에 따라 어휘의 선택이 달라지는 양상을 관찰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러한 과제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DCT 중 명제 내용을 통일하는 하위 과제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1)의 다섯 상황에서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기’, ‘상대방 말 지적하기’, ‘질문하기’, ‘혼동했음을 표현하고 사과하기’의

네 가지 화행을 수행하였는데, 나머지 화행의 경우 내용을 별도로 통제하지 않았지만, ‘혼동했음을 표현하고 사과하기’ 화행에서는 ‘혼동 표현’과 ‘사과 표현’의 두 표현이 꼭 들어가도록 요청하였다. 나머지 상황의 경우 내용적인 통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어휘 선택 양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혼동했음을 표현하고 사과하기’ 화행의 경우, ‘혼동 표현’과 ‘사과 표현’에서의 어휘 선택 양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사과 표현’에서의 어휘 선택은, 문금현(2009)에서 ‘위계에 따른 거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는 변수이다. 해당 논의에서는 드라마 대본을 통해 많이 사용되는 요청, 거절, 사과, 감사, 칭찬의 화용 표현을 수집한 다음, 설문 조사를 통해 사과를 할 때 화자들은 ‘잘못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의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나이나 지위에 따른 상위자에게는 ‘잘못했다’ 혹은 ‘죄송하다’를 사용하며, 같은 나이나 아랫사람에게는 ‘미안하다’를 일반적으로 사용함을 밝혔다. 설문지 조사를 기반으로 한 문금현(2009)의 논의가 DCT 과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어휘 선택이 ‘격식성’을 구성하는 다른 변수인 ‘공식성’이나 ‘친밀도에 따른 거리’의 영향은 받지 않는지 역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혼동 표현’의 어휘 선택에서는 ‘헛갈렸다’, ‘착각했다’, ‘착오가 있었다’, ‘혼동했다’ 등의 다양한 어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때, 이들 어휘는 크게 ‘헛갈렸다’와 ‘착각했다, 혼동했다, 착오가 있었다’의 고유어-한자어로 대별 가능하다. 한국어에서 고유어는 일상적, 구어적 상황에서, 한자어는 격식적, 문어적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대중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화용론적 관점에서 격식성,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손성에 따른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교체를 체계적으로 관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의에서는 대화 상황에서 화자들이 고유어(헛갈리다)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한자어 계열(착각, 착오, 혼동)을 사용하는지 관찰하고, 한자어 사용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문법 층위에서는 ‘해요-습니다’ 간 화계 선택에 대해 다를 것이다. 한국어 화자들은 친밀하고 위계가 없는 상대방에게는 반말을, 상위자나 친밀도가 떨어지는 대상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데, 동일한 존댓말 내에서도 ‘해요체’와 ‘습니다체’가 변별되어 사용된다. 이때 사회적 성층화가 분명히 인식되는 반말과 존댓말 간 선택과 달리, 존댓말 내에서의 선택은 훨씬 더 미묘하며 화자들은 한 대화 상황 내에서 같은 대화 상대를 대상으로도 화계를 교체해서 사용하곤 한다(Brown 2014). ‘해요’와 ‘습니다’ 간 차이에 대한 기술은 연구마다 대동소이하지만, 보통 ‘해요’는 상위자나 안 친한 사람에게 사용되며, ‘습니다’는 ‘해요’에 비해 추가로 경의를 표하거나 격식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사용된다(Kim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동일하게 격식적인 존댓말 사용역이지만 공식성 및 참여자 거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1-2)의 네 대화 상황을 통해 ‘해요-습니다’의 화계 교체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대화 상황의 격식성이 청자존대법의 실현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자는 23살-39살 서울·경기 출신 여성 30명이다. 본 실험에서는 여러 상황에 적절한 코드를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상황을 실제로 접했을 가능성이 낮은 대학교

저학년 학생은 제외하되, 동 세대인 20대-30대 내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피험자를 수집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DCT에서 가상의 대화 상대방의 성별을 모두 여성으로 삼아 여성이 동성을 대하는 상황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²⁾.

2.2. 녹음 방식 및 실험 절차

실험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음성언어연구실 내 방음실에서 이루어졌다. 녹음 장비는 Sony사의 PCM-D50을 사용하였으며 표본 추출률은 44,100Hz, 양자화는 16bit로 디지털 녹음을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DCT는 (1)의 다섯 대화 상황을 대상으로 각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들은 (1)의 다섯 상황에서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기’, ‘상대방 말 지적하기’, ‘질문하기’, ‘혼동했음을 표현하고 사과하기’의 네 가지 화행을 수행하였으며 각 화행의 순서는 해당 대화 상황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혼동했음을 표현하고 사과하기’ 화행의 경우, 특별히 어휘 및 화계 선택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사과 표현’과 ‘혼동 표현’이 필수로 포함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화행은 총 600개(30명의 연구 대상자*5개 상황*4개 화행)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각 화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법한 상황들을 제시 받은 후, 적절한 방식으로 가상의 대화 상대방들에게 해당 화행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았다. 다섯 상황에서의 가상의 대화 상대자는 (1口)를 제외하고 모두 초면의 동성인 상대방으로 상정되었고 (1口)는 친한 친구인 만큼 반말을, (1ㄱ-ㄴ)는 초면의 낯선 상대방인 만큼 존댓말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담화 상황에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자가 발화를 산출할 때 가상의 대화 상대자의 사진을 함께 제시하였다.

2.3. 분석 대상 및 방식

음성적 층위의 분석은 전체 토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본주파수(Hz)와 H1-H2(dB)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음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음높이의 경우, 강제정렬된 음소 레이블링을 수작업으로 수정한 후, 모음별 f0값의 중간값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모음 구간의 f0 측정값에 대해 화행별 평균 음높이를 구하였다. 발성 유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제정렬된 음소 레이블링을 수작업으로 수정한 이후, 모음별로 H1-H2의 중간값을 측정하고 이에 대해 화행별 평균 H1-H2를 구하였다. 이들 값은 화자별 개인차가 클 수 있으므로, z-score 변환을 통해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어휘 및 문법 층위의 분석은 ‘혼동했음을 표현하고 사과하기’ 화행의 토큰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화행 토큰을 대상으로 ‘사과 표현’과 ‘혼동 표현’에서의 어휘 및 화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사과 표현’에서는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의 중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주석하였으며, ‘혼동 표현’에서는 고유어(‘헛갈리다’)와 한자어(‘착각하다’, ‘착오가 있다’, ‘혼동하다’ 등) 중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주석하였다. 화계의 경우 발화에서 ‘해요체’와 ‘습니다체’ 중 어떤 화계를 사용하였는지 주석하였다.

2) 이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젠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한 것이다(Tamaoka et al. 2010:37). 동 실험 과제를 남성 화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여성과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성별이라는 하위문화에 따른 격식성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2.4. 통계 분석

음성 변수의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추론 통계를 진행하였으며, 어휘 및 화제 선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론 통계 없이 빈도 및 비율 백분율 값만을 제시하여 기술 통계만을 수행하였다.

음성 변수의 추론 통계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다섯 대화 상황에서의 평균 음높이 및 평균 H1-H2 실현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자 그림(box plot)을 제시하였고³⁾, 실험 음성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계 모형인 선형 혼합 모형(Linear mixed effect model, 이하 LMM)을 사용하였다. 해당 통계 모형은 고정 효과(fixed effect)와 임의 효과(random effect)를 모두 고려하는 모형으로, 고정 효과는 ‘대화 상황’이며, 임의 효과는 ‘화자’ 및 ‘화행 종류’로 설정하였다. 이때, 다섯 가지 상황 중 두 개 이상의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경우, 해당 상황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사후 검정이 필요하다. 사후 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Tucky Post-hoc test를 수행하였다⁴⁾.

3. 연구 결과

3장에서는 (1)의 대화 상황에 따른 한국어 음성 언어의 실현 양상을 음성적 실현 양상과, 어휘·문법적 실현 양상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음성적 실현 양상의 경우 상자 그림을 통해 f0 및 H1-H2 측정값의 전반적인 분포 및 중앙값(95% 신뢰구간 포함)을 제시한 후, LMM 분석 결과를 통해, 추론 통계 모형의 추정치와 해당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고할 것이다. 사후 검정을 수행한 경우, 해당 결과 역시 보고할 것이다.

3.1.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의 음성적 실현 양상

3.1.1. f0 실현 양상

<그림 2>는 (1)의 다섯 상황에 대한 평균 f0를 표준화한 값을 상자 그림으로 제시한 것으로, 주황색 수평선은 중앙값을, 움푹 파인 노치(notch)는 중앙값의 95% 신뢰구간을, 빨간 별은 이상치(outlier)를 나타낸다.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한 LMM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는 z-score 변환을 거친 값⁵⁾을 종속 변수로 둔 모형의 분석 결과와 변환을 거치지 않은 값을 종속 변수로 둔 모형을 모두 제시하였다. <표 2>에는 추정치 및 추정치의 95% 신뢰구간(95% C.I.), 표준 오차(S.E.), t값, p-value가 제시되었다.

<그림 2>를 통해 (1L 스타벅스)와 (1D 친한 친구)의 음높이는 나머지 상황에 비해 높게 실현되며, 나머지 상황들은 이들에 비해 낮은 음높이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의 두 모형 역시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1L 스타벅스)와 (1D 친한 친구)가 다른 상황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음높이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때,

3) 시각화를 위해서는 Python의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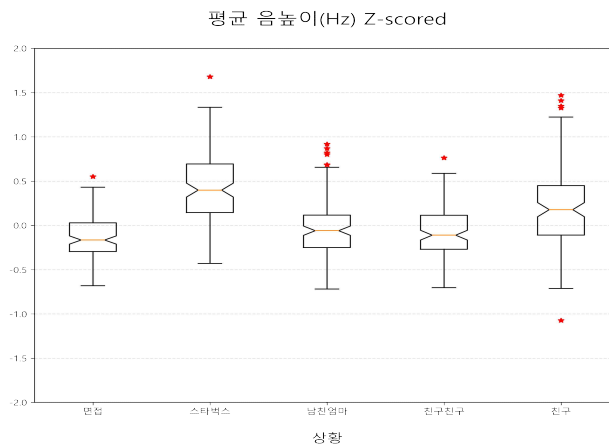
4) 추론 통계를 위해서는 R 프로그램(version 4.2.2)의 lme4 라이브러리의 lmer 함수를 통해 수행하였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독립변수(음높이/H1-H2) ~ 대화 상황 + (1|연구 대상자) + (1|화행). 신뢰구간의 측정을 위해서는 confint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위해서는 multcomp 패키지의 glht 함수를 사용하였다.

5) 음높이의 경우 화자별로 음역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화자가 자신의 음역대 내에서 음높이를 얼마나 더 높이고 낮췄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화자별 표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음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화자별 z-score 변환을 수행하였다.

두 모형 간의 결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직관적인 수치인 실제 f0값(Hz)을 중심으로 통계적 추정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통계적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1ㄹ 친구의 친구) 상황에서의 평균 음높이의 추정치는 212.56(95% CI: 203.30~221.81)Hz이며, (1ㄱ 면접), (1ㄴ 남친 어머니)는 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ㄷ 스타벅스) 상황에서의 평균 음높이 추정치는 235.73(95% CI: 222.12~249.33)Hz이며, (1ㄹ 친한 친구) 상황에서의 평균 음높이 추정치는 225.39(95% CI: 203.49~222.17)Hz이다.

(1ㄷ 스타벅스)와 (1ㄹ 친한 친구)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ucky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1ㄷ 스타벅스)와 (1ㄹ 친한 친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p < .001$), (1ㄷ 스타벅스)의 평균 음높이 추정치가 (1ㄹ 친한 친구)에 비해 10.34Hz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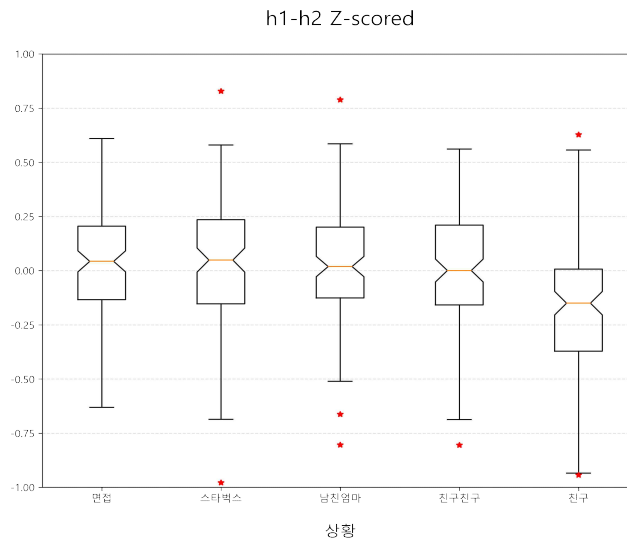
<그림 2> 대화 상황에 따른 표준화된 평균 음높이(Hz) 실현 양상

<표 2> 대화 상황에 따른 평균 음높이에 대한 LMM 분석 결과
(p값은 유의미한 경우에만 *로 표시함: * p 0.05, ** p<.01, *** p<.001)

종속 변수	고정 효과	Estimate(95% CI)	S.E	t	Pr(> t)
f0(Hz)	intercept (친구의 친구)	212.56(203.30~221.81)	4.641	45.798	***
	상황(면접)	-3.08(-7.43~1.27)	2.223	-1.387	-
	상황(스타벅스)	23.17(18.82~27.52)	2.223	10.421	***
	상황(남친 어머니)	1.86(-2.49~6.21)	2.223	0.838	-
	상황(친한 친구)	12.83(8.48~17.18)	2.223	5.770	***
Z-scored f0(Hz)	intercept (친구의 친구)	-0.09(-0.21~0.03)	0.05797	-1.478	-
	상황(면접)	-0.06(-0.14~0.03)	0.04528	-1.221	-
	상황(스타벅스)	0.51(0.42~0.60)	0.04528	11.175	***
	상황(남친 어머니)	0.05(-0.04~0.14)	0.04528	1.138	-
	상황(친한 친구)	0.27(0.19~0.36)	0.04528	6.073	***

3.1.2. H1-H2 실현 양상

<그림 3>은 (1)의 다섯 상황에 대한 평균 H1-H2를 표준화한 값을 상자 그림으로 제시한 것으로, 상자에서 주황색 수평선은 중앙값을, 움푹 파인 노치(notch)는 중앙값의 95% 신뢰구간을, 빨간 별은 이상치(outlier)를 나타낸다.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한 LMM 분석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서는 z-score 변환을 거친 값을 종속 변수로 둔 모형의 분석 결과와 변환을 거치지 않은 값을 종속 변수로 둔 모형을 모두 제시하였다. <표 3>에는 추정치 및 추정치의 95% 신뢰구간(95% C.I.), 표준 오차(S.E), t값, p-value가 제시되었다.



<그림3> 대화 상황에 따른 평균 H1-H2 실현 양상

<표 3> 대화 상황에 따른 H1-H2에 대한 LMM 분석 결과
(p값은 유의미한 경우에만 *로 표시함: * p 0.05, ** p<.01, *** p<.001)

종속 변수	고정 효과	Estimate(95% CI)	S.E	t	Pr(> t)
H1-H2 (dB)	intercept (친구의 친구)	2.65(1.35~3.95)	0.65	4.07	***
	상황(면접)	0.48(-0.28~1.23)	0.39	1.23	-
	상황(스타벅스)	0.03(-0.73~0.79)	0.39	0.08	-
	상황(남친 어머니)	0.18(-0.58~0.94)	0.39	0.47	-
	상황(친한 친구)	-2.00(-2.76~-1.24)	0.39	-5.17	***
Z-scored H1-H2 (dB)	intercept (친구의 친구)	1.441e-04(-0.09~0.09)	4.433e-02	0.00	-
	상황(면접)	4.411e-02(-0.03~0.12)	3.816e-02	0.25	-
	상황(스타벅스)	1.553e-02(-0.06~0.09)	3.816e-02	0.69	-
	상황(남친 어머니)	2.368e-02(-0.05~0.10)	3.816e-02	0.54	-
	상황(친한 친구)	-2.042e-01(-0.28~-0.13)	3.816e-02	-5.35	***

<그림 3>을 통해 격식적 상황인 (1ㄱ~ㄴ) 간에는 H1-H2 차이를 살펴보기 어려우며, 격식적 상황들은 비격식 상황인 (1ㄷ)에 비해 H1-H2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의 두 모형 역시 <그림 3>에서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1ㄷ 친한 친구)만 다른 상황들에 비해 H1-H2가 낮게 실현되며, 나머지 상황들 간에는 H1-H2의 차이는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1ㄱ~ㄴ)의 네 격식적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더 기식이 섞인 발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1-H2 역시 z-score 변환을 거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간의 결과 차이가 없었던 만큼, 직관적인 수치인 실제 H1-H2값을 중심으로 통계적 추정치에 대해 기술하겠다. (1ㄴ 친구의 친구) 상황에서의 평균 H1-H2의 추정치는 2.65(95% CI: 1.35~3.95)dB이며, (1ㄱ 면접), (1ㄴ 스타벅스), (1ㄷ 남친 어머니)는 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ㄷ 친한 친구) 상황에서의 평균 H1-H2 추정치는 0.65(95% CI: -1.41~2.71)이다.

3.2.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의 어휘·문법적 실현 양상

어휘·문법적 층위의 분석은 ‘사과 표현’ 및 ‘혼동 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표 4>는 대화 상황별로 혼동 표현에서의 한자어 사용 비율과, 사과 표현에서의 ‘죄송하다’ 사용 비율, 그리고 ‘습니다체’의 사용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대화상황별 어휘 및 화계 사용 빈도

대화 상황	어휘선택		화계 선택
	혼동 표현	사과 표현	‘습니다’ 비율
	‘한자어’ 비율	‘죄송하다’ 비율	
(ㄱ) 면접	77.0%	100.0%	94.74%
(ㄴ) 스타벅스	42.85%	100.0%	76.78%
(ㄷ) 남자친구 어머니	13.79%	100.0%	18.64%
(ㄹ) 친구의 친구	10.0%	66.7%	15.25%
(ㄷ) 친한 친구	0.0%	0.0%	-

혼동 표현의 경우, 비격식적 상황에서는 고유어(‘헛갈리다’)만이 사용되며, 격식성이 높아질수록 고유어의 사용 비율은 낮아지고(90.0% → 86.2% → 57.15% → 23.0% → 0%) 한자어의 사용 비율은 높아진다(0% → 10% → 13.79% → 42.85% → 77.0%). 이러한 결과는 한자어의 사용이 격식성과 관련되었다는 언중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공적 격식 상황인 (1ㄱ 면접)과 (1ㄴ 스타벅스)에서는 한자어가 각기 77.0%, 42.85% 비율로 사용되고, 사적 격식 상황인 (1ㄷ 남친 어머니)와 (1ㄹ 친구의 친구)에서는 한자어가 각기 13.79%, 10% 사용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한자어-고유어의 사용은 격식-비격식의 범주적 구분 이후에, ‘공식성’에 의해서 추가적인 범주화를 보이며, 그 안에서는 ‘참여자 거리’에 따라 점진적인 차이가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습니다-해요’ 교체의 경우에도 ‘한자어-고유어’ 교체와 유사하게, ‘공식성’에 의해 대별되고 ‘참여자 거리’에 따라 점진적인 차이를 보이는 실현 양상이 드러난다. 격식성이 높아질수록 ‘습니다’의 실현 비율이 높아지며(15.25% → 18.64% → 76.78% → 94.74%), ‘습니다’가 공

적 격식 상황인 (1ㄱ, ㄴ)에서는 각각 76.78%, 94.74% 비율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사적 격식 상황인 (1ㄷ, ㄹ)에서는 각각 18.64%, 15.25% 비율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해요-습니다’ 교체와 ‘한자어-고유어’ 교체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격식-비격식’의 대별 이후 ‘공식성’에 따른 추가적인 범주화는 화계 교체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습니다’가 공적 상황에서는 최소 76.78% 이상에서 최대 94.74%까지 사용되고, 사적 상황에서는 최소 18.64%에서 최대 18.64%까지 사용되는 것과 달리, ‘한자어’의 경우 공적 상황에서는 최소 42.85% 이상에서 최대 77.0%까지 사용되고, 사적 상황에서는 최소 10.0%에서 최대 13.79%까지 사용되기 때문이다.

‘죄송하다-미안하다’ 교체의 경우, 앞선 ‘한자어-고유어’ 교체나 ‘습니다-해요’ 교체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1ㄱ, ㄴ, ㄷ)에서는 ‘죄송하다’가 100.0% 사용되며, (1ㄹ 친구의 친구)부터 ‘미안하다’가 10회(33.3%) 사용되기 시작되고 ‘죄송하다’의 비율이 66.7%로 낮아지며, (1ㅁ 친한 친구)에서는 ‘죄송하다’는 0회 사용되고, ‘미안하다’만이 100.0% 사용된다. 즉, ‘격식성’ 중 ‘공식성’에 따라 범주화되는 양상을 보이던 나머지 두 변수와 달리, ‘죄송하다-미안하다’ 교체는 ‘참여자 거리’에 따라 범주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친밀도에 따른 거리’가 멀며, ‘위계에 따른 거리’ 역시 멀거나, 보통인 (1ㄱ, ㄴ, ㄷ)에서는 ‘죄송하다’만이 100.0% 사용되며, ‘친밀도에 따른 거리’는 멀지만 ‘위계에 따른 거리’가 가까운 (1ㄹ 친구의 친구)에서는 ‘죄송하다’가 66.7% 사용되고, 두 거리가 모두 가까운 (1ㅁ 친한 친구)에서는 ‘죄송하다’가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미안하다’가 100% 사용되기 때문이다.

4. 논의

4.1.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의 음성적 실현

3.1절에서 살펴본 음높이 및 H1-H2 실현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격식성에 따른 음높이 및 기식성의 실현 양상

격식성	대화 상황	음높이 (f0)	기식성 (H1-H2)
[+격식]	(ㄱ) 면접	↓(낮음)	↑(높음)
	(ㄴ) 스타벅스	↑(높음)	↑(높음)
	(ㄷ) 남자친구 어머니	↓(낮음)	↑(높음)
	(ㄹ) 친구의 친구	↓(낮음)	↑(높음)
[-격식]	(ㅁ) 친한 친구	- (보통)	- (보통)

<표 5>에서는 다음의 지점이 주목된다. 첫 번째로,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른 음성적 차이는 점진적이라기보다는 범주적이라는 점이다. 기식성의 경우 일관적으로 격식적인 상황(1ㄱ-ㄹ)에서 비격식적 상황(1ㅁ 친한 친구)에 비해 높게 실현되며 이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높이 역시, 비격식 상황에 비해 높게 실현된 (1ㄴ 스타

벽스)를 제외하고, 비격식 상황에 비해 낮게 실현된 나머지 격식 상황(1ㄱ, ㄴ, ㄷ)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변수의 경우, <표 4>에서 보았듯 (1)의 격식성¹ 연속체에 따른 점진적인 변이 양상을 보인다. 범주적 차이 역시 ‘공식성’이나 ‘참여자 거리’에 따른 추가적인 구분을 보이며 세분되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다. 음성과 문법이 동일하게 대화 상황의 격식성과 비격식성을 표지하더라도, 범주화의 세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음성 층위와 문법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부호화의 이러한 정밀성 차이는, 음성은 상승 억양-하강 억양 간의 대별을 통해 의문문과 나머지 문형 간의 단순한 변별을 수행하지만, 문법은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등 다양한 문형 간의 범주화를 수행하는 것처럼, 음성과 문법 간에 구분되는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음높이와 기식성 모두 비격식적 상황과 격식적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비격식 상황이 가장 일상적인 대화 상황임을 고려해보면, 평범한 상태인 비격식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편안한 음높이 및 발성을 사용하다가,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라 특별히 음높이 및 발성유형을 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표 5>에서 보듯 음높이와 발성유형이 격식성과 연관되는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각각 변수에 대해 다루며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선 음높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음높이의 경우 비격식 상황에 비해 (1ㄴ 스타벅스) 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며, 그 외 나머지 격식 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Winter et al(2021)의 논의에서 예측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서는 전형적 격식 상황과 비격식 상황만을 비교하고 서비스업 상황과의 비교는 논의 단계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을 통해 수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한 과제 내에서 이들 상황을 함께 비교하였다는 방식으로 이를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때, (1ㄴ 스타벅스) 상황 역시 결국 공식성 및 참여자 거리의 측면에서 격식적이라는 점에서, 음높이가 직시하는 것은 결국 공식성이나 참여자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대화 상황의 격식성 그 자체보다는, 해당 장면에서 요구되는 정서적·대인적 태도와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 화자가 본인의 의사 혹은 대화 장면의 요구에 의해 어떤 정서적·대인적 태도를 드러내고 싶은지에 따라 음높이를 평상시에 비해 높거나 낮게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진지함, 존중함, 엄격함, 정중함 등의 정서적·대인적 태도를 드러낼 때는 낮은 음높이를, 친절함, 친근함, 나긋나긋함 등의 정서적·대인적 태도를 드러낼 때는 높은 음높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격식성과 진지함, 존중함, 엄격함, 정중함 등의 정서적 태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며, (1ㄴ 스타벅스)를 제외한 모든 격식 상황에서 음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두 개념 간에 상당한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ㄴ 스타벅스) 역시 분명히 격식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대화 상황의 격식성이 항상 진지함, 존중함, 엄격함, 정중함의 태도와 관련되는 것은 아님을 구분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식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대화 상황의 격식성보다는 정서적·대인적 태도와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는 음높이와 달리, 기식성은 확실히 격식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변수로 보인다. 격식적인 상황(1ㄱ-ㄷ)에서는 일관적으로 비격식적 상황(1ㄴ)에 비해 기식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이러한 결과는 격식적 발화가 덜 기식이 섞인 (less breathy) 방식으로 실현된다고 보고했던 Winter and Grawunder(2012:812)와는 정반대의 결과라는 점이 주목된다. 해당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점과, 본 연구에서 네 종류의 격식 상황이 일관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기식이 섞인 발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본고

의 연구 결과가 더욱 신뢰할 만하다고 본다.

해당 논의에서는 또한 이러한 ‘기식성의 감소’를 ‘분명한 발화(clear speech)’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는데, 격식성은 ‘주의 집중의 증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분명한 발화와 연관되며, 따라서 소음이 덜한(less noisy) 방향으로 발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명료하고 분명한 발화는 공적 발화의 특징으로, 해당 논의는 격식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공식성 측면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H1-H2는 격식 상황에서 오히려 높게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식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 H1-H2는 여성 언어의 관점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변수인데, 여성 언어로 여겨지는 특질들이 ‘연약함’, ‘공손함’ 등의 지표적 의미와 관련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숨소리 발성 역시 ‘공손함’, ‘연약함’ 등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특히 ‘참여자 거리’가 어느 정도 멀기만 하면 공적 상황이든 사적 상황이든 일관적으로 더 높은 기식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숨소리 발성은 공손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변수로 보인다.

앞서, 숨소리 발성은 여성에 의해, 짜내기 발성은 남성에게 의해 더 많이 사용되며 여성이 권위적인 태도 등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반대로 짜내기 발성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숨소리 발성을 많이 사용하는 여성이 왜 권위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짜내기 발성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Ekert(2008)의 지표 순서(indexical order) 이론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표 순서 이론이란, 첫 번째 순서의 지표는 단순하게 인구 구성원들을 직시하지만, 한번 형식이 지표적 값을 획득하면 이것은 항상 재해석될 수 있으므로 ‘n+1st value’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를 발성유형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 적용해보면, 숨소리 발성은 남정보다 여성에 의해 더 많이 사용되는 만큼(Sttuart-Smith 1999), 빈도 효과로 인해 여성 집단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 여성 집단과 관련된 ‘비단정적임’, ‘지나치게 공손함’, ‘약자’, ‘자신감의 부족’ 등의 지표적 의미를 n차에 걸쳐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짜내기 발성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의해 더 많이 사용되며(Sttuart-Smith 1999), 빈도 효과로 인해, 남성 집단을 직시하게 되고, 이후 남성 집단과 관련된 ‘강자’, ‘권위’ 등의 지표적 의미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즉 ‘숨소리 발성’은 ‘비단정성’, ‘공손함’, ‘약자’ 등의 지표적 의미를 가지고 짜내기 발성은 ‘강자’, ‘권위’ 등의 지표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발성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라 해석해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어의 음성적 실현에서, 격식성을 이루는 공식성과 참여자 거리의 세세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오지 않으며, 단순히 격식적 상황과 비격식적 상황 간의 구분만이 존재한다. 음높이는 대화 상황의 격식성 자체를 표지하기보다는,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적·대인적 태도를 표지한다. 격식적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진지하고 정중한 태도가 요구되는 만큼, 이를 드러내는 낮은 음높이가 실현되지만 서비스업과 같이 친절하고 나긋나긋한 태도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높은 음높이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때 비격식적 상황 역시 격식적 상황에 비해 높은 음높이로 실현되지만, 서비스업 상황의 음높이는 비격식적 상황의 음높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실현된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실제 지각적으로도 구분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두 상황이 만약 음높이의 측면에서 구분되지 않더라도, 기식성을 통해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기식성이 일관적으로 대화 상황의 격식성 자체를 표지하기 때문에, 격식적 상황이라면 음높이가 높더라도 더 기식이 섞인 발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4.2.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의 어휘·문법적 실현

<표 6> 격식성에 따른 어휘·문법적 실현 양상

대화 상황	어휘선택		화계 선택
	혼동 상황	사과 상황	'습니다' 비율
	'한자어' 비율	'죄송하다' 비율	
(ㄱ) 면접	77.0%	100.0%	94.74%
(ㄴ) 스타벅스	42.85%	100.0%	76.78%
(ㄷ) 남자친구 어머니	13.79%	100.0%	18.64%
(ㄹ) 친구의 친구	10.0%	66.7%	15.25%
(ㅁ) 친한 친구	0.0%	0.0%	-

3.2절에서 살펴본 어휘·문법적 실현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6>와 같다. <표 6>에서는 다음의 지점이 주목된다. 첫 번째로,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른 어휘·문법적 차이는 점진적이며, 범주화가 이루어질 때에도 음성적 층위에 비해 훨씬 세밀한 범주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음성적 층위에서는 단순히 '격식성-비격식성'의 대별만 이루어졌다면, 어휘·문법적 층위에서는 '격식성' 내에서도 격식성의 두 구성 요인 중 '참여자 거리' 혹은 '공식성'에 따른 추가적인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이 드러난다. 격식성이 큰 상황일수록 점진적으로 '어휘 유형 빈도', '한자어' 사용 비율, '습니다' 사용 비율, '죄송하다' 사용 비율이 늘어나는 양상이 관찰되지만, 각 변수별로 어떤 요인에 의해 추가적인 범주화가 이루어지는지는 차이가 있다.

'한자어' 사용 비율과, '습니다' 사용 비율은 격식성에 따라 구분된 이후, '공식성'에 따른 추가적인 범주화를 보이며 참여자 거리에 따라서는 점진적 차이를 보인다. 공식성에 따른 범주화는 어휘 선택보다는 화계 선택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어휘 층위와 문법 층위 간의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가능한 선택지가 개방 부류인지, 폐쇄 부류인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화계 선택의 경우, 습니다체와 '해요체'와 간의 두 선택지만이 존재하지만, '한자어-고유어'의 경우 네 개 이상의 어휘들('헛갈리다', '착각하다', '착오가 있다', '혼동하다')이 등장하며 이들 간의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주화가 덜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고유어'와 마찬가지로 어휘 층위의 선택이지만 두 가지 선택지만이 존재하는 닫힌 집합인 '미안하다-죄송하다' 교체의 경우, '해요-습니다'처럼 분명한 범주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죄송하다'의 사용 비율은 '한자어-고유어'나 '습니다-해요'와 달리 '공식성'보다는 참여자 거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공통적으로 '위계에 따른 거리'와 '친밀도에 따른 거리'가 멀지만, 공식성의 측면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1ㄱ 면접)과 (1ㄷ 남친 어머니)에서 모두 '죄송하다'만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죄송하다는 사용 비율은 '참여자 거리'에 따른 점진적인 실현 양상을 보이며, 참여자 거리가 멀어질수록 '죄송하다'가 많이 사용되고, 가까울 경우 '미안하다'만이 사용된다. '위계에 따른 거리'와 '친밀도에 따른 거리'가 모두 먼 경우에는 항상 '죄송하다'만이 사용되며, '친밀도에 따른 거리'에는 '죄송하다'의 비율이 줄어들고

‘미안하다’의 비율이 늘며, ‘위계에 따른 거리’와 ‘친밀도에 따른 거리’가 모두 가까운 경우에는 항상 ‘미안하다’만이 사용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격식적인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들은 이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음성보다 더 섬세한 방식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격식 상황에서 혼동 표현을 할 때는 ‘한자어’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며, 사과 표현을 할 때는 ‘죄송하다’를 더 많이 사용하며, 같은 존댓말이더라도 ‘습니다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다만 본 논의에서는 살펴본 ‘혼동 표현’과 ‘사과 표현’의 두 상황에서도 ‘공식성’의 영향과 ‘참여자 거리’의 영향 중 어떤 측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의 차이가 드러나는 만큼, 대화 상황에 따른 어휘 선택 양상에 대한 더 분명한 기술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표현 상황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격식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대화 상황을 상정하고, DCT 과제를 통해 이들 상황에서 한국어가 음성적·어휘적·문법적으로 어떠한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 관찰하였다. 결론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음높이, 숨소리 발생, 혼동 표현의 어휘 선택, 사과 표현의 어휘 선택, 화제 선택의 다섯 가지 언어적 변수에 대한 변수별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음높이의 경우, 대화 상황의 격식정보는 해당 장면에서 요구되는 정서적·대인적 태도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 상황의 격식성은 ‘공식성’ 및 ‘참여자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로, 격식성의 측면에서는 격식적이더라도 친절하고 나긋나긋한 태도가 요구될 경우 오히려 높은 음높이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즉 대화 상황의 ‘공식성’ 및 ‘참여자 거리’와 무관하게, 진지함, 존중함, 엄격함, 정중함 등의 정서적·대인적 태도를 드러낼 때는 낮은 음높이가, 친절함, 친근함, 나긋나긋함 등의 정서적·대인적 태도를 드러낼 때는 높은 음높이가 사용된다. 즉 대화 상황의 격식성과 진지함, 존중함, 엄격함, 정중함 등의 정서적·대인적 태도 간의 상당한 상관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격식 상황에서 낮은 음높이가 실현되기는 하지만, 낮은 음높이 자체가 대화 상황의 격식성을 표지하는 것은 아니며 음높이의 실현은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요구되는 정서적·대인적 태도가 무엇인지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숨소리 발생의 경우, 대화 상황이 격식적 상황인지 비격식적 상황인지를 드러내는 변수로 나타났다. 격식성을 가지는 상황이라면, 비격식적 상황에 비해 항상 더 기식 섞인 발성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자 거리’가 어느 정도 멀기만 하면 공적 상황이든 사적 상황이든 일관적으로 더 높은 기식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숨소리 발생은 ‘참여자 거리’가 주요한 변수인 ‘공손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공손성’의 음향적 지표에 대한 연구에서 ‘음높이’가 주된 관심을 받긴 했지만, 본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높이는 공손성이나 격식성의 직접적인 지표가 되기 어려우며, 숨소리 발생이 오히려 더 공손성이나 격식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변수로 보인다.

혼동 표현의 어휘 선택의 경우, 대화 상황이 격식적일수록 고유어 대비 한자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때, 격식적 상황 내에서도 공적 상황일 경우 사적 상황에 비해 한자어가 더 많이 사용되며 ‘격식-비격식’의 양분적인 범주화뿐만 아니라 ‘공적-사적’의 추가적인 범주화가 관찰되었다. 공적 상황, 사적 상황 내에서도 ‘참여자 거리’가 멀수록 한자어가 더 많이 사용되며, 한자어 실현 비율은 대화 상황의 격식성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인다.

사과 표현의 어휘 선택의 경우, 대화 상황이 격식적일수록 ‘미안하다’ 대비 ‘죄송하다’가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격식-비격식’의 양분적인 범주화뿐 아니라 ‘위계에 따른 거리’의 멀-가까움’의 추가적인 범주화가 관찰되었다. ‘위계에 따른 거리’와 ‘친밀도에 따른 거리’가 모두 먼 경우 ‘죄송하다’만이 사용되었으며, ‘친밀도에 따른 거리’가 동일하게 멀더라도 ‘위계에 따른 거리’가 가까운 경우 ‘미안하다’의 비율이 높아졌고, ‘위계에 따른 거리’와 ‘친밀도에 따른 거리’가 모두 가까운 경우에는 ‘미안하다’만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화계 선택의 경우, 대화 상황이 격식적일수록 ‘해요체’ 대비 ‘습니다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고유어-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사적 상황에 비해 공적 상황에서 ‘습니다체’가 더 많이 사용되면서 ‘격식-비격식’의 양분적인 범주화뿐만 아니라 ‘공적-사적’의 추가적인 범주화가 관찰되었다. 화계와 두 어휘 선택 모두 ‘격식-비격식’의 양분적인 범주화뿐 아니라, ‘공식성’이나 ‘참여자 거리’에 따른 추가적인 범주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음높이나 숨소리 발생에서는 관찰되지 않던 현상이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대화 상황의 격식성은 음성 층위의 변수들보다 어휘-문법 층위의 변수들에서 더 섬세하게 드러남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문금현. 2009. "한국어의 고정적인 화용 표현 연구." 국어국문학 -.152, 181-217.
- 신인환 2017. "한국어 발화 장면의 공식성과 격식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59., 189-228.
- B, Grawunder S. 2012 The phonetic profile of Korean formal and informal speech registers. *J. Phon.* 40, 808-815.
- Brown P, Levinson S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L. 2015. Revisiting "polite"-yo and "deferential"-supnita speech style shifting in Korean from the viewpoint of indexicality. *Journal of Pragmatics*, 79, 43-59.
- Cameron, D., McAlinden, F., & O'Leary, K. (1988). Lakoff in context: The social and linguistic functions of tag questions. *Women in their speech communities*, 74, 93.
- Devís Herraiz E, Cantero Serena FJ. 2014 The intonation of mitigating politeness in Catalan. *J. Polit. Res.* 10, 127-149.
- Dilley, L., S. Shattuck-Hufnagel, and M. Ostendorf. 1996. Glottalization of word-initial vowels as a function of prosodic structure. *Journal of Phonetics* 24:423-444.
- Eckert, P. 2008. Variation and the Indexical Field.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2: 453-476.
- Grawunder S, Oertel M, Schwarze C. 2014 Politeness, culture, and speaking task—paralinguistic prosodic behavior of speakers from Austria and Germany. In *Conf. Speech prosody, 20-23 May 2014, Dublin, Republic of Ireland*, pp. 159-163. Baixas, France: ISCA.
- Gucek R, Le Gac D. 2019 Prosodic manifestations of politeness in Porteño Spanish wh-interrogatives: terminal contours, f0 mitigation and syllable durations. In *Proc. of the 19th Int. Congress of Phonetic Sciences, 5-9 August 2019, Melbourne, Australia*, pp. 3388-3392. Canberra City, Australia: Australasian Speech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Inc.
- Gussenhoven C. 2004 *The phonology of tone and inton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dalgo, A., & Folch, M. P. (2011). Aprender a ser cortés: aspectos pragmáticos de la enseñanza de ELE, expresividad fónica y comunicación cortés a través de la entonación. *Lingüística XL. El lingüista del siglo XXI*, 43-54.
- Hübscher I, Borràs-Comes J, Prieto P. 2017 Prosodic mitigation characterizes Catalan formal speech: the frequency code reassessed. *J. Phon.* 65, 145-159.
- Irvine, J. 1979. Formality and Informality in Communicative Events. *American Anthropologist* 81: 773-790.
- Jun, S. A. (2014). The intonational phonology of Bangladeshi Standard Bengali.
- Kim, H., Winter, B., & Brown, L. 2021. Beyond politeness markers: Multiple

- morphological and lexical differences index deferential meanings in Korean. *Journal of Pragmatics*, 182, 203-220.
- Lakoff. 1975. *Language and Women's Place*.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 Lefkowitz, Daniel. 2007. *Creaky Voice: Constructions of Gender and Authority in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 Paper presented at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Loveday L. 1981 Pitch, politeness and sexual role: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into the pitch correlates of English and Japanese politeness formulae. *Lang. Speech* 24, 71-89.
- Ofuka E, McKeown JD, Waterman MG, Roach PJ. 2000 Prosodic cues for rated politeness in Japanese speech. *Speech Commun.* 32, 199-217.
- Oh E, Cui M. 2020 The acquisition of acoustic correlates of politeness by native Chinese speakers. *Linguist. Res.* 37, 113-134.
- Ohala JJ. 1994 The frequency code underlies the sound-symbolic use of voice pitch. In *Sound symbolism* (eds L Hinton, J Nichols, JJ Ohala), pp. 325-347.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ozco L. 2008. *Peticiones corteses y factores prosódicos*. In *Fonología instrumental* (eds E Herrera Zendejas, M Butragueno), pp. 335-355. Mexico City, Mexico: El Colegio de México.
- Spencer-Oatey, H., & Žegarac, V. (2017). Power, solidarity and (im) politeness. *The Palgrave handbook of linguistic (im) politeness*, 119-141.
- Sherr-Ziarko E. 2019 Prosodic properties of formality in conversational Japanese. *J. Int. Phon. Assoc.* 49, 331-352.
- Silverstein, Michael. 2003. *Indexical Order and the Dialectics of Sociolinguistic Life*. Amsterdam: Elsevier.
- Tamaoka, K., H. Lim, Y. Miyaoka, and S. Kiyama. 2010. Effects of Gender-Identity and Gender-Congruence on Levels of Politeness Among Young Japanese and Koreans. *Journal of Asian Pacific Communication* 20 (1): 23-45.
- Tannen, Deborah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William Morrow.
- Tsuji A. 2004 The case study of high pitch register in English and in Japanese: does high pitch register relate to politeness. *Seijo Engl. Monogr.* 37, 227-260.
- Winter, B., Oh, G. E., Hübscher, I., Idemaru, K., Brown, L., Prieto, P., & Grawunder, S. (2021). Rethinking the frequency code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role of acoustic body size in communicative phenomena.
- Yuasa, Ikuko Patricia. 2010. Creaky voice: A new feminine voice quality for young urban-oriented upwardly mobile American women? *American Speech* 85:315-337.

▣ 토 론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른 한국어 음성 언어의 실현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정희재(고려대)

이 연구는 대화 상황의 격식성에 따라 한국어 음성 언어의 실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격식적 상황의 실현을 살피었던 기존 연구들이 격식성을 ‘격식’과 ‘비격식’으로 단순히 양분하였던 것과 달리, 격식성을 연속체로 간주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음성 언어가 어떻게 달리 실현되는지를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자는 이와 같은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상당 부분 공감하며, 발표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점들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격식성의 구성 요소

연구자께서 이 연구의 주요한 의의를 선행 연구와는 격식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고 격식성과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와의 관계성을 새롭게 논한다는 것으로 제시하는 만큼, 격식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상황의 공식성’, ‘위계 측면의 거리’, ‘친밀도 측면의 거리’로 보아야만 한다는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격식성, 공식성, 공손, 존대 등의 유사한 개념이 연구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고, ‘공식성’과 ‘위계/친밀도 측면의 거리’는 각각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이 제시되지 않아 이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격식성 체계가 기존의 체계보다 더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격식성을 상기의 세 요소로 나누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격식성과 어휘 선택

이 연구에서는 격식성에 따른 어휘 선택의 차이를 ‘혼동 표현’과 ‘사과 표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상황에서 분석 체계가 서로 달라 격식성에 따른 어휘 선택이 어떠한 공통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을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 ‘혼동 표현’은 고유어 ‘헛갈렸다’와 한자어 ‘착각했다, 혼동했다 등’의 고유어-한자어 대립을 통해 분석되고 있고, ‘사과 표현’은 ‘잘못하다-죄송하다-미안하다’ 중 ‘죄송하다’의 비율(즉, 죄송하다-미안하다)을 통해 어휘 개별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과 표현’ 죄송하다와 미안하다는 모두 한자어인 만큼 격식성에 의한 어휘 선택이 일괄적으로 ‘고유어-한자어’의 대립으로 나뉘었다고 기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과’와 ‘혼동’ 표현의 어휘 개별적 차원뿐 아니라 격식성과 어휘 선택의 관계를 더 일반화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3) 격식성과 f0 실현

격식성에 따른 f0 실현 결과를 논하는 부분에서는 ‘스타벅스>친한 친구>남자친구 어머니=친구의 친구=면접’ 순으로 f0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규모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여성의 평균 음높이가 220Hz로 보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자가 친한 친구일 때의 음높이가 224Hz, 친구의 친구/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약 213Hz, 스타벅스가 235Hz 정도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화자간 기본 주파수 대역의 차이와 화자 내에서의 변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조건이다 여성의 기본주파수 대역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의 효과 크기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인지, 연구자께서 실험을 진행하실 때에는 연구대상자들이 의식적으로 음높이를 더 높게/낮게 조정한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지각적으로도 더 높게/낮게 들리셨는지 궁금합니다.

(4) 격식성의 음성적 실현에 대한 해석

이 연구에서는 “화자가 본인의 의사 혹은 대화 장면의 요구에 의해 어떤 정서적·대인적 태도를 드러내고 싶은지에 따라 음높이를 평상시에 비해 높거나 낮게 변화시킨다”라고 지적하며 진지함, 존중함, 엄격함, 정중함 등의 정서적·대인적 태도를 드러낼 때는 낮은 음높이를, 친절함, 친근함, 나긋나긋함 등의 정서적·대인적 태도를 드러낼 때는 높은 음높이를 사용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음높이로 실현된 ‘면접’, ‘친구의 친구’, ‘남자친구의 어머니’ 상황이 더욱 진지하고 엄격하며 정중한 태도로 실현되는 상황이라 해석되는데 이 장면을 모두 ‘진지하고 엄격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토론자의 직관으로는 이성 친구의 어머니에게 엄격하고 정중하게 대하기보다는 살가운 태도로 친근하게 대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으며, ‘친구의 친구’에도 엄격하고 정중한 태도로 임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색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H1-H2 차원에서 숨소리 발성을 ‘면접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문성과 정중함을 피력해야 하는 면접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일률적으로 격식적인 상황으로 묶어 범주적으로 실현된다고 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격식성의 어휘적 실현에 대한 해석

이 연구에서는 격식성을 ‘상황의 공식성’, ‘위계 측면의 거리’, ‘친밀도 측면의 거리’의 세 하위 항목을 통해 접근하고 있고, 각각의 대화 상황은 위 세 요소에 의해 서로 다르게 정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세 차원 중 하나, 혹은 세 차원중 둘 이상의 결합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자어’와 ‘화계 선택’은 주로 ‘공식성’에 의한 범주화를 보인다는 기술, ‘죄송하다’의 사용 비율은 ‘참여자 거리’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고 한 분석에는 토론자 또한 동의하면서도,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한 해석이 아닌 ‘공식성’, ‘위계’, ‘친밀도’ 중 결과와 가장 부합하는 요인을 가져와 해석하고 있다는 인상 역시 받았습니다. 또, 동일한 어휘 선택의 차원임에도 ‘한자어’와 ‘죄송하다’의 선택 양상이 서로 다른 요소에 주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자께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세우셨던 가설을 제시하여 주시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기대됩니다. 연구자께서 생각하셨던 격식성의 하위 요소와 음성적 실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